

事 業 報 告

REPORT ON ACTIVITIES

1979. 5. 11.

全國金屬勞動組合
KOREAN METAL WORKERS' UNION

1 9 7 8

事 業 報 告

REPORT ON ACTIVITIES

1979. 5. 11.



全國金屬勞動組合
KOREAN METAL WORKERS' UNION



금속노조가

정태암 작사
나규호 작곡

(씩씩하게 힘차게)



떠 오 르 는 태 - 양 의 이 상 을 안 고
비 - 지 람 기 용 광 로 흐 름 손 의 노 동 의 보 람
용 - 광 로 흐 름 손 의 노 동 의 보 람



선 언 강 령 구 현 위 해 문 친 우 리 - 들
하 언 - 늘 리 과 바 다 물 을 세 계 로 뻗 - 는
우 - 늘 리 과 바 다 물 을 세 계 로 뻗 - 는



거 - 칠 은 가 시 밭 길 꺾 어 넓 히
영 - 광 의 산 업 대 열 맥 바 리 손 뻗
찰 사 는 평 생 터 우 리 으 로
로



나 가 자 금 속 깃 발 강 - 철 의 대 열
" " " "



손 모 - 은 여섯 분 과 무 궁 한 길 을
일 모 - 는 교 류 하 는 국 제 유 대 로
뜻 모 - 는 투 혼 속 에 내 일 은 밝 다



정 의 의 사 회 퍼 갈 금 속 노 동 조 합
인 류 의 평 화 지 길 금 속 노 동 조 합
복 지 를 다 저 는 금 속 노 동 조 합

— 創造와 改善을 爲한 —

— 우리가 活動 主題는 —

우리들의 活動 主題들

18세기준최저임금선

6만 5천원으로

17개
산별

중, 조직성장 1위의 영광

1. 금강산 요구지

한미시티즌(주)은
불법행위를 추각 중지하라

78년 10월 10일

김병용 위원장

한글 전용이든가

백만불의 향상에

...의의 폭넓은
...하여 국제노
...발전시킨다

운동의 기초

1. 조직의 확대와 단결로써 대산불의 술기와 힘
2. 경영상의 적극추진으로 인사공통동맹정체도를 확보한다.

총계자료를 원비
노사교섭에 있어
매도로 우리
관한다.

서버행동

[illegible]

인간관계능력 48.7%

MF 랩헨총장 내한 교

महाराष्ट्र

지부및분회 활동소식

노사관계 근대화 추진

주변 기업을 위한 조립체리 고정

표정

正題

① 正題
② 正題
③ 正題
④ 正題
⑤ 正題
⑥ 正題
⑦ 正題
⑧ 正題
⑨ 正題
⑩ 正題
⑪ 正題
⑫ 正題
⑬ 正題
⑭ 正題
⑮ 正題
⑯ 正題
⑰ 正題
⑱ 正題
⑲ 正題
⑳ 正題
㉑ 正題
㉒ 正題
㉓ 正題
㉔ 正題
㉕ 正題
㉖ 正題
㉗ 正題
㉘ 正題
㉙ 正題
㉚ 正題
㉛ 正題
㉜ 正題
㉝ 正題
㉞ 正題
㉟ 正題
㊱ 正題
㊲ 正題
㊳ 正題
㊴ 正題
㊵ 正題
㊶ 正題
㊷ 正題
㊸ 正題
㊹ 正題
㊺ 正題
㊻ 正題
㊼ 正題
㊽ 正題
㊾ 正題
㊿ 正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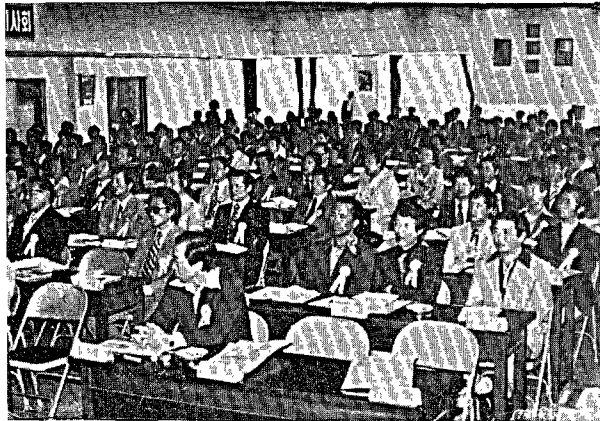
화보를 통한 한해의 발자취



78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김 병웅 위원장



「단결과 전진」을 상징하는 금속 노조기를 대의원들에게 흔들어 보이고 있는 김 병웅 위원장



78년도 본노조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한 전국 대의원들의 능률한 모습



78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본노조 파견대원들의 진지한 모습



제62차 중앙위원회 및 범근로자 저축 생활화 촉진
어사 7 인 승 〃 비요 〃 워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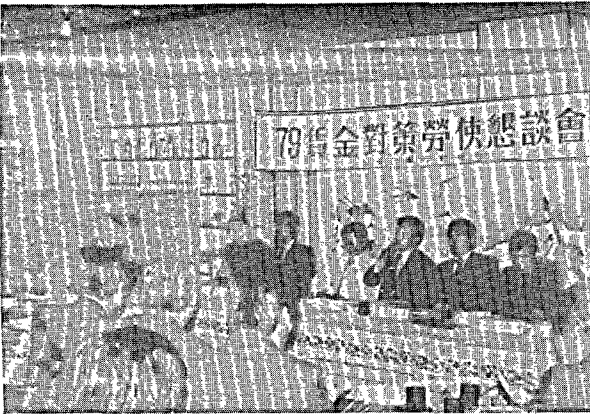
제 6 차 중앙 집행 위원회 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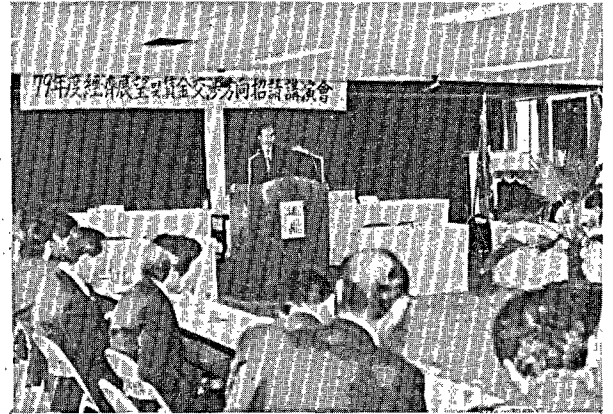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모범조합원 박 인상(우) 부산지부사무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김 병용 위원장(좌)



제24회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조합원에게 시상과 격려를 하고 있는 김 병용 위원장(중앙)



본노조 주최로 열린 노사간담회 광경(79. 1. 15)



본노조의 79년도 임금인상 요구지침에 따른 효과적인 교섭을 위하여 베풀어진 서울대 배 무기 교수의 「79년도 경제 전망과 임금교섭방안」 초청 강연회



제33회 노동절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베풀어진 본노조 산하의 산재환자를 위문하기 위해 대한 중기지부를 방문한 서재인 조직부장(중앙)



김 원규 국회의원(공화당)이 본노조를 방문하여 사업방침 및 현황을 청취한후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을 논의 하고 있다. (우측)



本勞組 婦女幹部座談會에서 인사말을 하는 金炳龍
委、(中央)



新規組織 한국아르오오즈支部 懸板을 지켜보고 있
는 本勞組 崔鐘圭 事務局長(右)



本勞組의 地域巡回幹部教育은 本
勞組와 支部(分會)와의 隔意없는
意思疎通을 위한 機會이기도 하
며 이날 熱辯으로 講演하는 崔
鐘圭 事務局長



第5回 婦女幹部教育受講을 위해
全國組織에서 派遣된 婦女幹部에
게 開會辭를 하는 金炳龍 委員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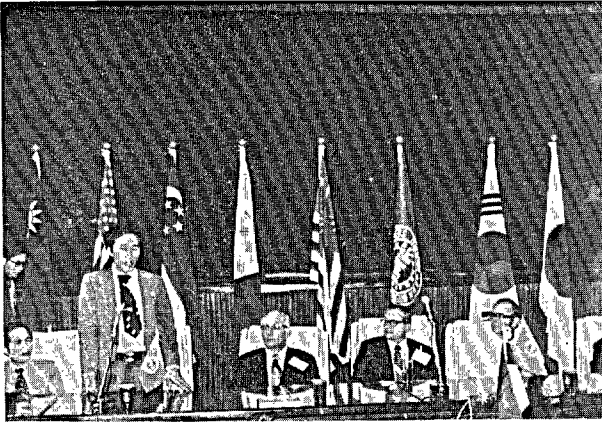
教育을 마치고 講師와 受講生이
어깨동무를 하며 단결과 前進를
다짐했다.



本勞組 第15回 幹部教育에 앞서 人事를 하는 三木
幸四郎 日本金屬勞協 (IMF-JC) 事務局次長. 이날
三木事務局次長은 IMF-JC의 賃金政策에 대하여
講義했다.



本勞組의 家族計劃事業의 하나로 推進된 視聽覺教
育場面.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IMF 중앙위원회에서 연설하는 김 병웅 위원장



본노조를 방문하여 국제교류에 대한 관심사를 협의 하고 있는 MF 본부의 허만레반 사무총장 (우측)과 일본금융노협 (IMF-JC)의 고지마 사무차장 (중앙)



미국 IAM (기계공노조) 국제담당 벤 샤만씨를 맞아 국제회의의 한국 개최에 대하여 협의하는 광경 (우측) 벤샤만과 라이언 AAFLI 한국 사무소장 (좌측)



제 4 회 IMF 아시아 지역회의에서 본노조의 활동사항을 보고 하는 김 병웅 위원장



○ 제 2 회 IMF 아시아 조선 세미나에서 의장을 맡은 팽종출 조공지부장 (좌)과 정학균 대동조선 부지부장 (우)



IMF 제 8 회 아시아 청부인 십포지움에 참석한 본노조 최종규 사무국장 (앞줄 우측)과 김 봉훈 웨어차일드지부장 (두번째), 이영순 콘트롤데이타지부장 (세번째)



○ IMF - 중화민국 노조간부 일행을 맞아 환영사를 하는 본노조 최종규 사무국장 (중앙)

任員・中執委員 및 部署長



副委員長 姜 俊 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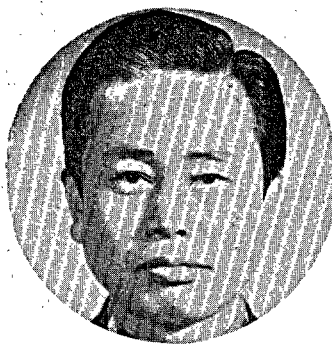
委員長 金 炳 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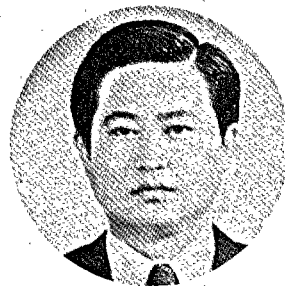
副委員長 鄭 滄 炅



副委員長 河 俊



事務局長 崔 鐘 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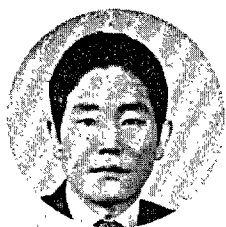
副委員長 韓 達 洙



會計監查員 鄭 南 洙
委



會計監查員 李 義 憲
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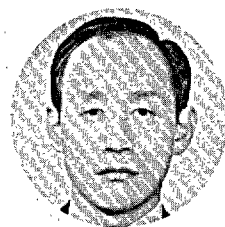
李 憲 求
中執委員
(企劃室長)



崔 正 元
中執委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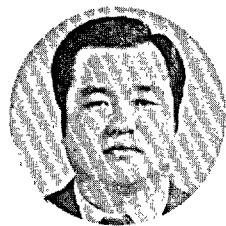
林 正 鉉
中執委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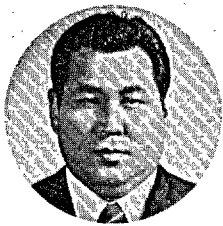
邊 始 鉉
中執委員
(總務部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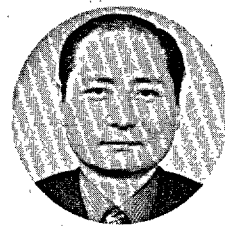
李 重 錫
中執委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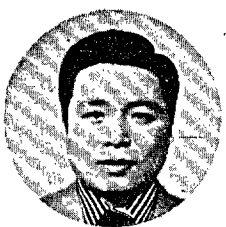
鄭 樂 均
中執委員



崔 成 贊
中執委員



徐 載 仁
中執委員
(組織部長)



崔 雄 吉
教育 部長
宣傳



金 將 鮮
法規 部長



李 尚 淑
爭議 部長
指導



金 柄 鎬
調查 部長
統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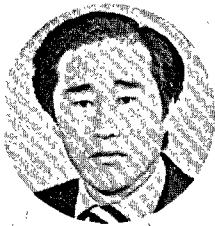


高 漢 星
國際 部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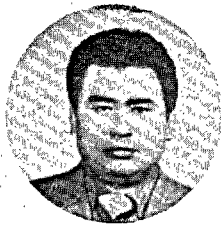


宣 順 福
婦女 部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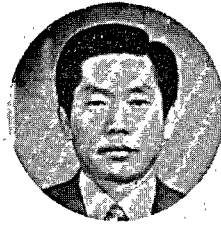
中 央 委 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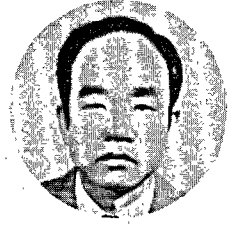
金 炳 龍
議 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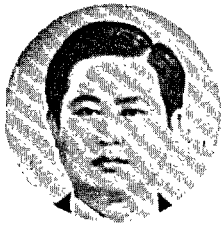
姜 俊 錫
副 議 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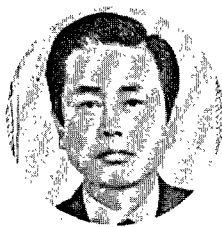
鄭 滄 貝
副 議 長



河 俊
副 議 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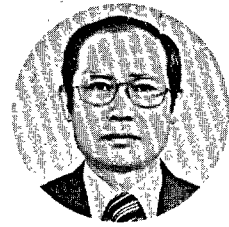
韓 達 洙
副 議 長



崔 鐘 圭
委 員



李 重 錫
委 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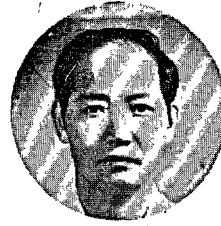
姜 錫 錄
委 員



趙 金 來
委 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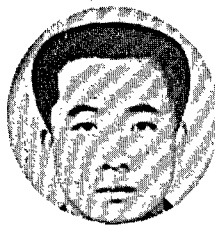
金 柄 鎬
委 員



鄭 龍 洛
委 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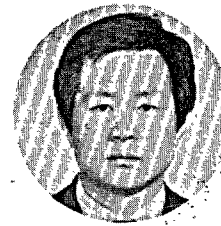
鄭 南 洙
委 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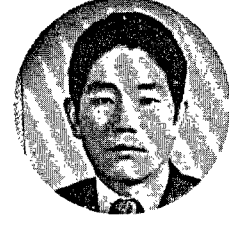
尹 奉 熙
委 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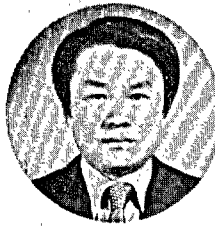
林 正 鉉
委 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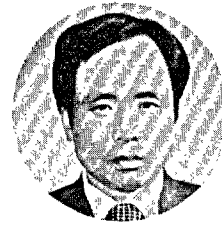
李 丙 憲
委 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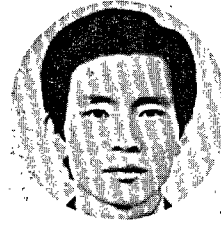
李 憲 求
委 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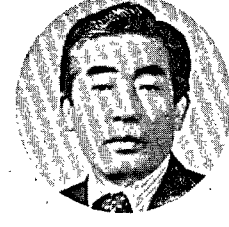
閔 正 植
委 員



金 載 煥
委 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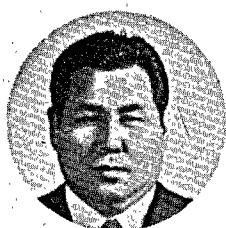
金 鳳 勲
委 員



彭 宗 苗
委 員



崔正元
委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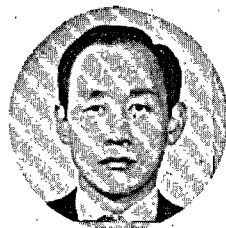
崔成贊
委員



李尚淑
委員



鄭樂均
委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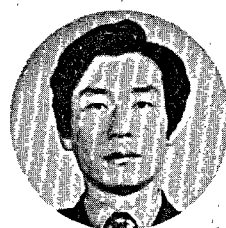
邊始鉉
委員



金点玉
委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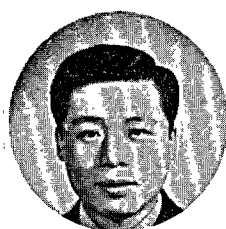
崔圭文
委員



崔璟九
委員



金性宝
委員



崔雄吉
委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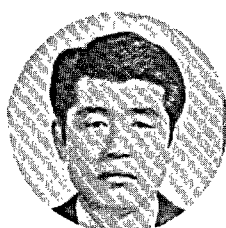
李修範
委員



盧泰云
委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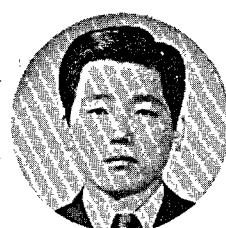
白順基
委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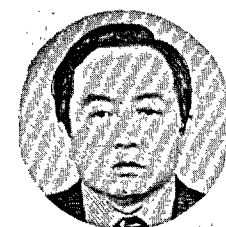
許成元
委員



林福熙
委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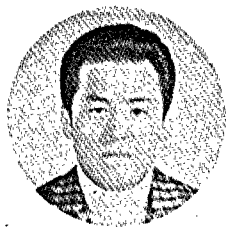
李鍾福
委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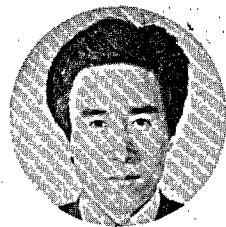
俞甲植
委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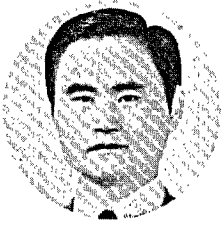
李英順
委員



張德五
委員



趙慶洙
委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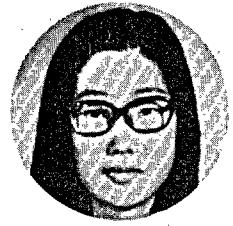
趙 允 植
委 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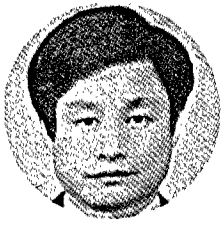
李 承 玉
委 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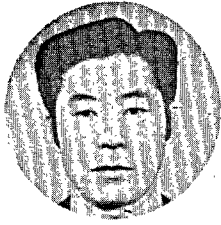
許 世 榮
委 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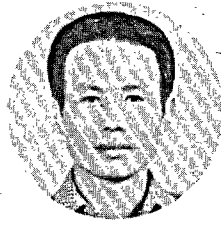
李 銀 子
委 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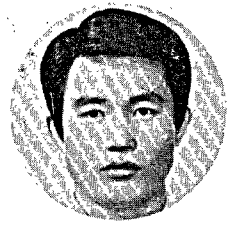
李 成 均
委 員



朴 基 植
委 員



孫 祥 太
委 員



李 俊
委 員

目 次

머 리 말	15
宣言, 綱領	16
沿 革	17
總 論	21
企劃活動	59
總務活動	97
組織活動	153
教育宣傳活動	199
法規活動	263
調查統計活動	295
國際活動	327
婦女活動	381
資 料 編	411

머 리 말

벌써 78年度の事業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本勞組의 健全한 發展을 위한 活動 諸分野의 計劃立案에 즈음하여 客觀的인 資料와 그 分析에 따른 現況에 대하여 충분한 認識이 必要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것은 더욱이 本勞組 運營自體만의 資料에 局限되는 것이 아니라 15萬 組合員에게 公表되며 또 15萬 組合員의 똑같은 認識의 基礎가 되는 것이 아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本勞組가 毎年 報告하는 이 『事業報告』書는 本勞組가 全國代議員大會로부터 受任한 事業計劃에 따라 한해동안 어떠한 方向으로 運動을 効率的으로 實踐, 展開해 왔으며 隨時로 일어나는 情勢變化의 方向舵로서의 各級 議決機關의 議決을 비롯하여 各部署別의 活動實績과 諸般問題點을 具體的인 資料와 더불어 報告하는 데에 그 目的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한해의 事業으로서는 例年定期的으로 實施되는 「團體協約締結및 遵法運動」 「婦女 및 年少勤勞者保護」 「産業安全・保健」 등의 活動에 이어 「汎勤勞者貯蓄生活化促進」과 10月の 「文化의 달, 文化의 날」 行事가 推進되어 많은 貯蓄生活化의 定着과 文化活動의 意識高揚에 이바지한바 있으며, 賃金과 勤勞條件의 向上을 위한 우리의 努力은 勞使交渉과 協議를 통한 各種 賃金隔差解消의 幅을 좁히는데 많은 進展을 보았으나 最低生計費의 確保에 있어서는 輸出드라이브政策에 의한 輸出第一主義가 數量的 擴大, 目標達成中心主義로 기울어져 企業에 대한 지나친 金融, 財政의 支援과 輸出赤字커버를 위한 內需에의 負擔 轉嫁 등이 國內物資供給能力不足, 物價高 등으로 나타나 甚한 赤字生計를 免치 못한 가운데 이러한 政策에 대한 根本的인 再檢討와 轉換을 要求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調査統計의 해”로 設定한바 대로 調査統計에 力點을 두었으며 이 報告書에는 收錄할 수 없어 別冊으로 펴낼 豫定입니다만 15萬 組合員의 勤勞條件實態가 集約될 것이며 아울러 國內外 金屬産業의 業種別 動向分析을 總論에 담아 앞으로의 展望에 이바지하고자 했으며 또 좀 늦은 感이 있으나 第24回 IMF世界大會의 決議文을 要約收錄한 것은 우리의 運動이 나날바 目標設定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確信합니다.

끝으로 이 報告書가 本勞組의 活動經過와 더불어 앞으로의 團結과 前進의 발판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그간의 勞苦도 헛되지 않으리라 생각하면서 全國 代議員여러분의 評價를 바라며 봄을 맞는 겨를도 없이 活動해 주신 여러 幹部와 任職員의 勞苦에 甚深한 謝意를 表합니다.

1979年 5月 11日

全國金屬勞動組合

委員長 金 炳 龍

宣言・綱領

宣 言

民族의 繁榮과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意志는 10月 維新으로 굳게 뭉쳤다.

國家産業의 根幹을 이룬 金屬産業 發展을 두 어깨에 매고 이에 從事하는 우리들은 一絲不亂한 維新體制를 確立하여 勤勞者의 生活 向上과 社會的 地位를 더 높이기 爲하여 前進 또 前進하련다.

우리 勤勞者는 鞏固한 團結力과 피끓는 同志愛로서 民主主義 諸原則下에 産業發展의 主導性을 確保하고 國家發展에 全力을 다하여 勤勞大衆의 福祉社會 建設을 이룩하고자 한다.

이제 金屬産業에 從事하는 우리 勤勞者들은 이 나라 온 國民의 注視와 關心속의 우리들의 鋼鐵 같은 同志의 結合體인 全國 金屬勞動組合으로 結束하여 國家 繁榮의 先頭에서 社會正義 實現에 果敢하게 前進하며 政治的, 經濟的 民主化의 實踐을 期하고 産業平和의 繼續的인 維持로 子孫 萬代의 榮光스러운 바탕을 마련하기 爲하여 勞動組合 發展에 매진할 것을 嚴肅히 宣言한다.

全 國 金 屬 勞 動 組 合

綱 領

- 一、우리는 勞動組合의 組織을 強化하여 10月 維新課業을 誠實히 遂行하고 祖國의 繁榮과 民主的 統一의 先鋒이 된다.
- 二、우리는 偏派性 없는 政治活動에 參與하고 民主勞動運動의 發展을 期한다.
- 三、우리는 鞏固한 團結로서 勤勞者의 地位向上과 國民의 生活安定을 爲한 福祉國家 實現을 期한다.
- 四、우리는 健全한 勤勞情神으로서 組合員의 總意와 力量을 集中하여 經營의 合理化와 産業의 民主化를 期한다.
- 五、우리는 勤勞者의 教育訓練과 文化向上의 強力한 實踐을 期한다.
- 六、우리는 民主友邦의 勤勞者와 國際的 紐帶를 強化하여 世界平和에 貢獻한다.

全 國 金 屬 勞 動 組 合

沿 革

西紀 1959年 3月 全國金屬勞動組合聯盟이 釜山地區 鐵工勞動組合을 主體로 하여 誕生하였으나 全國的인 規模를 갖추지 못하고 새로운 轉機를 模索하여 오던中 西紀 1960年 10月 大韓造船公社를 主軸으로 한 韓國金屬勞動組合聯盟을 結成하여 事實上 第2勞組로 登場하게 되어 緊要한 總團結 課題는 混迷狀態에 이르게 되어 當時 勞聯에서는 또 다시 西紀 1960年 10월에 仁川重工業會社를 主軸으로 한 이른바 全國鐵鋼勞動組合聯盟 結成準備委員會를 構成하여 第3勞組가 登場하는 過程에 處하여 오던 中 1961年 5月 16日 軍事革命으로 因하여 勞動團體가 解體되고 同年 8月 3日 公布된 法律 第672號에 依하여 單一產業別 體系인 全國金屬勞動組合이 全國的인 規模를 갖추고 結成되어 現在 健全한 發展을 거듭하고 있다.

1. 1959年 3月

全國金屬勞動組合聯盟結成

委員長 柳 益 培

副委員長 韓 承 龍 李 元 錫

2. 1960年 10月

韓國金屬勞動組合聯盟結成

委員長 林 漢 植

副委員長 金 仕 郁

3. 1960年 10月

全國鐵鋼勞動組合

準備委員長 林 漢 植

準備副委員長 宋 榮 俊 金 在 範

4. 1961年 8月 25日

全國金屬勞動組合結成

委員長 池 淵 日 (仁川重工業)

副委員長 金 在 範 (大韓重機)

副委員長 李 秀 永 (三陽產業)

副委員長 李 鈴 (金泉鐵工)

事務局長 朴 鍾 晁 (三成機械)

5. 1962年 7月 5日

全國金屬勞動組合 第2次 全國代議員大會

※ 變動事項 없음

6. 1963年 4月 12日

全國金屬勞動組合 第3次 全國代議員大會 (臨時大會)

委員長	朴 鍾 晁	(三成機械)
副委員長	柳 貴 馨	(韓國電力機械)
副委員長	李 秀 永	(三陽產業)
副委員長	權 鍾 五	(韓國機械)
事務局長	金 得 成	(起亞產業)

7. 1964年 4月 30日

全國金屬勞動組合 第4次 全國代議員大會

委員長	朴 鍾 晁	(三成機械)
副委員長	柳 貴 馨	(韓國電力機械)
副委員長	朴 世 天	(韓國機械)
副委員長	崔 鐘 圭	(金星社)
事務局長	金 得 成	(起亞產業)

8. 1965年 4月 30日

全國金屬勞動組合 第5次 全國代議員大會

委員長	朴 鍾 晁	(三成機械)
副委員長	崔 鐘 圭	(金星社)
副委員長	李 命 求	(仁川鋼業)
副委員長	張 東 燦	(仁川重工業)
事務局長	李 健 性	(仁川重工業)

9. 1966年 1月 8日

全國金屬勞動組合 第6次 全國代議員大會

委員長	朴 世 天	(韓國機械)
副委員長	崔 鐘 圭	(金星社)
副委員長	金 炳 龍	(起亞產業)
副委員長	林 鍾 宣	(韓國工業)
事務局長	許 萬 成	(仁川重工業)

10. 1967年 4月 27日

全國金屬勞動組合 第7次 全國代議員大會

委員長	朴 世 天	(韓國機械)
副委員長	崔 鐘 圭	(金星社)
副委員長	金 炳 龍	(起亞產業)
副委員長	李 熙 鎔	(仁川重工業)
事務局長	洪 淳 模	(一進機械)

11. 1968年 4月 30日

全國金屬勞動組合 第8次 全國代議員大會

※ 變動事項 없음

12. 1968年 9月 26日

全國金屬勞動組合 臨時全國代議員大會

委員長	金炳龍	(起亞產業)
副委員長	崔鐘圭	(金星社)
副委員長	李成學	(朝鮮企業)
副委員長	文益模	(利川電機)
副委員長	李奎雲	(奉信鑄物)
副委員長	姜俊錫	(韓國베아링)
事務局長	李澤龍	(仁川重工業)

13. 1969年 4月 29日

全國金屬勞動組合 第9次 全國代議員大會

委員長	金炳龍	(起亞產業)
副委員長	文益模	(利川電機)
副委員長	李奎雲	(奉信鑄物)
副委員長	姜俊錫	(韓國베아링)
副委員長	許在業	(大韓造船公社) (補選)
副委員長	姜基泰	(金星社) (補選)
事務局長	李憲求	(韓國機械) (補選)

14. 1970年 4月 30日

全國金屬勞動組合 第10次 全國代議員大會

委員長	金炳龍	(起亞產業)
副委員長	姜基泰	(金星社)
副委員長	鄭南洙	(造船支部)
副委員長	河俊	(朝鮮企業)
副委員長	李牛年	(韓國機械)
事務局長	崔鐘圭	(金星社)

15. 1971年 4月 16日

全國金屬勞動組合 第11次 全國代議員大會

委員長	金炳龍	(起亞產業)
副委員長	鄭南洙	(造船支部)
副委員長	河俊	(朝鮮企業)
副委員長	文益模	(利川電機) (補選)

16. 1972年 4月 28日

全國金屬勞動組合 第12次 全國代議員大會

※ 變動事項 없음

17. 1973年 4月 25日

全國金屬勞動組合 第13次 全國代議員大會

委員長	金炳龍	(起亞產業)
副委員長	文益模	(利川電機)
副委員長	姜俊錫	(韓國배아링)
副委員長	鄭滄炅	(金星社)
副委員長	韓達洙	(大韓電線)
副委員長	彭宗茁	(大韓造船公社)
副委員長	金正培	(大韓重機)
事務局長	崔鐘圭	(金星社)
企劃室長	李憲求	(韓國機械)

18. 1974年 4月 30日

全國金屬勞動組合 第14次 全國代議員大會

※ 變動事項 없음

19. 1975年 4月 23日

全國金屬勞動組合 第15次 全國代議員大會

※ 變動事項 없음

20. 1976年 4月 21日

全國金屬勞動組合 第16次 全國代議員大會

委員長	金炳龍	(起亞產業)
副委員長	姜俊錫	(韓國배아링)
副委員長	鄭滄炅	(金星社)
副委員長	河俊	(勝利機械)
副委員長	韓達洙	(大韓電線)
事務局長	崔鐘圭	(金星社)
企劃室長	李憲求	(大宇重工業)

21. 1977年 4月 27日

全國金屬勞動組合 第17次 全國代議員大會

※ 變動事項 없음

22. 1978年 5月 20日

全國金屬勞動組合 第18次 全國代議員大會

※ 變動事項 없음

總

論

|||||

內

容

概 要

I. 國際經濟

1. 動向 및 展望
2. 金屬産業의 動向과 展望
 - 1) 鐵鋼工業
 - 2) 造船工業
 - 3) 自動車工業
 - 4) 電子工業
3. 國際勞動運動의 動向

II. 國內經濟

1. 動向과 展望
2. 金屬産業의 動向과 展望
 - 1) 鐵鋼工業
 - 2) 造船工業
 - 3) 自動車工業
 - 4) 電機電子工業
 - 5) 機械金屬工業

I . 国 際 經 濟

1 . 動 向 및 展 望

78 年度의 世界經濟成長率은 4.4 %로 추정되어 前年度의 4.4 %와 같은 成長率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몇 개의 經濟圈으로 나누어 보면, 先進國의 經濟기구인 國際經濟協力開發機構 (OECD)가 3.6 %로 前年度에 비해 0.2 % 포인트가 하락을 보였고 開發途上國이 4.8 %로 전년에 비해 0.2 % 포인트의 下落을 보인 반면 共產圈은 6.1 %로 0.4 % 포인트의 上昇을 보이고 있다. OECD 諸國의 下落은 미국의 經濟成長率이 77 年 4.9 %에서 78 年 3.8 %로 下落한데 基因하고 開發途上國의 성장둔화는 산유국의 經濟가 달러화 下落, 油價凍結, 석유감산으로 77 年 6.3 %에서 78 年 2.5 %로 급격히 下落한데 基因한다. 한편 世界의 각 예측기관에 의하면 79 년도의 經濟成長率은 78 年度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4.1 % 成長을 展望하고 있다.

이 예측은 開發途上國이 4.8 %에서 5.0 %로, 共產圈이 6.1 %서 6.6 %로 上昇하지만 OECD 諸國이 3.6 %에서 3.1 %로 經濟가 하강하리라는 데 의거하고 있다.

OECD 國家 中에서도 프랑스, 西獨 등의 EC 諸國의 經濟는 成長할 것으로 예측되고 美國, 日本 등의 成長은 下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開發途上國의 上향추세는 산유국이 78 년도 2.5 %에

서 79년도 4.9%로 급성장하리라는데 의거하고 있다.

<표 1> 經濟成長率推移 및 展望

單位：前期比，%

	1960-70	1976	1977	1978	1979
세 계	5.2	4.9	4.4	4.4	4.1
O E C D	4.9	5.2	3.8	3.6	3.1
미 국	4.1	6.0	4.9	3.8	2.3
일 본	11.0	6.0	5.1	5.5	5.0
서 독	4.9	5.7	2.6	3.0	3.5
프 랑 스	5.8	4.6	3.0	3.0	3.5
영 국	3.1	2.3	0.7	3.0	2.7
이 탈 리 아	5.5	5.7	1.7	2.5	3.5
캐 나 다	5.0	5.5	2.6	4.0	3.6
개발도상국	5.1	5.3	5.0	4.8	5.0
산 유 국	5.3	12.9	6.3	2.5	4.9
비 산 유 국	5.1	4.8	4.9	5.0	5.0
신흥공업국	8.3	5.4	5.1	5.5	6.0
공 산 권	6.7	3.8	5.7	6.1	6.6

자료：IMF, Annual Report, Aug. 1978.

UN, The Second United Nations Development Decade, 1974

一般的으로 지금까지의 추세를 볼 때 50年代와 60年代를 통해 美国의 상대적 우위가 약화되어 왔고 산유국 및 開發途上國의 經濟가 成長해 왔다. 이들은 개별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상호 관련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OECD諸國중 EC諸國 및 日本의 생산력 發展이 현격히 이루어져 美国의 우위가 위태롭게 되었다는 점이다.

美国의 우위를 배경으로 成立되었던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國際通貨体制가 美国의 우위가 약화됨에 따라 흔들리게 된 것이다.

美国의 수입초과로 미국은 70年初에 달러화의 금태환동결 조치를 취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한편 美国은 政治적으로도 자유우방국의 경찰국가로서의 그것의 역할을 후퇴시키고 있다.

둘째 先進國의 企業이 相對적으로 높은 人件費와 利潤率低下, 공해에 대한 規制, 투자영역의 축소, 생산입지상의 합리성 등의 이유로 다국적기업으로서 해외에 진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先進國내의 經濟成長을 그만큼 줄이는 반면 開發途上國의 經濟를 상당한 정도로 增大시키며 다국적 企業의 역수출은 先進國의 輸入을 增大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先進國의 經濟成長이 둔화된다고 해서 그나라 기업들의 형편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다.

셋째 제3세계의 經濟的, 政治的 獨立이 增大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서 先進國의 海外市場이 줄어들 수 있고 先進國의 투자영역이 줄어들 수 있으며 기존에 진출한 先進

國의 企業들이 第3世界의 獨立으로 既存의 利權을 잃게 되는 것이다. 산유국의 석유 국유화조치 추세는 產油國의 經濟를 成長시키는 반면 先進國의 經濟를 곤궁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다.

넷째 公産權의 擴大이다. 이는 자유무방의 商品市場 및 투자영역을 축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利潤과 賃金간에는 대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成長에 대한 要求와 복지에 對한 要求가 대립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결국 成長하려는 國家나 企業의 의지가 이러한 條件들을 이용하면서 進行되리라는 것은 당연하다. 產油國의 석유무기화론에 대해 OECD國의 자원무기화론이 그것이고 韓國, 臺灣, 홍콩, 싱가포르, 멕시코, 브라질 등 소위 신흥공업국(NIC)에 대한 輸入制限措置 方向이 그것이고 中共과 美國의 수교가 그것이다. 또 先進國內의 인플레이 抑制를 위한 所得政策(賃金과 物價의 동시 동결)도 그것이다. 美國과 中共의 수교, 이란의 새로운 개편 등은 앞으로의 國際經濟에서 간과할 수 없는 점들이다.

貿易의 側面에서 볼 때 78年은 OECD에 있어 貿易赤字를 크게 縮少시키는 한해였다. 77년에 320億弗이었던 貿易赤字가 78年엔 13億弗로 줄어들었다. 이는 주로 原油輸入의 減少와 石油價格의 安定에 基因하는 것이다. 即 OECD의 貿易赤字가 縮少되었다는 것은 產油國의 貿易黒字가 縮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77年度 產油國의 貿易黒字가 340億弗이었던 것이 78年엔 150億弗로 줄어

들었다. 그러나 같은 OECD 국가라 하더라도 美国의 境遇는 貿易赤字가 77年 312億弗에서 78年 350億弗로 擴大된 반면 日本의 境遇엔 貿易黒字가 77年 175億弗에서 78年 3220億弗로 增大되고 O.C의 경우 貿易黒字가 77年 92億弗에서 78年 150億弗로 늘어난다. 先進國間의 이러한 貿易의 不均衡은 새로운 보호주의를 야기하고 있다. 즉 미국의 鉄綱 발동가격제(일정가격 以下の 輸入品에 대해서 關稅장벽을 쌓는 제도), O.C의 기초가격제(價格 및 物量制限), 미국의 日本 칼라 TV수출수량제한 등이 그것이다.

한편 非産油 開發途上國의 貿易 적자폭은 더욱 擴大를 보이고 있다. 77年度 赤字가 265億弗인데 대해 78年度에는 350億弗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는 交易조건的 惡化와 開發途上國의 플란트수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79年度엔 原油價格의 引上(78年12月17日 O.P.E.C 總會에서는 石油價格을 4단계로 나누어 年平均 10%의 價格引上을 하기로 決定한 바 있다)으로 産油國의 貿易黒字가 增大될 것으로 예상되어(78年 150億弗의 黒字에서 79年 170億弗로) OECD의 赤字폭은 더욱 擴大될 것으로 豫想된다. 그러나 先進國間에는 貿易의 不均衡이 縮少될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은 赤字가 350→250億弗로 O.C는 黒字가 150億弗→120億弗로 日本도 黒字가 220億弗→150億弗로 각기 적자 및 黒字의 縮少를 보일 것으로 豫想된다. 그러나 비산유개발도상국의 경우엔 貿易赤字가 78年 350億弗에서 79年 400億弗로 繼續 擴大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79年度에 우리가 어느정도 輸出増加를 달성할 수 있는냐는 海外市場의 輸入需要가 어느 정도 증가를 하고 그 증가된 수입 수요중 우리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즉 우리 商品에 대해 어느 정도 문호를 개방해 주느냐와 우리 商品이 어느 정도 海外市場에서 매력에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우리가 수출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미국과 日本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79年度에 수입수요가 78年 7.0 %에서 3.5 %로 減少를 보이고 日本의 境遇에는 78年 5.0 %에서 7.5 %로 増加를 보일 것으로 豫想된다. 그러나 日本과 美国에 대해서는 이들 國家가 中共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므로 中共이 새로운 競争者로 부각되리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얘기한 바 있다.

그러나 EC 및 產油國의 수입수요는 増加될 것으로 豫想되어 이 분야에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지만 급격한 증대는 예상하기 어렵다.

우리가 우리를 중진국으로 부르고 있듯이 선진국도 또한 우리를 중진국, 즉 신흥공업국(NIC)으로 불러주고 있다. 겉으로 는 우리의 발전을 찬양하는 概念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이들 신흥공업국의 輸出商品에 對한 장벽을 쌓기 위한 구실로서 만들어낸 용어인 것이다.

79年度 國際貿易에 있어 작용하리라 예상되는 힘은 선진국 상호간의 보호주의 강화, 신흥공업국에 대한 先進國의 경제 강화,

中共의 進出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先進國은 新興공업국에 대해 G S P (일반무역 호혜제도) 授惠 範圍를 縮少하거나 適用을 배제하려 하고 있고 新興공업국에 대한 자본 및 技術輸出을 先進國에 競争이 되지 않는 品目으로 한정하려 하고 있으며 新興공업국의 製品輸出을 관세장벽이나 수량할당 등으로 制限하려 하고 있다.

한편 방대한 中共市場을 노리는 先進國은 中共에 對해서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先進國은 대공산권 수출조정 위원회의 制限品目 리스트를 완화하고 있고 F O C는 中共의 輸出品目에 대해 거의 무제한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며 美國과 日本은 國交를 正常化했다. 또한 日本, F O C諸國은 中共과 장기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이러한 先進國의 中共에 대한 우호적인 態度는 中共의 工業, 農業, 國防, 科學技術에 대한 現代化政策이 先進國製品 및 資本에 대해 市場을 넓혀주리라는 점에 있다. 즉 中共의 現代化가 완수되면 消滅될 수 있는 要因인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우리에게 미치는 影響은 3 가지 점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中共의 商品 즉 纖維類 및 가전제품 등의 품목이 先進國의 우호적 態度下에서 先進國으로 進出함에 따라 우리의 海外市場이 縮少되리라는 점과 둘째 中共의 現代化가 완수되면 生産性에 있어 우리와 競争이 될 수 있으리라는 점과 셋째 中共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가 中共에의 발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國際經濟에 있어 우리의 經濟에 重大한 影響을 주는 또 하나의 요소는 資源이다. 石油價格은 78年末에 대한 79年 末의 價格이

14.5 %인상될 展望이다. 產油国会議는 79年度 1月1日 以後 매 분기당 공식판매가격을 아라비안라이트 API 34도 基準으로 13.335 달러 (5 %인상) 13.843 달러 (3.809 %引上) , 14.161 달러 (2,294 %引上) , 14,542 달러 (2,691 %引上) 로 결정한 바 있다.

79年度 石油需給에 있어서는 自由世界の 생산이 1일 5,300 만 배럴 내지 5,500 만배럴로 예상되고 自由世界の 消費가 1日 5,250 만 배럴내지 5,410 만배럴로 , 공급과잉이 豫想되고 있다. 한편 멕시코의 대유전 발견 , 소련 , 中共의 石油開發 本格化로 石油不足위기는 80年代 末로 미루어질 展望이다. 穀物은 세계적인 大豊으로 供給不足은 없을 것이나 中共의 輸入増大 , 穀物備縮을 위한 수요 증대 등으로 가격은 보합세 내지 약간의 등귀를 보일 전망이다.

非鉄金属의 境遇는 生産이 減少하고 비축분이 작아 價格上昇幅이 클 것으로 展望된다. 食料品은 78년에 9 %가 떨어진데 대해 79年度엔 5 %가 上昇할 豫定이고 工業用 農産物은 78년에 5 %가 引上된데 대해 79年度엔 8 %가 引上될 展望이고 鉱山物은 78년에 2 %가 오른데 대해 79年度엔 10 %가 引上될 豫定이다.

1次 商品全体로 볼 때 78년엔 4 %가 떨어진데 대해 79年度엔 7 %가 上昇될 展望이다. 많은 資源을 수입수요에 依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資源價格의 上昇은 우리나라의 物価를 上昇시키는 要因으로 나타날 것이다.

2. 금속산업의 동향과 전망

1) 鐵鋼工業

鐵鋼工業은 建設, 金屬機械, 조선, 자동차, 가전기기 등의 기초소재 供給産業으로 鐵鋼의 需給은 이들 産業의 成長에 重要的 意味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鐵鋼에 對한 需要는 이들 産業의 成長에 依存한다. 그러나 鐵鋼材는 내구재이므로 일단 需要가 있는 후에는 새로운 經濟成長이 있거나 혹은 機械가 需기되거나 더욱 고도의 機械가 도입될 때까지는 需要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

自由世界の 鐵鋼産業은 73年, 74年을 정점으로 不況에 빠지게 된다. 75年~77年에는 不況이 극심해서 가동율은 60~70%로 떨어지게 된다. 78년에는 消費需要増大(77年 2.7% → 78年 3.5%)로 가동율이 미국의 경우 90%, 캐나다 95%, EC 85%, 일본 70% 수준으로 日本의 경우가 더 減少한 것을 除外하면 약간의 회복의 양상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基本的으로 아직 不況의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중진철강국의 進出에 따라 先進國의 生産은 감산을 하고 많은 失業者를 發生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조치로 先進國은 美國의 境遇 발동가격제도를 도입해서 수입 최저가격을 설정했고 EC는 基礎價格制를 導入해 價格 및 物量을 制限했으며 OECD는 78年 10월 27일 國際鐵鋼委員會(ISC)를 發足해 價格 및 生産카르텔 형성, 시장분할의 方向을 向해서 나가고 있다. 開發途上國의 鐵鋼生産 및 消費増加는 先進國 및 公産權의 2배에 이르러 旺盛한 生産

및 消費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不況은 79年度에도 繼續될 것으로 豫想되며 (78年 3.5% 増加 → 79年 1.9%) 80年 이후라야 풀릴것으로 展望된다.

수요측면에서 볼 때 美國의 境遇 0.9~0.3%의 鉄鋼需安 減少가 豫想되며 EC와 日本은 前年度와 同一한 水準을 보일 것으로 豫想된다. 이러한 先進國과는 달리 開發途上國은 4.8%의 需要増大를 보일 것으로 展望되며 90年代에 이르면 世界鉄鋼消費의 30%線에 이를 것으로 豫想된다.

2) 造船業

造船業은 巨大한 資金이 所要되는 綜合機械工業으로 산업연관효과가 크며 勞動集約的이어서 고용효과가 크다. 따라서 진조기간이 길면 길수록 資金의 회전이 느리다는 經營上의 難點이 있고 내구재이므로 産業의 繼統的 가동이 어려워 고용효과가 큰 만큼 고용불안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造船業은 輸送量의 増大, 내구기간, 기술혁신 등에 따라 그 成長이 결정되고 輸送量은 生産増大, 交易의 増大에 따라 決定될 것이다.

現在 世界造船市場의 80% 以上을 日本과 OECD가 占有하고 있고 73年, 74年을 정점으로 毎年 50% 以上씩 減少하는 극심한 不況狀態를 보여주고 있다.

新造船 受注量 推移

단위 : 萬 G/T

		1976	受注残量 ³⁾	1977	受注残量	1978 ²⁾	受注残量
国別	日 本	725	35.9 %	578	31.9 %	217	25.6 %
	O E C D	236	49.6 %	220	49.2 %	149	47.1 %
	其 他	336	15.5 %	311	17.4 %	180	25.3 %
	(韓 国)	(32)	(1.9)%	(63)	(3.0) %	(22.4)	(3.3) %
	總 計	1,297	7.478	1,109	5,142	543	3,344
船別	TANKER	100		190		155	
	DRY CARGO	1,197		919		390	

註 : 1) 各年度末 基準임

2) 78 年 2 ~ 10 月 까지의 新造船 受注量임

3.) 受注残量은 各年 3 月末基準의 残量이며, 国別은 比重(%)을 表示하고 總計는 G/T임.

資料 : World Ships on Order 및 AP-DJ.

主要 先進造船 国의 施設減縮 (日本 35 % , E C 50 %) 으로 造船分野 勤勞者들은 減員되고 있다. 日本의 境遇 20 % , 유럽의 경우 30 %가 減員되는 심각한 사태를 보여주고 있다. 海上輸送量이 73 年부터 77 年까지 5 年동안 15.5 % 增加했음에도 이러한 不

況이 나타나는 것은 船腹量의 過剩, 遊休船腹增加에 의한 것이다.

先進國은 이러한 不況을 타개하기 위해 造船工業의 構造再編成을 하고 있고 새로운 船種開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先進國 政府는 自國船을 自國 造船業이 건조토록 하고 있고 (이 境遇 유럽은 5~10%의 補助金支援) 日本의 境遇는 매년 100萬톤씩 計劃生産을 하고 있으며 연불수출에 대한 金融支援을 하고 있다. 現在의 世界船腹量으로 보아 탱크부문이 20% 過剩이다. 현재의 受注量이 적어 이러한 不況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油類船舶의 大部分이 5萬DWT級 이상이고 소형선의 경우 가동율이 거의 100%에 가까와 79年度엔 소형선박의 건조가 주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볼 때 유조선의 需給均衡始點이 82~85年, 비유조선의 그것이 81~85年일 것으로 展望되어 造船工業의 不況은 적어도 80年代 中半까지 갈 것으로 豫測되나 컨테이너 船腹의 生産 (80년에는 現在의 30% 增加가 豫想됨) 小型船舶 건조로 勞動力이 저렴한 일부 國家에서는 生産이 繼續 維持될 것으로 보인다.

80年代 초까지는 開發途上國과 共產圈이 1/3 이상을 占有하리라 展望된다.

3) 自動車工業

現在 先進圈이 世界市場의 80% 이상을 占有하고 있는 自動車工業은 近來에 들어 그 성장세가 점점 둔화되고 있다. (표참조)

自動車販売推移 1)

単位：萬臺

	1976	乗用車	1977	乗用車	1978	乗用車	1979	乗用車
先進圏	3,380	2,587	3,611 (6.8)	2,740	3,690 (2.2)	2,810	3,720 (0.8)	2,860
開途国	159	91	152 (-4.4)	87	155 (2.0)	91	165 (6.5)	97
共產圏	310	206	314 (1.3)	219	320 (1.9)	232	330 (3.1)	240
世 界	3,849	2,884	4,077 (5.9)	3,046	3,046 (2.2)	3,133	4,215 (1.2)	3,197

註：1) 世界25個 自動車生産国家를 対象으로 한것임

2)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인도의 計

3) ()안은 伸張率(%)을 나타낸 것임

資料：日本自動車工業年鑑 및 AP-DJ

승용차의 境遇 에너지 政策 및 공해방지정책으로 대형차량에서 소형차량으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무거운 차에서 가벼운 차로 바뀌어 가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성향은 美国에 있어 특히 強하다. 国家別 동향을 보면 美国의 境遇는 海外 자회사에 의한 生産을 增大시키고 있고 美国市場에의 日本自動車의 進出을 막기 위해 (日本은 美国 輸入車輛의 12.4%를 차지하고 있음) 2중價格制를 채택하고 있다. 79年度엔 경기후퇴로 승용

차수요가 4~7% 減少할 것으로 豫想되며 貨物車와 버스의 需要는 78年度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日本市場에 進出하기 위해 日本과의 合作 및 技術提携를 積極적으로 推進하고 있다.

日本の 境遇는 對外的 輸入制限措置에 直面하고 있고 英화의 高 평가로 競争力の 弱화에 直面하고 있다. 이에 따라 79年度에 4.5%(78年 12.5%)의 낮은 판매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豫想된다. 反面에 外國車에 對한 소비 선호가 79年엔 約 50%(78年엔 30%) 增加할 것으로 보이며 中東地域에 進出하기 위한 勞力이 輕주되고 있다. EC제국의 경우는 美國 및 日本에 對항키 위해 政府의 支援을 받아 生産性 提高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自動車産業의 再編成을 꾀하고 있다. 그에 따라 카르텔형성, 합병등이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79年度에 5% 程度의 판매증대를 達成할 것으로 보이며 英國은 78年度 水準, 西獨은 2%의 增加를 보일 것으로 展望된다. 한편 中남미, 미국, 中東 등에 對거 進出해 現地生産을 도모하고 있으며 앞으로 5年内에 그 投資額이 300億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開發途上國은 自國 需要增大 및 판매증가를 위해 勞力을 하고 있고 79年엔 6%이상의 販賣增加를 보일 것으로 豫想된다.

4) 전자공업

전자공업은 勞動集約的 資源節約型 産業이며 또한 에너지節約 비공해 산업이다. 또한 工程의 自動化추세에 따라 전자공업의 重要性은 産業發展에 따라 더 커져가고 있다. 特히 産業用電子機器와

電子部品工業의 發展은 技術革新에 重要的 의미를 가지고 있다 (美國의 境遇 産業用이 67%)。現在 世界의 電子工業은 北美, 유럽, 日本 및 韓國, 臺灣, 홍콩, 싱가포르 등지에서 주로 발전되고 있고 先進圈이 世界全体的 90%를 차지하고 있다. 전자공업의 동향을 국별로 보면 美國의 境遇 76年以後 電子製品販賣의 급증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연관산업의 전자화가 급진적으로 발전됨에 따라 나타난 수요증대에 의한 것이다. 또한 製品의 小型化, 고성능화에 따른 민생용 전자제품에 대한 需要가 증대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産業用 電子製品은 日本의 도전으로 美國의 販賣市場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정보, 軍需用品, 우주개발 등을 위한 제품개발에 있어 고도의 發展을 보이고 있다. 79年度에는 경기후퇴로 민생용 전자제품에 대한 需要가 減少될 것으로 豫想되며 産業用機器 및 軍事 정보용 電子機器에 대한 開發이 大幅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 경우는 76年以後 74年の 不況에서 점차 빠져나오게 된다. 이는 정부의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 현재로는 자체의 技術開發을 위해 勞力하고 있다. 79年度에는 産業用品, 특히 미니 컴퓨터 및 마이크로 프로세서 관련기기 의 생산 및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豫想된다 (80년에는 78年の 2배로 증가할 것이 豫想됨), 日本의 境遇는 産業用 電子機器의 技術革新에 注力하고 있고 海外市場에 進出하기 위해 勞力하고 있다. 政府도 이를 大幅 支援하고 있다. 開發途上國의 境遇는 내수보다는 수출위주로 전자산업을 發展시키고 있다.

技術水準은 낮으나 저렴한 勞動力을 바탕으로 주로 민생용 전자 제품을 生産하고 있고 독자적인 생산을 위해 勞力하고 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이 새로히 전자공업육성에 힘 쓸것으로 내다보여 동남아제국간의 競爭이 예상되고 있다.

3. 國際勞動運動의 동향

IMF를 中心으로 한 勞動運動이 모든 勞動運動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IMF의 운동을 中心으로 하여 볼 때 78年度の 主要運動기조는 실업문제, 다국적기업 통제문제, 제3세계의 노동조합권문제, 산업재해문제였다. 이 中에서도 特別히 重点이 놓여진 것은 실업문제와 다국적기업통제문제였다.

앞서 經濟動向에서도 본바와같이 先進國經濟는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特別히 鉄鋼, 造船業種의 不況은 극심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실업문제가 취급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IMF는 실업의 要因을 세가지 點에서 생각하고 있다. 하나는 産業의 고도화에 따른 실업이다. 即 産業의 전자화로 必要勞動力이 節約되어 실업자를 뱉아내게 되는 것이다. 産業의 고도화에는 企業家의 費用이 다르지만 세가지 點에서 企業家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時間이 감에 따라 産業은 고도화의 추세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세가지 點이란 産業의 高度化로 企業의 人件費가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그 企業은 다른 企業과의 競爭에 있어 더욱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실업자가 増大함에 따라 勞動市場에 있어서 賃金은 下落하게 되는 것이다.

실업의 또하나의 要因은 다국적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국적기업은 50年代 末에 나타나 60年

代에 活潑히 展開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면으로는 다국적 기업이 開發途上國의 經濟를 끌어올리는데 기여했다고 주장되고 있지만 그 目的은 어디까지나 企業의 이윤극대화에 있다는 것은 말할 必要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윤극대화라는 目的이 達成될 수 없을 때는 開發途上國經濟야 어떻게 되든 철수할 수 있는 것이다. 다국적企業은 境遇에 따라 여러가지 形態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이 美國商品에 대해 損害를 쌓는 경우 美國資本은 유럽에 對하야 工場을 세워 유럽市場을 担保하는 境遇도 있고 공해규제로 공해규제가 없는 곳에서 생산해 다시 역수출하는 경우도 있다. 또 石油, 구리, 커피, 사탕수수, 고무, 금 등의 資源을 값싸게 担保하기 위해 進出하는 경우도 있고 勞動力이 저렴하고 조세 및 金融上의 惠拂이 주어지는 곳으로 進出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어떻든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進出은 그 나라 고용을 減少시키는 反面 進出地의 고용을 增大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는 先進國勞働者와 開發途上國 勞働者와 이해 배반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인 것이다. 실업의 또 하나의 要因으로 들어지는 것은 저렴한 商品輸入에 따른 실업이다. 即 外國商品이 값싸게 들어옴으로써 國內企業의 市場이 줄어들고 결국 倒産해 실업이 發生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업문제에 대해 IMF는 勞動時間短縮, 開發途上國 勤勞條件의 國際的水準에의 向上, IMF에 의한 다국적기업의 통제 등의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勞動時間短縮, 即 4~5 交代制의 採擷은 고용규모를 擴大할 것이며 開發途上國의 勤勞條件向上은 다국적기업이 進出할 要因을 削減시킬 것이다. 다국적기업통제문제는 실업문제와 중요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IMF는 效率的인 다국적기업의 統制를 위해 여러가지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 몇개의 다국적기업을 선별해서 집중공격

둘째 다국적기업 노조간의 連絡網을 組織해 迅速한 情報蒐集 및 대처

셋째 다국적기업 모기업에 組織된 勞組가 다국적기업 本社에 積極
 介入함으로써 자회사의 勞動組合權 및 勤勞條件을 保障

넷째 다국적기업노조에 問題가 發生할시 그에 관한 國際會議의
 組織 및 불매운동 전개

世界豫測機關에 따르면 79年度에는 실업이 더욱 惡化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어 今年에도 실업문제는 IMF運動의 主要部問을 차지
 할 것으로 展望된다. (표참조)

主 要 国 의 失 業 率

单位：%

	1963-73	1976	1977	1978	1979
O E C D	3.4	5.4	5.5	5.4	5.6
美 国	4.9	7.7	7.0	6.1	6.5
日 本	1.3	2.0	2.0	2.3	2.3
西 独	1.3	4.6	4.5	4.4	4.4
프 랑 스	1.8	4.2	4.8	5.0	5.3
英 国	2.4	5.3	5.8	5.8	5.7
이 탈 리 아	3.6	3.7	7.2	7.5	7.8
캐 나 다	5.3	7.1	8.1	8.5	8.5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Main Economic Indicator.

Ⅱ . 國 內 經 濟

1 . 動向과 展望

78年度 우리국민은 22兆2千557億원의 財貨 및 용역을 生産했다. 이는 前年度보다 33.6%가 増加한 額數이다. 이들 財貨와 용역을 75年度 價格으로 換算하면 13兆6千933億원으로 前年度에 비해 12.5%의 實質經濟成長을 記錄한 것이다. 그리고 1人당 GNP는 60萬1千원으로 國民 1人당 月 50,083원의 財貨와 용역을 享유할 수 있도록 된 것이다. 이러한 成長은 社會間接資本 및 製造業의 成長에 힘입은 바 크다. 農林漁業分野는 77年보다 2.3%가 떨어진데 대해 社會間接資本은 23.2%, 製造業은 19.7%의 成長을 보이고 있다. 製造業중 金屬製品은 30.2%, 輸送用機 53.2%, 電氣機器 36.1%, 一般機械 36.2%, 第1次鉄鋼 20.2%, 非鉄金屬 45.5%의 成長을 보임으로써 GNP 成長에 크게 기여했다. 이에 따라 産業構造도 農林漁業이 21.2%, 鉦工業이 28.2%, 社會間接資本 및 서비스部門이 50.6%로 發展했다. 62年과 비교하면 農業部門의 현격한 축소를 볼 수 있다. 즉 62年の 경우 農林漁業이 36.6%, 鉦工業이 16.3%, 社會間接資本 및 서비스업이 47.1%였다.

이러한 成長의 原因과 結果로 볼 수 있는 投資와 수요, 勞動力 增大를 보면 國民所得중 總投資分은 77年 27.9%에서 78年度에는 31.7%로 增加를 보이고 있고 이는 GNP중 增大된 貯蓄部分

과 海外貯蓄의 增大에 依存하고 있다. 즉 77年엔 國民所得 1,000원중 744원이 消費되고 나머지 256원이 貯蓄된데 대해 78年엔 國民所得 1,000원중 728원이 消費되고 나머지 272원이 貯蓄되어 77年 보다 1,000원중 16원이 더 貯蓄되었던 것이다. 또 外國으로부터의 借款도 77年엔 GNP 1,000원당 6원이 들어와 資本으로 形成되었는데 78年엔 그보다 27원이 더 많은 33원이 들어와 資本으로 形成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國內固定資本도 77年엔 26.6%가 增加한데 대해 78年엔 40.5%가 더 形成되었고 機械施設의 경우 50.9%의 增加를 보이고 있고 民間建設의 경우 37.6%의 增加를 보이고 있다. 한편 消費도 77年엔 7.4%가 增加한데 대해 78年엔 9.9%의 增加를 보이고 있다. 이는 飲料品 및 가전제품에 대한 需要가 增大한데 기인한 것이다. 勞動力의 경우는 77年 취업자 12,929千名에서 78年 13,490名으로 4.3% 增加를 보였다.

우리의 經濟成長과 主要 關係를 가지고 있는 貿易의 側面에서 볼 때 78年度엔 輸出이 77年보다 經常價格基準으로는 26.5%, 불변가격기준으로는 20.0%가 增加해 127億1千60萬弗에 이르렀고 輸入은 經常價格基準으로 38.5%, 불변가격기준으로 29.1% 增加해 145.億 2,400萬弗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貿易上의 赤字는 18億 1,340萬弗에 이르고 있고 이는 77年보다 196.0%가 增加된 額數이다. 그러나 貿易依存도 ($(輸入 + 輸出) \div GNP$)는 77年 60.6%에서 78年 60.2%로 줄어들고 있다. 한편 貿易

外 輸入은 中東進出에 힘입어 43 億 826 萬弗, 貿易外 支給은 41 億 2,530 萬弗이 되어 外換収支面에서 볼 때 4 億 200 萬弗 程度의 赤字를 보았다. 品目別로 볼 때 輕工業제품의 輸出이 全輸出의 53.6 % (77 年 52.7 %) 을 차지하고 중화학제품의 그것이 35.1 % (77 年 32.9 %) 로 양품목에 있어 다 77 年보다 増加를 보이고 있다. 輕工業제품의 주종을 이루는 것은 纖維製品으로 全輸出중 31.6 % 를 차지하고 있고 중화학제품에 있어서는 鐵鋼製品 (8.8 %) 電子製品 (8.7 %), 船舶 (6.3 %) 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한편 品目別 輸入現況을 보면 原料 및 燃料輸入이 全体輸入의 55.7 %, 資本財輸入이 33.9 % 로 輸入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중 燃料輸入은 16.4 %, 輕工業原料수입은 12.0 %, 機械類輸入은 15.4 %, 電氣電子製品輸入은 8.2 % 輸送裝備 5.9 %, 등의 構成을 보이고 있다. 原料 및 燃料輸入은 작년보다 25.3 % 増加됐고 資本財輸入은 작년보다 68.9 % 가 増加되었다. 이러한 貿易構成은 우리의 經濟가 加工貿易의인 性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輸入自由化에 따라 78 年度 內수용輸入은 56 % 의 増加를 보였다. 地域別 輸出現況을 보면 美國에 대한 輸出이 전체 輸出의 31.9 % (77 年 31.0 %) 일본에 대한 輸出이 20.7 % (77 年 21.4 %) 로 美國과 日本에 대한 편중성이 여전히 강하다. 美國의 장벽이 높아지리라는 것을 생각할 때, 또 美國의 景氣가 더욱 침체되리라는 것을 考慮하면 이는 重要的 意味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勤勞者의 生活과 크게 關係있는 雇傭과 物価를 보면 고용에 있어서는 수치상으로 78年 6월에 2.7%라는 失業率을 記錄했고 實質상으로도 部分的 人力不足狀態를 가져왔다. 서비스업중이나 도시빈민층에 아직도 많은 潛在實業者가 남아있다는 點을 考慮하면 이는 人력수급정책상의 차질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어떻든 技術訓練에 의한 人力養成政策이 人力의 現實的 必要를 充足하지 못하는 한 이는 勞動條件 向上에 不利하게 作用할 요인이 되는 것이다.

物価에 있어서는 고비를 겪은 한 해였고 解決도 보지 못한 한 해였다. 中東暴에 따른 용역수입의 增大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리라는 우려 때문에 年初부터 政府는 物価를 잡기 위한 여러가지 政策을 모색했다. 즉 通貨量 抑制, 貯蓄等에 의한 通貨緊縮, 輸入自由化에 의한 物量確保 등의 政策이 그것이다. 그러나 급기야 政府는 10% 物価抑制선을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6月末 消費者物価는 11.8% 引上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9月엔 14.4%, 12月末엔 16.4% 引上된 것으로 政府統計上 나타났다.

78年度 物価引上이 中東용역수입 增大와 채소가격의 異常的 上昇에 의해 가속화된 것은 事實이나 이러한 要因이 없었던 過去에도 物価는 繼續 深刻하게 引上되어왔던 것이다. 출고조작, 유통구조상의 問題, 輸出에 의한 損害의 国内價格에 의한 補償, 通貨量増發, 不動産投機에 의한 土地값 및 居住費 增大 등이 상존해왔던 것이다. 實質經濟成長이 10%선인데 通貨量이 30%선으로 增大하

는 狀況하에서는 나머지 20 %에서 輸入商品價格 上昇分을 通
貨量이 인플레이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金融緊縮政策은
他人資本 및 特惠에 의한 무리한 企業擴張을 하고 있는 大企業에
대해 자금꺾박을 가져와 輸出第一主義의 政策을 追求하고 있는 政
府로서는 金融緊縮을 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 지금까지의 現
實이다. 物価에 관한 한 79年度의 展望은 호리다. 石油價 引
上, 独寡占品目 해제, 해외용역수입증대 (건설용역수입 31 億 예상,
78年엔 21.5 億弗), 輸出金融支援 등이 강한 物価引上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政府는 79年度 經濟目標로 實質經濟成長率 9 %, 輸出 155 億弗,
消費者物価 12 %, 通貨增加量 25.0 % 등과 같이 策定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重要な 것은 輸出目標인 것이다. 國際經
濟展望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했지만 美國의 경기침체 및
貿易赤字에 의한 保護主義 傾向, 中共의 進出, 先進國의 保護主義
強化, 先進國의 實業率増大에 따른 先進國勞動者의 要求 등의 不利
한 与件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속에서
우리 의 輸出을 増大시키는데 重要的인 우리의 企業与件 또한
튼튼하지 못한 것이다. 상장업체에 한정해서 볼 때 大企業의 流
動比率과 負債비율은 각각 107.6 %와 355.21 %, 中小企業의 그
것들은 각각 108.6 %와 308.21 %이다. 이는 大企業의 경우
輸出에 따른 金融 財政上的 惠沢을 받고 무리하게 企業을 擴大한
結果이고 中小企業의 경우 金融財政上的 불리한 与件, 下請業体로서

의 不利한 与件, 저생산성 등에 기인하는 것이다. 輸出에 대한 政府의 惠沢은 外貨加得에 의한 先進資本의 導入이라는 側面의에 輸出産業의 育成 즉 國際競爭力의 強化를 위해 使用된 것이지만 우리 商品이 아직도 많은 品目에 있어 國際競爭力이 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6年末 基準으로 全國經濟人聯合會가 調査한 바에 따르면 調査品目 140個 중에서 105個 品目이 競爭力이 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企業財務構造의 취약성, 國際競爭力의 취약성을 基盤으로 輸出을 增大하고 중화학공업으로 나아가려 할 경우 問題의 深刻性은 더욱 크다.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의 경우 저렴한 勞動力이 國際競爭力의 基礎가 될 수 있지만 자본집약적인 重工業의 경우는 저렴한 勞動力을 基礎로 競爭力을 갖기는 어려운 것이다. 또 중화학공업은 國際市場에 있어서도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경공업의 경우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先進資本이 資本貸与나 直接投資의 形態로 開發途上國이 生産토록 하지만 중공업의 경우 問題는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다. 독점자본의 생리는 自身에게 競爭이 되는 産業을 育成하려 하지 않고 적어도 자기 밑에 종속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또 중화학공업의 경우 規模가 클 수록 저렴한 生産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巨大한 規模를 갖기 위해서는 그 程度의 資本이 動員되어야 하고 그 製品이 팔릴 수 있는 國內市場이나 海外市場이 있어야 한다. 또 중화학 공업의 경우 거대한 技術開發投資가 필요하고 高級技術人力이 必要하다.

이러한 불리한 与件下에서 急速한 經濟成長을 達成하려면 当該 企業에 대한 金融 財政上の 特惠, 国内販売價格에 대한 特惠가 대 폭 주어지는 것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特惠를 위해서는 一般 國民의 負擔이 커져야 하는 것이다. 韓國開發研究院의 分析은 80年 대에도 소득격차가 계속 擴大되리라고 分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背景하에서인 것이다.

소득격차를 더욱 해소해 一般國民의 貯蓄을 基盤으로 한 成長이 模索될 때가 온 것이다. 소득격차해소는 일시적으로 經濟成長을 낮출 수 있지만 長期的으로는 튼튼한 国内市場을 基盤으로 經濟가 成長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外国市場에 依存하는 經濟는 外国市場의 不황으로 国内經濟를 흔들리게 하기 때문이다. 國家의 經濟成長에 勞動組合이 強力히 개입할 義務가 深刻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2. 金屬産業의 動向과 展望

1) 鉄鋼工業

우리나라의 제강능력은 78年末 現在 粗鋼基準으로 760萬屯에 이르러 世界 12位의 粗鋼生産國家가 됐고 国内供給率 54%에 이르렀다. 그리고 7億5千萬弗의 鉄鋼製品을 輸出함으로써 全体 輸出의 5.9%를 차지했다. 品目別 生産能力을 보면 製鉄이 5,267千噸, 製鋼이 7,778千噸, 圧延 12,239千噸이다. 또한 지난 78年 12月8日 浦項綜合製鉄의 第3期設備(粗鋼 550萬噸)의

竣工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550萬㎥규모의 製鐵所를 보유한 8 번째의 國家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鐵鋼工業은 1973年 浦項綜合製鐵所의 第1期設備(粗鋼 103萬㎥)의 竣工과 더불어 急成長을 보기 시작했고 이어 1976年에 第2期設備(粗鋼 260萬㎥)의 竣工을 보았고 78年 12月에 第3期設備(粗鋼 550萬㎥)의 竣工을 보았다. 生産能力은 78年에 71年の 3倍로 증대됐다 (年平均 27.5% 增加). 62年에 비하면 76年度엔 従業員數가 5.2倍, 生産額이 25倍, 附加価値는 108.8倍의 成長을 보았다. 한편 70년부터 77년까지 輸出은 12倍의 増大를 보았고 輸入은 5.4倍가 増大했다.

鐵鋼産業은 繼續 拡張될 것으로 豫想된다. 粗鋼基準의 鐵鋼材國內需要는 1981年 12,490千㎥, 1986年 21,747千㎥, 1991年 35,093千㎥로 豫想되어 海外市場과 關係없이 繼續 拡張될 수 있고 또 經濟成長을 위해서는 擴大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鐵鋼材는 모든 産業의 基礎材料이기 때문이다. 鐵鋼에 대한 수요증대는 여러가지 分野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現實이다. 첫째 높은 經濟成長에 의해서 固定資本의 増大가 必要하다. 둘째 機械化의 증대이다. 農業部門의 勞動力不足現狀은 農業의 機械化를 가져올 것으로 豫想된다. 셋째 노후화된 機械의 새로운 機械에 의한 代替가 時急을 要하고 있는 우리의 現實이다. 生産性本部의 調査에 의하면 纖維製造業의 法定年數 4.年の 2倍가 넘는 8.5年, 製紙 印刷業 6.1年, 機械製造業 5.9年, 電子製品業 5.1年, 金屬製品

業 4.8年으로 낮은 機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넷째 國
産化増大로 國內生産이 더 많아져 鉄鋼에 대한 수요가 커지리라는
것이다. 한가지 問題는 철광석, 유연탄 등의 原材料를 거의 海外
에 依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原材料를 값싸게 충분히 確
保할 수 있다면 그리고 技術開發에 努力을 기울인다면 鉄鋼産業의
發展은 繼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輸出에 있어서는 先進國의
保護主義 趨勢로 애로요인이 나타나고 있다. OECD는 OECD 鉄鋼
委員會를 構成해 開發途上國에 制限을 가하려고 있다. 즉 開發途
上國의 鉄鋼製品輸出에 대한 保護主義 強化, 開發途上國의 鉄鋼産業
이 先進國의 그것에 競争的으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技術 및
資本 公여에 制限을 가하는 問題 등을 論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美國은 海外로부터의 輸出鉄鋼製品에 대해 발동가격제를 適用,
一定價格 以下の 製品에 대해서는 높은 關稅를 賦課하고 있다.

78年度の 好況으로 鉄鋼製品의 在庫量이 顯著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어 (78年 2월에 비해 78年 8월엔 강괴의 在庫量은
16.2% 減少, 鉄筋의 경우 82.3%) 政府는 古鉄 및 鉄筋의
輸出을 잠시 中斷하는 措置를 取하고 있는 점을 勘案할 때 鉄鋼
業은 好況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能率協會의 分析에 의하면 79
年度에 가장 유망할 것으로 나타난 업종은 鉄鋼業이다.

2) 조선업

우리나라는 78年度 60萬4千300吨의 선박을 건조해 世界
8위의 건조실적을 나타냈다.

우리나라 造船業이 本格的으로 成長을 記錄하기 시작한 것은 73 年부터이다. 가령 68 年부터 72 年까지의 年平均 成長率이 21.7 %인데 대해 73 年부터 77 年까지의 年平均 成長率은 96.5 %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成長은 輸出需要에 依存해서 可能했던 것이다. 가령 74 年の 경우 總生産量の 94.5 %가 輸出되고 있고 75 年엔 96.1 %, 76 年엔 92.7 %, 77 年엔 63.8 %가 輸出되고 있다. 生産品 중 輸出되는 部分이 줄어들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造船業이 對외의 輸出需要에 의해 急成長을 하게 됐다는 것은 事實인 것이다. 輸出의 部分이 줄어들 때는 세계 造船不況의 趨勢를 反映한 것으로 73 年에 나타난 수주액은 급격히 減少하게 되었던 것이다. 外國에의 船舶輸出이 줄어든 대신 國內 需要가 增大해, 우리 船舶의 輸入依存度는 67 年 93.1 %에서 77 年 35.5 %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金額上으로 본 輸出額은 75 年을 除外하면 73 年부터 繼續 增大를 보여 74 年~78 年間の 年平均 輸出成長率은 72.9 %로 나타나고 있다. 즉 73 年 87 億만 弗에서 78 年 822 億萬弗로 成長한 것이다.

政府는 86 年度 輸出目標 500 億弗을 達成하기 위한 10대 戰略 産業의 하나로 造船工業을 들고 86 年度の 建造能力目標를 650 萬 屯으로 策定하고 있다. 이의 達成을 위해 玉浦 및 거제조선을 設立할 計劃이다. 78 年末까지 造船業育成을 위해 6 千億원이 投入됐고 目標 및 거제조선을 위해서는 1 千億원 以上이 追加로 投入될 展望이다. 또한 79 年부터는 建造計劃量을 지금까지의 20 萬屯

에서 40萬噸으로 增大시킬 計劃이다.

造船業이 50余種의 産業과 관련이 있어 연관효과가 크고 또 高용효과도 크지만 이의 拡張이, 不安하고 매우 競争的인 海外市場에 依存할 경우 역효과도 그만큼 클 수 있는 것이다. 世界造船工業의 成長이 既存의 需要를 充足시키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앞으로의 豫想需要를 겨냥한 投機的인 것으로 나타나 지금 過剩狀態에 빠져 있고 이러한 狀態가 82年이 넘어서서야 해소될 수 있으리라 豫測되고 있어 우리의 造船産業은 많은 障礙物을 눈앞에 두고 있다. 世界 第1位의 造船國인 日本의 경우 昨年 한해 동안 8個의 造船業體가 도산했고, 西獨의 경우 2萬余名, 프랑스의 경우 5千余名이 해고되는 狀態를 빚었다. 대개의 先進國은 이러한 造船不況에서 現狀維持狀態를 견지하기 위해 國家支援을 하고 있고 國內船舶을 國內生産으로 충용한다는 方針을 세우고 있으며 海軍用船舶의 증대쪽으로 轉換시키고 있다. 또 造船國간의 競争을 막기 위해 수주조건을 同一하게 하려는 壓力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造船業이 計劃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資金의 確保가 可能해야 하고 輸入代替를 強化해야 하며 世界市場에 침투해 들어 가기 위한 高性能 新種船舶 開發 등이 必要할 것이다.

79年度 船舶輸出計劃은 78年보다 33%가 낮게 策定되어 있어 國內需要의 증대가 있지 않는 한 船舶建造実績이 78年水準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3) 自動車工業

所得의 增大에 따라 70年 中半부터 急激한 成長을 記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自動車工業은 繼續 호황을 보일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78年엔 生産이 내수와 海外需要를 따르지 못했다. 78年度 自動車 販売台數는 15萬6千4百台로 77年の 8萬3千台에 비해 88.4%가 增加한 것이다. 製造会社別로 본 販売台數는 現代가 8萬5,693台, 기아가 1萬6,500台, 새한이 1萬2,160台이다. 売出額上의 現況을 보면 現代가 2,158億원 (77年보다 132.0% 增加), 기아가 1,425億원 (77年보다 56.1% 增加), 새한이 1,504億원 (77年보다 53.2% 增加), 計 5,087億원 (77年보다 80.1% 增加)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輸出額은 361億 2,092萬원으로 77年에 비해 202.5%가 增加했으나 總売出額중 7%만이 輸出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호황으로 3個 自動車製造 会社는 79年에 施設能力을 지난해의 20萬5千台에서 28萬台的 水準으로 높이고 81年代엔 1百萬台, 86年代에는 200萬台的 水準으로 늘릴 計劃이다. 製造 会社別로 보면 現代가 78年 8萬1千台에서 79年에 15萬台로 81年엔 50萬台, 86年엔 1百萬台的 水準으로 施設擴張을 할 計劃이고 새한自動車는 78年の 6萬8千台에서 79年 7萬4千台, 81年엔 25萬台, 86年엔 50萬台的 水準으로 施設擴張을 할 計劃이다. 또한 기아는 78年 5萬6千台에서 81年엔 25萬台로,

86 年엔 50 萬台로 施設能力을 拡張할 計劃이다.

그런데 이러한 施設能力의 拡張이 무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自動車에 대한 国内市場 및 海外市場의 需要가 늘어나야 된다. 国内市場의 경우 交通人口의 증대, 輸送量의 増大, 所得의 増대로 繼續 擴大될 수 있고 특히 乘用車의 경우 그것이 사치품이 아닌 일용품으로 될 경우 그 需要는 대폭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사치품이 일용품으로 된다는 것은 승용차에 대한 税金이 경감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現在 販売價格에 대한 間接稅의 比率이 우리나라의 경우 35 %, 英國 17 %, 日本 15 % 水準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海外市場의 경우 開發途上國의 市場이 넓혀질 것으로 展望된다. 開發途上國의 經濟成長은 적어도 어느 층의 所得 増大를 가져와 승용차에 대한 需要를 増大시켜 줄 것이다.

自動車가 어느 程度 國產化될 수 있는냐는 施設規模와 크게 關係있는 것으로 업계는 말하고 있다. 79 年 1 月 現在 車種別 國產化率을 보면 포니가 95 %, 코티나가 62 %, 기아 브리샤가 95 %, 새한 레코드가 65 %, 새한 제미니가 75 %, 새한 버스가 85 %, 새한 8 톤 카고가 64 %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어느部品이 小量 所要될 경우 그것을 自体生産하기 보다는 輸入해서 使用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또 技術上 아직 輸入品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다는 理由를 들고 있다. 事實 이러한 品目은 中小部品 業體에서 生産한 品目인 것이다.

政府에서는 自動車産業의 育成을 위해 自動車製造業體數를 늘이기

보다는 既存 業体の 規模를 増大시키는 쪽으로 나가고 있고 部品生産의 中小業体を 3大 自動車業体에 계열화시키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 政府는 部品業体の 育成을 위해 창원公団에 約 25萬坪의 部品団地를 造成할 計劃이다. 또한 이들 業体들이 競争을 하게 함으로써 部品の 質을 向上시킬 方案이다. 이들의 競争은 部品の 質을 높일 수도 있지만 部品の 販売가격을 低廉하게 하므로 中小企業의 問題는 더 拡大될 것으로 보이나 5,000余種의 部品을 必要로 하는 自動車産業의 發展은 經濟 및 雇傭에 있어 팔목할만 한 成長을 가져올 것으로 期待된다.

4) 電氣電子業種

78年度 電氣電子業種은 GNP 상 36.1%의 成長을 보였고 1,542百 萬弗의 製品을 輸出했다 (77年보다 33.2% 增加)이 중 電子業種의 경우 78年度 施設能力은 28億570萬弗에 이르고 있고 이의 84%, 즉 23億5,679萬弗 程度를 生産해 稼動率은 84%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電氣業種은 輸入代替的인 性格이 強하고 몇개의 大企業을 제외하면 大部分이 零細한 中小企業이다. 용접기의 경우 造船 및 自動車工業, 특히 海外建設進出로 근래에 대폭 成長을 했고, 積算電力計는 農漁村 電化事業의 추진에 따라 成長을 보였다. 変圧機는 電氣의 高圧化에 따라 需要増大를 보였고 乾電池는 電子製品의 普及拡大로 需要가 増大했다. 그러나 電化事業의 拡大는 乾電池에 대한 需要를 減少시킨다. 蓄電池의 경우는 自動車産業의 發

展에 따라 成長을 보였고 繼續 成長할 것으로 보인다. 照明器具는 電化事業에 따라 그 需要폭이 넓어질 것이고 海外建設事業의 進出로 輸出展望도 밝아 보인다. 国内所得의 増大 및 海外需要에 따라 製品의 高級化 趨勢가 나타날 것이다. 電線의 경우는 電氣電子業種의 發展과 電氣의 高圧化가 成長의 要因이 되고 있다. 電氣業種 중 가장 호황을 보인 分野는 家電제품분야이다. 所得의 増大에 따라 冷蔵庫, 세탁기, 에어컨, 電氣밥솥, 선풍기 등에 대한 需要가 増大해 品貴狀態를 빚는 일이 잦았다. 선풍기의 경우는 78年度에 8월에 78年 2월에 비해 在庫量이 89.4 %나 줄어드는 事態를 빚었다.

電子工業의 경우는 輸出中心으로 發展해 왔고 多国的 企業과의 이해일치를 基盤으로 해서 더욱 發展해 왔다. 유형별로 보면 電子部品이 반을 차지하고(77年 51%), 家庭用이 다음이며(77年 39%) 産業用은 미미하다(77年 10%). 근래의 傾向을 보면 国内의 技術開發이 고도화되고 있고 産業用이 家庭用보다 더 빠른 增加率을 보이고 있다. 한편 国内需要와 海外輸出 增加率이 줄어들고 있는 趨勢를 보이고 있다. 政府는 86年度 500億弗 輸出 達成을 위한 10대 戰略産業의 하나로 電子業種을 지적하고 있다. 그 方案으로 반도체 및 컴퓨터의 國産化를 기하고 部品の 85% 자급화 達成을 計劃하고 있다. 그리고 86年度 電子製品의 輸出 目標을 90億弗로 策定하고 있다. 한편 政府는 79年度 目標로 電子業種 施設能力을 37% 擴張할 것을 計劃하고 있다.

우리나라 電子業種이 직면하고 있는 問題는 技術開發과 海外市場 開發이다. 産業用, 軍事用 電子製品 生産을 위해서나 더욱 간편한 家庭用 電子製品의 生産을 위해서는 技術開發이고 이러한 技術開發로 海外先進國 및 開發途上國 市場이 擴大될 것이다. 79年度에 是 美國의 強力한 要求로 美國의 반도체에 대한 部分的 輸入開放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國內에 있어서의 컬러 TV의 一般的 販賣가 強力히 要求될 것으로 보인다. 또 金星社를 包含한 9個 業체가 外國과의 提携로 컴퓨터를 生産할 것으로 보인다.

4) 機械金屬 業種

78年度 金屬製品은 GNP상 30.2%의 成長을 보였고 一般 機械는 36.2%의 成長을 보였다. 一般機械의 輸出額은 2億 5,990萬弗, 輸入은 23億 1,150萬弗로 輸出은 77년에 비해 46.8%의 伸張을 보였고 輸入은 61.6%의 增加를 보였다. 全体輸出 中 一般機械의 비중은 77年 1.7%에서 78年 2.0%로 增加를 보였으나 극히 작은 構成을 보이고 있고 總輸出 中 一般機械의 비중은 77年 13.2%에서 78年 15.4%로 增加를 보이고 있으며 꽤 높은 構成을 보이고 있다. 輸出額이 輸入額보다 더 많은 것은 볼트, 너트, 금속관이음쇠 등의 소수 品目이고 나머지 品目은 大部分 輸入이 輸出을 超過하고 있기 때문이다. 纖維機械 등은 日本의 纖維機械가 過半數 以上을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對外 借款 中 많은 部分은 先進機械를 導入하는데 使用되어 왔다. 機械部門의 國內開發은 우리나라 貿易構造를 改編하는데 重要的 機能

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自立度를 높이는 데도 重要한 役割을 하게 될 것이다. 問題는 輸出에 의해 獲得한 外貨로 導入된 先進機械가 우리나라 機械工業의 水準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에 있다. 水準이 滿足할 만큼 오르지 못할 경우 무리한 輸出意志는 繼續 作用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輸出을 위해 先進機械를 導入하는 주객전도도 있었다.

機械工業의 發展을 위해서는 몇가지 條件이 충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産業化의 擴大이다. 이는 經濟成長에 따라 긍정적인 方向으로 나갈 것이다. 특히 農業部門의 機械化가 強力히 要請되고 있는 것이 現在의 추세이다. 農耕地面積은 줄어들고 人口는 增加하며 農業勞賃은 上昇하고 農業人力의 不足現象 등이 機械化를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노후기계의 대체이다 셋째 生産性이 높은 機械에의 代替이다. 이 條件이 活潑히 전개되려면 企業間의 競爭이 強化되어야 한다. 즉 企業의 独占的 性格이 없어야 한다. 独占的 企業이라 하더라도 外國의 企業과 競爭할 경우 새로운 機械採用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넷째 勞賃의 上昇이다. 勞賃의 上昇은 勞動節約的 機械를 導入하게 할 것이다. 다섯째 海外市場에의 進出問題이다. 機械製品의 海外市場에 관한 한 先進國이 独占하고자 하는 分野이다. 一般的으로 國際分業에 있어 勞動節約的 分野는 先進國이, 技術節約的 分野는 開發途上國이 担当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具體적으로 보면 開發途上國이 海外市場에 進出할 수 있는 品目이 있는 것이다.

全國經濟人聯合會의 調査에 의하면 프레스, 鉄塔, 볼트, 너트, 스크류, 방적기 등은 國際競爭力이 強한 品目으로 나타나 있다.

生産性本部가 調査한 바에 의하면 機械의 國産化率は 43.2 %라는 낮은 水準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政府는 國産化를 높이기 위해 75年엔 外國機械導入에 대해 高率의 關稅를 適用했고, 國産機械 購入者에 대해서 資金을 支援해 주었다. 한편 政府는 86年을 目標로 機械의 大型化를 위해 努力하고 있다. 大型化는 生産性 提高를 위한 重要한 要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大型化는 現代, 대우, 三星, 대한중기, 강원 산업, 호성중공업 등의 大企業을 中心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政府는 産業設備의 輸出을 위해 輸出促進法案을 마련하고 있고 한일기계공업협력 委員會를 통해 第3國 市場에의 進出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86年 100億弗의 機械類 輸出을 위한 努力인 것이다. 이것은 外國資本의 개입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國內資金의 確保 및 技術開發, 技術人力養成의 여하에 依存할 것으로 보인다. 業界는 지금 資金不足을 외치고 있는 實情으로 外國資本의 導入이 아니면 國內의 金融的 特惠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日本의 경우는 삼능중기, 히다찌製作所, 도오시바 등 굴지의 機械工業이 內國資本으로 이루어져 있다.

78年度 現在 機械工業의 施設能力은 67億8,099萬弗로 79年度엔 30%를 더 증대시키려고 計劃하고 있다. 그리고 그중 7億8,000弗(78년에 비해 67% 增加)의 製品을 輸出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國家政策에 비추어 79年度에도 機械工業은 急成長할 것으로 보인다.

企 劃 活 動

內

容

概 要

78年度 運動基調

1. 勤勞者의 生涯生活비전

翻譯出刊

2. 貯蓄擴大와 財形運動展開

1) 汎勤勞者 貯蓄運動 特別
推進

2) 賞與金 財形貯蓄加入勸奨

3. 金屬勞動組唱歌 制定

4. 文化의 달, 文化의 날 行事

5. 産業安全教育實施

6. 編輯者懇談會 開催

企 劃 活 動

概 要

무릇 勞働組合運動이란 英國의 시드니·십이 말했듯이 『勤勞條件의 維持・改善을 目的으로 하는 勞働者의 自主的이며 恒久的인 団体』이라고 한다면 勞働組合運動은 賃金・勤勞時間 등의 勤勞條件의 基本과 그 미니멈을 産別勞組 段階에서 決定, 獲得해 나가야 하는 것이며, 政策등 諸制度의 要求實現은 勞總을 主軸으로 対処해 나감으로써 各 段階에 있어서의 役割・權限・責任을 明確히 하여 그 위에서 서로 補完하면서 勞働者の 生活과 權利를 지키며 높이는 運動을 展開해 나가야 할 것이다.

本 勞組는 이러한 뚜렷한 信念아래 運動方針의 集點을 設定하여 本勞組가 指向해야 하는 5大 運動基調를 樹立하였으며 이의 強力한 實踐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15万 組合員의 實在를 正確히 抽出하는 調査統計를 基盤으로한 活動目標의 一元化가 時急히 要請되어 78年度를 “調査統計의 해”로 設定했던 것이다.

따라서 本勞組의 調査統計部는 勿論 全任職員의 努力은 여기에 最善을 다한다는데에 集約되었으며 또 여기에 基調로 하여 79年度の 事業計劃은 樹立될 것이다.

그리고 또 金屬産業 勞働者の 비견 있는 賃金政策의 確立을 위한 第一段階 活動으로서 일본 노동동맹과 IMF-JC가 共同으로 制

作한 勤勞者의 生涯生活비전을 번역 出刊함으로써 앞으로 本 勞組
가 推進해야 할 賃金政策의 計劃範圍와 方向을 提示하는 한편
이것은 80年代에 있어서 반드시 이룩해야 할 넉넉하고 人間다운
生活터전 確立을 위한 우리들의 共同財産으로서의 中長期賃金政策
具現에의 指標가 될 것임을 確信한다.

그리고 78年의 企業活動은 이러한 本勞組의 運動基調의 大綱을
確立하는데 焦點이 두어 졌으며 여기에 立脚하여 79年의 活動은
빈틈없는 細部實踐計劃으로 賃金 및 勤勞條件 改善에 置重 活潑
한 運動을 展開할 반판을 마련했다고 할 것이다.

運動의 基調

1. 組織의 擴大와 團結로서 大産別의 슬기와 힘으로 前進한다.
2. 經營參加와 積極推進으로 人事共同決定制度를 確保한다.
3. 調査・統計 資料를 完備하여 勞使交渉에 있어서 確固한 態度로 우리의 要求를 貫徹한다.
4. 새 마을 運動과 自然保護를 生活化함으로써 勞動의 人間性을 回復한다.
5. IMF와의 幅넓은 紐帶를 通하여 國際勞動運動을 發展시킨다.

1. 組織의 擴大와 團結로서 大産別의 슬기와 힘으로 前進한다.

工業高度化政策의 成功的인 遂行으로 本格的인 經濟成長時代에 접어들기 시작한 이때 勞動組合運動은 새로운 試鍊과 挑戰에 直面하여 冷徹한 自己反省과 더불어 方向轉換을 감행하지 않을 수 없는 狀況에 있다.

年率 10 %水準의 經濟成長의 거센 물결 속에서 勞動者의 實質生活의 維持・改善을 통한 私的 消費領域의 確保, 社会的 消費領

域의 拡充과 인플레이 抑制를 위한 經濟政策의 實現要求와 鬭爭은 더욱 더 絶박한 課題로 浮刻되 있다.

이러한 새時代에 挑戰하기 위하여 同志愛로 뭉쳐진 團結을 한층 強化함과 동시에 勞動組合運動을 質・量面으로 向上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組織擴大와 團結力 強化를 통한 交渉力の 培養과 各段階(勞總, 産別組織, 各級支部 및 分會)에 있어서의 機能・權限・責任을 明確히 하여야 할 것이며, 각 단계에 있어서의 要求의 統一과 體系化를 促進시키는 한편, 要求實現을 위한 活動을 積極적으로 展開하지 않을 수 없다.

구미 선진국에 있어서의 勞動組合運動은 賃金 勤勞時間 등의 勤勞條件의 基本과 그 미니멈을 産別勞組 段階에서 決定하여 政策・制度要求의 鬭爭은 내소날센터(勞總)를 主軸으로 對処하게 하므로서 各 段階에 있어서의 役割 權限・責任을 明確히 하여 그 위에서 서로 補完하면서 勞動者의 生活과 權利를 지키며 높이는 運動을 전개해 나간다는 規律이 確立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도 發展을 거듭함으로써 이북한 成年 金屬勞動組合으로서의 矜持를 社会的 使命으로 昇華시켜 그 役割과 責任을 痛感하여 勞動集約的인 輕工業으로 부터 資本, 技術 集約的인 精密, 重化学工業制으로 轉換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産業發展에 対応하여 組織擴大에 總力量을 集中함으로써 IMF加盟 會員組合과 같이 産別의 中核으로서의 位置를 드높여 나가야 할 무거운 責務를 양어깨에 意識하면서 運動을 展開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經營參加의 積極推進으로 人事共同決定制度를 確保한다.

오늘의 勞動組合은 東西를 莫論하고 그 形態는 各各 다르지만 經營參加가 커다란 潮流를 이루고 있다. 우리가 經營參加를 積極推進해 나가고자 하는 背景에는 勞使關係의 平和維持에 있으며 그것은 民主主義에 立脚한 自由國家에서는 勞使關係는 對立 및 競爭的이라는 原理에 따라 전개되는 勞使의 마찰을 피하는 대신 産業의 管理에 관한 勞動者의 參加를 認定하는 勞使協力關係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명심해야 할 것은 현대적인 勞使關係는 協力關係가 그 理想型이라고 하지만 西歐 先進工業國에서의 勞使關係 發展段階를 거치지 못한 狀態에서 흔히 힘하는 家族的 勞使關係 協調的인 勞使關係라는 것은 強者와 弱者의 抑壓과 굴종이 있을 뿐 참으로 勞使平等과 原則에 立脚한 意思疎通을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眞實하고 生産的인 勞使間의 意思疎通을 對等한 立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며 對等하지 못한 者와의 사이에는 形式的인 意思疎通만이 存在할 뿐인 것이다.

때문에 우리의 經營參加의 第1段階活動으로서 職場에 있어서의 人間性回復을 위하여 團體協約 條文 가운데 全的으로 使用者에게 일임되고 있는 人事條項을 勞使共同決定制로 修正하는데 力點을 統一을 期할 것이며 또 人事의 勞使共同決定에 관한 우리의 이와

같은 態度는 다음과 같은 信念에 뒷받침 되고 있다.

勞組이 調査한 170 個 標本團體協約의 比較分析을 보면 組合員의 懲戒에 있어서 懲戒委員會(이것도 使用者側 一方的인 構成이지만)의 回附節次 및 再審請求등 節次를 團體協約에 規定하고 있는 것이 55 個 (32.4 %) 뿐이며 115 個 (67.6 %)의 協約을 團體協約에 規定한 懲戒條項에 해당되며 会社が 一方的으로 懲戒하거나 懲戒후 노조에 通報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勞組는 「会社の 經營權을 尊重하며 人事에 관한 일체의 權限이 会社に 있음을 認定 한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会社の 就業規則 속의 懲戒條項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느낌마저 없지 않다.

勞組의 經營參加는 口號에만 그칠 것인가 도대체 「經營權」과 「人事權」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法律가운데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經營權 및 人事權은 法律的으로 어떤 근거와 意味로 理解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憲法上的 「財産權」 民法上的 「所有權」 그 自体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으나 정확히 말하자면 그 하나의 作用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문자 그대로 말하자면 經營權은 事業을 經營하는 權利이며 人事權은 採用, 配転, 解雇의 權利이지만 그것은 어느 것이나 財産權, 所有權에 그 根拠를 두고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使用者가 企業을 경영하거나 勞動者를 使用할 수 있는 것은 財産을 所有하고 勞動에 대한 對價를 支払할 수 있는 돈의 武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財産이 있더라도 勞動이 없으면 事業을 經營할 수 없다. 즉 財産의 所有者는 그 財産을 勞動者는 勞動을 提供함으로써 經營이나 人事가 成立하는 것이다.

이러하여 經營權이나 人事權은 法律的으로는 財産과 勞動과의 交換協定에 의하여 具體化되는 權利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財産과 勞動이란 어떤 條件으로 交換되느냐고 한다면 現在의 法秩序의 한가지 理想으로는 兩者의 自由로운 約束에 의한다는 것이 原則이다. 그 原則에 따른다면 財産을 無條件 그리고 永遠히 남에게 양도하는 約束은 아무런 違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財産의 한가지 機能에 지나지 않는 經營이나 人事의 全部 또는 一部를 양도한다는 약속은 勿論 허용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역으로 말한다면 勞動組合이 經營이나 人事에 대하여 어느 정도 參加할 수 있느냐는 것은 바로 勞動組合과 使用者間에 協約에 의하여 決定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以上은 經營權 또는 人事權에 속한다고 하는 法律上の 限界는 아무때도 없다. 그것은 勞使의 힘에 따라서 정하여지는 것이라 하겠다.

3. 調査・統計資料를 完備하여 勞使交渉에 있어서 確固한 態度로
우리 의 要求를 貫徹한다.

77年度の 調査 統計事業은 自律的이고 独自の인 調査活動의
基礎를 確立하고 業種別 賃金を 위한 理論生計費 構成을 비롯한
各傘下 支部의 賃金 및 団体協約 締結 方案의 指導에 重点을
두고 執行되었으며 이밖에 本勞組의 現勢를 나타내는 調査 統計活
動에 最善의 努力을 기울려 10 万組織의 勤勞條件 및 福祉向上施
策의 改善에 具體的이고 顯著한 成果를 記錄했다고 要約될 수 있
다.

그러나 調査統計事業 本來의 目的에 비추어 볼때 아직도 觀念
的이고 受動的이며 臨機應變的인 姿勢로 부터 脫皮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는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보다 科學的이
고 独自の인 기틀을 마련함과 同時에 正確과 實効性 있는 活動指
針이 될 수 있는 体系的인 調査統計 資料를 完備하여 對外 弘報
活動과 더불어 勞使交渉에 있어서 強力한 理論鬭爭을 展開할 수
있는 힘을 갖추음으로서 所期의 活動成果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調査統計活動을 強化하여 다음과 같이 傘下組織은
勿論 勞總과 關係要路의 要請에 副應할 수 있는 態勢를 갖추는 것
이다.

- ① 變遷하는 國內外經濟情勢, 勞動經濟의 動向을 正確히 調査分
析하며 時事問題등 解説的인 內容을 添加하는 한편 賃金

政策・労働政策 등 基本政策의 合理化에 이바지 한다.

② 賃金・勤勞條件, 意識, 生活 實態 등에 관한 調査統計資料를 傘下 組織에 提示하는 同時에 對外弘報活動에 이바지 한다.

③ 国内・外 資料에 대한 研究・分析과 이를 번역 發刊함으로써 專門知識을 드높이며 學界 기타 研究機關과의 提携를 긴밀히 維持하면서 우리의 立場을 對外에 널리 敷衍함으로써 輿論의 集約을 圖謀한다.

4. 새마을運動과 自然保護를 生活化 함으로써 勞動의 人間性을 回復 한다.

人類의 歷史를 「人間과 自然의 關係史」라고 하듯이 人類는 大自然의 품속에서 맑은 空氣와 깨끗한 물 그리고 豊富한 資源의 恩恵를 받으면서 生活을 영위해 왔으며 自然의 아름다운 調和와 秩序를 본받아 心性을 닦고 社会生活의 道理를 배워 왔다. 그뿐 아니라 自然의 神秘性和 그 多樣하고 驚異的인 現象은 人間의 信仰心과 藝術 그리고 知性的 눈을 뜨게 해 주었다.

人間은 스스로를 自然의 一部라고 생각했으며 人間性的 偉大한 自然이 內在하고 있다고 믿어 왔다. 그리고 自然스럽게 行動하고 自然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人生의 理想的인 姿勢이며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이 人間은 自然에 취하고 自然을 아끼면

서 긴 歷史를 살아온 것이다 그러나 近代啓蒙思想에 따른 合理主義와 理性萬能의 思潮는 傳統的인 身分社會를 解体시키으로써 人間을 社會와 對立된 한 独立的인 人格으로 自覺시켰듯이 自然과 密着되었던 人間을 自然과 對立시키므로써 도리어 自然의 支配者로 轉換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自然現象을 조용히 觀察하고 自然을 모방하려던 科學과 技術도 이제는 自然을 支配하고 征服하는 手段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技術革命을 수반한 産業革命은 工業의 機械化와 大量生産樣式을 誘發했으며 原料와 燃料의 多量確保의 必要性은 自然環境과 資源을 마구 破損하고 수탈하는 일을 서슴치 않았다. 더욱이 20世紀에 이르러 高度로 發達한 科學과 技術은 人類社會를 豊요하게 便利한 社會로 만드는데 많은 貢獻을 했으나 反面 그로 인하여 派生된 人間の 機械化와 公害問題는 人類文明의 將來와 人間の 生存에 커다란 危機를 불고온 事實은 否定할 수 없다.

이와 같이 現代思想속에서 人間の 問題가 提起되는 한편 世界의 政治的 社會的 狀況의 急激한 變化에 따라 人間の 實態가 변하고 이때까지의 人間思想이라누 「틀」속에 들어가지 않는 새로운 타입의 人間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과 한편에서는 社會・歷史의 變遷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人間을 激動의 渦中에 휘말려 自己 自身的 存在를 埋沒해 가는 듯이 보였기 때문이다 어쨌든 人間の 危機이다. 人間이 恐怖와 戰慄을 한눈으로 核兵器가 大量으로 만들어지고 人間の 機械化의 증대 自動裝置와 매스컴의 發達 등등 무엇인가

人間의 存在가 그 버런스를 잃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人間은 이와 같은 危機를 克服할 수 있을 것인가. 克服할 수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現代에, 있어서의 人間의 問題는 이와 같은 形態로 提起된다. 또 이같은 人間의 問題는 自然史와 精神史的 側面으로 論이된다.

그러나 그 어느 것이나 限界가 있다. 自然史의 見解로서는 人間이라고 하는 種族・集團・社会속에 그 一員으로서 存在하는 人間의 問題는 생각할 수 있지만 御體人の 人間 그 實體에 대하여 자리 굳힘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설사 存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本性에서 人間の 實存을 끌어낼 수 있는 길은 없다. 그것은 人間에 앞서서 人間の 길은 없고 人間이 걸어간 뒤로 부터 길이 만들어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人間の 問題는 歷史로서의 現代의 意義가운데 비로소 뚜렷해질 것이다. 人間の 社会的 實存的 存在가 어떠한 危機에 直面해 있는가, 어떠한 點이 特히 問題意識으로 되어 나타날 것인가 人間の 前進과 人間疎外の 問題, 人間の 歷史狀況과 그 限界(極限)의 問題 등은 이 歷史로서의 現代의 意識 가운데 根源적으로 파헤쳐질 것이다. 아니 파헤쳐 나가야 할 것이며 바로 이것이 오늘의 勞動의 人間化 問題를 위한 工場 새마을 운동이며 自然保護運動이 아니었으면 안된다.

그러나 問題를 機械와 自然과의 對立이라는 點에서만 바라보고 機械에 둘러싸인 工場속의 勞動으로 부터 自然으로 도피하는 것

이 아니다. 그것은 아무리 勞動에 대한 變革이 이루어졌드라 하더라도 勞動의 單調로움이란 事實과 勞動者의 疎外라는 事實은 바뀌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工場속의 勞動 그 自体에 있어서 우리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工場새마을 운동 및 自然保護운동은 知的·文化的 또는 勞動의 人間化에 대한 無氣力を 克服하는 問題解決을 위한 운동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

5. IMF와의 幅넓은 活動을 通하여 國際活動을 發展시킨다.

國際情勢는 모든 面에서 流動的이며 變化가 잇따르고 있다. 國際勞動運動도 例外일 수 없고 複雜함이 增大하고 있다.

先進諸國의 二極化進行에 의한 經濟力 格差의 拡大는 雇傭問題에 영향을 미쳤으며 通商 언버런스問題를 契機로 雇傭問題를 世界水準에서 討議시키도록 하는 機運을 높였으며 多国籍企業活動의 活發化는 雇傭機會의 移轉과 더불어 經濟, 社會, 政治 各分野에서의 影響력을 더욱더 增大시켜 왔다. 이와 같이 變遷하는 國際經濟속에서 各國內의 있어서의 勞動組合이 雇傭問題와의 關聯으로 점점 影響력을 굳히고 있다. 이러한 때 南北, 東西, 北北 각각 相互間에 있어서의 課題가 國內問題와 重複하여 複雜化해 가고 있다.

이와같이 國際諸國간의 相互依存關係가 더욱더 깊어지며 高度로 複雜해 가고 있는 世界情勢에 있어서 國際社會의 民主化 自由 平和 高福祉를 目的의 基調로 삼는 國際勞動運動의 役割은 極히

重要하다 IMF의 國際的 活動은 情勢分析에서 본 것처럼 金屬産業에 直接 關聯을 갖는 가운데 그저 組織의 범주내에서만 그치지 아니하고 必要에 따라 ICFTU (國際自由勞聯)과의 協力關係에 있어서 UN.ILO(國際勞動機構), OECD(經濟協力開發機構) 및 GATT(關稅貿易一般協定), WHO(世界保健機構) 등으로 그 움직임을 發展시켜 나가고 있다.

本勞組는 1967年 9月17日 IMF 會員組織으로서 加盟한 以來 恒常 우리 나라 金屬勞動者와 그 家族의 利益을 대표하는 立場에 서서 活動을 展開하여 IMF가 겨냥하는 國際的인 연대 活動의 일익을 담당해 왔었다. 그리고 IMF의 國際諸會議에 積極的인 參加는 勿論 第24回 IMF世界大會(77年10月24日~ 28日 西獨 文軒)에도 參加하여 IMF의 世界的인 運動方針등을 決議 決定에 寄與해 왔다.

最近에는 금년 2月2~4日 필리핀 마닐라에서 開催된 바 있는 第7回 IMF 아시아 靑婦人 심포지움 參加로 各國의 固有한 土壤위에서 婦人의 能力과 欲求가 男性과 똑같이 발휘할 수 있도록 “機會의 平等”을 可能케 하는 社會를 구축할 것의 課題를 追求하여 심포지움「結語」를 採択하는 등의 成果를 거두었다. 그리고 또한 各國에 수많은 세미나 研修 및 大會에 派遣하여 情勢把握과 그 研究에 努力하는 한편 國內運動의 폭을 북돋우거나 나무가지가 무성하게 뻗어 나갈수 있도록 하는 活動을 推進해 나왔다.

이러한 貴重한 經驗을 싸울리면서 本勞組는 IMF加盟 組織으로서의 基調를 굳히며 IMF諸會議에 있어서 採択한 宣言 決議 등의 內容을 具體化하기 위하여 必要한 諸活動을 強力히 推進하는 한편 本勞組 独自の 國際交流活動을 展開해 나갈 것이다.

또 每年 유럽, 美國, 아시아, 아프리카地域 등의 IMF加盟組合과의 交流를 促進해 가면서 問題別로 이를테면 産業政策, 産業民主主義(經營參加問題), 多国籍企業·社會·勞動環境, 安全, 保健, 團體交涉 등을 中心으로 한 研究를 積極 推進해 나갈 것이며 IMF가 招集하는 各種會議 諸活動에 積極的인 參與와 더불어 그 決定事項을 國內에 있어서 具體적으로 實踐하는 責任과 義務를 갖는 이상, 會議·活動에의 參加에 있어서도 韓國의 金屬産業 勞動者를 代表하는 立場에 서서 事前對策을 충분히 행하면서 對処해 나갈 것이다.

또 會議 및 諸活動內容 등에 대하여는 그때마다 可能한 限 機關紙, 研究誌 報告書 등으로서 弘報와 報告를 組織內는 勿論, 必要에 따라 對外에 公表하여 우리의 立場을 널리 敷衍해 나갈 것이다.

특히 高度工業化 政策의 成功的인 發展에 따라 韓國의 金屬勞動組合으로서의 役割이 날로 드높아 가는 이때 그 맥박을 스스로 意識하면서 아시아와 더불어 未組織 勞動者의 組織化와 拡充 強化 그리고 勤勞條件의 向上 基本的으로는 勞動組合權의 確立을 겨냥 IMF本部나 IMF東아시아 事務所와의 緊密한 連絡아래 積極的인

連帶, 支援, 協力活動을 展開함으로써 아시아에서 우리의 位置를
굳혀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 進出하고 있는 多国籍企業에 대한 組織
拡充과 団体交渉을 통한 勤勞條件 등 向上에 대한 進出勞組의
連帶에 대하여 첫 段階로서 韓日多国籍企業勞組會議의 提議를 비
롯하여 IMF産業別部會 및 委員會와 諸會議의 韓國開催 등 促進
을 위한 準備作業에 最善의 努力을 기우려 나갈 것이다.

勤勞者の 生涯生活 비전 發刊

1974년부터 1975年 初期에 걸쳐 發生한 石油波動으로 인한
世界經濟의 不況에도 불구하고 韓國經濟는 비교적 安定을 유지하면
서 着實한 成長을 거듭하여 마침내 77年 12月에는 大望의 100億
불 輸出을 達成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勤勞者들이 낮은 賃金을
받으면서도 輸出最優先이라는 國家施策에 呼應하기 위해 묵묵히 쉬지
않고 끈기있는 獻身的 努力에 그 比重이 컸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같은 成果에도 불구하고 均衡分配의 熱望을 吸收하지
못한채 勤勞者들의 最少限의 要求인 實態生計費의 引上조차 企業人
들은 外面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70年代를 마무리하고 福祉社會

實現이라 希願을 안은 80年을 맞게 될 79年의 事業展開를 위해 各級支部(分會)의 中・長期 資金政策 樹立과 더불어 本勞組의 일하는 勤勞者를 위한 國民的 最小限의 生活水準의 비전을 提示하기 위한 資金政策의 參考資料로서 일본 노동동맹과 IMF~JC가 共同으로 編纂한 『勤勞者の 生涯生活 비전』을 번역 출판했다.

4×6 倍版型으로 178 페이지에 이르는 이 『비전』책자의 과역은 1980年代에 있어서 勤勞者の 生活生態의 모습을 追求할 것으로 『사람다운 餘有와 安全感있는 勤勞者生活』의 구체적인 內容과 條件을 私的 消費(家計)와 그것을 지탱하는 社會的 消費의 兩領域에 걸쳐서 꾸민 것으로서 그 特徵의 하나는 勤勞者の 生活欲求의 中心이 精神的인 豊요함이 追求를 包含한 生活의 質的인 高度化와 生涯生活의 安定確保에 있다는 것을 考慮하여 標準的 勤勞者の 生涯를 통하여 어떠한 『라이프·사이클』의 設計를 할 것인가의 그 目標水準을 明確히 하고 있다는 것과 그 들쭉는 現在生活이 國家의 社會保障이나 住宅, 教育, 医療 기타 社會消費와의 關聯이 있으며 將來의 私的 消費와 社會的 消費를 묶은 生活向上이 必要하다. 그래서 住宅, 生活環境, 教育, 医療, 年金(老後保障), 公的扶助 등 社會消費의 여섯가지 重要分野의 水準向上 政策要求를 提起하고 있으며 세째로는 이 모든 生活向上 「프로그램」과 그 實現에의 運動展開를 어떻게 展開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廣範圍한 國民各層의 共感과 支持가 必要하며 동시에 經濟成長과의 整合性위에 成立시키는데 成功하고 있다.

重要目次를 보면 本勞組 金炳範委員長의 序文과 IMF-JC宮田
義二議長의 序文에 이어 總論이 되며

總論 으로서는

I. 生涯生活 비전의 性格과 그 前提條件

II. 生涯生活 비전의 概要

III. 生涯生活 비전의 實現과 日本經濟

各論에 들어가서

I. 生涯生活 비전중 私的 消費領域의 內容

※ (補論) 食糧의 需給展望과 食生活

II. 生涯生活 비전중 社会的 消費領域의 內容

III. 生涯生活 비전의 實現과 日本經濟의 모습으로 되어 있다.

2. 貯蓄擴大와 財形運動展開

使用者가 그 企業을 維持發展시키는데 必要한 것은 勞使
關係이다. 즉 經營者는 勤勞者의 欲求를 充足하도록 勞務政策을
펴고 그것이 企業의 生産性・永続性에 結付되도록 配慮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나라 企業經營者가 취하고 있는 勞務管理
그중에서도 勤勞者의 財産形成에 관한 問題를 생각해 보면 오랜
歴史的 背景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現在의 勞務管理의 모습과 將來의 모습을 그려보기 위

해서는 지금까지 걸어 온 經過를 되돌아 보는 일은 결코 헛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紙面關係로 後日로 미룬다

아무튼 高度經濟成長에, 힘입은, 企業들이 勤勞者の 財産形成에 力點을 두는데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왜 勤勞者の 財形에 力點을 두는 企業이 늘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勤勞者の 財形을 促進함으로써 과연 어떤 效果가 나타날 것인가.

그것은 ① 必要한 勞動力을 確保하기 위한 매력있는 企業이미지의 確立 ②從業員의 定着對策 ③勤勞意欲을 鼓吹한다. ④ 会社에 대한 帰屬意識을 高揚시킨다. ⑤ 勞使關係의 協調化를 圖謀한다고 하는 效果를 勤勞者の 財形을 통해 期待되기 때문이다.

오늘貯蓄増大와 勤勞者財産形成支援에 관한 法律(76.3.31 第2890号)에 의해 實施되고 있다. 그러나 이 財形法의 施行課程에서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으며 企業이 이 財形貯蓄制度를 導入했다고 해서 勤勞者の 財形이 잘 되리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法律이 나라의 基本政策으로서 確立되었다는 것은 企業뿐만 아니라 勞働組合이 勤勞者를 위해 財産形成을 다시금 새로이 생각하면서 対処해야할 重要當面問題라고 하겠다.

다음은 本勞組가 推進한 汎勤勞者 貯蓄運動 特別推進運動과 더불어 賞與金 財産形成 貯蓄加入 勸奨活動이다.

1. 汎勤勞者 貯蓄運動 特別推進期間 設定

一. 實踐要綱

1. 目 的

汎國民貯蓄生活 運動期間에 즈음하여 勞動組合이 主体가 되어 勤勞者 貯蓄運動을 勤儉節約의 次元에서 消費節約, 物質節約 및 貯蓄増大등 勤勞者 스스로 生活安定을 도모하고 貯蓄의 生活化와 貯蓄 底辺拡散으로 勤勞者の 社会的 消費領域의 福利 増進은 勿論 國家經濟 發展에 이바지 한다.

2. 方 針

가. 勞動組合을 통한 汎勤勞者 貯蓄運動을 勞總이 主管이 되어 産別 勞組別로 推進한다.

나. 勞使協議會를 통하여 事業場 單位로 勞使가 共同參與하는 職場새마을 金庫 組織을 拡散하여 勞使相互間의 協同, 節約을 도모할 수 있는 제기를 마련토록 한다.

다. 消費節約, 物質節約을 통한 勤儉節約의 基盤위에서 貯蓄底辺人口의 確保와 貯蓄習性을 生活化하도록 敎育, 指導, 啓蒙을 強化한다.

바. 貯蓄運動은 勞動組合이 主軸이 되어 全勤勞者에게 波及되도록

유도한다.

사. 勞總 및 産別勞組別로 同期間中 貯蓄促進 專担部署를 指定하여 貯蓄에 대한 各種 計劃, 敎育, 캠페인, 相談 및 弘報業務등을 專担할 수 있도록 一系不亂한 指導體制를 確立한다.

아. 海外就業 勤勞者 貯蓄推進은 그 家族들에 대한 弘報를 充하여 유도한다.

3. 推進期間

1978.9.1 ~ 1978.10.31(2 個月間)

4. 推進計劃

가. 本勞組

- 1) 推進委員會 構成
- 2) 各級支部에 實踐要綱의 作成・示達
- 3) 巡廻講演 및 推進督勵
- 4) 弘報活動 展開
一機關紙 活動 및 懸垂幕 揭揚一
- 5) 推進狀況 集計報告
- 6) 貯蓄王 選定施賞

나. 各級支部

- 1) 貯蓄運動 推進大會 開催

- 事業場側과 協同 -

- 2) 새 마을運動을 통한 精神啓蒙運動의 積極 展開
- 3) 支部(分会) 幹部의 貯蓄要員 確保로 先導的 役割의 担当
- 4) 宣傳活動의 展開(懸垂幕, 立看板標語, 리봉등 貼着)
- 5) 貯蓄獎勵制度의 活用

- 勞組加入時부터 貯蓄의 習慣을 기른다.

- 10만원 限度로 定期領金 勤勞者에게 会社が 1割金額을
支給토록 하는 制度 즉 団体協約 締結 -

- 6) 貯蓄王 選定 本勞組에 報告
- 7) 推進狀況 集計報告
- 8) 各 組織別 貯蓄目標 設定
- 9) 새마을金庫, 信用組合의 設置와 이미 設置된 制度의 運營
內実化 促進
- 10) 消費, 共濟組合의 設置運營으로 実質所得의 向上과 消費節約
의 誘導
- 11) 勤勞者 財形貯蓄의 持續的 推進

二. 推進委員會 構成

1. 機 構

委員長： 金 炳 竜

委 員： 姜俊錫，鄭澄炅，河 俊，韓 達 洙

幹 事： 崔 鍾 圭

主 務： 金 英 秀

三. 有功者 施賞

1. 施 賞： 貯蓄模範者 表彰 및 副賞

2. 対象者： 高美半導體支部

副支部長 이 해 경

3. 施賞日時： 78.12.22(금) 11:00 시

4. 貯蓄金額： 出資金 90,519 원 預託金 58,000 원

2. 賞与金 財産形成 貯蓄加入勸奨

1. 趣 旨

지난 76年 4月1일부터 實施한 勤勞者財産形成 貯蓄制度는 事業主 및 勤勞者들의 積極的인 呼応을 얻어 推進된지 3年이 지난 78年 8月20日 現在 132 万餘 勤勞者가 同貯蓄에 加入한 貯蓄契約 高가 6,472 億원, 收入敷金 1,705 億원에 이르는 実績을 挙揚함으로써 貯蓄増大에 劃期的인 役割을 担当하고 있으며 특히 財形貯蓄 加入者中の 61.1%가 10 万원 未滿의 勤勞者라는 事實을 勘案할때

低所得層의 熱望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듯 가슴이 뭉클해짐을 禁할 수가 없다. 그러나 또 財形貯蓄이 賃金所得者의 中産層育成이 라는데 큰 目的이 있는 것이므로 어려움을 克服하고 財形의 早期達成을 위하여 制度를 新設한 것이 賞與金 財産形成貯蓄制度이다.

2. 加入対象者

現行 財産形成 貯蓄加入 勤勞者

- 1) 国内就業者: 月 給与 40 万円 以下인 者
- 2) 海外就業者: 月 給与 50 万円 以下인 者

3. 貯蓄機關

国民銀行, 住宅銀行

4. 貯蓄金額

最低 10,000 원 以上 最高 当該 賞與金 全額까지

5. 貯蓄期間

2 年, 3 年, 5 年

6. 貯蓄方法

毎 賞與金 支給時마다 事業主가 貯蓄者의 貯蓄希望金額을 確認하여 賞與金에서 控除하여 貯蓄機關에 納入함.

7. 各種特典

利子率, 金利, 奨励金支給 등은 現行 財形貯蓄과 同一함.

財形貯蓄 利率表

期 間	基本金利	別定奨励金 (年間収益率)	計	任意奨励金 (年間収益率)	合 計
2 年制	年 14.2%	元金の 9.0(8.6)	(22.8%)	元金の 2.0(1.9)	24.7 %
3 年制	年 15.2%	12.0(7.8)	(23.0 %)	3.0(2.6)	25.6 %
5 年制	年 17.2%	25.0(9.8)	(27.0 %)	5.0(2.9)	29.9 %

金屬勞組歌 制定

勤勞者の 生涯生活비전의 翻訳出版에 이어 또 하나의 意欲的인 事業으로서 金屬勞動組合의 노래를 制定했다.

노래와 音樂이 國境을 넘어 時代와 世代를 超越하여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懽족하게 해주는 것이라면 『金屬勞組歌』및 「우리는 金屬勞動者」의 노래는 全國의 金屬勞動者의 마음속에 메아리로 번져 노래하고 듣는 사람에게 새로운 “感動”과 “共感”을 안겨 줄 것이며 또 勤勞者の 意識을 드높이고 組合員의 同結을 촉진

시켜 健全한 마음속에 담기는 노래의 香氣는 하나의 불꽃처럼
튀기며 응결하여 社會正義, 俱現을 위한 促進劑가 될 것이다.

本勞組는 이러한 뜻에서 78年 2월에 確定한 심벌마크 製作
에 이어 金屬勞組歌의 制定을 위한 歌詞를 金屬勞報를 통해 널
리 募集했 으나 當選作이 나오지 않아 결국 本勞組에 寄稿해온
鄭荅嚴氏의 歌詞를 選定 이를 中央委員會에서 採択하는 한편 노
래의 普及을 위한 作曲 編曲을 作曲家인 나규호氏에게 依頼하여
原稿募集으로 부터 1年만에 完成을 보았다. 다음은 그 歌詞이
다.

금 속 노 조 가

1. 떠오르는 태양의 이상을 안고

선언강령 구현위해 뭉친 우리들
거칠은 가시밭길 꺾어 넓히며
나가자 금속깃발 강철의 대열
손모은 여섯분과 무궁한 길을
정의의 사회져갈 금속노동조합

2. 비지땀 기름손의 노동의 보람

하늘과 바다물을 세제로 대는
영광의 산업대열 맥박이 뚝다.

나가자 금속깃발 강철의 대열
일하며 교류하는 국제 뉴대로
인류의 평화지킬 금속노동조합

3. 용광로 흐른용액 불꽃 튀기듯
우리의 땀줄속은 불고 뜨거워
잘사는 평생터전 우리 손으로
나가자 금속깃발 강철의 대열
뜻모은 투혼속에 내일은 밝다.
복지를 다져가는 금속노동조합

우 리 는 금 속 노 동 자

1. 조국의 산업발전 메고 나가는
피끓는 우리들은 금속노동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치어
자유와 평화위해 전진하면서
평등한 복지사회 건설해 간다.
2. 무쇠를 다듬으며 꾸며 나가는
보람찬 우리들은 금속노동자

힘뭉쳐 슬기 뭉친 단결의 의지
노동의 기본권리 바로 잡아서
즐기찬 우리생활 드높여 간다.

3. 용광로 작업장도 뜨거워 지는

구슬땀 우리들은 금속노동자
노동의 거북함을 노래부르며
비운의 악순환을 벗겨 나간다.
정의의 노동사를 빛내여 간다.

文 化 의 날 행 사

-노동의 人間性 回復과 矜持를 위하여 活潑히 展開하자-

10月은 文化의 달이며 또 20日은 文化의 날이다 本勞組가
示達한 바 있는 文化行事 推進要綱에 따라 要請한 結果報告가
첫 行事인 타인지 몰라도 별반 들어오지 않아 全体的인 狀況은
把握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일부 支部에서는 그림·서예·음악회
체육대회를 비롯하여 각종 전람회 등이 열려 뜻있는 組合員들의
關心을 모은바 있어 思索의 가을, 文化의 가을이라는 생각을 한
층 복돋아준바 있다.

일부 支部에서는 多樣性있는 文化的 여러 行事나 스포츠가 企
劃되어 이것을 하나의 年中行事로 적극 推進하고 있는데가 적지

않다. 小說・詩・散文・書芸・繪畫・写真 등의 作品發表會나 各種
音樂 愛好會어울과 그 發表會, 꽃꽂이・바둑・將기등 趣味관계에서
부터 登山・野遊會・運動會등의 스포츠가 職場의 동료들의 參加와
創造를 目的으로 本格的인 計劃으로 活潑히 推進되어 가고 있는
경향이 드높아 가고 있는 이때, 全体的으로 보아서 아직도 低
賃金과 格差, 그리고 産業災害 등의 增大속에서 이러한 勤勞條件
의 改善이 앞서야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을수 있는 것이 現
實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問題로 삼아야 할 것은 이러한 點의 새
로운 自覺이나 覺醒이 아닌가 싶다. 말할 나위도 없이 勞動
組合에 있어서의 文化活動은 個人的 趣味나 놀이가 아니며, 職
場에서 일하는 同志들과 깊이 뿌리박힌 人間的 要求에 의해서
自然發生的으로 싹트며 成長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 것
은 職場沙漠, 技術革新에 의한 人間疎外라고 일컫는 것을 克服
하고 勞動者의 主体性を 確立하고 서로의 사는 보람에 “共感”
을 주는 活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職場의 環境條件이 피로워
지면 질수록 同志들간의 團結強化가 強調되며 이 團結의 重要
要素중의 하나가 우리들이 말하는 文化活動이라는 것을 잊어서
는 안될 것이다.

組合員의 生活에 뿌리를 내리고 生活의 알맹이를 풍요하게
하는 質的向上을 위해서는 文化的 要素가 時間的으로나 金錢的
으로나 점점 그 重要性이 드높아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多樣化해 가는 組合員들의 慾求를 組合幹部들은 깊이 認識하고
職場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가꾸어 나왔던 각종 文化씨들의
自主性を 尊重히 하고 이의 育成強化를 위해 發表의 広場을
만들거나 많은 財政的 便宜를 提供하는 同時 發表와 活動의
自由를 保障하는 것이 当面한 가장 必要한 課題가 아닌가
싶다.

우리들은 文化의 달을 맞이하여 職場에 있어서 文化活動의
오늘의 意義와 그 重要性을 이상과 같은 時点에서 直視하고
스스로의 組合活動 全体속에서 文化活動의 올바른 姿勢를 確立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런데 文化活動이라는 것은 머리속에서는 환히 뜻있는 것이
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實踐段階에 와서는 제일 먼저 無視되거
나 財政面에서 뒷전에 둘러지는 것이 바로 이 分野이기도 하
다. 그러나 아무리 無視되더라도 결코 勞働組合이 여기에서 손
을 댈 수는 없다. 勞組의 重要活動의 하나인 性格을 文化活動은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文化는 生物이 成長하듯이
눈에 보이는 듯이 變해 가는 것이 아니며, 人間이 成長해 가는
듯이 發展해 간다는 것이라는 自覺을 갖고 文化活動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幹部들의 基本姿勢로서 굳혀 나가야 하며 근기있
게 前進해 나갈 必要가 있다는 것을 제일 먼저 強調하고 싶은
것이다.

어쨌든 創造性을 生命으로 하는 文化活動을 職場에 定着시켜
發展토록 하기 위하여 幹部나 組合員이 함께 參與함으로써 勞動
의 人間性을 回復하고 矜持를 안을 수 있는 内實을 다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本勞組가 展開한 78年度 文化의 날 行事
要綱이다.

文化의 날 行事要綱

1. 目 的

“文化의 달” 및 文化의 날을 맞이하여 각종 文化藝術 行
事を 能動的 集中的으로 展開하여 汎組織적으로 “文芸中興 氣運을
振作시킴으로서 組合員의 文化意識을 提高시킴.

2. 行事期間

가. “文化의 달 行事” : 78.10.1 ~ 31 까지

나. “文化의 날 行事” : 78.10.20 (金曜日)

3. 根拠法令

가. 文化藝術振興法 및 同施行令

〈 法律 第 233 号 및 大統領令 第 6357 号 〉

나. 各種 記念日에 關한 規定

(大統領令 第 6615 号)

4. 方 針

가. "文化의 달"인 10月中에는 各級支部(分會)에서는 内
職場, 内 고장과 關聯된 職場文化 및 郷土文化 振興을 위하여
自体実情에 맞도록 文化芸術行事를 開催한다.

나. "文化의 날"의 行事를 위하여 献身的으로 努力한 有功
組合員을 表彰한다.

다. 各級支部(分會)에서는 이미 組織된 組合員 및 職場文化
行事를 위한 씨줄 및 모임에 대하여는 이를 널리 宣傳하고
團結을 통한 勞働文化 向上에 全組合員이 参与하도록 指導努力하
며 아름다운 職場文化行事로서 伝統을 이어나가도록 한다.

라. 文化行事를 통하여 組合員의 組織参与 意識을 고취시키며
適性에 의하여 製作된 作品의 展示 및 施賞과 더불어 이를 널
리 弘報하기 위한 新聞, 文集, 作品集을 発行한다.

마. "문화의 달" 및 "文化의 날"標語 및 포스터를 製作
하여 文化行事의 무드를 造成한다.

바. 演劇 및 文化行事에는 家族과 더불어 함께 함으로써 職場
및 家庭과의 理解를 增進시킨다.

5. 行事計劃

가. 대 상

- 지역여부
- 사업장지부

나. 行事內容

- 所屬組合員의 文學, 音樂, 演劇, 書芸, 工芸 등의 作品展示
會 競演大會 및 白日場 등
- 各種 運動會, 登山 등 모임회
- 文化藝術에 관한 講習會, 세미나 등
- 기타 組合員의 團結을 強化하고 術기를 培養하는 모임.

5. 産業安全教育

産業安全 保健強調期間은 78年을 맞이하여 第14回째가 된다. 本勞組에서는 이 期間을 例年과 같이 가장 해이하기 쉬운 여름철을 맞는 6월 1일부터 7月 31日까지의 2個月間에 걸쳐 展開키로 하였으나 지난 14年 동안의 運動評價와 더불어 이제부터의 새로운 工業高度成長時代에 접어들면서부터 우리가 臨해야 할 安全活動의 出發點으로서의 意義는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하면 14 年에 걸쳐 계속 展開되어 나왔던 이 運動이 우리 나라 産業安全 發展에 寄與한 功績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동안 先覺者의 努力에 의해 처음으로 全國規模로 實施된 이래 오늘까지 때의 흐름과 또 社會情勢의 急變에도 좌절됨이 없이 産業安全 保健強調期間은 玆까지 이어져 나왔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努力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安全의 原點에서 事故로부터 敎訓을 배울 것이 아니라 미리 豫防하는 實踐的 効力を 期하는 것이 産業安全保健強調期間을 맞는 우리의 課題가 아닐까 생각된다.

本勞組에서는 이러한 意義를 드높이기 위해 同強調期間을 위한 推進要綱(調査統計活動篇 参照)을 마련 하여 實踐을 위해 萬全을 期하는 한편 7 月 19 日 勞總 小會議室에서 産業安全과 豫防에 대한 實務者教育을 實施한바 있다.

6. 編輯者 懇談會 開催

本勞組의 組織이 13 萬名에 達하여 名實共に 大産別로서의 量的 補充을 이룩했다. 그러나 組織의 힘찬 前進과 同結을 위한 質的 補充은 아직도 不充分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계속 展開되는 本勞組 및 各級支部에서의 敎育, 宣伝活動으로 組合員의 勞組參與를 위한 意識開發에 最善을 다하고 있는

이때 各支部의 敎宣活動을 위해 애쓰는 勞報 편집담당자의 苦衷을 慰勞하고 組織內的 弘報活動의 基本方向과 內実化 및 參加問題 등을 討議하기 위하여 79年 2月 13日 14時에 本勞組 會議室에서 편집자 懇談會를 開催했다.

이날의 懇談會에서는 組合員의 賃金 및 勤勞條件등 實質的인 生活向上을 위한 勞組活動相을 널리 組合員에게 알리며 또 組合員의 意思疎通의 広場으로서의 弘報活動에 대하여 진지한 분위기에서 論議된바 있는데 이날 集約된 問題點은 다음과 같았다.

- ① 本勞組나 支部를 不問하고 指導方向의 定着이 要望되며 그 運動方針에 따른 事業計劃 推進方向을 널리 組合員에게 敷衍토록 한다.
- ② ①의 活動方針 및 推進事項 이외에 形式이 딱딱하지 않은 敎養 및 娛樂등 興味記事의 掲載幅을 넓힘으로서 紙面을 보는 組合員의 情緒涵養에 이바지 하도록 한다.
- ③ 勞使關係에 있어서 일어나기 쉬운 紛糾 등의 事例를 掲載하여 그 解決을 위한 実務指針 등을 紹介하여 勞組의 日常活動에 參與할 수 있도록 努力한다.
- ④ 定期的인 勞報發行에 따른 原稿不足등의 애로를 克服하기 위하여 橫的인 유대를 통한 情報交換의 모임이 必要하다.
- ⑤ 위 네가지 問題 이외에 勞報 발행의 기획樹立과 편집方向 등 勞報의 活性化를 위해 專門委員會의 構成이 要望된다.

한편 本勞組에서도 懇談회에서 集約된 5 個事項의 效果的인
實踐方案으로서 專門委員會의 構成이 必要함을 認識코 이를
政策担当 任員에게 建議함으로써 79 年度 事業에 反映토록 했다

總 務 活 動

.....

.....

內

.....

容

.....

概 要

I. 會議活動

1. 全國代議員 大會
2. 中央委員會
3. 中央執行委員會
4. 部署部長會議
5. 會計監查委員會
6. 規約 및 諸規程審議委員會
7. 賃金對策委員會
8. 分科委員會
9. 勞總各種會議
 - 1) 勞總全國代議員大會
 - 2) 勞總中央委員會
 - 3) 其他會議

II. 一般活動

1. 勞總獎學金 支給
2. 出張狀況

總 務 活 動

概 要

勞働組合의 合理的 運營을 期하기 爲하여는 가장 民主的이고 合法的인 勞働組合의 實務行政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그러기 爲해서는 勞働組合運營의 民主化와 組織의 安定속에서만이 健全한 會議活動이 展開되고 또한 組合의 참된 發展이 期待된다 하겠다.

本 勞組는 지난 1年동안 中央委員會를 비롯한 各種 會議를 通해 事業計劃 遂行과 当面問題解決等 全体 意見의 흐름을 綜合하여 施策面에 反映시키는 円滑하고 民主的인 會議活動을 通해 한층 더 組合의 發展을 거듭하였다.

더우기 1978年度 全國代議員大會는 代議員 182名이 參席한 가장 安定되고 團結된 組織의 힘으로 國內外 來賓, 勞働界 先輩들을 모시고 盛大한 大會를 開催하여 成長한 金屬勞組의 참 모습을 誇示하였던 大會였다.

그것은 組織적으로 굳게 뭉쳐진 우리의 結束된 힘을 바탕으로 새롭고 알찬 勤勞者의 生活비전을 確立시키고 또한 안으로는 組合運營에 內實을 期하기 爲한 使命感으로 이루어진 좋은 結果라 하겠다.

한 家庭의 살림은 착실한 主婦의 손에 依해 다듬어지듯 勞働組合의 總括的 業務를 管掌하는 總務部の 基本業務 역시 폭이 좁고

넓은 部分에까지 미치는 廣義의 業務이기 때문에 合法的인 會議活動, 正確한 財政의 運營과 管理, 獎學事業等을 展開하였고 本組合의 宿願事業의 하나인 會館建立推進努力에 이르기까지 多角的인 活動으로 지난 1年을 마무리지었다. .

回顧컨데 커다란 施行錯誤없이 進行되었던 것은 무릇 傘下 全組合員의 높은 參與意識과 各種 會議의 參席者들의 總意에 依한 事業進行等の 結果임을 생각할때 重化學工業의 旗手로서 育成 發展해 나가는 本組合의 未來는 밝다 하겠으며 이런 모든 點을 勘案할때 組織과 敎育, 調查統計活動等 各 部署의 살림을 뒷받침하는 總務部의 任務는 보다 科學的이고 民主的이고 細密한 計劃을 바탕으로 이룩되는 比重 큰 役割로서 앞으로의 事業을 展開해 나가야 하겠다.

I . 會 議 活 動

1. 全國代議員大會

- (1) 日 時 : 1978年 5月 20日 11 : 20
- (2) 場 所 :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汝矣島洞 1의 117
- (3) 參加代議員 : 代議員 182名中 176名 參席

代 議 員 名 單

番 号	姓 名	所 屬	番 号	姓 名	所 屬
1	이 중 석	南 서울 支 部	21	서 정 권	慶 北 支 部
2	장 관 식	"	22	김 병 희	"
3	이 상 호	"	23	김 중 원	"
4	이 창 성	"	24	조 병 준	"
5	이 지 승	"	25	이 창 기	"
6	황 익 수	"	26	임 용 수	"
7	이 흥 우	"	27	이 중 한	"
8	함 진 갑	"	28	주 영 대	"
9	홍 철 용	"	29	장 진 옥	"
10	김 재 현	"	30	손 승 익	"
11	음 호 신	"	31	서 정 립	"
12	박 효 상	"	32	김 석 조	"
13	정 태 식	"	33	모 농 식	全 南 支 部
14	허 선 회	"	34	김 장 화	"
15	김 용 구	"	35	하 경 열	"
16	배 기 화	京 畿 支 部	36	오 낙 현	서 울 支 部
17	김 상 도	"	37	김 중 현	"
18	강 석 록	"	38	김 준 기	"
19	함 정 길	"	39	장 경 일	"
20	하 준	慶 北 支 部	40	손 상 태	慶 南 支 部

番 号	姓 名	所 属	番 号	姓 名	所 属
41	이 영 석	慶 南 支 部	62	권 대 식	京 畿 整 備 支 部
42	박 영 옥	"	63	이 승 회	木 浦 支 部
43	정 남 수	釜 山 支 部	64	이 병 현	忠 南 支 部
44	박 일 수	"	65	이 동 윤	大 宇 重 工 業 支 部
45	오 봉 출	"	66	최 병 인	"
46	공 원 수	"	67	이 승 규	"
47	김 영 관	"	68	신 병 기	"
48	박 인 상	"	69	봉 인 중	"
49	김 무 경	"	70	김 정 치	"
50	박 을 훈	"	71	김 인 석	"
51	최 영 옥	"	72	이 승 진	"
52	이 무 홍	"	73	정 부 경	金 星 社 支 部
53	서 정 관	"	74	강 규 갑	"
54	한 강 진	"	75	이 형 태	"
55	박 기 식	"	76	한 기 조	"
56	허 숙 이	"	77	강 영 섭	"
57	조 각 래	"	78	민 정 식	"
58	남 정 근	"	79	최 중 규	"
59	유 임 중	"	80	엄 상 영	"
60	윤 봉 회	江 原 整 備 支 部	81	정 진 현	"
61	임 정 주	京 畿 整 備 支 部	82	이 정 회	"

番号	姓 名	所 属	番号	姓 名	所 属
83	김 인 백	金星 仕 支 部	104	최 성 찬	仁川 製 鉄 支 部
84	임 병 길	"	105	한 상 석	"
85	나 찬 경	"	106	김 무 환	"
86	최 재 협	"	107	이 윤 석	金星 通 信 支 部
87	서 윤 일	새 판 자동차 부산지부	108	김 종 향	"
88	김 재 훈	한국배아링 支 部	109	손 영 남	"
89	김 태 일	"	110	김 길 동	"
90	김 봉 훈	웨어차일드 支 部	111	장 명 환	새한自動車東萊 支 部
91	선 순 복	"	112	김 윤 기	金星 電 線 "
92	윤 기 원	"	113	하 영 일	"
93	박 래 호	"	114	김 대 식	"
94	반 선 환	"	115	이 창 원	"
95	엄 기 한	"	116	이 성 균	새한自動車京仁 支 部
96	윤 경 준	造船 公 社 支 部	117	이 승 익	"
97	박 일 용	"	118	이 원 우	"
98	이 범 익	"	119	최 수 길	大 韓 電 線 支 部
99	백 삼 수	"	120	김 장 선	"
100	조 중 천	"	121	이 관 우	"
101	김 몽 태	"	122	이 상 길	"
102	최 정 원	大 韓 造船 支 部	123	이 용 호	"
103	심 신 혁	"	124	심 승	"

番号	姓 名	所 属	番号	姓 名	所 属
125	김 성 문	大韓電線支部	146	박 순 자	시그네틱스支部
126	김 근 진	"	147	최 규 분	원 봉 옥 천 支部
127	정 정 호	"	148	정 영 규	"
128	최 익 환	"	149	최 경 환	金星알프스支部
129	정 찬 백	"	150	김 무 수	"
130	이 일 표	"	151	정 외 영	"
131	이 영 길	"	152	박 봉 기	"
132	변 시 현	起亜産業支部	153	정 학 균	大東造船支部
133	권 수 태	"	154	안 교 협	"
134	서 재 인	"	155	최 응 길	東洋鋼鐵支部
135	송 기 선	"	156	이 수 범	釜山砲金支部
136	노 회 준	"	157	노 태 운	世信実業支部
137	김 세 민	"	158	박 용 섭	"
138	박 대 준	"	159	백 순 기	湖南電氣支部
139	곽 재 호	"	160	김 정 현	"
140	엄 석 출	"	161	고 순 안	"
141	김 점 옥	시그네틱스支部	162	허 성 원	金星電機支部
142	김 회 준	"	163	김 상 수	"
143	이 명 숙	"	164	박 현 수	"
144	이 송 자	"	165	임 복 회	高美半導體支部
145	김 연 옥	"	166	이 증 복	大韓重機支部

番 号	姓 名	所 属	番 号	姓 名	所 属
167	임 창 기	大韓重機支部	175	호 진 천	남 성 支 部
168	김 정 배	"	176	공 수 봉	금 성 세 전 支部
169	송 기 철	"	177	조 경 수	동 남 전 기 支部
170	유 갑 식	日新製鋼支部	178	신 백 용	효 성 중 공 업 支部
171	김 종 욱	"	179	김 창 희	"
172	강 대 현	"	180	김 현 기	"
173	이 영 순	콘트볼데이타支部	181	최 봉 화	영 동 특 별 분 회
174	김 지 영	"	182	이 우 상	한 일 전 기 분 회

(4) 会 順

① 開会宣言 司会 企劃室長 李 憲 求

② 金屬勞組旗 入場

③ 國民儀禮

④ 國民教育憲章 朗誦

⑤ 開 会 辞 委 員 長 金 炳 龍

⑥ 激 励 辞 勞 總 委 員 長 鄭 東 浩

⑦ 祝 辞 國 會 議 員 權 重 東

日本金屬勞協 (IMF-JC) 事 務 次 長 小 島 正 康

中國國際金屬勞工 (IMF-ROCC) 常 務 執 行 委 員 朱 啓 照

日本全金同盟 副 組 會 長 木 下 真 吉

⑧ 模範組合員 表彰 박인상 外 50名에게 授与

⑨ 成員報告 代議員 182名中 176名 參席

⑩ 會順通過 原案대로 通過

⑪ 大會宣言文 朗誦 事務局長 崔 鍾 圭

⑫ 1977年度 事業報告 原案대로 通過

⑬ 1977年度 決算報告 企劃室長 李 憲 求

會計監查委員 李 義 憲

※ 會計監查結果 各 帳簿의 記帳과 証憑書類는 일목요연하게 整理되어 있으나 一部事業이 不振하여 豫算이 다 執行되지 못하였음을 勘案할때 次後 事業計劃推進에 蹉跌이 없도록 適切な 豫算의 編成과 執行을 하여야 設으며 特히 調查統計活動의 強化와 組合員 資質向上을 爲한 教育事業에 徹底를 促求하고 原案대로 承認通過

⑭ 1978年度 事業計劃樹立 : 原案대로 無修正 通過

⑮ 1978年度 豫算案承認 : 原案대로 承認通過

⑯ 芳總派遣代議員 選出

金 炳 龍	姜 俊 錫	河 俊	鄭 滢 炅
韓 達 洙	洪 晚 杓	鄭 南 洙	李 義 憲
崔 鍾 圭	李 憲 求	彭 宗 苗	崔 正 元
徐 潤 日	鄭 樂 均	辺 始 鉉	金 性 寶
崔 成 贊	徐 載 仁	李 尚 淑	金 柄 鎬
李 重 錫	高 漢 星	趙 金 采	林 正 鈺

李 成 均	李 鍾 福	崔 雄 吉	崔 璟 丸
鄭 龍 洛	崔 圭 文	金 鳳 熙	金 点 玉
許 成 元	趙 兌 植	張 德 五	李 英 順
俞 甲 植	李 丙 憲	盧 泰 云	李 修 範
張 明 煥	박 일 午	咸 鎮 甲	徐 正 權
金 將 鮮	閔 正 植	金 載 焄	李 丙 烈
林 福 熙	宣 順 福		

⑰ 決議文 採択

⑱ 其他討議事項

(5) 模範組合員 名單

	所 属	職 位	姓 名	生 年 月 日
345	南 西 支 部	分 会 長	허 선 회	44.12. 5
346	"	"	정 태 식	47. 6.27
347	"	"	이 성 춘	41. 9.14
348	京 畿 支 部	"	안 문 오	39. 7.20
349	서 울 "	"	김 중 현	49. 1. 8
350	慶 北 "	"	서 정 립	39. 1 3
351	"	"	손 성 익	50. 1.17
352	慶 南 支 部	"	변 왕 선	29. 7.26
353	釜 山 支 部	事 務 長	박 인 상	39.12. 5
354	"	総 務 次 長	이 창 민	44. 2.10

	所 属	職 位	姓 名	生 年 月 日
355	釜 山 支 部	婦 女 部 長	허 국 이	53. 3. 3
356	江 原 整 備 支 部	運 營 委 員	김 승 성	40. 9. 1
357	京 畿 整 備 支 部	分 會 長	양 성 누	43. 4. 6
358	全 南 支 部	分 會 長	하 경 열	38. 3. 6
359	木 浦 "	副 支 部 長	백 길 응	43. 1.29
360	忠 南 "	組 織 部 長	김 응 누	42. 8.13
361	大 宇 重 工 業 支 部	分 會 長	조 영 식	39. 4. 4
362	새한自動車釜山支部	事 務 長	채 문 식	40. 7.25
363	金 星 社 支 部	婦 女 次 長	정 신 현	56. 2.20
364	"	昌原分会司正委員	김 준 규	49. 1.25
365	한국에아링支部	支 部 長	김 재 훈	40. 1.11
366	웨어차일드支部	事 務 長	박 래 호	47.11.28
367	造 船 公 社 支 部	副 支 部 長	곽 성 찬	31. 2.25
368	大 鮮 造 船 支 部	調 統 次 長	최 인 덕	43. 1.11
369	仁 川 製 鉄 支 部	副 支 部 長	김 무 환	44.10. 3
370	金 星 通 信 支 部	總 務 部 長	박 경 설	48.10.30
371	새한自動車東萊支部	敎 宣 部 長	현 국 윤	38. 7.22
372	金 星 電 線 支 部	支 部 長	정 낙 균	38. 6.27
373	大 韓 電 線 支 部	分 會 指 導 員 分 會 指 導 員	김 성 영	38.10. 9
374	"	敎 宣 部 長	국 충 식	42. 4.27
375	起 亜 產 業 支 部	總 務 部 長	노 희 순	37. 2.10

	所 属	職 位	姓 名	生 年 月 日
376	起亜産業支部	厚生部長	곽 재 오	43. 6. 27
377	시그네틱스支部	組織部長	이 송 자	51. 11. 13
378	元豊産美天川支部	副支部長	정 기 철	33. 5. 3
379	金星알프스支部	"	정 외 영	53. 11. 15
380	大東造船支部	組 合 員	유 재 식	33. 1. 25
381	東洋鋼鐵支部	組織部長	황 종 국	46. 3. 12
382	釜山砲金支部	組 合 員	전 형 문	47. 8. 14
383	世信実業支部	"	조 갑 재	48. 9. 10
384	湖南電氣支部	組織部次長	심 선 회	58. 10. 14
385	金星電機支部	組 合 員	남 기 숙	31. 10. 6
386	高美半導體支部	組織部長	이 영 이	57. 9. 12
387	大韓重機支部	副支部長	임 창 기	34. 8. 29
388	日新製鋼支部	組 合 員	강 치 정	41. 9. 7
389	콘트롤레이타支部	副支部長	유 옥 순	51. 12. 16
390	金星計電支部	司正委員	이 원 훈	49. 11. 22
391	東南電機支部	教宣部長	송 명 숙	57. 8. 25
392	曉星重工業支部	法規部長	정 종 도	43. 12. 10
393	새한自動車京仁支部	司正委員	조 성 록	37. 5. 12
394	嶺東特別分会	分 会 長	최 봉 화	20. 6. 14
395	韓一電機分会	副分会长	이 옥 회	56. 1. 2

(6) 大会宣言文

우리들 15万 金屬労働者の 集結体인 全国金屬労働組合은 宣言, 綱領을 俱現하기 위하여 굳게 뭉쳐 第17次 全国代議員大会를 開催하고 1978年度 運動方針을 眞摯하게 討議하고져 한다.

오늘 우리들을 둘러싼 情勢는 經濟의 國際化를 軸으로 加速的인 變化를 나타내고 있으며 産業發展에 따른 不均衡의 擴大와 労働力需給의 逼迫, 그리고 技術革新을 主因으로 하는 新産業分野의 抬頭等 수많은 問題가 提起되는 한편 國民生活面에서는 高度成長의 過程에서 여전히 物価高, 重稅, 公害, 住宅難, 社會資本의 脆弱等 多様な 社会的 歪曲이 露出되어 國民生活를 压迫해 왔다.

이러한 面에서 오늘 政府 및 金屬産業労働者에게 強力히 나갈 수 있는 産業의 發展과 國民福祉向上을 어떻게 調和시키느냐 등 重要な 諸問題에 對한 迅速한 解決方途를 찾아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諸問題에 大膽히 挑戰해 나가는 것은 韓國의 重化學工業을 메고 나갈 金屬産業 労働者를 組織한 우리 金屬労働組의 國民的 使命에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은 비록 労働基本權이 一部를 規制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民主的인 労働運動을 줄기차게 展開하면서 金屬労働者를 비롯하여 勤勞國民 全体の 諸權利, 労働條件의 向上을 實現해 왔으며 特히 77年度에는 全組織의 団体協約締結을 完了하고 組織 擴充을 더한층 充實, 強化함으로써 10万組織을 突破하는 成果를

올린 바 있다.

우리들은 이와같이 鋼鐵같은 15万組織을 背景으로 슬기롭고
힘찬 大産別의 闘争과 前進으로 賃金 및 労働条件의 内実化를
뚫히는 일하는 者의 生涯生活비전 實現을 図謀하는 한편 政府에
對하여는 労働基本權 行使의 保障과 物価安定 社會保障制度의 拡充
等 일하는 者와 그家族의 生活安定을 促求하는데 最善의 努力을
集中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들은 國際金屬勞聯(IMF)과의 幅넓은 紐帶交流를 通하여
政治, 經濟의 國際的 變化에 対応하면서 스스로를 反省하여 英知
를 기울여 우리의 基礎를 닦아 나가는 同時 亜細亞에 있어서의
積極적인 役割을 다하는 位置를 굳혀 나가려 한다.

이와같이 變遷하는 새 時代에 対応해 나가는 労働運動속에서
우리 金屬勞組의 活動이 더한층 關心을 모으면서 그社會的 責任
을 拡充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깊이 되새기며 組織擴張에 繼續
努力하는 한편 維新理念의 旗手로서 社會正義의 俱現을 爲해 힘
차게 前進할 것을 엄숙히 宣稱하는 바이다.

1978年 5月 20日

全 國 金 屬 勞 動 組 合

1978年度 全國代議員大會

(7) 大会決議文

한 社會의 価値觀은 近代化에 影響을 미치며 近代化는 또한 価値觀의 變化를 促進시킨다.

우리 勞働者들은 祖國의 近代化와 民族中興을 爲한 産業役軍으로서의 矜持를 지니고 어떠한 逆境속에서도 이를 克服하고 오직 生産性 向上에만 ทุ่ม쳐 邁進해 왔다.

뿐만아니라 勞使協調에 最良을 다한 結果 4年이나 앞당겨 大望의 100億弗 輸出을 達成하는 成果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같은 成果에 對한 均衡分配의 熱望을 吸收하지 못한 企業人들은 勤勞者들에게 絶對的 및 相對的 貧困感만을 增大시켰다.

여기에 우리 勞働者들은 企業의 社會的 責任을 묻고 社會的, 經濟的 要求鬭爭을 通하여 福祉社會 實現이라는 真正한 發展價值 獲得을 期約하면서 다음과 같이 決議한다.

1. 우리는 祖國의 重化學工業을 메고 나갈 金屬産業 勞働者로서 組織을 擴充, 鋼鐵 같은 團結力으로 福祉社會 建設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1. 政府와 企業은 所得政策이라는 이름 아래 物價昂騰을 口實로한 賃金引上 抑制에 앞서 먼저 獨寡占 價格의 安定과 規制를 期하라.

1. 우리는 工場새마을運動과 自然保護運動을 生活化함으로써 職場에 있어서의 人間性 回復을 期하여 스스로의 主体性을 確立한다.

1. 實質的 勞使平等 原則에 立脚하여 人事의 勞使共同決定 等
經營參加의 積極적 구현으로 近代的 勞使關係 確立을 爲하여
邁進한다.
1. 企業은 有害, 危險作業 環境에서 事故를 未然에 防止하기 爲하
하여 作業施設 및 環境을 改善, 補完하는 한편 諸法 諸規程
을 嚴守할 것을 要求한다.
1. 우리는 社会的 經濟的 要求向上을 爲하여 調査・統計資料를
完備, 勞使交渉에 있어서 確固한 態度로 우리의 要求를 貫徹
한다.
1. 우리는 勞働生産性 向上에 따른 公正한 成果分配와 企業의
經營実績에 따른 實質賃金의 引上을 強力히 要求한다.
1. 모든 企業은 女性 및 年少勤勞者에 對한 特別保護條項을 徹
底히 遵守할 것을 要求한다.
1. 우리는 IMF 와의 幅넓은 紐帶를 通하여 國際勞働運動을 發展
시킨다.

1978年 5月 20日

1978年度 全國金屬勞働組合

全國代議員大會

2. 中 央 委 員 会

(1) 中央委員 名單

姓 名	所 属	姓 名	所 属
金 炳 龍	本部 (起亜産業支部)	金 鳳 淑	웨이차일드支部
姜 俊 錫	" (한국비아링支部)	彭 宗 苗	造船公社支部
鄭 隆 貝	" (金星社支部)	崔 正 元	大鮮造船支部
河 俊	" (慶北支部)	崔 成 贊	仁川製鉄支部
韓 達 洙	" (大諱電線支部)	李 尚 淑	金星通信支部
崔 鐘 圭	" (金星社支部)	鄭 樂 均	金星電線支部
李 重 錫	南 서 울 支 部	李 成 均	새한自動車支部
高 漢 星	京 畿 支 部	辺 始 鉉	起亜産業支部
趙 金 來	全 南 支 部	金 点 玉	시그네틱스支部
金 柄 鎬	서 울 支 部	崔 圭 文	國際綜合機械沃川支部
鄭 龍 洛	慶 南 支 部	崔 璟 丸	金星칼프스支部
鄭 南 洙	釜 山 支 部	金 性 宝	大東造船支部
洪 晚 杓	江 原 整 備 支 部	崔 雄 吉	東洋鋼鐵支部
林 正 鉉	京 畿 整 備 支 部	李 修 範	釜山砲金支部
李 丙 憲	忠 南 支 部	盧 泰 云	世信實業支部
李 憲 求	大宇重工業支部	白 順 基	湖南電氣支部
徐 潤 日	새한自動車釜山支部	許 成 元	金星電氣支部
金 載 焄	한국비아링支部	林 福 熙	高美半導體支部

姓 名	所 属	姓 名	所 属
李 鍾 福	大 韓 重 機 支 部	趙 允 植	曉 星 重 工 業 支 部
俞 甲 植	日 新 製 鋼 支 部	許 世 榮	同 和 電 子 支 部
李 英 順	콘트롤레이타支部	李 銀 子	韓國아르오오支部
李 承 玉	南 盛 支 部	朴 基 植	聯 合 鉄 鋼 支 部
張 德 五	金 星 計 電 支 部	孫 祥 太	世 邦 電 池 支 部
趙 慶 洙	東 南 電 機 支 部	李 俊	貨 泉 支 部

(2) 第 60 次會議 (第 1 次 中 執 連 席 會 議)

日 時：1978年5月19日 14:20

場 所：起亞產業勞動會館 會議室

參 席 人 員：34 名 參 席

決 議 事 項

- ① 會 順 原 案대로 通 過
- ② 代 議 員 182 名 確 定
- ③ 各 級 支 部에서 추천한 模範組合員 51 名 確 定
- ④ 大 會 宣 言 文 通 過
- ⑤ 1977 年 度 事 業 報 告 通 過
- ⑥ 1977 年 度 決 算 報 告 承 認
- ⑦ 1978 年 度 事 業 計 劃 樹 立 原 案대로 通 過
- ⑧ 1978 年 度 豫 算 案 承 認 通 過

9) 大会決議文 通過

10) 其他事項

가. 釜山支部 日新製鋼分會長 강환섭 제명

나. 政府發表以前에賃金引上 要求線을 發表토록 勞總에 建議

다. 78年度 上半期 獎學生 本組 支給規程에 依한 配定

(3) 第61次 會議

日 時：1978年 8月24日 14：00

場 所：大邱壽城觀光호텔 會議室

參席人員：44名 參席

決議事項

① 金屬勞組 創立紀念行事의 件

○模範組合(支部)表彰：金星社支部

○功勞者 表彰

<이헌구 企劃室長, 辺始鉉 總務部長, 高漢星 國際部長>

② 決議文 採択內容

가. 79年度 賃金引上 對策講究

나. 事務職과 技能職間의 賃金隔差 解消

다. 大企業 및 財閥企業의 新規組織 強化

라. 金屬 20年史 편찬 구상

3) 其他 事項

가. 金屬勞組歌 製作 경위 說明

나. 本組 車輛壳買와 購入에 關한 件

차인액 (591,224 원) 을 豫備費에서 전용 의결

다. 長期入院患者 慰問에 關한 事項

公傷者, 死傷者, 退院患者 64 名에게 慰勞金 600,000 원 을
伝達

라. 會館建立에 關한 事項

會館運營規程案 檢討 上程

(4) 第 62 次會議 (第 3 次 中執 및 會館建立推進委員 連席會議)

日 時 : 1978 年 10 月 11 日 14 : 00

場 所 : 起亜産業勞動會館 會議室

參席人員 : 44 名 參席

決議事項

① 新規組織 7 個, 任員改善 1 個分會 認准

② 79 年度 賃金引上 指針案에 關한 事項

○ 賃金對策委員會에 委任하여 檢對해서 修正 내지는 補完한다 .

③ 金屬勞組歌 製作에 關한 事項

○ 製作費는 豫備費에서 轉用하고 노래歌詞는 쉬운 말로 修正할
것을 決議하고 執行部에 委任

④ 特別會計執行承認에 關한 事項

○ IMF 補助金 1,573,115 원을 實務者教育 및 地域巡廻教育에
使用承認

(5) 會館建立基金確保案 審議에 關한 事項

- 會館建立에 따른 細部計劃을 執行部에서 作成하여 定期代議
員大會에 上程기로 決定

5) 第 63 次會議 (第 5 次 中執連席會議)

日 時 : 1978 年 11 月 30 日 10 : 00

場 所 : 起重産業 勞動會館 會議室 .

參席人員 : 40 名 參席

決議事項

1) 認准事項 承認

(새한自動車支部外 6 個分會)

(2) 79 年度 賃金引上 (48.7 %) 指針案 原案대로 通過

3) 其他事項

가. 慶南支部 鄭龍洛 支部長의 規約違反에 對하여 規約 第 74 條

1 項가호 및 2 項나호에 依拠 無期停權 決議

나. 木浦支部를 全南支部 傘下에 예속토록 決議

다. 서울支部 이기봉 同志의 懲戒復權 決議

라. 故 金英秀 總務次長 家族돕기의 件

- 葬禮費 70 萬圓을 豫備費에서 支出토록 承認하고 長男에게
勞總獎學金 配定한다.

- 各級 支部에서 4 萬圓以上 募金하여 家族에게 傳達한다.

(6) 第 64 次 會議

日 時：1979 年 4 月 7 日 10：00

場 所：起亜産業 勞動會館 會議室

參席人員：40 名 參席

決議事項

- ① 規約 및 諸規程制定 및 改正은 規約審議小委員會에 充分히 檢討, 審議하여 次期 中執委를 거쳐 中央委員會에 上程한다.
- ② 5 月分 假豫算은 原案대로 承認한다.
- ③ 豫備費 2,916,182 圓의 支出을 承認한다.
- ④ 會館建立推進件은 會館建立推進委에 委任하여 專門的인 상세한 資料를 作成 次期中央委에 上程 審議한다.
- ⑤ 慶南支部 鄭龍洛 懲戒는 일단 解除하나 懲戒解除日字는 委員에게 委任한다.
- ⑥ 芳裕獎學基金은 傘下 支部에서 早速한 時日內에 納付토록 한

3. 中央執行委員會

(1) 中央執行委員 名單

金炳龍	本部 (起亜産業支部)	崔正元	(大鮮造船支部)
姜俊錫	" (한국에아링支部)	林正鉉	(京畿整備支部)
鄭隆炅	" (金星社支部)	辺始鉉	(起亜産業支部)
河 俊	" (慶北支部)	李重錫	(南서울支部)
韓達洙	" (大韓電線支部)	鄭樂均	(金星電線支部)
崔鍾圭	" (金星社支部)	崔成贊	(仁川製鉄支部)
李憲求	(大宇重工業支部)	徐載仁	(本部, 起亜産業支部)

(2) 第 1 次 會議

日 時：1978年 5月 19日 14：00

場 所：本組合 會議室

參席人員：11名 參席

決議事項

※ 第 60 次 中央委員會 連席會議로 決議事項同一

(3) 第 2 次 會議

日 時：1978年 7月 21日 14：00

場 所：安養市 石水洞 遊園地

參席人員：13名 參席

決議事項

- ① 支部長 세미나 開催에 따른 時日과 場所, 其他 諸般問題는 執行部에 委任하여 遂行한다.
- ② 本組 事務室 賃賃料 引上에 따른 引上差額은 豫備費에서 轉用하여 使用토록 承認한다.
- ③ 本組 車輛 売買와 購入關係는 執行部에 委任한다.
- ④ 傘下 各級支部 (分會)로부터 報告된 長期入院患者에 對하여 當該 支部長이 慰勞金을 委員長 名의로 傳達토록 한다.
- ⑤ 木浦支部를 全南支部傘下로 豫속시키는 事項에 對하여는 執行部에 委任하여 措置토록 한다.

(4) 第3次 會議

日 時：1978年10月11日 14：00

場 所：起亞唯業 勞動會館 會議室

參席人員：15名 參席

決議事項

※ 第62次 中央委員會 連席會議로 決議事項 同一

(5) 第4次 會議

日 時：1978年11月 9日 10：30

場 所：本組 會議室

參席人員：11名 參席

決議事項

① 1978年度 下半期 勞總獎學生 88名 配定確定

② 執行部에서 作成한 1979年度 賃金引上 要求指針案을 原案대로 通過

③ 79年度 賃金對策委員會 構成確定

職 位	姓 名	分 科	所 屬	職 位	姓 名	分 科	所 所
委員長	金炳龍		本 組	委 員	鄭榮均	電氣・電子	金星電線部
副委員長	姜俊錫		"	"	彭宗苗	造 船	造船公社部
"	鄭隆炅		金星社支部	"	崔雄吉	非 鐵	東洋鋼鐵部
"	河 俊		慶北 "	"	李重錫		南서울支部
"	韓達洙		大韓電線"	"	李鍾福	機 械 金 屬	大韓重機"
事務局長	崔鐘圭		本 組	"	鄭南洙		釜 山 "
企劃幹事	李憲求	機械金屬	大字重工業部	"	崔成贊	鐵 鋼	仁川製鐵"
委 員	辺始鉉	自 動 車	起亜産業部				

④ 6 個分科委員회의 建議內容을 次期中央委員會에 上程한다.

(6) 第 5 次 會議

日 時：1978 年 11 月 30 日 10：00

場 所：起亜産業 労働会館 會議室

參席人員：12 名 參席

決議事項

※ 第 63 次 中央委員會 連席會議로 決議事項 同一

(7) 第 6 次 會議

日 時：1979 年 2 月 28 日 14：00

場 所：本組 會議室

參席人員：11名 參席

決議事項

- ① 新規組織 및 任員改善 支部, 分會 認准 承認
- ② 79年度 定期全國代議員大會 模範組合員 58名 確定
- ③ 金屬勞組歌 및 우리는 金屬勞動者, 作曲完成에 따른 制定確認
- ④ 金星通信支部 박수경 懲戒 決議
- ⑤ 勞動庁 規約是正指示件은 他産別勞組의 規約改正等을 參考하여 修正하는 方向으로 하고 事務局에 委任

(8) 第7次 會議

日 時：1979年 4月 6日 14：00

場 所：本組 會議室

參席人員：13名 參席

決議事項

- ① 全國代議員大會에 關한 事項은 執行部案대로 採択하여 中央委員會에 上程 決議
- ② 會館建立推進件은 中央委員會에서 檢討 決議
- ③ 選管委 構成은 選管委 規程 第7條에 依拠 委員長이 委囑한다
- ④ 金屬勞組歌 카세트 테이프 製作은 79會計年度 豫算에 反映하여 本組에서 製作 傘下支部(分會)에 配付한다.

4. 部署部長會議

(1) 第1次會議

日時：1978年 6月 7日 10：00

場所：本組合 會議室

參席人員：9名 參席

議題：1) 6月中 細部事業計劃 審議

2) 第14回産業安全 및 保健強調期間行事의 件

(2) 第2次會議

日時：1978年 7月 5日 11：00

場所：本組合 會議室

參席人員：9名 參席

議題：7月中 事業計劃 樹立 및 審議

(3) 第3次會議

日時：1978年 10月 10日 14：00

場所：本組合 會議室

參席人員：

議題：1) 10月中 事業計劃樹立 및 審議

2) 産災患者 慰問行事結果 및 汎勤勞者 貯蓄生活化運動
指導評價에 對한 件

(4) 第 4 次 會議

日 時：1979 年

場 所：本組合 會議室

參席人員：8 名 參席

議 題：1,2 月中 事業計劃樹立 및 審議

5. 會 計 監 查 委 員 會

(1) 第 1 回 監查實施

日 時：1978 年 12 月 15 日 10 : 00

場 所：本組合 會議室

目 的：1978 年 5 月부터 11 月까지의 財政關係 一切 (78 年度
上半期)

參 席 者：會計監查委員 鄭 南 洙

洪 晚 杓

李 義 憲

6. 規 約 및 諸 規 程 審 議 委 員 會

日 時：1978 年 4 月 20 日 10 : 00

場 所：本勞組 會議室

參席人員：9 名

案 件：規約改正 草案作成審議

委員名單

議長	姜俊錫	(本組)
委員	崔鐘圭	(本組)
"	李憲求	(本組)
"	閔正植	(金星社支部)
"	辺始鉉	(起亜産業支部)
"	朴仁相	(釜山支部)
"	徐正權	(慶北支部) 不參
"	李昌成	(南서울支部)
"	權大植	(京畿整備支部)
幹事	鄭熙永	(本組)

7. 賃金 對 策 委 員 會

日 時：1978年 11月 29日 13：00

場 所：本組 會議室

參席人員：15 名

案 件：79年度 賃金引上 對策에 關한 事項

決議事項

- ① 分科別 協議體를 構成하여 同一業種 相互間에 統一된 團體交涉의 方案 目標를 設定하고 交渉에 있어서도 行動統一을 기함이 效果的일 것으로 思料되고
- ② 現在 各級 事業場의 賃金引上 時期가 一定치 않으므로 交渉

상의 問題点이 많으므로 漸次的으로 그 時期를 統一하여 나가
는 것이 바람직 하고

- ③) 支部(分会)長은 本 勞組賃金对策委員會와 有機的인 關係로 当
事者 中心 勞使協議會에 임한다.

8. 分 科 委 員 會

- 日 時：1978年11月 7日～8日
- 場 所：本組 會議室
- 案 件：79年度 賃金引上 要求指針에 關한 事項
- 中央委員會에 上程된 內容
 - ①) 分科別 協議체를 構成하여 같은 業種끼리 具體的인 方案 目
標를 設定하여 交渉토록 한다.
 - ②) 團體交渉上的 많은 問題가 있으므로 賃金引上 時期를 漸次
統一하여 나가도록 한다.
 - ③) 支部(分会)長은 本部組合과 有機的인 關係를 維持하면서 勞
使協議會에 임하도록 한다.
- 委員名單
 - 委員 長：金 炳 龍
 - 副委員長：姜俊錫，鄭 隆 兪，河 俊，韓 達 洙
 - 事務局長：崔 鐘 圭
 - 機械金屬分科委員：李 憲 求，金 載 洵，李 鍾 福

自動車分科委員：林正~~註~~，辺始鉉，李成均

鉄鋼分科委員：崔成贊，俞甲植，李重錫

造船分科委員：崔正元，彭宗~~出~~，鄭學均

非鉄金属分科委員：崔雄吉，盧泰云，徐正權

電氣電子分科委員：鄭樂均，崔璟丸，李英順

9. 労 総 各 種 会 議

(1) 全国代議員 大会

日 時：1978年10月12日 10：00

場 所：韓国労総会館 大講堂

参加代議員：49名中 48名 参席

- | | |
|---------|---------|
| ① 金 炳 龍 | 本 組 |
| ② 姜 俊 錫 | " |
| ③ 河 俊 | 慶北支部 |
| ④ 鄭 隆 炅 | 金星社支部 |
| ⑤ 韓 達 洙 | 大韓電線支部 |
| ⑥ 洪 晚 均 | 江原整備支部 |
| ⑦ 鄭 南 洙 | 釜山支部 |
| ⑧ 李 義 憲 | 湖南電氣支部 |
| ⑨ 崔 鐘 圭 | 本 組 |
| ⑩ 李 憲 求 | 大宇重工業支部 |
| ⑪ 彭 宗 出 | 造船公社支部 |

⑫	崔	正	元	大鮮造船支部
⑬	徐	閏	日	새한釜山支部
⑭	鄭	樂	均	金星電線支部
⑮	辺	始	鉉	起亜産業支部
⑯	金	性	宝	大東造船支部
⑰	崔	成	贊	仁川製鉄支部
⑱	徐	載	仁	本 組
⑲	李	尚	淑	金星通信支部
㉑	金	柄	鎬	서울支部
㉒	李	重	錫	남서울支部
㉓	高	漢	星	京畿支部
㉔	趙	金	来	全南支部
㉕	林	正	鉉	京畿整備支部
㉖	李	成	均	새한京仁支部
㉗	李	鍾	福	大韓重機支部
㉘	崔	雄	吉	東洋鋼鐵支部
㉙	崔	璟	丸	金星알프스支部
㉚	鄭	龍	洛	慶南支部
㉛	崔	圭	文	元豊産業沃川工場支部
㉜	金	鳳	勳	웨이차일드支部
㉝	金	点	玉	시그네틱스支部
㉞	許	成	元	金星電機支部

③4	趙	兌	植	曉星重工業支部
③5	張	德	五	金星計電支部
③6	李	英	順	콘트롤레이타支部
③7	俞	甲	植	日新製鋼支部
③8	李	丙	憲	忠南支部
③9	盧	泰	云	世信實業支部 (不参)
④0	李	修	範	釜山砲金支部
④1	張	明	煥	새한東萊支部
④2	朴	一	守	釜山支部
④3	咸	鎮	甲	南서울支部
④4	徐	正	權	慶北支部
④5	金	將	鮮	大韓電線支部
④6	閔	正	植	金星社支部
④7	金	載	焄	한국배아링支部
④8	李	炳	烈	大宇重工業支部
④9	林	福	熙	高美半導體支部

分科委員會

- ① 資格審査分科委員會： 金炳龍 委員長
- ② 議事運営分科委員會： 韓達洙 副委員長
- ③ 財政分科委員會： 鄭濬炅 副委員長

(2) 勞總中央委員會

第 166 次 會議

日 時：1978年 4月 10日

場 所：勞總會議室

決議事項：

1) 緊急当面問題에 關한 事項

- ㉔ 美國의 靑瓦台 盜聽事件을 糾彈하는 勞總執行部에서 作成한 聲明書 文案中 書頭의 '……실망속에 잠겨있는' 을 '忿怒에 차있는' 으로, 말미의 '…모든 弱小國家에 까지' 를 '…모든 友邦國家에 까지…' 로 '…엄숙히' 를 '強力히' 로 修正하여 原案대로 採択한다.

- 2) 糾彈糾기大會는 4月 11日 午前 10時에 勞總廣場에서 在京組合員 約 1,500名을 動員하여 舉行한다.

第 167 次 會議

日 時：1978年 6月 9日

場 所：勞總會議室

決議事項：

1) 当面問題에 關한 事項

- ① 都市産業宣教會 및 一部 外部勢力과 가담 동조한 勞動組合 各級 幹部는 即時 사퇴시킨다.
- ② 지용택 勞總事務總長은 事務總長職에서 自진 사퇴할 것을 권고 決議한다.

第 168 次 會議

日 時：1978年 6月 30 日

場 所：勞總會議室

決議事項

※ 産別에 通告치 않았음.

第 169 次 會議

日 時：1978年 8月 31 日

場 所：勞總會議室

決議事項

1) 当面 勞動政策에 關한 事項

① 勞總執行部에서 作成한 当面 勞動情勢와 그 対応策에 對하여 各 會員組合에서는 充分히 檢討하여 일주일 以內에 補完한 事項을 勞總에 提出토록 하며 勞總과 各 會員組合은 一致團結하여 이의 實効를 거둘수 있도록 積極 對外活動을 展開한다.

② 79年度 (9, 10 月) 後 豫算案 審議：原案대로 通過

3) 78年度 豫算支出과목 개정의 件：原案대로 通過

第 170 次 會議

日 時：1978年 9月 22 日

場 所：勞總會議室

決議事項

1) 78年度 全国代議員大会 開催에 關한 事項

① 78年度 勞總定期代議員大会 代議員 配定 - 勞總執行部에서 作成한 方法을 採択한다.

2) 義務金 納付마감

義務金(盟費 및 獎學基金) 納付마감은 1978年 10月 5日 오후 5時까지로 하며 1)項의 配定基準에 依하여 確定한다.

3) 盟費引上의 件

盟費는 組合員 1人당 20원(5원引上)으로 한다.(78. 9. 1부터 引上)

4) 其他事項

① 78年度 勞總全国代議員大会는 組織勤勞者 100万 突破 紀念行事를 겸해서 舉行하며 역대委員長 有功産別, 産別에서 추천하는 有功組織人을 表彰한다.

② 現在 공석중인 勞總 事務總長職은 補選하지 않는다.

第 171次 會議

日 時: 1979年 1月 12日

場 所: 勞總會議室

決議事項

1) 79年度 賃金引上 指針報告의 件

앞으로 新年度 賃金指針作成을 爲한 賃金政策세미나를 開催하여 基本方向을 定하기로 하고 勞總執行部에서 作成한 1979年度 賃金指針을 確定 通告한다.

2) 当面問題 討議

① 經濟企劃院에서 各 業体の 賃金を 20%線으로 抑制하도록 示達했다는 新聞報導에 對하여 勞總은 聲明書를 發表하고 勞總議長團은 当局에 항의하기로 한다.

② 앞으로 勞使紛糾等으로 因해서 組合幹部가 拘束되는 事例가 發生하였을 때는 即時 勞總中央委員會를 召集하여 經위를 釐淸한후 各級 組織의 連書로서 当局에 석방 建議活動을 展開키로 한다.

3) 모든 緊急事態가 發生時는 즉각 勞總中央委員會를 召集하여 對策을 樹立토록 한다.

第 172 次 會議

日 時：1979年 2月 10日

場 所：勞總會議室

決議事項

1) 79年 勞動節行事に 關한 事項

- 1979年부터 勞動節을 勤勞者の 날로 명칭을 使用키로 決議하고 勞總執行部에서 作成한 79年度 行事計劃을 原案대로 採択한다.

2) 其他事項

- ① 勞總中央委員이 退任하거나 冠婚喪祭時 相扶相助할 수 있는 예우준칙 制定을 檢討하고 産別 傘下 任員도 이에 準하는 준칙을 該當産別 組合에서 檢討하기로 한다.
- ② 外資業체 勞動組合 設立申告書類中 外資業체証明을 添付토록 하는 行政指示를 是正토록 한다.
- ③ 全國出版勞動組合 定期代議員 大會時 不信任 제기問題는 주어진 任期를 가능한 保障한다는 原則아래 早速히 組合運營의 正常化를 期하도록 예의 檢討한다.

(3) 其他會議

① 團體協約實務 担当者 會議

日 時：1978年 6月 15日 14：00

場 所：勞總會議室

參席者：企劃委員 鄭 熙 永

討議事項

- 1) 各産別 團體協約 및 賃金協定 改善締結內容分析 및 基準未達 合意事項 規制
- 2) 期間內 調整申請 不履行組織에 對한 指導方案
- 3) 團體協約 不履行 默認事例 指導監督方案
- 4) 更新締結된 團體協約 賃金協定の 印刷 配付

② 調査統計部長 會議

日 時：1978年 6月28日 15：00

場 所：労総會議室

参席者：組織部 次長 李 珍 雨

案 件：78年度 組合員賃金調査実施에 따른 問題点 및 調査要
領 説明

③ 爭議 및 調査統計部長 會議

日 時：1978年 8月23日 15：00

場 所：労総會議室

参席者：組織部 次長 李 珍 雨

調査統計部次長 尹 昌 烈

④ 労総奨学事業担当者 會議

日 時：1978年 10月27日 15：00

場 所：労総會議室

参席者：朴 泰 子

案 件：1) 78年度 下半期 奨学事業 日程表 説明

2) 78年度 下半期分 奨学生選拔 추천 要領 및 申請에
關한 주지 사항

3) 奨学基金 출연에 依한 奨学生 配定基準 및 配定
通知

⑤ 法規 및 調査統計部長 會議

日 時：1978年 11月 3日 14：00

場 所：勞總會議室

參席者：企劃委員 鄭 熙 永

調査統計部 次長 尹 昌 烈

案 件：1) 會員組合의 79年度 賃金引上 및 勤勞條件 改善
活動計劃

2) 勞動庁 団体交渉調整決定 指針에 따른 各 會員組
合別 問題點과 改善要求事項

3) 調整決定申請 單位支部, 分會長세 미나 實施에 따른
對象選定에 관한 件

4) 業種別 団体協約 分析實施에 관한 件

5) 會員組合賃金 및 団体交渉 担当部長 合同세 미나
實施 (11月中旬 豫定)에 따른 事前準備 및 進行
에 관한 協議

⑥ 79年度 賃金對策 實務者 會議

日 時：1978年 11月 21日～24日

場 所：勞總中央教育院

參席者：調査統計部次長 尹 昌 烈

國際部次長 盧 進 貴

案 件：1) 団体協約의 改善方案

2) 79年 団体交渉権 調整決定 申請対策

3) 賃金改善 方案

4) 交渉指導研究発表 및 討論

⑦ 爭議・調査統計部長 會議

日 時：1979年 2月26日 14：00

場 所：労総會議室

参席者：企劃委員 鄭 熙 永

調査統計部次長 尹 昌 烈

案 件：1) 第17回 団体協約 締結促進期間 설정에 따른 實踐
要綱에 關한 事項

2) 79年度 賃金引上 및 団体協約 更新을 為한 団
体交渉 調整申請 対策

3) 其他事項

Ⅱ. 一 般 活 動

1. 勞 總 獎 學 金 支 給

1978年度 本組合의 上·下半期 勞總獎學生 配定數는 中學生 91名
高等學生 68名 總 159名으로 本組獎學金 支給規程 第5條 및 第6
條에 依拠 傘下 各級 支部에 다음과 같이 配定하였다.

78년도 상·하반기 장학금 수혜자 명단

학 교 명	학 년	성 명	소 속
당산중학교	1	임 찬 수	남서울지부
송문중학교	1	노 승 균	시그네틱스지부
안양동중학교	1	홍 정 용	기아산업지부
구포중학교	2	공 성 식	부산지부
신선중학교	2	손 판 식	부산지부
부산서중학교	2	김 석	부산지부
동인천중학교	1	정 회 영	대우중공업지부
거성중학교	3	하 만 일	금성사지부
반송중학교	3	강 성 근	새한동래지부
부산남중학교	1	하 명 호	조선공사지부
해동중학교	3	이 철 우	조선공사지부
동인천중학교	2	장 덕 순	인천제철지부

학 교 명	학 년	성 명	소 속
안양동중 학교	1	서 강 식	금성전선지부
안서중 학교	2	김 용 집	대한전선지부
옥천중 학교	3	김 승 흠	원풍·옥천지부
부산남중 학교	2	강 기 용	대동조선지부
동신중 학교	3	윤 정 용	호남전기 지부
진흥중 학교	3	조 천 수	호남전기 지부
대구중 학교	1	신 명 호	경북지부
오성중 학교	2	김 재 준	경북지부
성광중 학교	2	김 성 진	경북지부
성전고등공민 학교	1	오 세 도	금성 사지부
구미중 학교	1	최 성 경	금성전선지부
상계여자중 학교	2	사 영 숙	서울지부
구로여자중 학교	1	이 현 자	대한중기 지부
한성여자중 학교	1	이 경 임	기아산업지부
영등포여자중 학교	2	김 미 숙	일신제강지부
한강 여자중 학교	2	강 경 회	효성중공업지부
동래여자중 학교	1	유 현 숙	새한자동차 부산지부
문현여자중 학교	2	임 정 회	부산지부
이사벨 여자중 학교	2	문 향 선	금성 사지부
선화여자중 학교	3	이 성 미	새한자동차 경인지부

학 교 명	학 년	성 명	소 속
근명여자중학교	2	이 봉 신	왜어차일드지부
근명여자중학교	3	조 경 애	대우중공업지부
오산여자중학교	3	이 수 미	금성제전지부
유봉여자중학교	3	노 정 순	강원정비지부
경북여자중학교	1	배 명 숙	경북지부
양산여자중학교	3	남 미 자	금성알프스지부
마산제일여자중학교	2	김 영 란	부산포금지부
마산남여자중학교	2	조 경 남	금성사지부
회덕여자중학교	1	정 현 실	동양강철지부
광주동성여자중학교	1	김 영 회	전남지부
한영공업고등학교	2	정 영 국	남서울지부
서울기계공업고등학교	2	김 홍 중	대한전선지부
대동고등학교	2	박 화 천	부산지부
경남공업고등학교	1	모 영 기	금성사지부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3	김 영 기	세신실업지부
경남공업고등학교	2	윤 기 덕	금성사지부
해동고등학교	2	이 승 국	대선조선지부
송도고등학교	3	권 오 영	한국베아링지부
소상공업고등학교	2	김 길 환	남서울지부
양명고등학교	3	이 영 두	금성통신지부

학 교 명	학 년	성 명	소 속
안양동고등학교	2	구 원 대	금성통신지부
소상공업고등학교	3	김 진 수	대한전선지부
안양동고등학교	1	정 길 수	기아산업지부
대구상업고등학교	1	김 정 열	경북지부
마산공업고등학교	2	이 상 인	금성사지부
마산상업고등학교	3	이 병 옥	경남지부
경상공업고등학교	1	황 대 영	경북지부
성동여자실업고등학교	3	노 애 숙	기아산업지부
계성여자고등학교	1	김 순 덕	시그네틱스지부
영등포여자고등학교	3	서 영 희	시그네틱스지부
상명여자고등학교	3	박 미 수	본 조
국제실업고등학교	3	이 선 옥	대한전선지부
상명여자고등학교	3	이 경 화	웨어차일드지부
중앙여자고등학교	2	이 정 순	남서울지부
부산남여자상업고등학교	2	방 정 희	조선공사지부
동주여자상업고등학교	1	김 미 경	부산지부
동래여자상업고등학교	1	허 옥 련	부산지부
덕명여자상업고등학교	2	김 영 애	부산지부
명신여자상업고등학교	1	오 인 숙	경기정비지부
삼일여자실업고등학교	1	김 명 옥	콘트롤·메이타지부
오산여자상업고등학교	1	김 해 숙	금성전기지부

학 교 명	학 년	성 명	소 속
광명여자상업전수학교	3	이 병 옥	웨이차일드지부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	1	이 경 숙	경북지부
양산종합고등학교	2	김 관 석	금성알프스지부
당산중학교	2	박 영 식	효성중공업지부
화곡중학교	3	구 영 기	동양강철지부
문일중학교	1	정 명 교	대한전선지부
공항중학교	2	박 용 순	시그네틱스지부
문일중학교	2	이 준 배	기아산업지부
강서중학교	1	허 의 범	기아산업지부
오류중학교	1	박 재 신	남서울지부
중동중학교	2	임 정 동	금성통신지부
당산중학교	1	윤 한 철	남서울지부
송문중학교	1	노 상 균	시그네틱스지부
대방여자중학교	2	김 보 애	금성사지부
동일여자중학교	2	김 현 숙	대한전선지부
동일여자중학교	2	조 숙 영	기아산업지부
봉영여자중학교	1	윤 영 회	새한경인지부
대림여자중학교	3	서 경 회	본 조
오류여자중학교	3	천 인 숙	일신제강지부
오류여자중학교	2	채 수 경	남서울지부
오류여자중학교	1	홍 영 미	남서울지부

학 교 명	학 년	성 명	소 속
수영중 학교	2	허 용 식	부산지부
부산내성중 학교	2	김 영 길	조공지부
부산중앙 학교	1	김 형 규	새한부산지부
동신중 학교	2	서 무 현	금성사지부
부산남중 학교	2	강 기 용	대동조선지부
유락여자중 학교	2	김 은 정	새한동래지부
부산진여자중 학교	1	송 미 영	대선조선지부
남도여자중 학교	3	김 경 선	조공지부
금정여자중 학교	2	박 영 숙	금성사지부
동주여자중 학교	2	방 제 선	부산지부
구포여자중 학교	3	오 숙 자	부산지부
부평동중 학교	1	김 중 성	한국배아령지부
안양중 학교	2	이 수 복	금성전선지부
오산중 학교	2	이 순 호	금성계전지부
안서중 학교	2	김 용 집	대한전선지부
남인천여자중 학교	2	장 경 숙	대우중공업지부
송덕여자중 학교	2	송 은 순	대우중공업지부
매향여자중 학교	1	이 경 미	경기정비지부
영동여자중 학교	1	유 미 숙	콘트롤·데이타지부
황간중 학교	2	박 언 기	부산지부
홍천여자중 학교	1	윤 진 경	강원정비지부

학 교 명	학 년	성 명	소 속
대구동중 학교	3	서 정 환	경북지부
경일중 학교	2	박 중 학	경북지부
대구중 학교	1	신 명 호	경북지부
구미중 학교	1	최 성 경	금성전선지부
경북여자중 학교	1	배 병 숙	경북지부
마산남중 학교	1	장 성 보	부산포금지부
통영동중 학교	1	강 창 석	경남지부
이반성중 학교	1	김 진 세	금성사지부
삼현여자중 학교	1	조 승 너	경남지부
김해중앙여자중 학교	2	유 현 주	조공지부
협성여자상업전수 학교	1	이 희 선	웨어차일드지부
충암고등학교	1	정 항 수	본 조
동성고등학교	2	이 재 의	남서울지부
성동상업전수 학교	1	임 대 회	서울지부
한양공업고등학교	1	용 길 득	기아산업지부
유한공업고등학교	2	조 등 인	남서울지부
서울기계공업고등학교	2	김 홍 증	대한전선지부
명신여자상업전수 학교	2	권 해 옥	웨어차일드지부
정희여자상업전수 학교	1	서 연 숙	웨어차일드지부
영희실업전수 학교	1	이 봉 자	웨어차일드지부
계성여자고등학교	1	김 순 덕	시그네텍스지부

학 교 명	학 년	성 명	소 속
상명여자고등학교	3	박 미 수	본 조
영남상업고등학교	1	강 동 영	금성사지부
영남상업고등학교	2	이 경 환	부산지부
브니엘고등학교	1	김 창 수	세신실업지부
브니엘고등학교	1	박 문 기	부산지부
선화여자상업고등학교	1	이 성 자	부산지부
이사벨여자고등학교	2	여 미 선	부산지부
세화여자상업전수학교	1	김 순 자	금성사지부
성심여자상업고등학교	1	손 영 순	금성알프스지부
운봉공업고등학교	2	이 계 용	인천제철지부
양명고등학교	1	안 윤 형	대한전선지부
소상공업기술학교	3	김 진 수	대한전선지부
안양여자고등학교	1	강 인 숙	금성통진지부
오산여자상업고등학교	1	김 혜 숙	금성전기지부
영등포여자고등학교	2	송 영 희	대한중기지부
대전상업고등학교	2	김 대 현	원풍, 옥천지부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2	홍 분 향	경북지부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	1	이 경 숙	경북지부
경상공업고등학교	3	황 대 영	경북지부
마산경상고등학교	1	김 구 환	금성사지부
기장종합고등학교	1	김 자 미	금성알프스지부
송의실업고등학교	1	김 대 응	전남지부
광주송원여자고등학교	2	이 혜 숙	호남전기지부
이 상 159 명			

2. 출 장 현 황

직 위	출장자	출 장 용 무	행 선 지	출장기간
사무국장	최 종 규	영남지역 순회교육차	부 산	5月3日~7日
교선부장	최 웅 길	"	"	5月3日~6日
조직차장	이 진 우	"	"	"
회계감사위원	정 남 수	77년도하반기 회계감사차	서 울	5月9日~10日
"	이 의 현	"	"	"
사무국장	최 종 규	금성전선구미공장 준공식 참석	구 미	5月12日~ 13日
기획위원	정 회 영	IMF-ROCC 대표 4명 부산 안내	부 산	5月23日~ 24日
부위원장	강 준 석	경남, 부산지부 업무협의차	부산·마산	6月1日~4日
조직부장	서 재 인	"	"	"
부위원장	강 준 석	천안소재 동화전자 재조직차	천 안	6月10日~11日
조직부장	서 재 인	"	"	"
조직차장	이 진 우	"	"	"
기 사	김 응 재	"	"	"
부위원장	하 준	한국철강 재조직에 따른 현지 조사차	마 산	6月12日~ 14日
사무국장	최 종 규	"	"	"
회계감사	정 남 수	"	"	"

직 위	출장자	출 장 용 무	행 선 지	출장기간
위 원 장	김 병 용	전남지역 업무협의차	광 주	6月19日~21日
사무국장	최 종 규	충남지부 대회참석차	대 전	6月20日
조직부장	서 재 인	"	"	"
조직차장	이 진 우	동화전자 신고서류접수차	대 전	6月22日
사무국장	최 종 규	금성사지부 업무협의차	부 산	7月14日~15日
조직차장	이 진 우	중앙위원회 개최 장소선정 답사차	대 구	8月11日~12日
위 원 장	김 병 용	중앙위원회 및 창립 17 주년 기념행사진행	"	8月24日~26日
부위원장	강 준 식	"	"	"
사무국장	최 종 규	"	"	"
조직부장	서재 인	"	"	"
조직차장	이 진 우	"	"	"
부녀부장	선 순 복	"	"	"
법규부장	김 창 선	"	"	"
직 원	박 봉 자	"	"	"
교선부장	최 응 길	호남전기지부 교육지원차	광 주	9月2日~4日
조직부장	서 재 인	호남전기지부 조직분규 수습차	"	10月16日~19日
사무국장	최 종 규	경남지부 대한알미늄분회 조직점검 및 교육	울 산	10月18日~20日
주지카자	이 지, 우	"	"	"

직 위	출강자	출 장 용 무	행 선 지	출 장 기 간
부녀부장	선 순 복	콘트롤데이타지부 단합대회 참석	청 주	10月21日~22日
부위원장	강 준 석	사무국장 모친별세 장례식 참석	대 구	10月25日~26日
기 사	김 응 재	"	"	"
부위원장	강 준 석	제 15 회 간부교육 참관	남 이 섬	10月27日~28日
조직부장	서 재 인	"	"	"
사무국장	최 종 규	부산지역 당면문제 협의	부 산	11月3日~4日
사무국장	최 종 규	부산, 호남지역 순회교육차	부산·광주	11月23日~28日
교선부장	최 응 길	"	"	"
조직차장	이 진 우	"	"	"
사무국장	최 종 규	조공, 알프스지부 교육지원차	부산·양산	12月1日~4日
교선부장	최 응 길	"	"	"
부위원장	강 준 석	경남지부 조직정비차	마 산	9月3日~7日
조직부장	서 재 인	"	"	"
위 원 장	김 병 용	기아지부 동우정기분회대회 참석	부 산	12月7日~8日
조직부장	서 재 인	동화전자지부 조합원교육	천 안	12月9日
부녀부장	선 순 복	"	"	"
기 사	김 길 동	"	"	"
회계감사위원	정 남 수	78년도 상반기 회계감사	서 울	12月14日~15

직 위	출장자	출장용무	행선지	출장기간
회계감사위원	홍만표	78년도상반기 회계감사	서울	12月14日~15日
"	이의현	"	"	"
조직차장	이진우	대한전선 구미공장분회 대회참석	구미	12月6日~7日
부녀부장	선순복	동화전자 홍성공장 조합 원교육	홍성	12月16日
기 사	김길동	"	"	"
조통차장	윤창열	동화전자지부 회계지도차 동화전자지부 회계지도차	천안	12月16日~17日
위원장	김병용	기아기공공장 대회참석차	마산	12月22日
조통차장	윤창열	동화전자지부 회계지도	천안	12月26日
위원장	김병용	부산, 경북지구 년두순방	부산·대구	1月16日~19日
부녀부장	선순복	부녀간부토론회 진행차	부산	1月16日~18日
위원장	김병용	강원정비지부장 별세 장례식 참석	춘천	2月6日~7日
조직부장	서재인	"	"	"
기 사	김길동	"	"	"
위원장	김병용	충남북, 호남지역 년두순방	대전·옥천 광주	2月13日~15日
조직부장	서재인	"	"	"
기 사	김길동	"	"	"
조통차장	윤창열	정례자료보고서작성요령 교육	부산	2月14日~16日

직 위	출장자	출 장 용 무	행 선 지	출 장 기 간
위 원 장	김 병 용	연합철강지부 승격대회참석	부 산	2月21日~23日
사무국장	최 종 규	"	"	"
위 원 장	김 병 용	부산지역 업무협의차	"	3月5日
부위원장	강 준 석	"	"	3月5日~8日
위 원 장	김 병 용	경북지부, 조선공사, 금성사 대회참석	대구·부산	3月15日~18日
사무국장	최 종 규	경북, 조선공사, 금성사지부 대회참석	"	3月15日~18日
위 원 장	김 병 용	세방전지 지부 승격대회, 경남지부업무차	진해·부산	3月20日~23日
조직부장	서 재 인	"	"	"
부위원장	강 준 석	창원공단 업무협의차 창원공단 업무협의차	마 산	3月23日~25日
위 원 장	김 병 용	전남지부대회참석, 화천기공 지부승격대회	광 주	3月24日~26日
총무부장	변 시 현	"	"	"
조직부장	서 재 인	"	"	"
조직차장	이 진 우	부산지역 업무협의차	부 산	3月26日~28日
사무국장	최 종 규	강원정비지부 조직점검 및 진흥회협의차	춘 천	3月28日
조직부장	서 재 인	"	"	"
사무국장	최 종 규	국제기계 옥천지부 대회참석	옥 천	"
조직부장	서 재 인	"	"	"
부위원장	강 준 석	호남전기 지부대회 참석차	광 주	3月30日~31日
조직부장	서 재 인	"	"	"
위 원 장	김 병 용	부산지부대회 참석차	부 산	3月31日~4月 1日

組 織 活 動

內

容

概 要

1. 組織体系 및 機構表
2. 組合任職員 名單
3. 支部 所在地
4. 支部 任員名單
5. 分會長 名單
6. 外國人 投資企業 勞組現況
7. 新規組織現況
8. 支部 分會設置 現況
9. 支部別・月別 組合員 現況
10. 市道別・月別 組合員 現況
11. 支部別 組合員 增減對比表
12. 年度別 組合員 增減 對比表
13. 業種分科別 現況

組 織 活 動

概 要

노동운동은 인권운동이며 노동조합의 민주화와賃金引上을 통한
生活安定의 善意的 鬭爭運動이다.

따라서 勤勞者의 恒久的이며 進取的인 運動이라고 集約할 수 있
다.

經濟的 社会的 弱者인 勤勞者에게는 資本主義社会에서 派生되는
勞使關係의 힘의 不均衡, 機械文明의 發展에서 오는 人間性의 喪失
과 經濟的 强者의 封建적 思考方式에서 오는 배타적인 勞動意識
構造를 払拭하고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組織의 基本理念과 힘
의 均衡이 安定된 基調위에 定着할 때 비로서 對等한 勞使關係를
維持할 수 있고 또한 諸般 不合理하게 位置해 있는 條件을 관찰
키 爲한 直接的인 힘으로 作用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10萬組織 突破를 爲해 傘下 任職員의 끊임없는 組織
擴張에 박차를 加하여 所期의 成果를 達成하였고 또한 올해에도
16萬 組織突破를 爲하여 個個人 組合員에서부터 傘下 支部(分會)
任職員에 이르기까지 總力을 傾注할 것이다.

돌이켜 보건대 61年 8月 조그만 組織에서 出發하여 18年이 지난
오늘 13萬組織으로 꾸준히 成長, 發展하였고 政府의 機械金屬産業과
重化學工業推進의 힘을 背景으로 70年 8月부터 78年 8月까지

354.2%인 94,050명이 증가하여 17個産別中 組織伸張率 1位로서 1978年度 勞総 各国代議員 大会席上에서 100万組織 突破 有功패를 受賞한것은 피땀어린 努力의 結果이다.

昨年度 組織概要에서 言及한바 있는 1) 新規組織擴張에 對한 計劃의 未盡 ② 未熟한 情報에 依한 早期結成으로 나타나는 不作用 3) 新規組織後 組織管理의 未洽으로 困한 組織의 互解 ④ 質보다 量에 優先한 組織結成等 組織責任者로서의 反省해야 할 問題點들을 平時에도 恒常 組織管理의 理念으로 行動한 當爲的 結果로서 2個支部의 新規組織 結成에도 아무런 말썽없이 成功을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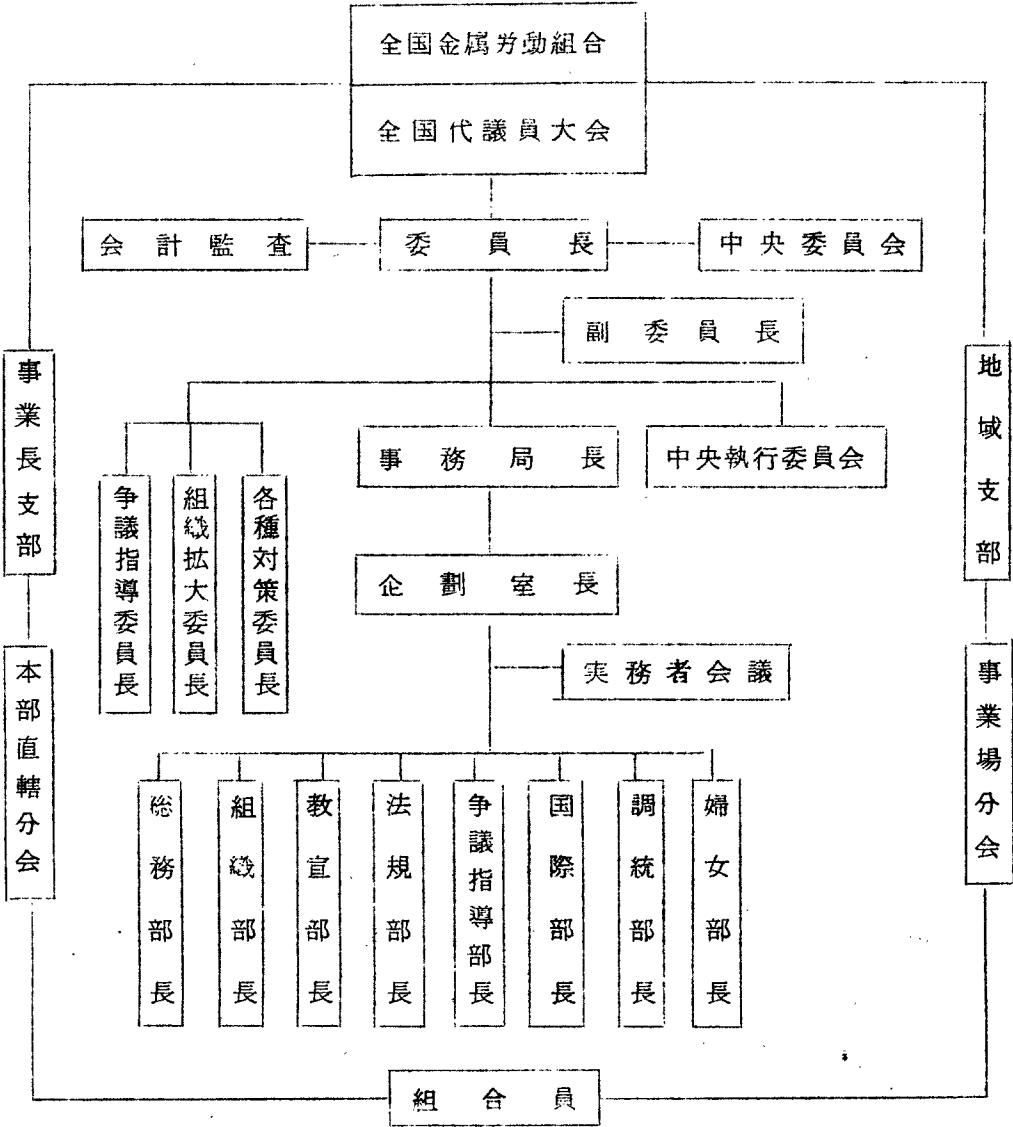
그러나 아직도 勞動運動의 低辺에 두껍게 깔려있는 非活動 非協助等 自己變化에 突破口를 찾지 못하고 있는 旧態依然한 姿勢가 是正되므로 1관이 참된 勞動運動의 基本理念에 接近될 수 있으며 規制 當한 勞動2權 回復에 우리의 機能을 十分發揮할 수 있으리라 思料된다.

그러기 爲하여서는 組織勤勞者의 과별없는 平和的이고 協調的인 人間關係 形成이 時急한 問題로 부각되고 있으며 오랜 歲月을 두고 抗日鬭爭, 左翼系와의 鬭爭等 우리의 先輩들이 시련을 克服하고 더전을 닦아온 勞動組合을 다시 우리의 손에 依해 본 궤도에 올려 놓을 수 있는 契機가 되리라 본다.

이제 우리 金屬勞動組合은 重化学工業의 旗手로서 先鋒에 位置하여 우리의 力量을 最大한 活用함으로써 未組織事業場의 勤勞者를 組織化하고 既成組織의 管理에도 간단없는 努力을 動員하여 積極的

인 組織의 支援과 勤勞者 個個人에게 福利增進되는 成果為主 勤勞者 保護爲主의 알찬 組織으로 發展해야 하리라 본다.

1. 組 織 体 系 및 機 構



2. 組 合 任 職 員 名 單

職 位	姓 名	所 属	備 考
委 員 長	金 炳 龍	起 亜 産 業 支 部	常 任
副 委 員 長	姜 俊 錫	韓 国 배 아 릅 支 部	常 任
"	鄭 釜 炅	金 星 社 支 部	
"	河 俊	慶 北 支 部	
"	韓 達 洙	大 韓 電 線 支 部	
事 務 局 長	崔 鐘 圭	金 星 社 支 部	常 任
会 計 監 査 委 員	鄭 南 洙	釜 山 支 部	
"	李 義 憲	湖 南 電 氣 支 部	
企 劃 室 長	李 憲 求	大 宇 重 工 業 支 部	
綜 務 部 長	辺 始 鉉	起 亜 産 業 支 部	
組 織 部 長	徐 載 仁	"	常 任
教 宣 部 長	崔 雄 吉	東 洋 鋼 鉄 支 部	
法 規 部 長	金 將 鮮	大 韓 電 線 支 部	
争 議 指 導 部 長	李 尚 淑	金 星 通 信 支 部	
調 査 統 計 部 長	金 柄 鎬	서 울 支 部	
国 際 部 長	高 漢 星	京 畿 支 部	
婦 女 部 長	宣 順 福	해 어 차 일 드 支 部	

職 位	姓 名	所 属	備 考
企 劃 委 員	鄭 熙 永	本 組	常 任
組 織 部 次 長	李 珍 雨	"	"
調 査 統 計 部 次 長	尹 昌 烈	"	"
國 際 部 次 長	盧 進 貴	"	"
職 員	朴 奉 子	"	"
"	田 金 淑	"	"
"	金 吉 同	"	"
"	安 福 子	"	"

3 . 支 部 所 在 地

< 地域支部 >

支 部 名	支 部 長	設置年月日	所 在 地
南 西 支 部	李 重 錫	61. 9. 9	서울永登浦区永登浦洞4-20
京 畿 支 部	姜 錫 錄	61. 9. 12	仁川市東区松林2洞118
慶 北 支 部	河 俊	61. 10. 15	大邱市西区원대동 992
全 南 支 部	趙 金 來	61. 10. 16	光州市西区유동 40
서 울 支 部	金 柄 鎬	61. 12. 16	서울 中 区新堂洞 47
慶 南 支 部	鄭 龍 洛	63. 3. 30	馬山市新浦洞2街45-3
釜 山 支 部	鄭 南 洙	66. 12. 2	釜山市釜山鎮区釜田洞 267-21
江 原 整 備 支 部	윤봉희	69. 9. 9	春川市要仙洞 205-1
京 畿 整 備 支 部	林 正 鉉	69. 10. 2	仁川市南区崇義洞 360-12
忠 南 支 部	李 丙 憲	71. 5. 11	大田市탄방동 450

<事業場 支部>

支 部 名	支部長	設置年月日	所 在 地
大宇重工業支部	李 憲 求	62. 5. 12	仁川市東区萬錫洞 6
金 星 社 支 部	閔 正 植	63. 5. 4	釜山市東萊区温泉洞 707
韓國베아링支部	金 載 焄	68. 3. 21	仁川市北区山谷洞 125
웨어차일드支部	金 鳳 勲	68. 6. 15	서울永登浦区가리봉동 219-6
造船公社支部	彭 宗 苗	68. 11. 16	釜山市影島区蓬萊洞 5 街 29
大鮮造船支部	崔 正 元	68. 11. 25	釜山市影島区蓬萊洞 4 街 12
仁川製鉄支部	崔 成 贊	70. 5. 13	仁川市東区松岬洞 1
金星通信支部	李 尚 淑	71. 2. 26	京畿道安養市虎溪洞 600
金星電線支部	鄭 樂 均	71. 4. 21	〃 安養市虎溪洞 555
大韓電線支部	韓 達 洙	72. 5. 26	서울永登浦区시흥동 104
起亜産業支部	金 炳 龍	73. 12. 8	서울永登浦区始興洞 480-1
시그네틱스支部	金 点 玉	73. 12. 13	서울永登浦区염창동 35
國際綜合機械	崔 圭 文	74. 1. 27	忠北沃川郡沃川邑양수리 11
沃川工場支部		.	
金星알프스支部	崔 瓊 丸	74. 12. 7	慶南梁山邑北井里 191
大東造船支部	金 性 宝	75. 1. 8	釜山市影島区大平洞 1 街 160
東洋鋼鉄支部	崔 雄 吉	75. 2. 1	서울永登浦区陽平洞 1 街 115
釜山砲金支部	李 修 範	75. 5. 12	慶南馬山市양곡동 (昌原工団)
世信実業支部	盧 泰 云	75. 11. 19	釜山市東萊区명장동 236-1
湖南電氣支部	白 順 基	76. 1. 24	光州市東区牛山洞 540

支 部 名	支 部 長	設置年月日	所 在 地
金星電氣支部	許 成 元	76. 2. 27	京畿道華城郡烏山邑가수리 379
高美半導體支部	林 福 熙	76. 7. 4	仁川市北區효성동 316-7
大韓重機支部	李 鍾 福	76. 9. 18	서울永登浦區新道林洞 446
日新製鋼支部	俞 甲 植	77. 2. 5	" " 梧柳洞 123
콘트롤레이타支部	李 英 順	77. 2. 8	" " 가리봉동 480-11
南 盛 支 部	李 承 玉	77. 2. 12	" " 가리봉동 345-30
金星計電支部	張 德 五	77. 2. 26	京畿道華城郡烏山邑烏山里 736
東南電機支部	趙 慶 洙	77. 3. 18	서울永登浦區九老洞 197-7
曉星重工業支部	趙 兌 植	77. 8. 16	서울종로구수송동 51-8
同和電子支部	許 世 榮	78. 6. 10	忠南天安市봉명동 90
한국아르 오오르支部	李 銀 子	78. 6. 27	서울永登浦區가리봉동 371-11
새한自動車支部	李 成 均	78. 11. 15	仁川市북구청천동 145
聯合鉄鋼支部	朴 基 植	79. 2. 22	釜山市南區감만동 588의 1
世邦電池支部	孫 祥 太	79. 3. 20	慶南馬山市남산동 601-2
貨 泉 支 部	李 俊	79. 3. 26	光州市西區화정동 23의 1

<本組 直轄分會>

支 部 名	支 部 長	設置年月日	所 在 地
嶺東特別分會	최 봉 화	71. 6. 30	江原道東草市校洞 5 班
韓一電機分會	李 禹 相	75. 10. 11	原州市牛山洞 (經工業団地)

4. 支部 任員名單

〈地域支部〉

支部名	支部長	副支部長	事務長	司正委員	選出日字
南서울支部	李重錫	장판식	이창성	이지승, 황익주, 이홍우	78.3.4
京畿支部	강석록	정규철, 김상도	최현광	조병집, 김석봉	79.3.27
慶北支部	河俊	서정권, 장용조, 이창기, 조병준, 김중원	서정권	이증한, 임용수	78.3.22
全南支部	趙金來	김판중, 조현수, 하정열		김영섭, 김윤철	78.3.4
서울支部	金柄鎬	민병준, 김준기	김중현	이봉술, 장정일	79.3.8
慶南支部	鄭竜洛	-	-	제갈사만, 박영옥	78.3.25
釜山支部	鄭南洙	박일수, 공원수, 서선권, 김영만	박인상	이우진, 박한필, 이상세, 정재근, 권일구	77.3.26
江原整備支部	尹奉熙	오봉술, 김희목	손완근	장규병, 김우기	78.3.31
京畿整備支部	林正鉉	남문우, 이석일, 오도환	권대식	김학삼, 이근욱	78.4.8
忠南支部	李丙憲	김영호			78
〈事業場支部〉					
大宇重工業支部	李憲求	이계실, 조병린, 유영진, 조택환, 이병열	윤성현	김상근, 김순길	78.5.13
金星社支部	閔正植	강규감, 이형태, 한기조, 박승리, 김상율	강영섭	박청, 김치남, 조공희	79.3.17

支 部 名	支 部 長	副 文 部 長	事 務 長	司 正 委 員	選 出 日 字
한국메아리支部	金載熙	김태일, 유재호	구본국	조인호, 권동원, 서전석	78.3.18
웨어차일드支部	金鳳勲	선순복, 윤기원	박태호	신석호, 이호예	78.2.16
造船公社支部	彭宗出	곽성찬, 박일용, 이지환 백삼주	박기주	방두관, 김윤곤	79.3.17
大鮮造船支部	崔正元				
仁川製鉄支部	崔成贊	한창석, 김부환, 김동찬		정민용, 민응기, 이철영, 정용락	78.3.24
金星通信支部	李尙淑	박경철, 최익환, 유경석 홍순옥, 송유석, 이준섭	김길동	임근신, 이성준, 김창수	79.3.8
金星電線支部	鄭榮均	이명섭, 이성우, 이성국 하영일, 송원식	정창영	김종우, 마창호, 최용구, 최유생 전경환	79.3.8
大韓電線支部	韓達洙	김장선, 이판우, 이상길, 이용호, 김종	김성문	안홍열, 김유진	78.3.16
起亜産業支部	金炳範	변시현, 권수태	송민석	이구연, 박상춘, 신현기	76.11.26
시그네틱스支部	金点玉	김희준, 이명숙	김연옥	권영숙, 이선우, 엄순배	76.12.15

支 部 名	支 部 長	副 支 部 長	事 務 長	司 正 委 員	選 出 日 字
國際綜合機械支部	崔圭文	정기철, 이정배	정영규	육명준, 박순훈	77. 7.22
大東造船支部	金性宝	정학균, 안교협		박시택, 이영월, 박득춘	78. 3.30
東洋鋼鐵支部	崔雄吉	정엄수, 김사준, 정천섭	김영신	조성길, 장용복	78. 2. 1
釜山砲金支部	李修範	이상봉	이민식	장부길, 김무식	78. 4. 2
世信實業支部	盧泰云	김용길, 김영대	김철조	박시규, 이현열	79. 1.18
湖南電氣支部	白順基	손봉섭, 진복남	김수웅	주협, 김정순, 김용학	79. 3.30
金星電氣支部	許成元	서판규, 이상열, 이용추	박현수	이수신, 김종선	79. 3.30
高美半導體支部	林福熙	이혜경, 한용희	이정희	장경옥, 박경순	79. 3. 2
大韓重機支部	李鍾福	임창기, 송기철, 가형현 김주선	서정배	김의권, 이필훈, 함성우	76. 9.18
日新製鋼支部	俞甲植	김종옥	김길수	홍영기, 김정량	78. 1. 5
콘트롤레이터支部	李英順	한명희, 유옥순, 백영희		김정호, 이영애	77. 2.28
南盛支部	李承玉	김태순, 민경자	김성희	백용선, 허선자	79. 2.28
金星計電支部	張德五	남정호, 위춘수	안의근	이원훈, 이춘동	77. 2.26

東南電機支部	趙慶洙	이근상, 가진자	송명숙	김순구, 김옥동, 이춘배	78. 3.30
曉星重工業支部	趙允植	신백용	변진남	김창주	77. 8.16
同和電子支部	許世榮	김창용, 김명수		이학수, 송상현	78. 6.10
한쿠아르오오르支部	李銀子	박운자, 박애숙	서영순	김순실, 송순영	78. 6.27
새한自動車支部	李成均	장명환, 채문식, 최동열 이승익	김영만	김병선, 고성수, 김정세	78.11.15
聯合鉄鋼支部	朴基植	김소남, 고정간	이호원	조남석, 윤종배, 강은호 안효성, 박호원	79. 2.22
世邦電池支部	孫祥太	김영채, 이수곤	이광백	하철, 유재운, 박창수	79. 3.20
貨泉支部	李俊	정기춘, 이판암		이병봉, 장재울	79. 3.26

5. 分 会 長 名 單

所 属 支 部 名	分 会 名	分 会 長	所 在 地	組 合 員 数
本組直轄 남 서 울 지 부	영 동 특 별 분 회	최 봉 화	강원도속초시교동 5 반 664	140
	한 일 전 기 분 회	이 우 상	" 원주시우산동경공업단지	171
	서울차체공업분회	이 중 석	영등포구문래동 5 가 5	802
	한전기제공업 "	한 진 갑	" 오류동 158	148
	유성기업 "	박 효 상	" " 152	196
	한국가구 "	이 홍 우	강 서구의발산동 4-1	334
	대한제쇄 "	황 익 주	영등포구문래동 6 가 2	80
	한국강관 "	이 수 환	" " 4 가 41	22
	동양기계 "	장 관 식	" " 6 가 43	630
	부산파이프 "	박 면 하	" 개봉동 180-15	335
	아플로보온병 "	장 명 서	" 가리봉동 459-22	320
	한국특수공구 "	이 지 승	" 양평동 5 - 1	150
	정화금속 "	오 홍 명	강 서구염창동 45-15	137
	동아건설 "	홍 철 용	영 등포구문래동 2 가 17	270
	국제종합기계 "	권 대 원	" 신도림동 390-9	148
	신명전기 "	가 재 각	" 양평동 5 가 46	96
	중앙기계 "	김 종 남	" 구로동 616	118
	동우공업 "	양 정 신	" 양평동 3 가 69	50
	서통전자 "	최 천 석	" 가리봉동 327-1	693

所屬 支部長	分 會 長	分 會 長	所 在 地	組 合 員 數
남서울 지부	신진벨브공업분회	문 장 언	영등포구가리봉동 444	145
	금호전자	나 용 길	" " 371	1,210
	봉신평업	이 의 승	" 신도림동 390-7	118
	국진기업	이 성 춘	" 시흥동 663-5	500
	원풍농기구	음 호 진	" 당산동 2가 21	180
	부경상사	박 운 영	" 가리봉동 239-6	100
	한국마벨	정 태 식	" 구로동 235	494
	세일엔지니어링	정 영 기	" 가리봉동 319-18	150
	영창악기	이 웅 일	" 신도림동 762	921
	롯데물산	허 선 회	" 독산동 516-2	148
	금강전선	윤 세 영	" 양평동 3가 28	80
	천 양 사	이 정 희	강서구등촌동 29	43
	금영실업	권 준 용	인천시북구효성동 665-20	63
	동서금속	성 해 용	영등포구천왕동 2-5	189
	일진금속	허 점	" 양평동 1가 254	122
	세진전자	설 난 영	" 가리봉동 60-19	321
	삼성파이프	심 연 택	" 온수동 100	58
	대륙제관	이 득 중	" 양평동 5가 39	188
	삼화제관	이 환 정	" 신길 6동 4501	193
	코리아씨킷	김 수 일	강서구영창동산 54-4	

所屬 支部名	分 会 長	分 会 長	所 在 地	組 合 員 数
남서울지부	창강공업사 분회	정 종 복	강 서구염창동 112	24
	세창철강 "	정 옥 태	영동포구문래동 6-12	60
	성하산업 "	신 도 호	" 신길 6 동 3203	29
	흥화공업 "	신 종 구	" 신길동 67-1	100
	한일공업 "	김 문 수	" 개봉동 159	200
	봉신주작소 "	김 수 광	" 문래동 6-44	124
	대원전기 "	송 요 명	" 구로 1 동 611-1	505
	진아산업 "	이 영 근	" 문래동 6 가 6	276
	한국콘베어 "	김 회 진	" 온수동 72-1	150
	태림전자 "	윤 영 화	관악구 사당동 7-21	200
경기지부	이천전기 분회	최 현 광	인천시 동구화수동 5 의 5	1,190
	삼성제강 "	정 규 철	" 남구학익동 413	100
	한국후지카 "	서 병 천	" 남구도화동 603	250
	한영알미늄 "	한 대 규	" 남구주안동 267	280
	화신전기 "	강 석 록	" 북구효성동 124-5	750
	새한요업 "	서 덕 순	" 북구청천동 427	50
	한세열기 "	박 대 회	" 북구청천동 116	60
	서움전자 "	인 난 영	" 북구갈산동 175-6	110
	한 서 "	신 종 만	" 북구효성동 33-2	100
	신한일전기 "	배 기 화	" 북구송내동 456	840

所 屬 分 會 名 支 部 名	分 會 名	分 會 長	所 在 地	組 合 數 員 數
경기지부	신한주철 분회	김 상 도	부천시소사동 243	600
	태양공업 "	조 병 집	" 도당동 187-7	580
	고려강철 "	장 재 순	" " 254-6	80
	영창산업 "	박 종 현	" 삼정동 208-2	26
	국제전선 "	이 완 기	경기도시흥군남면금정리 166	350
	울산알미늄 "	부 성 덕	" 광주군서부면초이리	550
	대성전선 "	박 광 원	" 양주군회천면덕계리 513	80
	범양냉방 "	김 윤 주	" 시흥군남면금정리 101-1	110
	대창산업 "	김 석 봉	" 시흥군소래면미산리 288	30
	우주전자 "	구 회 용	" " 서면소하리 910	180
	한국압전기 "	임 병 임	" " 당정리 525	101
	한국에르나 "	안 경 순	" 양주군덕소리 226-1	90
	동우산업 "	이 재 응	" 시흥군은행리 32-1	70
	백양스텐레스 "	서 남 도	" 양주군덕소리 600	90
경북지부	조광산업 분회	정 중 식	대구시북구칠성동 2 가 123	200
	삼립산업 "	이 상 우	" 북구노원동 3 가 236-3	496
	협립제작 "	구 연 팔	" 북구대현동 281-1	325
	남선경금속 "	신 홍 태	" 동구방촌동 1050	1,006
	선광알미늄 "	김 영 근	" 서구원대동 3 가 1259	66
	선학알미늄 "	박 병 철	" 북구침산동 342	648

所 属 支部名	分 会 名	分 会 長	所 在 地	組 合 員 数
경북지부	승리기계 분회	배 호 철	대구시 북구 침산동 227	391
	명화산업 "	장 종 열	" " 노원동 3 가 74-4	815
	대철공업 "	김 재 호	" " 칠성동 2 가 346-1	194
	경창산업 "	박 석 수	" " 노원동 3 가 229	242
	신광산업 "	이 흥 기	" " " 1 가 145	268
	풍광공업 "	양 신 대	" " " 6 가 225-1	72
	삼광기업 "	서 정 립	" " " 3 가 230	90
	울진지역 "	김 도 기	경북 울진군 명해면 후포리 2 구 9 반	37
	영남주물 "	피 회 중	대구시 북구 노원동 3 가 234	525
	영 사 기 "	김 중 회	" " 칠성동 1 가 139-9	34
	신생공업 "	홍 영 기	" " 침산동 100	147
	대양조침 "	홍 익 식	" 서구원대동 6 가 74-1	113
	오대금속 "	김 달 보	" 북구노원동 3 가 1026	100
	삼성제침 "	이 중 한	" " 노원동 2 가 189	325
	유창산업 "	손 성 익	" " 칠성동 2 가 296	130
	대구공사 "	조 정 학	" " 노원동 3 가 216	28
	김천지역 "	조 병 준	김천시 모암동 143-10	542
	형제금속 "	김 종 채	대구시 북구 침산동 867	97
	세명기업 "	양 병 택	" " " 1107	156
	명화크랏지 "	유 철 규	" " 노원동 3 가 214	435

所 屬 支 部 名	分 會 名	分 會 長	所 在 地	組 合 員 數
경남지부	일월공업분회	장진욱	대구시북구침산동 1247	150
	동아공업 "	민경식	" 서구이현동 32 B/L	178
	대광보이러 "	오호용	" 북구노원동 3가 203-1	28
	동산강철 "	이석태	" " " 3가 716	49
	포항지역 "	김석조	포항시송도동 19통 1반	40
	동원산업 "	김일환	대구시북구노원동 3가 27-1	180
	삼경산업 "	윤공작	" " 침산동 2구 245-8	24
	삼신제침 "	송정달	" 서구원대동 2가 168	47
	법 철 "	김종열	" 북구노원동 2가 245	287
	우주열기 "	여석홍	" " " 3가 207	218
	대원공업 "	최준호	" " 침산동 677	27
	삼일공업 "	최종석	" " 고성동 3가 34-1	20
	삼영공업 "	장래복	" " 침산동 3구 676	79
	대구물산 "	권영태	경 북경산군고산면옥수동	119
	삼도기계 "	이기영	대구시북구침산동 1구 839	45
	대성기업 "	김재태	" " " 685	60
	동진산업 "	김충곤	" 서구이현동 42-39	102
	평화오일셀 "	추길수	" 북구노원동 3가 74-3	119
	삼영공업 "	윤형순	" 서구이현동 42-90	26

所屬 支部名	分 会 長	分會長	所 在 地	組 合 員 數
전남지부	아시아자동차분회	조금래	광주시서구내방동 700	1,334
	정 비 "	김태학	" "서구북동 1 의 1	500
	광주장식 "	고영욱	" "서구화정동 23 의 141	22
	여수조선 "	하경열	여수시남산동 691	160
	여수통합 "	이현섭	" 충무동 502	118
	대흥주물 "	박재남	광주시서구화정동 12-13	30
	창신주물 "	천종욱	" 서구주월동 1287-1	30
	농신강전사 "	이영수	" 서구화정동 1-5	50
	신진경금속 "	박현자	" 동구중흥동 655-1	15
	남미전기 "	김정래	" 서구화정동 12-15	40
	금성기계 "	김병준	" 서구화정동 23-17	21
	삼능기계 "	김준원	" 서구북동 89 의 4	10
	남선선반 "	전영주	" 서구화정동 23 의 9	45
서울지부	국제전기 "	김준기	서울 도봉구공릉동 230	434
	한국시계 "	장경일	" 성농구송정동 1	200
	풍성전기 "	민병준	" 성농구성수동 1 가 656-335	320
	농양전기 "	이전배	" 강남구풍납동 281	300
	태양금속 "	오낙현	" 강남구풍납동 340	450
	신일산업 "	김중현	" 도봉구공릉동 329-8	625
	삼완산업 "		" 동대문구면목동 138-25	125

所 屬 支部名	分 會 名	分 會 長	所 在 地	組 合 員 數
서울지부한일스텐레스분회	주 광 훈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168-13	120	
	상봉스텐레스 "	박 상 신 " 동대문구 상봉동 62-3	100	
	한국전선 "	정 문 수 " 도봉구 62-3	150	
	한미시티즌 "	유 병 석 " 성농구성수동 277-10	500	
경남지부진일공업분회	김 재 환	마산시 월남산 1가 7	300	
	북성기계 "	김 덕 수 밀양군 밀양읍 내이동 762	107	
	한국기어 "	오 진 근 진주시 주약동 407-1	274	
	신흥공업 "	정 기 규 " 경화동 1가 32	125	
	신아조선 "	김 학 울 충무시 도천동 52-8	260	
	충무조선 "	이 영 석 " 동호동 307	410	
	삼 천 포 "	이 영 협 삼천포시동금동 314	121	
	남해조선 "	박 재 성 남해군 설천면진목리	82	
	진해전자 "	박 영 옥 진해시 풍호동 483-3	246	
	신 흥 "	김 부 돌 " 부흥동 1-11	28	
	동광전자 "	하 영 자 " 이 동 167-3	52	
	신광기업 "	마산시 남산동창원공단 A-6 부력		
	내한알루미늄 "	정 삼 현 울산시 여천동 1번지	273	
	반도기계 "	마산시 남산동창원공단 A-6 부력	64	
	울산중공 "	하 영 주 울산시	356	

所 屬 支部名	分 會 名	分 會 長	所 在 地	組 合 員 數
부산지부조	선분회	정남수	부산시영도구대형동1가122	353
	조 기 "	박인상	" " 봉래동1가16	596
	한진기계 "	오봉출	" 동래구부곡동799	617
	부국제강 "	공원수	" 북구화명동1179	618
	부산조선 "	박일수	" 영도구침학동330	353
	금강전자 "	박분란	" 북구학장동235-6	197
	대창크랭크 "	김무경	" 북구감전동952-3	168
	신흥금속 "	안강진	" 남구감만동511	130
	일동금속 "	백명석	" 북구학장동728-4	88
	삼화물산 "	손관택	" 동래구낙민동185	276
	문화통신 "	조상호	" " 연산1동938	52
	부산기업 "	권차원	" " 연산1동585	130
	미진금속 "	최영욱	" 북구패법동800	1,100
	신동방 "	김기용	" 동래구연산1동581-4	100
	성광벤드 "	김동한	" 북구학장동273-1	133
	신일금속 "	오삼수	" 북구학장동723-4	750
	태광벤드 "	방경서	" 북구학장동273	80
	제일기계 "	김종갑	" 동래구연산1동584	164
	대성사 "	유태연	" " 안락동107-6	81
	신행공작 "	김우재	" 진구가야동155-1	81

所 属 支部 名	分 会 名	分 会 長	所 在 地	組 合 員 数
부산지부	한국천세분회	우성덕	부산시동래구재송동 81	235
	삼영금속 "	백철광	" 북구감전동 133-7	18
	명성연합 "	정재근	" 서구구평동 101-1	591
	문화금속 "	황철우	" 북구학장동 729-1	135
	일신제강 "	이병철	" 북구학장동 25-4	
	광명산업 "	오명진	" 북구감전동 958-1	80
	만호제강 "	서정만	" 영도구농삼동 656	715
	대한장사 "	조자래	" 동래구안락동 210	485
	제일유기 "	이상세	" 서구괴정동 313-1	259
	삼원금속 "	조영모	" 영도구대평동 1가 55	258
	대동금속 "	유성유	" 북구학장동 721-2	60
	일월상공 "	이재선	" 서구암남동 118	116
	동아전기 "	김정욱	" 서구신평동 38	219
	연광공업 "	이상일	" 서구암남동 81-12	129
	동진전기 "	조현재	" 북구학장동 286-13	93
	성 장 사 "	김선만	" 동래구명장동 29-27	105
	삼양금속 "	허강보	" 북구학장동 749-8	
	부산링구 "	오세학	" 북구감전동 703	68
	대성실업 "	권일구	" 서구신평동 370-32	210
	양지금속 "	김양곤	" 북구감전동 849-1	115

所 属 支部名	分 会 名	分 会 長	所 在 地	組 合 員 數
부산지부	한국아루마분회	이 질 호	부산시북구감전동 899-1	93
	상남 기업 //	임 형 농	// 동래구부곡동 296-9	142
	호 성 사 //	조 성 환	// 북구주례동 1033-2	74
	농 방 윤 기 //	오 두 석	// 북구괘법동 511-2	76
	한 국 기 물 //	박 용 식	// 북구삼락동 360-10	201
	삼 창 기 계 //	권 재 의	// 북구학장동 732-2	180
	부 산 정 기 //	이 기 조	// 동래구부곡동 820-2	600
충남지부	특수금속분회	이 병 현	대전시대전시탄방동 450-5	207
	한국쌍신전기 //	박 천 순	충 남 연기군서면월하리 614-1	149
	성 남 미 성 //	임 윤 택	대 전시대화동 63-20	85
	성 남 주 물 //	여 운 광	// 성담동 66	109
	한 국 이 연 //	이 종 성	충 남대덕군석봉2구	170
	남 선 기 공 //	김 길 용	대 전시대화리공업단지	10
	중 앙 공 업 //	이 상 준	충 남대덕군화덕면읍내리	39
	대 성 공 업 //	김 두 형		267
	중 앙 금 속 //	박 원 범	대 전시농구대화동제2공단(내)	128
대우중공업지부	안양공장 //	이 병 열	경기도횡화군의왕면삼리	992
	영등포공장 //	이 동 윤	서 울영등포구구로동 691-5	625
	창원공장 //	김 광 수	경 남창원기계 공업단지	973

所 属 支部名	分 会 名	分 会 長	所 在 地	組 合 員 數
금성 사 지 부	구미 공 장 분 회	한 기 조	경북구미시공단동 184	2,679
	창 원 공 장 "	김 상 울	경남마산시가음정동 391-2	3,271
	구로 공 장 "	박 승 리	영등포구가리봉동 459-9	2,175
한국배아링 지 부	한 국 정 공 "	이 병 수	인천시북구산곡동 162	49
	창 원 공 장 "	박 상 윤	경남마산시가음정동 391-5	328
조선공사 지 부	외 주 "	윤 경 준	부산시봉래동 5가 29	187
금성전선 지 부	구미 공 장 "	하 영 일	경북구미시낙제동 164	1,014
대한전선 지 부	전 선 "	한 달 수	서울영등포구독산동 738	2,200
	전자·전기 "	김 장 선	" 시흥동 555	2,940
	제 당 "	이 관 우	" 독산동 738	228
	마 루 콘 "	김 근 진	경기도시흥군남면 당정리 543	628
	인 천 "	이 상 길	인천시남구용현동 604	1,776
	음 향 "	이 용 호	" 북구효성동 316-3	838
	기아기연 "	권 수 태	" 부평동 64-20	725
	대서산업 "	박 대 준	" 65-139	238
	서진산업 "	홍 순 화	경기도시흥군남면 금정리 7	454
	동우공업 "	김 형 수	부산시부산진구대연동 323	330
기아산업 지 부	기아기공 "	이 상 철	경남마산시의 동 853-5	775
	기아서비스 "	전 영 근	영등포구양평동 6가 16-2	678
	한국금형 "	목 진 춘	" 가리봉동 443	104

所 屬 支 部 名	分 會 名	分 會 長	所 在 地	組 合 員 數
동양강철 지부 효성중공업 지부 새한자동차 지부	대전공장 분회	정 천 섭	대전시대화동공단 11 부력	278
	영등포공장 "	채 규 병	영등포구당산동 5 가 4	752
	창원공장 "	신 백 용	마산시내동창원공단 A	1,250
	부평공장 "	이 성 균	인천시북구청천동 145	2,684
	부산공장 "	채 문 식	부산시부산진구전포동 188-9	1,147
	동래공장 "	장 명 환	부산시동래구금사동 75-11	858

6. 外国人投資企業體現況

支 部 (分 会) 名	支部(分会)長	組 合 員 数	設立年月日	投資国
웨이차일드 支部	金 鳳 勲	3,051	68. 6. 15	美 国
시그네틱스 "	金 点 玉	2,450	68. 8. 1	"
金星電線 "	鄭 樂 均	2,016	72. 3. 10	日 本
金星通信 "	李 尚 淑	2,730	73. 3. 3	西独・日本
金星알프스 "	崔 環 丸	2,742	74. 10. 7	日 本
金星計電 "	張 德 五	1,280	75. 3. 8	"
콘트롤데이타 "	李 英 順	876	73. 12. 30	美 国
高美半導體 "	林 福 熙	920	76. 7. 4	"
南 盛 "	李 承 玉	545	77. 2. 12	日 本
同和電子 "	許 世 榮	533	78. 6. 10	"
한국아르모르 "	李 銀 子	695	78. 6. 27	"
새한자동차 "	李 成 均	4,689	78. 11. 15	美 国
남서울지부 영창악기 "	이 응 일	1,141	76. 2. 18	日 本
" 롯데물산 "	허 선 회	193	76. 4. 24	"
" 세진전자 "	설 난 영	402	77. 1. 23	"
세방전지 지부	손 상 태	1,255	70. 3. 21	"
기아산업지부기아기연분회	권 수 태	970	79. 4. 30	"
경기지부 신한일전기분회	배 기 화	840	74. 5. 4	"
" 태양공업 "	조 병 집	580	74. 11. 2	"
" 한국에르나 "	안 경 순	100	78. 7. 23	"
경남지부 대한알미늄 "	정 삼 현	276	78. 8. 4	프랑스
한국배아령지부 정공 "	이 병 수	925	77. 2. 12	日 本

7. 新 規 組 織 現 況

名 称	所 在 地	結成日字	支 部 長 會 長	副 支 部 會 長	組 合 員 數
同 和 電 子 支 部	충청남도 천안시 봉명동 90 번지	78. 6.10	許 世 榮	김창용 김명숙	533
한국아로오오모支部	서울시 영등포구 가리봉동 371-11	78. 6.27	李 銀 子	박윤자 박애숙	780
南 京 支 部					
대 원 전 기 분 회	서울시 영등포구 구로동 611-1	78. 9.23	송 요 명	김지숙 김창성	565
진 아 산 업 분 회	" 6가6	78.11. 1	이 영 근	정태영 김영창	276
한 국 콘 베 어 분 회	" 은수동 72-1	79. 1.10	김 회 진	김영도	150
태 립 전 자 분 회	서울시 관악구 사당동 7-21	79. 2. 3	윤 영 화	이연옥 김순옥	300
京 畿 支 部					
한 국 압전기 분 회	경기도시 홍군당정리 525	78. 6.12	임 병 일	남경애	101
한국에르나 분 회	" 양주군덕소리 226-1	78. 7.23	안 경 순		100
동 우 산 업 분 회	" 시흥군은행리 32-1	78. 8.30	이 재 응	김성웅	70
백양스텐레스분 회	" 양주군덕소리 600	78. 9. 7	서 남 도	박철근	90

慶北支部						
삼도기계분회	대구시북구침산동1구 839	78. 4. 26	이기영			88
대성기업분회	" 북구침산동1구 685	78. 6. 19	김재태			58
동진산업분회	" 서구이현동 42-39	78. 8. 16	김충곤			94
평화오일셀분회	" 북구노원동3가 74-3	78. 10. 19	추길수			116
삼영공업분회	" 서구이현동 42-90	79. 2. 8	윤형순			35
全南支部						
삼능기계분회	광주시서구북동 89 외 4	78. 6. 7	김준원	이형남, 허삼구		10
남선선반분회	" 서구화정동 23 외 9	78. 7. 13	전영주	김성민 강양원		45
서울支部						
한일스텐레스분회	서울동대문구장안동 182-13	78. 7. 25	주광훈			120
상봉스텐레스분회	" 상봉동 62-3	78. 8. 27	박상신	실두흙		100
한국전선분회	" 도봉구 도봉동 62-3	78. 12. 22	정문수	임정민		150
한미시티즌분회	" 성동구 성수동 277-10	78. 11. 30	유병석	신현우, 유동춘		500

名 称	所 在 地	結成日字	支 分 会 長	副 支 分 会 長	組 合 員 數
慶 南 支 部					
신 광 기 업 분 회	경남진해시이동 167-3	78. 4.29	최 정 숙	김말연	
대한알루미늄 분 회	경남울산시 여천동 1번지	78. 8. 3	정 삼 현	강혜근, 이대현, 김정태	271
반 도 기 제 분 회	경남마산시 남산동창원공단 A - 6 부령	78. 9.15	박 영 근	김성만, 공원배	64
釜 山 支 部					
부 산 링 구 분 회	부산시 북구 감전동 703	78. 4.30	오 세 학	이상훈; 서판식, 박호문 이순현; 이찬곤	68
대 성 실 업 분 회	" 서구신평동 370-32	78. 7. 4	권 일 구	김홍구, 황경화, 최미애 김제순	210
양 지 금 속 분 회	" 북구감전동 849-1	78. 7. 8	김 양 곤		115
한 국 아 루 미 분 회	" 북구감전동 899-1	78. 7.23	이 길 호	윤동현; 박이술, 양상길 신동식; 이원갑	93
상 남 기 업 분 회	" 동래구부곡동 296-9	78. 8.18	임 형 동	배판알; 이석희, 이인재 박정철; 연정남	142
호 성 사 분 회	" 북구주례동 1033-2	78.11. 9	조 성 환	석기일, 김두언	74
동 방 윤 기 분 회	" 북구패법동 511-2	78.11.17	오 두 석	권중훈; 남설우, 유칠규 이선규; 백영태	76
한 국 기 물 분 회	" 북구삼락동 360-10	78.11.23	박 용 식		201
살 창 기 제 분 회	" 북구학장동 732-2	79. 2.14	권 재 외	이철백; 노재식, 김연수 김형국; 고봉용	180
부 산 정 기 분 회	" 동래구부곡동 820-2		이 기 조	안강호; 양태수, 남미영 장한지; 전병현, 김동호 유원석	600

名 称	所 在 地	結 成 日 字	支 部 長 分 会 長	副 支 部 會 副 長	組 合 員 數
忠 南 支 部					
대성공업분회	대전시 동구 성남 1 동 180 번지	78.10.14	김 두 형	김 광 순	267
동양금속분회	대전시 동구 대화동 제 2 공단	78.8 . 7	박 원 범		128

8. 單一事業場支部 分會 設置現況

名 稱	所 在 地	設 置 (結 成 日)	支 部 長 (分 會 長)	副 支 部 長 (副 分 會 長)	事 務 長	組 合 員 數
연 합 철 강 지 부	부산시 남구 감만동 588-1	79.2.22	박 기 식	김소남, 고정만	이 호 원	1,263
세 방 전 지 지 부	경남마산시 남산동 601-2	79.3.20	손 상 태	김영채, 이수곤		1,256
화 천 기 공 사 지 부	전남광주시 화정동 23 외 1	79.3.26	이 준	정기춘, 이판암		1,280
起 點 產 業 支 部 한 국 금 형 분 회	영등포구 가리봉동 443 번지	78.2.22	목 진 춘			104

9. 支部別 組合員 月別現況

支部名	月別 組合員	78年度 4月	5	6	7	8	9	10	11	12	79年度 1月	2	3
<地域支部>													
남서울 支部		10,818	10,527	11,165	11,165	11,203	11,421	11,160	11,611	11,804	11,436	12,391	12,091
京畿 "		3,883	4,302	4,817	4,817	5,258	5,408	5,646	5,446	6,162	6,547	6,547	6,677
慶北 "		8,195	8,157	8,052	8,281	8,249	8,331	8,060	8,004	8,063	8,636	9,300	9,160
全南 "		2,759	2,996	3,451	3,462	3,461	3,461	3,252	3,224	3,238	3,168	3,238	2,375
서울 "		2,621	2,611	2,421	2,500	2,500	2,820	3,054	2,937	3,009	2,997	2,792	2,674
慶南 "		2,478	2,759	2,640	3,070	3,070	3,201	3,171	3,171	3,171	3,171	3,171	2,328
釜山 "		11,026	11,000	11,050	11,413	11,897	11,774	11,322	11,514	11,504	11,791	11,449	11,321
江原整備 "		680	663	635	635	630	655	652	641	660	679	673	679
京畿整備 "		1,104	1,104	1,104	1,104	1,104	1,104	1,104	1,104	1,193	1,193	1,193	1,220
忠南 "		801	859	869	869	869	869	869	869	869	869	1,020	1,255
목포 "		228	209	102	102	123	123	146	187		-	-	-

支部名	18年度											
	4月	5	6	7	8	9	10	11	12	1	2	3
<事業場支部>												
大字重工業支部	4,982	5,404	5,541	5,459	5,459	5,731	5,731	5,731	5,649	5,567	5,567	5,468
金星社	8,640	9,256	9,663	9,663	10,420	11,569	11,923	12,060	12,229	11,856	11,856	12,447
새한자동차부산	700	771	765	755	949	971	970					
한국베어링	1,155	1,145	1,213	1,187	1,176	1,182	883	1,152	1,182	1,232	1,253	1,302
채어차일드	2,295	2,353	2,206	2,206	2,555	2,943	2,850	2,792	2,952	3,062	3,095	3,051
造船公社	3,058	3,046	2,993	2,673	2,546	2,446	2,446	2,487	2,064	3,089	3,089	3,088
大鮮造船	863	904	921	921	924	915	917	924	926	935	880	880
仁川製鉄	1,612	1,602	1,618	1,618	1,565	1,560	1,574	1,561	1,561	1,560	1,560	1,577
金星通信	2,402	2,421	2,421	2,421	2,421	2,467	2,467	2,506	2,506	2,593	2,593	2,730
새한자동차동래	629	629	580	580	628	628	628					
金星電線	2,035	2,038	2,030	1,955	1,955	1,922	1,922	2,018	2,010	1,822	1,822	2,019
새한자동차경인	2,066	2,066	2,066	2,066	2,066	2,066	2,066					
大韓電線	9,254	9,103	9,103	9,103	10,202	10,177	10,187	10,187	11,435	12,278	12,292	12,620
起亞産業	5,145	5,397	5,542	5,542	5,833	5,833	6,049	6,079	6,198	4,320	4,361	6,708
시그네틱스	2,479	2,333	2,222	2,124	2,124	2,047	2,584	2,793	2,752	2,715	2,626	2,493

月別 組合員 支部名	78年度				79年度				79年度			
	4月	5	6	7	8	9	10	11	12	1	2	3
国際綜合機械支部	683	675	775	776	776	784	806	911	1,046	1,098	1,116	1,112
金星알프스 "	2,814	3,142	3,184	3,105	3,166	3,211	3,179	3,058	3,037	2,674	2,651	2,742
大東造船 "	886	858	842	842	842	791	727	705	666	699	703	732
東洋鋼鉄 "	514	509	522	522	515	517	513	524	527	539	528	578
釜山砲金 "	622	575	575	575	575	601	601	601	635	615	615	631
世信実業 "	1,072	1,526	1,526	1,526	1,526	1,020	1,020	1,020	1,020	1,020	1,020	1,279
湖南電気 "	1,428	1,378	1,378	1,390	1,390	2,121	2,121	2,121	2,121	2,121	2,121	1,950
金星電気 "	1,554	1,526	1,577	1,628	1,628	1,851	1,928	1,904	1,904	1,761	1,761	1,955
高美半導体 "	480	567	590	590	590	726	726	816	816	843	586	920
大韓重機 "	2,155	2,155	2,084	2,243	2,243	2,051	2,145	2,145	2,145	2,292	2,292	2,392
日新製鋼 "	1,440	1,378	1,400	1,400	1,462	1,400	1,365	1,517	1,500	1,539	1,539	1,600
콘트롤레이타 "	1,070	996	979	979	979	934	896	878	876	876	881	876
南 盛 "	513	513	456	401	430	431	404	377	434	434	491	545

支部名	78年度 4月 組合員	79年度											
		5	6	7	8	9	10	11	12	1	2		
金星計電支部	912	965	1,160	1,196	1,220	1,259	1,200	1,208	1,190	1,250	1,230	1	30
東 南 "	483	440	344	329	329	352	352	352	473	473	471		20
曉星重工業 "	1,748	1,728	1,733	1,733	1,733	1,743	1,749	1,923	2,061	2,006	2,021	2	02
새한自動車 "								3,961	3,933	3,959	3,959		39
同和電子 "				765	765	765	765	765	765	535	535		33
한국아르오오프 "				542	650	650	755	745	787	726	720		30
연 합 철 강 "													63
世邦電池 "													56
貨 泉 "													30
嶺東特別分会	138	140	140	140	140	140	177	177	177	195	179		77
韓一電機分会	151	167	164	153	154	166	166	187	190	177	177		71
計	110,571	112,891	114,619	117,526	120,600	123,137	123,228	124,883	128,040	129,348	130,364	135	26

10. 市道別 組合員 月別現況

市道別	組合員 月別	78年度											79年度		
		4月	5	6	7	8	9	10	11	12	1	2	3		
서울	男	25,716	25,988	25,941	26,131	27,098	26,514	26,916	27,424	29,080	29,149	30,178	30,2		
	女	14,819	14,055	14,236	14,658	15,960	16,805	17,147	17,426	17,873	18,544	18,322	18,58		
	計	40,535	40,043	40,177	40,789	43,058	43,319	44,063	44,850	46,953	47,693	48,500	48,80		
釜山	男	20,055	20,264	20,311	20,194	21,144	21,423	21,092	19,807	19,842	20,317	19,754	21,7		
	女	6,819	7,726	8,029	8,179	8,588	8,691	8,861	8,903	9,107	9,073	9,243	9,3		
	計	26,874	27,990	28,340	28,373	29,732	30,114	29,953	28,710	28,947	29,390	28,997	31,0		
京畿	男	17,191	18,148	18,791	19,579	18,732	19,206	19,109	21,171	21,868	21,987	22,013	23,13		
	女	4,994	4,992	5,346	5,462	5,710	6,070	6,138	6,236	6,298	6,340	6,058	6,4		
	計	22,185	23,140	24,137	25,041	24,442	25,276	25,247	27,407	28,166	28,327	28,071	29,57		
慶北	男	6,662	6,578	6,401	6,596	6,449	6,525	6,301	6,296	6,357	6,833	7,075	6,1		
	女	1,533	1,579	1,651	1,685	1,800	1,804	1,759	1,708	1,703	1,803	2,225	2,9		
	計	8,195	8,157	8,052	8,281	8,249	8,331	8,060	8,004	8,063	8,636	9,300	9,10		

支部名	月別 組合員	年度											
		4月	5	6	7	8	9	10	11	12	1	2	3
慶南	男	2,897	3,036	2,939	2,342	3,334	3,490	3,495	3,489	3,535	3,504	3,512	4,062
	女	3,017	3,440	3,460	3,408	3,477	3,523	3,456	3,341	3,308	2,956	2,925	2,895
	計	5,914	6,476	6,399	6,750	6,811	7,013	6,951	6,830	6,843	6,460	6,437	6,957
全南	男	3,151	3,327	3,676	3,667	3,696	3,702	3,526	3,543	3,374	3,304	3,373	3,758
	女	1,264	1,254	1,255	1,267	1,278	2,003	1,993	1,989	1,985	1,985	1,986	1,847
	計	4,415	4,581	4,931	4,954	4,974	5,705	5,519	5,532	5,359	5,289	5,359	5,605
忠北	男	305	323	389	390	425	361	417	531	631	658	683	690
	女	378	352	386	386	351	423	389	380	415	440	433	422
	計	683	675	775	776	776	784	806	911	1,046	1,098	1,116	1,112
忠南	男	592	598	637	652	652	652	652	652	652	672	685	964
	女	209	261	232	982	982	982	982	982	982	732	870	824
	計	806	859	869	1,634	1,634	1,634	1,634	1,634	1,634	1,404	1,555	1,788

市道別	月別 組合員	78年度 4月											79年度		
		5	6	7	8	9	10	11	12	1	2	3			
江 原	男	856	845	820	816	812	841	758	765	785	806	800			
	女	113	125	119	112	112	120	237	240	242	245	227			
	計	969	970	939	928	924	961	995	1,005	1,027	1,051	1,027			
合 計	男	77,425	79,107	79,905	81,387	82,342	82,714	82,266	83,678	86,124	87,230	92,827			
	女	33,146	33,784	34,714	36,139	38,258	40,423	40,961	41,205	41,916	42,118	42,599			
	計	110,571	112,891	114,619	117,526	120,600	123,137	123,228	124,883	128,040	129,348	135,426			

11. 支部別 組合員・増減 対比表

支部別	区分	1978.3.31 現在			1979.3.31 現在			期間増減数		
		男	女	計	男	女	計	男	女	計
<地域支部>										
南 域 支 部		6,714	3,971	10,685	7,634	4,457	12,091	920	486	⊕ 1,406
京 畿 支 部		2,790	1,093	3,883	4,957	1,720	6,677	⊕ 2,167	627	⊕ 2,794
慶 北 支 部		6,554	1,429	7,983	6,991	2,169	9,160	⊕ 437	740	⊕ 1,177
全 南 支 部		2,638	94	2,732	2,277	98	2,375	- 361	+	- 357
全 南 支 部		1,863	758	2,621	2,278	396	2,674	⊕ 415	- 362	⊕ 53
釜 山 支 部		1,819	659	2,478	1,862	466	2,328	⊕ 43	- 193	- 150
江 原 整 備 支 部		8,228	2,195	10,423	8,400	2,921	11,321	⊕ 172	726	⊕ 898
京 畿 整 備 支 部		688	-	688	679	-	679	- 9	-	- 9
忠 南 支 部		1,104	-	1,104	1,220	-	1,220	⊕ 116	-	⊕ 116
木 浦 支 部		592	209	801	946	309	1,255	⊕ 354	⊕ 100	⊕ 454
		228	-	228		-		- 228	-	- 228

事業場	支部	126	4,982	5,307	161	5,468	451	35	486
大宇重工業	支部	126	4,982	5,307	161	5,468	451	35	486
金星	社支部	3,610	8,116	6,716	5,731	12,447	2,210	2,121	4,331
새한自動車釜山	支部	1	710	-	-	-	- 709	- 1	- 710
한국베어링	支部	114	1,150	1,177	125	1,302	141	11	152
웨이차일드	支部	2,123	2,307	179	2,872	3,051	- 5	749	744
造船公社	支部	323	3,099	2,590	498	3,088	- 186	175	- 11
大鮮造船	支部	11	875	859	21	880	- 5	10	5
仁川製鉄	支部	34	1,614	1,544	33	1,577	- 36	- 1	- 37
金星通信	支部	1,456	2,385	958	1,772	2,730	29	316	345
새한自動車東萊	支部	-	450	-	-	-	- 450	-	- 450
金星電線	支部	402	2,043	1,709	310	2,019	68	- 92	- 24
새한自動車京仁	支部	40	1,912	-	-	-	- 1,872	- 40	- 1,912
大韓電線	支部	3,221	8,610	7,705	4,915	12,420	2,316	1,690	4,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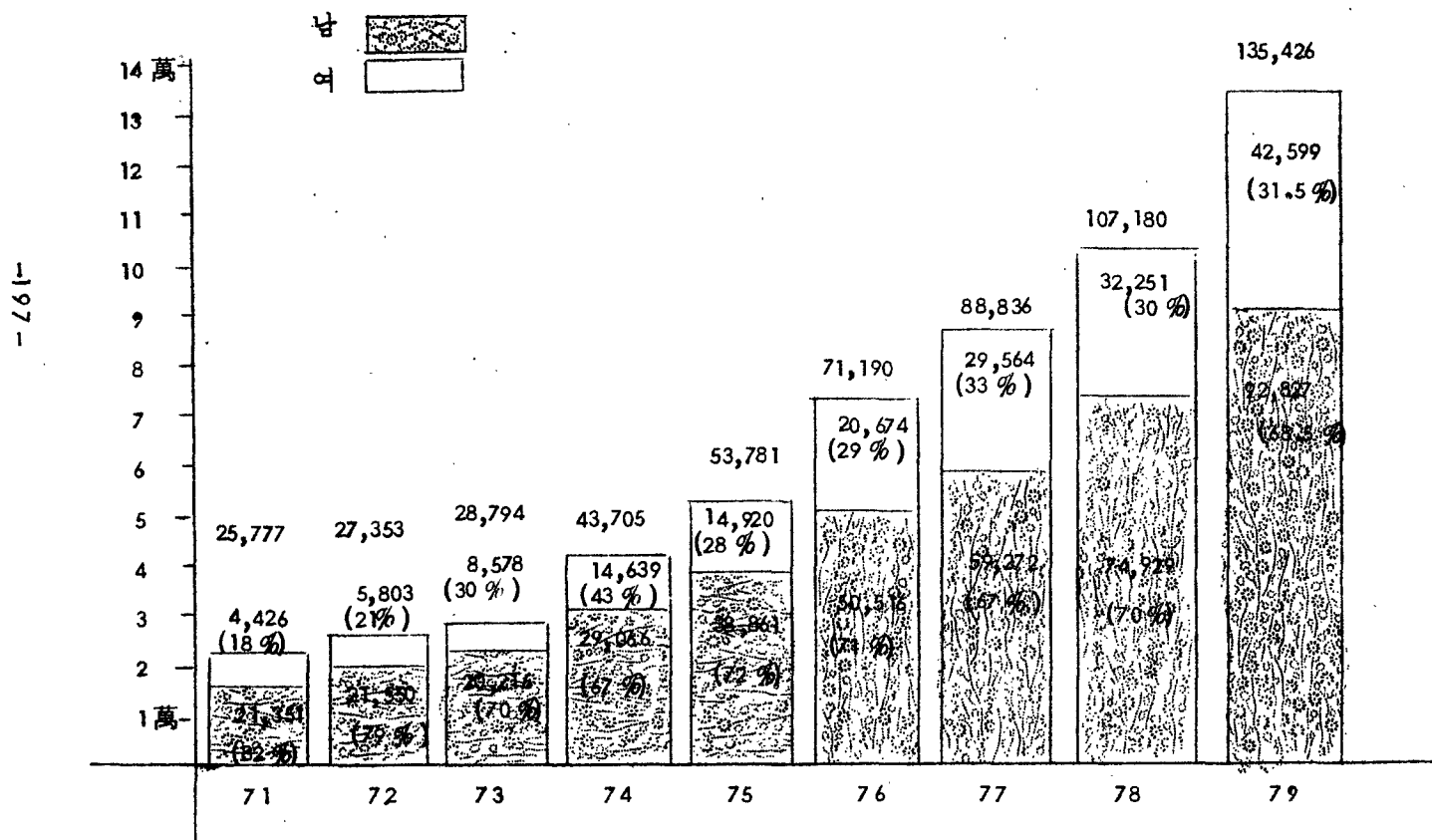
文 部 別	1978. 3. 31		1977. 3. 31		純 正		勤 勞 増 減 数	
	男	女	計	男	女	計	男	女
起亜産業支部	4,798	235	5,033	6,378	330	6,708	⊕ 1,580	⊕ 95
시그네틱스支部	174	2,305	2,479	-	2,493	2,493	- 174	⊕ 188
国際綜合機械支部	267	412	681	690	422	1,112	⊕ 421	⊕ 10
金星알프스支部	510	2,106	2,616	530	2,212	2,742	⊕ 20	⊕ 106
大東造船支部	839	47	886	680	52	732	- 159	⊕ 5
東洋鋼鉄支部	479	35	514	520	58	578	⊕ 41	⊕ 23
釜山砲金支部	548	74	622	591	40	631	⊕ 43	- 34
世信実業支部	864	208	1,072	1,279	-	1,279	⊕ 415	⊕ 207
湖南電気支部	278	1,150	1,428	281	1,669	1,950	⊕ 3	⊕ 519
金星電気支部	778	701	1,479	947	1,008	1,955	⊕ 169	⊕ 307
高美半導体支部	-	469	469	-	920	920	-	⊕ 451
大韓重機支部	1,794	88	1,882	2,294	98	2,392	⊕ 500	⊕ 10
日新製鋼支部	1,402	-	1,402	1,600	-	1,600	⊕ 198	⊕ 198
콘트롤메이타支部	-	1,070	1,070	-	876	876	-	- 194
南盛支部	89	424	513	95	450	545	⊕ 6	⊕ 26

區 分 支部別	1978.3.31 現 在			1979.3.31 現 在			期 間 增 減 數		
	男	女	計	男	女	計	男	女	計
金 星 計 電 支 部	340	430	770	603	677	1,280	+	247	⊕ 510
東 南 電 機 支 部	85	327	412	203	317	520	⊕	- 10	⊕ 108
曉 星 重 工 業 支 部	1,492	200	1,692	1,886	116	2,002	⊕	- 84	⊕ 310
同 和 電 子 支 部	-	-	-	18	515	533	⊕	515	⊕ 533
한국아르오오르支部	-	-	-	-	780	780	-	780	⊕ 780
새한自動車支部	-	-	-	4,581	108	4,689	⊕	108	⊕ 4,689
聯合鉄鋼支部	-	-	-	1,263	-	1,263	⊕	-	⊕ 1,263
世 邦 電 池 支 部	-	-	-	1,079	77	1,256	⊕	177	⊕ 1,256
貨 泉 支 部	-	-	-	1,200	80	1,280	⊕	80	⊕ 1,280
嶺 東 特 別 分 會	138	-	138	60	117	177	-	117	⊕ 39
韓 一 電 機	42	101	143	61	110	171	⊕	9	⊕ 28
合 計	74,929	32,251	107,180	92,827	42,599	135,426	⊕	10,348	⊕ 28,246

12. 年度別 組合員 増減対比表

各年度3月31日基準

年度別	男	女	計	増 (対前年)
1971	21,351	4,426	25,777	-1,598
1972	21,550	5,803	27,353	⊕1,576
1973	20,216	8,578	28,794	⊕1,441
1974	29,066	14,639	43,705	⊕14,911
1975	38,861	14,920	53,781	⊕10,076
1976	50,516	20,674	71,190	⊕17,409
1977	59,272	29,564	88,836	⊕17,646
1978	74,929	32,251	107,180	⊕18,344
1979	92,827	42,599	135,426	⊕28,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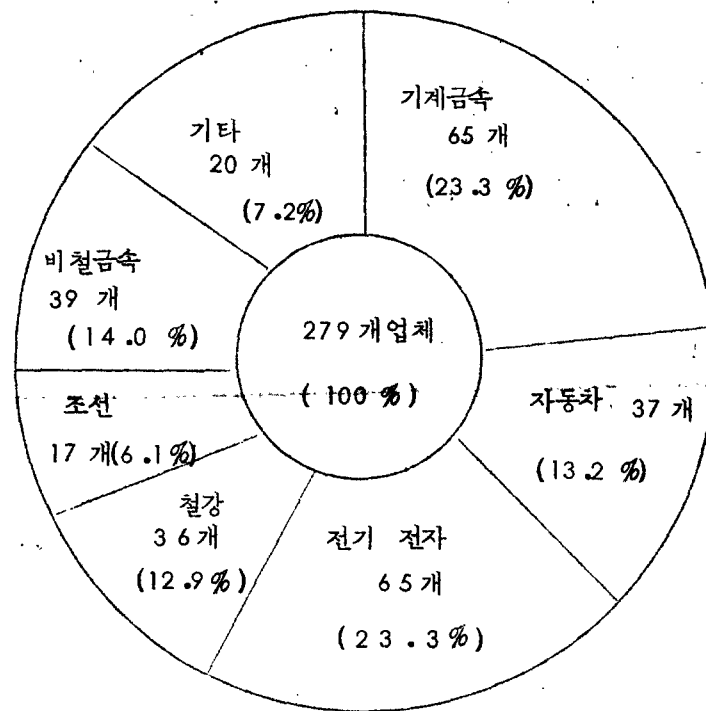


13. 業種 分科別 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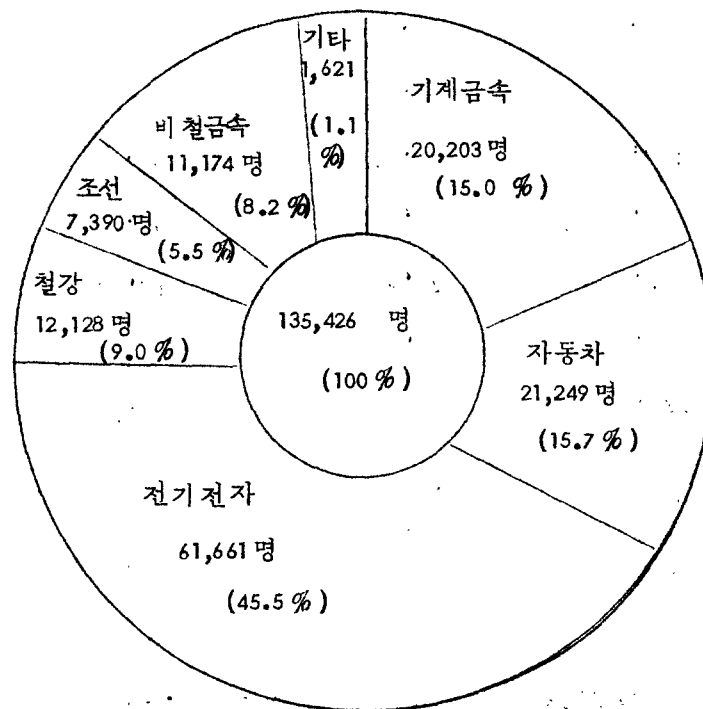
79年3月末現在

分 科 別	企業体数	全体構成比	組合員数	全体構成比
機 械 金 属 分 科	65	23.3 %	20,203 명	15.0
自 動 車 分 科	37	13.2	21,249	15.7
電 気, 電 子 分 科	65	23.3	61,661	45.5
鉄 鋼 分 科	36	12.9	12,128	9.0
造 船 分 科	17	6.1	7,390	5.5
非 鉄 金 属 分 科	39	14.0	11,174	8.2
其 他 分 科	20	7.2	1,621	1.1
計	279	100 %	135,426	100 %

○ 企業体数



○ 組合員数



教育宣傳活動

內

容

概 要

教育活動

I. 本勞組主催 教育

1. 地域巡廻 中堅幹部 教育(嶺南地域)
2. 地域巡廻 中堅幹部 教育(嶺湖南地域)
3. 第十四回 幹部教育
4. 第十五回 幹部教育

II. 支援教育(支部, 分會)

III. 勞總教育派遣

1. 勞總 새마을教育
2. 勞總 協同指導者教育
3. 勞總 夏季野營教育(總務, 教宣, 支部教宣)
4. 勞總 賃金 및 團體交渉 調整申請 세미나
5. 第二回 勞總講師 教育
6. 勞總 九老工團地域 教育

IV. 對外教育派遣

宣傳活動

1. 機關紙 主要目次
2. 談話文
3. 冊字配付

其他活動

概

要

각종의 現代的 매스컴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우리의 일상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現代生活에 있어서 옳게 판단하고 옳게 행동하며 곳곳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충실한 교육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교육은 조직과 함께 노동조합의 제반活動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결정해 주는 주요 수단이다.

본 노조에서는 간부급의 지도력 向上을 위해 매년 한두차례의 간부교육 및 지역순회교육을 해왔고 산하지부의 일선조합원 및 核心組合員을 위해 지원교육을 行해왔다. 한편 노총 및 대외파견교육으로 勞總 새마을教育, 勞總실무자教育, 勞總강사교육, 수원 새마을教育, 통일연수교육, 서강대 산업문제연구소教育, 고대 勞動問題研究所教育 등에 參與해 왔다.

지역순회 중견간부교육은 이번 회기에 두번 실시되었고 영호남 지역의 간부급 180名이 교육을 받았다. 1967년부터 IMF의 支援으로 實施되어온 간부교육은 15회라는 연륜을 쌓았고 총 635명의 간부급들이 교육을 받았다. 한편 76년부터 始作된 勞總새마을교육은 49기에 이르렀고 本勞組의 수강인원은 339名에 이르고 있다. 77년부터 始作된 노총강사교육은 今年 들어 2회에 이르고 있고 本 勞組의 수강인원은 4명이다. 그리고 76年 5月 以後 개설된 통일연수교육의 本勞組 수강 人員은 173명에 이르고 있

고 수원새마을 敎育의 境遇는 總 8名에 이르고 있다. 한편 서강대 産業問題研究所 敎育은 110기에 이르고 있고 本勞組 수강인원은 121명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고대 勞動問題研究所의 敎育에는 지금껏 60여명이 參席해 왔다.

우리 勤勞者가 우리 社會에 있어서 重大한 影響力을 끼칠 權利와 義務가 있다는 점과 고도화되어 가는 技術에서 낙오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비추어 社會소양敎育과 技術敎育體系의 確立이 긴급히 要請되고 있다. 이러한 要請에 더욱 效果的으로 副應하기 위해서는 백년대 계로서의 敎育方案 確立이 優先的으로 要求되고 있다.

近來 몇년 안의 支部別 敎育現況을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은 問題性이 노출되고 있다. 먼저 서울과 地方, 地域支部와 事業場 支部간의 隔差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外部勞動敎育의 境遇 敎育場所가 서울에 집중해 있어 地方의 參與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리고 본조 지원敎育의 境遇 大部分 서울地域에 集中되고 있다. 둘째 강사敎育을 통해 어느 程度로 강사가 育成되었는지의 問題와 그들 강사들이 充分히 活用되고 있는지의 問題다. 이의 解決을 위해서는 두가지 方向에서 배전의 努力이 기울여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地域單位의 강사 育成과 그 地域에 의한 그들 강사를 充分히 活用토록 하는 체계의 確立이다. 둘째 지속적인 地域 순회敎育의 強化이다. 강사를 더욱 높은 水準으로 育成하기 위해서는 더욱 장기간의 敎育이 要請되고 敎育技法의 敎育이 要請된다.

한편 充分한 教育內容을 부여하기 위해 教育資料의 發刊 및 제작이 必要하고 現代 태스크이 強力한 視聽覺的 效果를 가지고 있다는 點에서 우리 勞組의 教育資料도 可能한한 視聽覺化되어야 한다는 點이 要請되고 있다. 勿論 우리의 豫算은 한정된 것이어 모든 좋은 것을 다할 수 없는 것이므로 豫算과 事業의 성과를 더욱 嚴密히 檢討해 教育資料가 製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外에도 新規組織 및 취약조직에 대한 實務教育 및 일선 조합원 教育이 強化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연극, 영화, 슬라이드, 노래, 무용, 문학, 그림 등 다양한 教育方法이 開發되어야 하며 일선 組合員의 역사관 確立을 위해 역사교육이 大幅 強化되어야 할 것이다.

教 育 活 動

I. 분노조 主催 教育

1. 地域巡廻 中堅幹部 教育 (영남지역)

日 時 : 1978.5.4 - 5.5 (1 박 2 일)

場 所 : 동황천주교 " 사랑의 집 " (부산 , 남구)

對 象 : 영남지역 各級支部 中堅幹部

參加人員 : 50 名

教育目的 : 일선조합간부로서의 올바른 運動姿勢의 確立과
투철한 指導理念의 부각

教育内容 : IMF-JC 의 運動方針

勞使關係論

中堅幹部의 責任

國家安保와 勞動組合活動

勞動組合論 研究

事例研究

레크레이션指導

명상의 時間

한마음의 다짐

※ 參加者 名單

支 部 名	職 位	姓 名
釜 山 支 部	分 會 長	노 상 회
"	"	박 을 문
"	副 分 會 長	정 재 근
"	分 會 長	우 성 덕
"	"	서 정 만
"	"	이 상 채
"	"	조 영 모
"	副 分 會 長	이 경 회
"	分 會 長	김 청 수
"	"	김 정 욱
"	"	정 규 복
"	副 分 會 長	조 현 재
"	分 會 長	이 회 봉
"	副 分 會 長	김 선 일
慶 南 支 部	總 務 部 長	조 현 수
"	分 會 長	변 월 선
"	"	이 영 석
"	"	김 형 진

支 部 名	職 位	姓 名
慶 南 支 部	副 支 部 長	이 형 태
金 星 社 支 部	分 會 長	한 기 조
"	副 分 會 長	김 인 백
"	分 會 長	박 승 리
"	總 務	성 무 용
조 선 공 사 지 부	組 織 部 長	백 삼 주
"	靑 年 部 長	홍 부 식
"	교 선 차 장	이 치 근
"	分 會 長	윤 경 준
대 선 조 선 지 부	副 支 部 長	김 경 오
"	사 정 위 원	박 용 국
"	"	이 종 재
"	"	신 충 우
새 한자동 차동래 지 부	운 영 위 원	김 명 호
"	사 정 위 원	손 중 득
금성알프스지부	운 영 위 원	문 감 연
"	"	김 성 순
"	"	박 재 경
"	"	김 삼 철
"	"	양 수 백

支 部 名	職 位	姓 名
대 동 조 선 지 부	청 년 부 차 장	박 진 환
"	운 영 위 원	추 덕 남
"	"	임 길 홍
부 산 포 금 지 부	교 선 부 장	백 남 수
"	새마을지도부장	허 무 원
"	규 율 부 장	안 무 석
세 신 실 업 지 부	지 부 장	노 태 운
"	교 선 부 장	이 문 홍
기 아 산 업 지 부		
동 우 전 기 분 회	사 정 위 원	이 중 덕
"	청년부녀지도부장	전 정 태
"	임 금 대 책 부 장	박 선 홍
"	후 생 복 지 부 장	전 중 근

2. 地域巡廻 中堅幹部教育 (영호남지역)

日 時 : 영남지역 1 회 : 78.11.24.

2 회 : 78.11.25.

호남지역 78.11.27.

場 所 : (영남지역) 勞總 釜山市協議會 會議所

(호남지역) 카톨릭센터

對 象 : 영호남지역 各級支部 中堅幹部

參加人員 : 141 名

1 회 : 度北支部 9 名

釜山支部 38 名

새한부산분회 2 名

조선공사지부 4 名

計 53 名

2 회 : 金星社支部 18 名 18 名

慶南支部 6 名

기아산업 동우전기 3 名

대선조선지부 1 名

금성알프스지부 6 名

대동조선지부 2 名

계 36 名

호남지역 : 전남지부 32 名

호남전기지부 20 名

합 52 名

教育目的 : 일선조합간부로서의 자질 배양

※ 수강자 명단

釜山地域 幹部教育수강생 名單

(제 1 회)

所	屬	職 位	姓 名
釜山支部	신행공작	분 회 장	김 우 재
"	삼화물산	"	손 판 택
"	한국아루마	"	이 길 호
"	명성분회	부 분 회 장	김 호 인
"	연합철강	"	장 철 주
"	한국천세	"	조 동 섭
"	호성사	분 회 장	김 금 경
"	부국제강	부 분 회 장	황 정 수
"	부산기업	"	김 해 석
"	삼남기업	분 회 장	임 형 동
"	대동금속	"	유 성 유

所	属	職 位	姓 名
釜山支部	신평금속	분 회 장	안 강 진
"	부산링구	"	오 세 학
"	광명산업	"	오 명 진
"	삼원금속	부 분 회 장	김 평 갑
"	대성실업	분 회 장	권 일 구
"	문화통신	부 분 회 장	김 명 숙
"	만호제강	분 회 장	서 정 만
"	양지금속	"	김 양 곤
"	염강공업	부 분 회 장	이 선 우
"	성광밴드	"	안 득 록
"	태광밴드	"	박 영 식
"	조선분회	"	박 점 순
"	삼양금속	분 회 장	허 강 복
"	신동방	"	김 기 용
"	미진금속	부 분 회 장	오 용 기
"	신일금속	"	유 공 회
"	대성사	"	간 익 조
"	동진전기	분 회 장	조 현 제
"	"	부 분 회 장	이 용 원
"	한진기계	"	김 진 호

所 属		職 位	姓 名
부산지부	제일기계	부 분 회 장	신 광 일
"	금강전자	"	박 분 란
"	동아전기	"	이 태 호
"	제일유기	"	박 영 구
"	대창크랭크	분 회 장	김 무 경
"	일동금속	"	백 명 석
경북지부	우주열기	"	박 노 백
"	삼립산업	"	이 상 우
"	형제금속	"	김 종 채
"	새명기업	"	양 병 택
"	평화크랫지	"	유 철 규
"	동아공업	"	민 경 식
"	삼영공업	"	배 진 현
"	동산강철	"	이 석 태
지 부		기 획 차 장	김 상 오
조선공사지부		부 지 부 장	곽 성 찬
"		쟁 의 부 장	김 정 수
"		후 생 부 장	최 종 회
부산지부일월상공사		부 분 회 장	심 용 범
조선공사지부		교 선 부 장	박 찬 영

所 属	職 位	姓 名
새한부산분회	부 분 회 장	김 달 수
"	분 회 장	채 문 식
부산지역 간부교육 수강생 명단		(제 2 회)
所 属	職 位	姓 名
기아산업지부		
동우전기	북 지 부 장	엄 귀 열
"	새마을봉사부장	김 문 일
금성알프스지부	운 영 위 원	이 분 순
"	"	박 재 경
"	부 녀 부 장	진 영 순
"	" 차 장	이 경 숙
"	조시통제차장	김 종 현
"	부 지 부 장	이 민 열
대동조선 지부	쟁 의 부 차 장	김 종 판
"	후생부 차장	노 영 진
경남지부 신흥공업	분 회 장	정 기 규

所 属	職 位	姓 名
경남지부 남해조선	분 회 장	박 재 성
" 삼천포조선	상 무	조 용 주
" 진일분회	대 의 원	김 성 규
대선조선지부	조 통 부 장	황 용 구
경남지부 북성기제	대 의 원	홍 승 만
금성사 지부	쟁 의 부 장	이 명 두
"	사 정 위 원	김 진 찬
"	운 영 위 원	박 판 옥
"	"	하 갑 연
"	"	김 무 평
"	"	이 시 곤
"	대 의 원	서 일 주
"	"	정 승 명
"	"	박 성 천
"	"	조 공 회
"	"	유 성 근
"	부 녀 부 장	김 순 출
"	총 무 부 장	나 찬 경
"	운 영 위 원	김 평 선
"	"	여 태 수

所 属	職 位	姓 名
금성사 지부	조 통 부 장	이 문 섭
"	쟁 의 부 장	장 대 회
경남지부 대한알미늄분회	총 무 부 장	김 용 구

호남지역 간부 교육 수강자 명단

所 属	職 位	姓 名
전남지부 아시아분회	부 분 회 장	김 판 종
" "	"	조 현 수
" "	조 직 부 장	박 태 용
" "	후생복지부장	김 춘 식
" "	조 사 부 장	김 재 복
" "	체 육 부 장	최 욱 현
" "	운 영 위 원	김 용 운
" "	"	김 용
" "	"	강 근 식
" "	"	조 정 욱
" "	"	강 광 록
" "	"	김 복 종

所 属	職 位	姓 名
전 남지부 아시아분회	운 영 위 원	정 기 호
" "	"	한 재 연
" "	"	이 태 규
" "	"	박 국 신
" "	"	임 광 성
" "	대 의 원	이 진 소
" "	"	김 재 판
" "	"	김 홍 남
" "	"	오 기 열
" "	"	안 종 민
" "	회 제 감 사	김 영 섭
" "	"	나 용 균
" "	"	장 종 기
정 비연 합분회	분 회 장	김 태 학
화천기공사	분 회 장	이 준
"	부 분 회 장	정 기 춘
남선선반분회	분 회 장	전 영 주
여수통합분회	"	이 현 섭
여수조선분회	상 무	박 창 실
전 남지부	총 무 부 장	이 남 석

所 属	職 位	姓 名
호남전기 지부	대 의 원	김 길 원
"	"	신 동 석
"	운 영 위 원	최 광
"	"	심 홍 섭
"	대 의 원	서 영 수
"	체 육 부 장	심 윤 섭
"	운 영 위 원	김 용 학
"	"	홍 욱 님
"	"	오 향 자
"	대 의 원	김 금 욱
"	"	김 역 욱
"	운 영 위 원	박 양 순
"	부녀부차장	신 정 실
"	운 영 위 원	강 복 회
"	"	양 복 심
"	대 의 원	이 경 순
"	"	하 영 임
"	"	차 현 숙
"	"	장 오 정
"	"	김 점 수

3. 第14回 幹部教育

日 時： 79.6.27 ~ 6.30

場 所： 國際승공연 합회 연수원 (京畿道 양주)

對 象： 各級支部 幹部

參加人員： 48 名

教育目的： 일선조합간부로서의 올바른 勞動運動姿勢 確立과
투철한 指導理念 배양

教育方法： 합숙교육, 수강생의 주제발표와 분임토의에 중점을
둠.

※ 수강생 명단

일련 번호	지 부 장	분 회 명	직 위	성 명
512	남서울지부	원풍농기구분회	분 회 장	음 호 진
513	"	항신전지 "	"	김 한 설
514	경기지부	대성전선	"	박 광 원
515	"	태양공업	"	조 병 집
516	"	화신전기	"	강 석 록
517	전남지부		조 직 부 장	김 재 복
518	경남지부	복성기제분회	분 회 장	김 덕 수
519	부산지부		부 지 부 장	공 원 수
520	"		조 직 부 장	유 입 중

일련 번호	지 부 명	분 회 명	직 위	성 명
521	강원정비지부	구로분회 구미분회	사무장	손 환 근
522	경기정비지부		부녀부장	김 경 애
523	대우중공업지부		안전대책부장	김 종 안
524	"		총무부장	정 제 열
525	금성사지부		조직부장	박 상 우
526	"		분회장	박 승 리
527	"		교선부장	나 찬 경
528	한국베어링지부		지부장	김 재 훈
529	해어차일드지부		상집위원	김 현 만
530	조선공사지부		조사통제부장	홍 태 용
531	"		조직부차장	박 정 화
532	대선조선지부		후생부장	이 정 응
533	인천제철지부		"	이 상 회
534	금성통신지부		운영위원	최 주 현
535	새한동래지부		"	조 수 행
536	금성전선지부		총무부장	기 영 진
537	대한전선지부	안양전선분회	총무부장 분회장	이 병 함
538	"	시흥 "		정 현 구
539	기아산업지부	기아기공분회		문 원 상
540	"	선공업분회		목 진 춘

일련 번호	지 부 명	분 회 명	직 위	성 명
541	시그네틱스지부	교선부장	조사통제부장	인 선 자
542	원풍옥천지부		총무부장	이 용 구
543	금성알프스지부		운영위원	손 영 술
544	"		"	양 수 백
545	대동조선지부		사정위원	이 영 월
546	동양강철지부		부지부장	정 천 섭
547	동양강철지부		교선부장	홍 학 수
548	세신실업지부		쟁의부장	황 성 문
549	호남전기지부		운영위원	조 동 식
550	금성전기지부		사정위원	이 상 열
551	고미반도체지부		부지부장	이 해 경
552	대한중기지부		후생차장	전 명 환
553	일신제강지부		부지부장	김 종 욱
554	콘트롤데이타지부		교선부장	안 종 님
555	남성지부		지 부 장	호 진 철
556	금성제전지부		체육부장	이 민 호
557	동남전기지부		교선부장	송 명 숙
558	효성중공업지부		조직부장	홍 근 표
559	동화전자지부		지 부 장	허 세 영
	(이상 48 명)			

3. 第15回 幹部教育

白 時 : 1978.10.26-10.28(3일간)

場 所 : 勞總中央教育院, 남이섬 야영교육장 (京畿道 가평)

對 象 : 各급지부 사무장 (총무부장)

參加人員 : 38명

教育目的 : 노동조합 豫算에 관한 실무 교육

教育内容 : IMF-JC 의 임금정책

勞動行政

豫算編成 및 통계 요령

결산보고 작성요령

미국노동운동의 方向

조직관계도의

야외놀이

親善 体育大会

친교의 잔치 및 캠프 파이어

講 師 : 勞總 事務次長 이현기

本組 副委員長 한달수

本組 교선부장 최웅길

이화여대 강봉화 (레크레이션지도)

※ 수강자 명단

一連番号	支 部 名	職 責	姓 名
560	남 서 울 지 부	사 무 장	이 창 섭
561	경 기 지 부	총 무 부 장	조 병 집
562	경 북 지 부	"	이 정 기
563	전 남 지 부	사 무 장	모 동 식
564	서 울 지 부	총 무 부 장	김 중 현
565	부 산 지 부	"	문 홍 민
566	강 원 정 비 지 부	사 무 장	손 완 근
567	충 남 지 부	"	김 영 호
568	금 성 사 지 부	"	민 정 식
569	한 국 배 아 립 지 부	"	박 홍 서
570	혜 어 차 일 드 지 부	총 무 부 장	엄 기 한
571	조 선 공 사 지 부	사 무 장	박 기 주
572	대 선 조 선 지 부	"	차 대 성
573	인 천 제 철 지 부	부 지 부 장	한 장 석
574	금 성 통 신 지 부	사 무 장	김 길 동
575	새 한자 동 차 동 태 지 부	"	한 동 우
576	금 성 전 선 지 부	"	김 대 식
577	새 한자 동 차 경 인 지 부	"	김 영 만
578	대 한 전 선 지 부	"	김 성 문
579	기 아 산 업 지 부	"	송 민 석

일련 번호	지 부 명	직 책	성 명
580	시그네틱스지부	총 무 부 장	김 연 욱
581	국제 종합 기계 지부	사 무 장	정 영 규
582	금성알프스지부	총 무 부 장	박 용 기
583	대동조선지부	부 지 부 장	정 학 균
584	동양강철지부	사 무 장	김 영 신
585	세신실업지부	"	김 철 조
586	금성전기 지부	"	박 현 수
587	고미반도체지부	"	이 정 회
588	대한중기 지부	"	서 정 배
589	일신제강지부	"	김 길 수
590	콘트롤데이타지부	부 녀 부 장	이 태 회
591	남성지부	총 무 부 장	서 영 식
592	금성제전지부	사 무 장	안 의 군
593	동남전기 지부	총 무 부 장	명 의 선
594	동화전자지부	사 무 장	강 회 구
595	한국아르옴지부	"	서 영 순
596	영동특별분회	총 무 부 장	신 중 찬
597	한일전기분회	분 회 장	이 우 상

※ 67년 12월 11일 ~ 12월 14일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596명이
본 교육을 수료함.

Ⅱ. 支援教育 (支部 , 分会)

1. 한국배아령支部 幹部教育支援

日 時 : 1978.6.7.
場 所 : 勞總 京畿道協議會 會議室
對 象 : 상집 및 대의원
參 加 人 員 : 25 명
教 育 內 容 : 勞使關係論
中堅幹部의 姿勢

2. 시그네틱스支部 組合員 教育支援

日 時 : 1978.6.17-6.18 (1박 2일)
場 所 : 국제승공교육원
對 象 : 核心組合員
參 加 人 員 : 60 명
教 育 內 容 : 勞使關係論
核心組合員의 姿勢
國家安保 및 레크레이션

3 . 기아산업지부 간부 교육지원

일 시 : 1978 . 7 . 7 - 7 . 8

장 소 : 국제승공연합회

대 상 : 상집간부

참가인원 : 70 명

교육내용 : 설득력 개발

이스라엘의 협동운동

간부의 자세

4 . 일신산업지부 간부교육 지원

일 시 : 1978 . 7 . 13 ~ 7.14

장 소 : 국제승공연합회

대 상 : 상 집 및 운영위원

참가인원 : 38 명

교육내용 : 노사 관계론

단체 교섭론

중견 간부의 자세

5. 동양강철 및 고미반도체지부 幹部教育 支援

日 時 : 1978.5.16 ~ 5.17(2박3일)

場 所 : 무창포 (충남 보령)

對 象 : 勞組幹部 및 核心組合員

參加人員 : 31 명

教育内容 : 國家安保와 勞動組合

勞動組合論

指導者の 姿勢

協同組合論

事例研究

명상의 時間

6. 남성지부 幹部教育 支援

日 時 : 1978.7.30

場 所 : 本組 事務室

對 象 : 상집 간부 및 核心組合員

參加人員 : 26 명

教育内容 : 勞動組合論

7. 동화전자지부 조합원교육 지원

日 時 : 1978.8.4

場 所 : 会社食堂

对 象 : 全組合員

人 員 : 900 명

8. 京畿支部 幹部教育 支援

日 時 : 1978.8.21

場 所 : 京畿支部 會議室

对 象 : 分会長 및 總務部長

參加人員 : 20 명

教育内容 : 勞働組合論

指導者の 姿勢

9. 호남전기지부 幹部教育 支援

日 時 : 1978.9.2-9.3

場 所 : 카톨릭 센터 (광주)

对 象 : 상집 및 운영위원

參加者 : 20 名

10. 大韓電線支部 상집 및 가족교육 支援

日 時 : 1978.10.1.

對 象 : 상집 및 가족

人 員 : 320 名

11. 기아산업지부 組合員教育 支援

日 時 : 1978.10.2

對 象 : 組合員

人 員 : 50 명

12. 경남지부 대한 알미눔분회 조합원교육지원

日 時 : 1978.10.18

場 所 : 사내 강당

對 象 : 일반조합원

人 員 : 300 명

13. 웨어차일드지부 간부교육 지원

日 時： 1978.11.11

場 所： 勞總敎育院

對 象： 상집위원, 대의원

參加人員： 45 名

敎育內容： 勞動組合幹部의 姿勢

14. 한국 아르오오브지부 조합원 교육 지원

日 時： 1978.11.17

場 所： 회사 식당

對 象： 全組合員

參加人員： 750 名

敎育內容： 組合員 단결 의식 고취

15. 남서울지부 세진전자분회 조합원교육지원

日 時： 1978.11.17

場 所： 회사 식당

對 象： 組合員

人 員： 400 名

敎育內容： 勞動組合의 必要性 및 레크레이션지도

16. 시그네텍스지부 간부교육 지원

日 時 : 1979.2.3 ~ 2.4

場 所 : 성 미카엘신학원

對 象 : 대의원급 이상

參加人員 : 40 명

17. 남성지부 간부교육 지원

日 時 : 1979.2.19

場 所 : 본組 會議室

對 象 : 대의원

人 員 : 11 名

18. 한국 아르오오르지부 간부 교육

日 時 : 1979.4.1

場 所 : 본조 회의실

對 象 : 간 부

人 員 : 11 명

Ⅲ. 勞 總 教 育 派 遣

1. 勞總새마을 教育

日時 및 人員 :	第 35 期	1978. 5. 7 ~ 5.13	9 名
	第 36 期	1978. 5.21 ~ 5.27	7 "
	第 37 期	1978. 5.28 ~ 6. 3	10 "
	第 38 期	1978. 6.11 ~ 6.17	10 "
	第 39 期	1978. 6.25 ~ 7. 1	9 "
	第 40 期	1978. 7. 2 ~ 7. 8	10 "
	第 41 期	1978. 8.20 ~ 8.26	5 "
	第 42 期	1978. 9. 3 ~ 9. 9	10 "
	第 43 期	1978. 9.24 ~ 9.30	10 "
	第 44 期	1978.10.15 ~ 10.21	6 "
	第 45 期	1979. 2.25 ~ 3. 3	16 "
	第 46 期	1979. 3.18 ~ 3.25	13 "
	第 47 期	1979. 3.25 ~ 3.31	6 "
	第 48 期	1979. 4. 8 ~ 4.14	14 "
	第 49 期	1979. 4.22 ~ 4.28	13 "

場 所 : 勞總 中央教育員

教育内容 : 새마을運動과 精神革命

새마을運動精神과 勞動運動

維新과 指導理念

국난극복사

새歷史의 創造

統一政策

資源政策과 우리姿勢

指導者의 姿勢

北傀 對南戰略과 우리姿勢

健全歌謠 부르기

기타 勞動運動關係 課目 및 成功事例 等

※ 修講者 名單：第35期~第49期

一連 番号	期別	期 間	姓 名	所 属	職 位
191	제35기	78. 5. 7 ~ 5.13	김영진	대한전선지부	조 통 부 장
192			윤경용	"	쟁 의 부 장
193			김현기	호성중공업지부	부 지 부 장
194			인선자	시그네틱스지부	운 영 위 원
195			임경택	세신실업지부	총 무 부 장
196			유주열	시그네틱스지부	상 집 위 원
197			정찬백	대한전선지부	쟁 의 부 장
198			김종옥	일신제강지부	부 지 부 장
199			박주연	경남지부 남해조선지부	총 무 부 장

一連 番号	期別	期 間	姓 名	所 属	職 位
200	제 36기	78.5.21~ 5.27	김 현 규	대한전선지부	총 무 부 차 장
201			김 회 숙	시그네틱스지부	상 집 위 원
202			김 용 남	대한전선지부	체 육 부 차 장
203			김 태 학	전남지부	교 선 부 장
204			이 진 옥	시그네틱스지부	체 육 부 장
205			민 영 기	대한전선지부	총 무 부 차 장
206			이 장 희	시그네틱스지부	운 영 위 원
207	제 37기	78.5.28~ 6. 3	정 방 부	대동조선지부	교 선 부 차 장
208			유 문 웅	일신제강지부	총 무 부 장
209			박 정 인	조선공사지부향도분회	분 회 장
210			최 세 복	대한전선지부	조 직 부 차 장
211			오 홍 명	남서울지부분회 정화금속분회	분 회 장
212			민 충 기	대한전선지부	생활지도부부장
213			김 성 순	대한전선지부	부 녀 부 장
214			한 기 근	금성산지부구미공장 분회	분 회 장
215			김 한 의	남서울지부향신분회	분 회 장
216			김 해 량	대한전선지부	상 집 위 원
217	제 38기	78. 6.11~ 6.17	김 중 열	부산지부광명분회	분 회 장

一連 番号	期 別	期 間	姓 名	所 属	職 位
218			홍재선	대한전선지부마르콘 분회	부 분 회 장
219			이재선	부산지부일월상공 분회	분 회 장
220			박승래	대한전선지부	교 선 부 장
221			고성수	새한자동차부산공장 지부	쟁 의 부 장
222			강의웅	대한전선지부	체 육 부 장
223			성무용	금성사지부창원공장 분회	총 무 부 장
224			최태안	금성통신지부	교 선 부 장
225			이학두	금성계전지부	조 직 부 장
226			장규병	강원정비지부 신흥공업분회	분 회 장
227	제39기	78.6.25 ~ 7.1	이의현	호남전기지부	지 부 장
228			김희중	시그네틱스지부	쟁 의 부 차 장
229			박미애	"	체 육 부 차 장
230			박기석	대한전선지부	교 선 부 차 장
231			박무손	효성중공업지부	쟁 의 부 장
232			이영란	시그네스지부	부 녀 부 차 장
233			김진호	쾌어차일드지부	쟁 의 부 장
234			이수광	일신제강지부	총 무 부 장
235			신중길	남서울지부영창악기 분회	조 직 부 장

一連 番号	期別	期 間	姓 名	所 属	職 位
236	제 40 기	78.7.2~ 7.8	조 영 모	부산지부삼원금속분회	분 회 장
237			강 금 자	대한전선지부	부 녀 부 장
238			김 상 호	"	상 집 위 원
239			김 종 호	새한경인지부	후 생 부 장
240			김 중 원	경북지부	교 선 부 장
241			박 승 희	금성전선	부 녀 부 차 장
242			이 중 환	금성사지부구미공장 분회	총 무 부 장
243			이 문 혁	옥천원풍지부	교 선 부 장
244			이 상 세	부산지부제일유기분회	분 회 장
245			유 기 숙	대한전선지부	상 집 위 원
246	제 41 기	78.8.20 ~ 8.26	이 대 회	경기지부우주전자분회	부 분 회 장
247			최 병 인	대우중공업지부	조 직 부 장
248			윤 재 창	대한전선지부	후 생 부 장
249			김 성 호	금성전기 지부	사 정 위 원
250			김 선 홍	대한전선지부	부 녀 부 장
251	제 42 기	78.9.3 ~ 9.9	안 흥 열	대한전선지부	회 계 감 사
252			윤 기 원	훼어차일드지부	부 지 부 장
253			박 기 식	부산지부철강분회	분 회 장
254			이 희 봉	부산지부 성장사분회	"

一連 番 号	期 別	期 間	姓 名	所 属	職 位
255			황 창 배	대한전선지부	쟁 의 부 차 장
256			송 정 규	웨어차일드지부	법 규 부 장
257			김 송	대한전선지부	부 지 부 장
258			조 병 순	전남지부	교 선 부 장
259			강 홍	금성알프스지부	회 계 감 사
260			김 봉 훈	웨어차일드지부	지 부 장
261	제 43 기	78.9.24 ~ 9.30	채 문 식	새한부산지부	사 무 장
262			이 일 표	대한전선지부	조 사 통 계 부 장
263			김 길 동	금성통신지부	사 무 장
264			김 경 오	인천제철지부	부 지 부 장
265			이 창 성	남서울지부	사 무 장
266			김 정 대	대동조선지부	후 생 부 장
267			정 옥 경	웨어차일드지부	교 선 부 장
268			황 익 주	남서울지부	회 계 감 사 위 원
269			박 형 섭	웨어차일드지부	후 생 부 장
270			박 기 주	조선공사지부	사 무 장
271	제 44 기	78.10.15 ~ 10.21	박 인 상	부산지부	사 무 장
272			김 명 화	웨어차일드지부	쟁 의 부 장

一連 番号	期 別	期 間	姓 名	所 属	職 位
273	제45기	1979.2.25 ~ 3.3	오 봉 출	부산지부 한신분회	분 회 장
274			김 현 만	훼어차일드지부	상 집 위 원
275			신 현 기	훼어차일드지부	상 집 위 원
276			송 명 숙	동남전기지부	교 선 부 장
278			김 상 철	훼어차일드지부	조 사 부 장
279			허 용 범	"	대 의 원
280			유 창 훈	"	운 영 위 원
281			이 옥 호	"	
282			전 양 임	대한전선지부 음향분회	부 녀 부 장
283			공 대 현	대한전선지부전자전기 분회	조 사 통 계 부 장
284			황 성 자	시그네틱스지부	운 영 위 원
285			방 용 구	훼어차일드지부	상 집 위 원
286			이 병 해	대한전선지부 인천전기분회	조 사 통 계 부 장
287			최 삼	대한중기지부	조 직 부 장
288			손 영 혜	시그네틱스지부	대 의 원
289			남 길 용	훼어차일드지부	대 의 원
290			최 회 철	대한중기지부	조 사 통 계 부 장
291			강 옥 회	한국아르오오르지부	쟁 의 법 규 부 장
292			정 명 숙	훼어차일드지부	대 의 원
293			신 현 명	대한전선지부 대한 전선분회	부 녀 부 장

一連 番号	期 別	期 間	姓 名	所 属	職 位
294	제 46 기	1979.3.18 ~ 3.24	윤 건 상	왜어차일드지부	상 집 위 원
295			박 창 식	대한전선지부전기분회	체 육 부 차 장
296			심 명 섭	왜어차일드지부	운 영 위 원
297			곽 윤 영	남서울지부	분 회 장
298			유 영 철	왜어차일드지부	운 영 위 원
299			정 금 자	"	부 녀 부 장
300			정 영 기	남서울지부	분 회 장
301			이 병 항	대한전선지부	운 영 위 원
302			김 석 태	서울지부	회 계 감 사
303			김 필 수	"	총 무 부 장
304			이 미 선	대한전선지부	회 계 감 사
305			장 숙 진	왜어차일드지부	운 영 위 원
306			권 대 원	남서울지부	분 회 장
307	제 47 기	1979.3.25 ~ 3.31	신 홍 태	경북지부	교 선 부 장
308			박 원 범	충남지부	분 회 장
309			김 용	전남지부	체 육 부 장
310			이 상 준	충남지부	분 회 장
311			유 철 규	경북지부	쟁 의 부 장
312			김 백 곤	전남지부	운 영 위 원

一連 番号	期 別	期 間	姓 名	所 屬	職 位
313	제 48 기	1979.4.8 ~ 4.14	김 재 환	경 남 지 부	분 회 장
314			문 흥 민	부 산 지 부	총 무 부 장
315			김 형 식	대한전선지부	분 회 대 의 원
316			조 영 호	경 기 지 부	분 회 대 의 원
317			김 용 구	경 남 지 부	분회총무부장
318			김 무 경	부 산 지 부	분 회 장
319			김 주 환	경 기 지 부	분 회 대 의 원
320			김 정 식	대한전선지부	분 회 대 의 원
321			정 춘 삼	대한조선공사지부	총 무 부 장
322			오 세 학	부 산 지 부	분 회 장
323			최 순 영	대한전선지부	분회조직차장
324			이 종 성	대한전선지부	대 의 원
325			김 양 현	부 산 지 부	분회교선부장
326			이 동 식	대한전선지부	분 회 대 의 원
327	제 49 기	1979.4.22 ~ 4.28	박 재 경	금성알프스지부	운 영 위 원
328			진 명 순	"	부 지 부 장
329			김 상 울	금 성 사 지 부	분 회 장
330			김 인 백	"	
331			박 승 리	"	부 지 부 장
332			안 인 병	대한전선지부	

一連 番号	期 別	期 間	姓 名	所 屬	職 位
333			최 창 만	대한전선지부	
334			조 만 진	"	
335			정 중 평	"	
336			이 승 옥	남 성 지 부	지 부 장
337			김 혜 순	웨어차일드지부	상 집 위 원
338			신 현 화	"	"
339			이 의 진	"	조 직 부 장

2. 勞總協同組合指導者教育

日 時 : 第1次教育 : 78.6.7~10

第2次教育 : 78.6.21~24

場 所 : 勞總中央教育員

對 象 : ①信用協同組合 및 消費協同組合 등 各種 協同組合運動
을 勞動組合의 福祉活動으로 計劃하는 組織의 責任者

②現在 協同組合運營關係 責任者 또는 實務者

③앞으로 協同組合運營을 計劃하는 組織의 幹部 및 組
織의 責任者가 推薦하는 적임자.

參加者 : 1次 남서울지부 영창악기 분 회 장 이 응 일
" 유성기업 " 박 효 상
대한중기지부 부 지 부 장 김 주 선

	한국베아링지부	운영위원	김 동 만
二 次	시그네틱스지부	지 부 장	김 점 옥
	새한자동차 경인지부	분 회 장	이 진 우
	인천제철지부	교선부장	빙 광 산
	(이 상 7 명)		

教育内容：

労働運動의 方針
 勞總福祉事業 및 과정 안내
 協同組合論
 信協의 發展過程과 各國의 現況
 協同組合의 社會經濟的 機能
 労働組合과 協同組合
 信用組合의 設立과 運營
 消費組合의 設立과 運營
 信用組合法 解説
 GRI 訓練
 會計實務 指導
 協同組合 指導者論
 견학： 大韓電線支部
 O B 맥주支部
 성공사례 발표

3. 노총 하계 야영교육

日 時 : 總務担当 実務教育 : 78.7.26 ~ 7.28

교선 및 講師세미나 78.8.1 ~ 8.3

지부교선부장 教育 78.8.3 ~ 8.5

場 所 : 충남, 금강 유역 (충남 영동군 양산면)

參加者 : <總務担当 実務教育>

남서울지부 사 무 장 이 창 성

기아산업지부 총 무 차 장 김 종 백

<교선 및 강사세미나>

본조 교선부장 최 응 길

〃 법규부장 김 장 선

<지부 교선부장 교육>

웨어차일드지부 교선부장 정 욱 경

콘트롤메이타지부 〃 안 종 님

教育内容 : 勞働組合의 行政管理

勞働組合統計

決算報告, 書類作成 및 帳表

豫算編成과 統計要領

수영실습, 체력단련

4 . 勞總 賃金 및 団体交渉調整申請 세미나

日 時 : 1978.11.21 ~ 24

場 所 : 勞總中央教育院

參加者 : 본조 調査統計次長 윤 창 열

본조 國際部次長 노 진 귀

세미나 內容 : 団体協約의 정의 및 方案

賃金交渉方案

國際勞動法

임금격차

勞動庁 団体協約 指針

5 . 第2回 勞總講師教育

日 時 : 1979.2.1 ~ 2.12

場 所 : 勞總中央教育院

參加者 : 대한중기기부 지부장 이 중 복

금성알프스지부 지부장 최 경 환

教育內容 : 勞動教育訓練

勞動教育活動의 役割과 講師의 姿勢

勞動組合論

勞使關係

勞使關係와 団体交渉

勞動運動史

韓國勞動運動史

이스라엘 노조 협동조합론

교안 및 교육계획

6. 勞總九老工團地域 教育

日 時 : 第1次 : 1978 . 11 . 22

第2次 : 1978 . 11 . 23

第3次 : 1978 . 11 . 24

第4次 : 1978 . 11 . 27

第5次 : 1978 . 11 . 28

場 所 : 구로공단내 복지관

對 象 : 구로공단내 조합원

參席者 :

	第1次	第2次	第3次	第4次	第5次	計
남 서 울 지 부	61	56	56	61	61	295
동남 전 기 지 부	10	10	10	10	10	50
웨어차일드지부	5	5	5	5	5	25
한국아르음지부	4	4	4	4	4	20
금성사구로분회	-	5	5	-	-	10
계	80	80	80	80	80	400

教育内容： 우리는 왜 労働組合을 組織하는가？

우리의 權利와 義務

勤勞者の 健康管理

労働運動의 발자취

Ⅲ . 對 外 教 育 派 遣

1 . 수원새마을教育 派遣

日 時 및 參席者：

期 別	日 時	參席者	所 属	職 位
4 期	78. 3.19~3.25	이 중 석	남서울지부	지 부 장
16 期	78.10.22~10.28	이 현 구	본 조	기 획 실장
18 期	78.11.12~11.18	강 준 석	본 조	부 위 원 장
20 期	78.12.3~12.9	정 부 경	본 조	부 위 원 장

2 . 통일 연수교육

日 時：78년 第1期： 1978.5.16~5.18

第2期： 1978.6.13~6.15

第3期： 1978.6.20~6.22

第4期：1978. 7.25 ~ 7.27

第5期：1978. 8.21 ~ 8.23

79년

第1期：1979. 3. 6 ~ 3. 8

場 所：통일연수소 (서울中区獎忠洞)

對 象：分会幹部級 以上

※ 參席者 名單

78年 第1期

일련 번호	지 부 명	분 회 명	직 위	성 명
88	경 북 지 부	영남주물분회	기 획 실 장	이 창 기
89	"		기 획 실 차 장	김 상 일
90	전 남 지 부		사 무 장	모 동 식
91	부 산 지 부	신 동 방 분 회	분 회 장	김 기 용
92	"	태 광 밴 드 분 회	"	방 경 서
93	"	대 일 유 기 분 회	"	이 상 세
94	"	동 아 전 기 분 회	"	김 정 욱
95	금 성 사 지 부		사 무 장	민 정 식
96	"		부 지 부 장	이 형 태
97	"		"	한 기 조
98	조 선 공 사 지 부		사 무 장	박 기 주

일련 번호	지 부 명	분 회 명	직 위	성 명
99	대선조선지부		부 지 부 장	김 진 협
100	새한동래지부		사 무 장	한 동 우
101	금성알프스지부		조 사 통 제 부 장	진 중 현
102	새한경인지부		사 정 위 원	조 성 록
103	"		부 지 부 장	이 승 익

(이상 16명)

78년 제2기

일련 번호	지 부 명	분 회 명	직 위	성 명
104	강원정비지부		사 무 장	손 완 근
105	한국배아령지부		지 부 장	김 재 훈
106	금성통신지부		부 지 부 장	이 윤 석
107	금성전선지부	구 미 분 회	분 회 장	하 영 일
108	남서울지부	금성전선분회	"	최 중 욱
109	경기지부	태양공업분회	"	조 병 집
110	서울지부		부 분 회 장	이 영 준
111	경남지부	북성기계분회	분 회 장	김 석 수
112	경기정비지부		사 무 장	권 대 식
113	목포지부		지 부 장	이 승 희

일련 번호	지 부 명	분 회 명	직 위	성 명
114	충 남 지 부		총 무 부 장	이 상 용
115	대우중공업지부		조 사 통 계 부 장	황 봉 주
116	새한부산지부		사 무 장	채 문 식
117	웨어차일드지부		부 녀 부 장	유 영 자
118	인천제철지부		부 지 부 장	한 창 석
119	새한경인지부		분 회 장	김 성 권

(이상 16 명)

78 년 제 3 기

일련 번호	지 부 명	분 회 명	직 위	성 명
120	일신제강지부		사 무 장	김 길 수
121	대동조선지부		조 직 부 장	박 강 석
122	세신실업지부		부 지 부 장	손 한 신
123	동양강철지부		"	김 사 준
124	금성알프스지부		총 무 부 장	박 용 기
125	금성계전지부		사 무 장	안 의 근
126	고미반도체지부		쟁 의 부 장	송 금 순
127	금성전기 지부		부 지 부 장	김 연 태
128	대한중기 지부		교 선 부 장	이 윤 복

일련 번호	지 부 명	분 회 명	직 위	성 명
129	호남 전기 지부		대 의 원	이 덕 순
130	기 아 산 업 지 부		조 사 통 제 부 장	강 신 홍
131	시그네틱스지부		부 지 부 장	김 희 준
132	부 산 포 금 지 부		사 무 장	이 문 식
133	콘트롤메이타지부		부 지 부 장	백 영 희

(이상 14 명)

78 년 제 4 기

일련 번호	지 부 명	분 회 명	직 위	성 명
134	한국베아령지부		부 지 부 장	김 태 일
135	동남 전기 지부		총 무 부 장	신 동 숙
136	한일 전기분회		분 회 장	이 우 상
137	매선조선지부		사 무 장	차 대 성
138	금 성 사 지 부		분 회 장	박 승 리
139	금성통신지부		부 지 부 장	손 영 남
140	전 남 지 부		총 무 부 장	이 남 석
141	조선공사지부		부 지 부 장	이 지 환
142	남 서 울 지 부	동서금속분회	분 회 장	성 해 용
143	경 기 지 부	서음전자분회	"	최 예 순

일련 번호	지 부 명	분 회 명	직 위	성 명
144	웨어차일드지부		후 생 부 장	김 영 완
145	인천제철지부		부 지 부 장	김 무 환
146	효성중공업지부		부 지 부 장	김 현 기

(이상 13명)

78년 제5기

일련 번호	지 부 명	분 회 명	직 위	성 명
147	일신제강지부		지 부 장	유 갑 식
148	대동조선지부		부 지 부 장	안 교 협
149	동양강철지부		기 획 실 장	최 정 부
150	금성제전지부		부 지 부 장	공 수 봉
151	원풍옥천지부		조 사 통 계 부 장	오 한 천
152	고미반도체지부		법 규 부 장	성 경 옥
153	금성전기지부		사 무 장	박 현 수
154	대한중기지부		교 선 부 차 장	황 연 봉
155	금성전선지부		운 영 위 원	최 원 혁
156	호남전기지부		"	오 명 열
157	새한경인지부		후 생 부 장	김 종 호
158	기아산업지부		교 선 부 장	김 영 래

일련 번호	지 부 명	분 회 명	직 위	성 명
159	시그네틱스지부		부 지 부 장	이 명 숙
160	콘트롤메이타지부		"	한 명 희

(이상 14명)

79년 제1기 (차출기준)

일련 번호	지 부 명	분 회 명	직 위	성 명
161	경 기 지 부	한국압전기분회	분 회 장	임 병 림
162	"	서울전자분회	"	인 난 영
163	고미반도체지부		체 육 부 장	이 봉 자
164	인천제철지부		교 선 부 장	김 혜 정
165	금성전선지부		체 육 부 장	김 윤 기
166	"		운 영 위 원	이 희 장
167	금성전기 지부		사 정 위 원	이 상 열
168	호남 전기 지부		운 영 위 원	이 화 연
169	전 남 지 부	정비연합분회	분 회 장	김 태 학
170	"	아시아자동차분회	운 영 위 원	조 중 옥
171	대우중공업 지부		교 선 부 장	현 인 상
172	한국베어링지부		선 도 위 원	박 성 화
173	금성계전지부		조 사 통 계 부 장	남 정 호

(이상 13명)

3 . '79 賃金政策 심포지움

日 時 : 1979 . 2 . 8

場 所 : 신문회관

主 催 : 韓國勞動問題研究院

후 원 : 아세아 아메리카 자유노동기구 (AAFLI)

參席者 : 본조 副委員長 강준석의 14 名

主 題 및 講師

1 . 79 年度 勞總의 賃金改善 方向

勞總 事務次長 이현기

2 . 79 年度 賃金調整方向과 가이드라인

韓國經營者協會 常務理事 황정현

3 . 政府의 賃金政策

勞動庁 勤勞基準局長 정동우

宣 伝 活 動

1 . 기관지 주요 목차

가 . 第 27 号 : 1978 . 6 . 30 .

① '78 년도 금속노조 定期全國大會

② 大會 開會社 , 격려사 , 各國 축전

③ 第 14 回 産業安全 保健 강조기간 행사

④ 본조 一線女性幹部는 말한다. (座談)

나. 第28号 : 1978 . 8 . 31

① '78年度 賃金實態調査

② 勤勞福祉審議委員 실무위원 20名 確定

③ 노총맹원 1百萬名 돌파

④ 汎勤勞者 貯蓄運動 전개 指針

⑤ IMF 事務總長 來韓

⑥ 賃金이 物価高 原因될 수 없다.

(권두영 教授)

⑦ '78年度 금속노조 運動方針

⑧ 본노조 創立 17週年 記念 자축

⑨ 본노조 조직세 계속 증가

⑩ 世界的인 조선불황의 전시장 (대동조선지부 부지부장 정학균)

다. 第29号 : 1978 . 10.31

① 第62次 中央委員會 盛了

② '78年度 賃金引上 平均 32.7 %

③ 勞總 獎學對象者 確定

④ 17個 산별 중 組織成長 1位

⑤ 10月은 문화행사의 달

⑥ 第15回 幹部教育

⑦ IMF 中央委員會 參加

⑧ 組合員을 위한 고정처리

⑨ 『시장바구니』 (시·새한지부 企劃次長, 이택주)

라. 第30号 : 1978.12.30

① 기미년을 맞는 우리의 결의 (김병용 위원장 신년사)

② 금속노조의 내일을 말한다. (특집)

③ 『15만 우리들아 여기에 맹세하여라!』

(시·새한지부 기획차장 이택주)

④ 우리 支部의 賃金引上 要求指針

⑤ '79 賃金引上要求指針 樹立, 48.7 %

⑥ 김병용 委員長 은탑산업훈장 수상

⑦ 고 김영수 차장을 애도함

⑧ 賃金引上要求의 基本 方針과 目標

마. 第31号 : 1979.2.28

① 第17回 団体協約締結促進 및 준법운동 추진기간 설립

(기사 및 담화문)

② 임금대책 노사 간담회

③ 김병용 위원장 연두순시

④ 금속노조가 제정

⑤ 생활안정 위한 실천적 전개 (주장)

⑥ 제8회 아시아 청부인 심포지움

⑦ 노총 '79년도 임금지침 확정

바. 제32号 : 1979.4.30.

2. 담 화 문

비록 입추가 지났다고는 합니 다만, 찌는 듯한 무더위가 아직도 가시지 않는 이때, 불의의 事故로 病床에서 투병생활로 고생하고 있는 귀하의 노고에 위문드립니다.

우리 금속노동조합은 職場에 있어서의 산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마다 災害가 빈번히 일어나는 季節인 6月에서 7月까지의 期間을 産業安全, 保健期間을 設定하고, 자못 해이하기 쉬운 組合員의 意識을 계발하는 한편, 企業主에 대해서는 安全施設에 대한 재점검과 施設改善을 비롯한 保健衛生에 대한 勤勞環境 條件의 改善을 促求하여 산재사고의 豫防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산재사고는 해마다 늘어날 뿐 우리 주변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와 같은 努力은 繼續될 것이며 귀하와 같은 境遇의 事故를 면밀히 調査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것입니다만 무엇보다도 귀하의 상처가 하루속히 쾌유하시기를 간곡히 비는 바이며 아울러 투병생활을 위한 귀하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15만 組合員을 대신하여 조그마한 위문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1978年 8月 日

전국 금속노동조합

위원장 김 병 용

第 17 回 団体協約締結 促進 및 준법강조기간

實踐에 즈음한

답 화 문

친애하는 組合員 여러분 !

올해는 団体協約締結促進 및 준법강조기간실천을 위한 第 17 回째의 연도입니다. 그동안 우리 組合員들은 祖国의 産業發展을 위한 역군으로서의 뜨거운 긍지를 안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는 묵묵히 이를 극복하며 오직 生産性向上에만 땀흘려 일함으로써 78年度에는 輸出目標을 2 億弗 超過하는 127 億弗을 達成하는 成果를 거두었을 뿐만아니라 올해도 輸出目標 155 億弗 고지점령을 위하여 출기찬 전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62 年부터 시작된 第 1 次經濟開發計劃 以後 벌써 17 年이라는 歲月이 흘러갔으며 그동안 우리들이 겪어 온 숭한 社会, 經濟的 變化는 실로 놀라울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특히 經濟成長의 템포가 너무나 빨라서 世界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이구동성으로 開發途上國의 代表的인 成功事例로서 韓國經濟의 發展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고도성장이 있기까지는 정부시책에 따른 강력한 支援과 指導 그리고 企業의 創造的 經營努力에 힘입은 바 큰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晝・夜를 가리지 않았던 勞動者의 헌신적 努力에 그 비중이 컸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勞動, 資源, 資本의 3 요소 가운데 오직 노동만이 배분의 형평에서 벗어나 절대 및 상대적 빈곤이라는 불균형의 심화속에서 生活不安에의 심리적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사회정의의 결여를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法則은 人間과 人間과의 이상적인 關係의 法則外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이며, 따라서 社会制度나 구조의 정당성으로서의 社会定義는 一次的으로 배분의 개념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의의 법칙은 배분의 법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력적이며 헌신적인 勞動組合의 원동력은 한마디 말로 요약되며 그것은 經濟的 社会的으로 <定義을 實現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금속노동조합운동의 歷史를 통하여 결코 이 말이 <죽은 말(死語)>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現實的인 活動面에서 본노조의 成果를 자랑으로 삼는 한편 나아가 組合員과 그 家族 및 일하는 勤勞者를 위한 成果에로 향한 새로운 길을 쌓아 올리는데 더한층의 努力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本勞組의 團結과 団体交渉의 가장 重要한 目標은 職場에 있어서의 組合員의 人間성회복과 國民的 合意에의 격차없는 임금획득에 있습니다. 평균적인 職場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억압과 위협적 분위기를 除去한 정상적인 勤勞條件, 健康과 安全에의 위협에 대한 最高의 保護, 公正하고 平等한 대우, 그리고 職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決定機關에 參與할 기회부여 등이며 이것은 바로 自由로운 人間에 있어서 보람있는 勞動生活의 質을 높이는데 必要한 構

成要素인 것입니다.

정의가 부정의에 대항하는 方式은 투쟁이듯이 職場民主化의 투쟁은 制限이 없는 투쟁입니다. 우리는 勤勞基準法水準의 協約에서 안주하거나 形式的인 更新締結을 反復하는 事例에서 지양하여 經濟的, 社会的 약자인 労働者가 왜 団結하게 되었던가의 의미를 되씹으며 단결의 힘과 슬기를 모읍시다.

친애하는 組合員 여러분!

우리는 過去 미조직 狀態에서 회의를 느껴 労働組合을 決定함으로써 問題를 認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認識에 그칠 것이 아니라 實踐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認識에서 實踐으로> 이것이 바로 第17回 団体協約締結 促進 및 준법운동을 위한 우리의 구호이어야 합니다. 이번 運動實踐期間을 通하여 여러분의 積極的인 參與와 協力 있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오늘도 땀흘려 일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1979년 2월 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김 병 용

기미년을 맞는 우리의 결의

신년사

뜻을 같이 하는 금속 15萬 組合員 同志 여러분 !

오늘 송구영신의 마음을 자다듬고 지난날을 되돌아 보며, 밝은 희망 속에 즐기찬 來日の 設計를 가꾸는 뜻깊은 기미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무오년도 저물어 우리들을 둘러싼 정세는 國際環境을 包含하여 대단히 냉엄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狀況에서는 우리의 잘 살아 보자는 끓어오르는 민족중흥에의 즐기찬 의지는 숨가쁜 맥박으로 승화하여 세계사에 유례없는 고도경제성장을 지속시켰으며 우리로 하여금 굉장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눈부신 고도경제성장에 대해 국민소득분배율의 불균형은 해를 거듭할 수록 심화되어 결국 국민합의에의 총화단결을 위해 신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 당면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自立經濟를 숙원하는 민족중흥에의 經濟成長에는 企業行動이나 勞動組合의 경제투쟁도 國民經濟의 제약을 받으며 그 정합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격차없는 國民經濟에 대한 우리의 요구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제약된 가운데의 공평한 배분을 추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복지, 생활 관련 예산의 비율이나 세 부담 문제로부터 기업의 一般社会的 행동

의 감시와 기업내에 있어서의 노동분배율 문제, 그리고 근로자 상호간의 격차없는 수준향상 등에 대하여 우리는 주의깊게 살펴가면서 이를 강력히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들은 구미 선진노동조합이 이 때까지 걸어온 운동의 경험에 말해주듯이 우리들의 조합활동도 고복지사회의 실현, 근로자의 사회결정기구에서의 참가와 직장내에 있어서의 인간성 추구 등 사회적 및 기업내 민주화에도 이제부터 관심을 기울여 강력한 전국조직으로서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끝으로 교육 문화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생산체제의 기계화와 산업화로 우리의 생활양식이나 사고방식까지 급속히 변혁시키고 있는 이른바 제2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된 산업사회에 접어들어 기술이 인간생활의 전부를 지배하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삶의 의미나 방향을 일깨울 수 있는 행위규범이 모호해진 채 산업화의 커다란 과제 때문에 인간소외나 비인간화에도 치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문제로 삼아야 할 것은 이점의 새로운 자각이나 각성인 것입니다. 말할 나위도 없이 노동조합에 있어서의 교육, 문화활동은 개인의 취미나 놀이가 아니며 직장에서 일하는 동지들과 하나가 되는 깊이 뿌리박힌 인간적 욕구이며 그것은 앞서 말한 직장 사막, 기술혁신에 의한 인간소외라고 일컫는 것을 극복하고 노동자의 주체성을 확립하며 서로의 사는 보람에 <공감>을 주는 활동이며 자유와 평등의 이념 위에 선 정의로운 사회실

현을 위한 운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친애하는 금속 15만 조합원 동지 여러분! 밝은 새해, 그리고
뜻 깊은 새해 기미년을 맞이하여 동지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
만복이 깃들 것을 축원하면서 새해의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기미년 새아침에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김 병 용

3. 책자 배부

- 1) 근로자의 생애생활비전 : 1979.1.10 420부
- 2) 항일노동투쟁사(김중열 저) : 1978.12.19 50부
- 3) 고정처리 : 1978.10.20
- 4) 북피는 무엇을 노리나 : 1978. 8.29 300부
- 5) 남북한의 통일정책은 어떻게 다른가? 1979.2.26 43부
- 6) 정기 간행물(노동, 새물결)

其 他 活 動

1 . 기관지 편집자 간담회

日 時 : 1979 . 2 . 7

場 所 : 본조 會議室

參席者 : 본조 기획위원 정 회 영

대동조건 부지부장 정 학 균

새한지부 기획차장 이 택 주

대한전선지부 기획실장 신 금 호

기아산업지부 박 우 봉

웨어차일드지부 박 래 호

콘트롤메이타지부 안 중 님

2 . 교육용 환동기 및 스크린 구입

일 시 : 1978 . 6 . 14

가 격 : 153,000원

法 規 活 動

內

概 要

1. 勞動關係法의 改正現況
2. 質疑·回示 및 相談指導
 - 1) 質疑回示
 - 2) 判例 및 有權解釋
 - 3) 勞動廳例規 第215號
3. 第16·17回 團體協約締結 및 遵法強調期間設定 및 實踐
 - 1) 實踐要綱
 - 2) 業種別 團體協約締結現況
 - 3) 勤勞基準法違反實態 調查集計表

容

4. 不當勞動行爲 救濟 및 指導
 - 1) 77年度 本勞組 不當勞動行爲 救濟申請件數
5. 法規業務 參考事項 示達
 - 1) 勞動委員會審議事項 一覽表
 - 2) 各級 勞動委員會 勤勞者委員名簿

法 規 活 動 概 要

79年度の 団体協約締結 및 遵法強調期間이 例年보다 빠른 時期에 実施됨으로써 第17回제의 運動이 現在 展開되고 있다. 따라서 제 17 回의 뿌리박힌 運動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団体協約締結에 있어서 締結主体가 浮動的이다. 이러한 締結主体의 浮動的인 狀態에서 勞組의 主体確立이 要望되는 同時 條文의 內実化도 아울러 促進되어야 하겠다.

最近 新規組織에서 새로운 類型의 不當勞動行爲가 發生하고 있다. 즉 係長 및 組班長 또는 勤勞者에 의한 不當勞動行爲가 그것이다. 勤勞者가 勤勞者의 脫退願書를 받거나 反組織行爲를 하더라도 処罰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는 第4項의 不當勞動行爲 救濟 및 指導에서 使用者 概念을 넓혀 이러한 類型의 不當勞動行爲의 違法性を 指摘했다.

그리고 올해의 特記事項으로서 “法定時間外의 勤勞拒否는 怠業이 아니다.”라는 大法院 判例임을 強調하고 싶다. 判例原文을 各級支部에 示達했지만 아무튼 우리는 団体協締結에 있어서 이러한 點에 留意해서 우리의 基本權利와 勤勞條件을 明確히 設定해야 하겠다.

다음으로는 대통령령으로서 實施된 勤勞福祉審議委員會의 設置와 4개 實務委員會 委員中 産業安全・保健實務委員에 本勞組 金병용

委員長의 任命을 指摘할 수 있다. 앞으로 勤勞者들의 勤勞條件 全般에 관한 主要政策을 審議하는 이 政策審議機構의 活動에 期待가 크지 않을 수 없다.

1. 勞動關係法の 現況

立法 및 政策등 諸制度의 要求鬭爭은 韓國勞總이 主軸이 되어 100 萬 盟員의 真正한 發展価値 俱現을 위해 諸勞動關係法の 法的 및 制度的 未備點을 繼續 補完하는 活動이며 이는 勤勞者의 權益保護를 위한 重要事項이 아닐 수 없다.

78 年 重要活動으로서 勤勞者福祉政策審議委員會 設立活動을 들 수 있다. 勞・使의 正常的인 目律交渉이 中斷되고 있는 狀態에서는 勞・使間의 問題뿐만 아니라 政策의 構想이나 立案課程에서 보다 次元 높은 勞・政・使 三者間의 異見調整을 떠 맡을 機構의 設置가 要求되어 勞總은 가칭 中央勞政實務協議會의 一次的 構成을 위하여 勞動庁 및 經濟企劃院 등에 實質的 協議를 要求하여 꾸준한 努力이 主軸하여 1978 年 6 月 21 日 勤勞者福祉政策審議委員會規程이 國務會議을 通過되었다.

이 規程의 實施로 이때까지의 勞動庁長이 委員長으로 되어 있던 勤勞基準審議委員會는 廢止되고 本審議會規程 第 3 條 3 項에 의거 勞總 鄭東虎委員長이 審議委員會 委員에 任命되었으며 이로써 勤勞者의 賃金과 福祉厚生, 産業安全, 作業環境改善 등 勤勞條件 全般

에 관한 重要政策을 審議하게 되었다.

한편 同審議委員會에는 勞働庁長을 実務委員長으로 하는 4 個分
科의 実務委員會를 構成하고 産業安全 保健 実務委員으로서 本勞組
김병용委員長이 任命되었다. 이밖에 勞總이 提出한 船員法 改正案
이 계류중에 있으며 鉾山保安法 施行令과 医療保險法 施行令이 一
部改正 되었으며 해마다 늘어만 가는 産業災害의 豫防을 위한 制
度的 確立을 위해 80年初에는 産業災害補償保險法の 全面實施와
安全・保健管理를 위한 獨立法制定이 豫想되고 있다.

質疑・回示 및 相談指導

勤勞基準法을 비롯하여 勞働關係 諸法の 施行이래 상당한 迂餘曲
折을 겪었기는 했으나 勤勞者들의 權利伸張은 勿論 勤勞條件의 改
善 向上에 이바지한 바가 컸다.

그런데 勞總이 發表한 바 있는 最近 2 年間に 걸친 標本団体協
約 分析表에 나타난 実態를 살펴보면 組合員들에게 適用되는 規範
的 條項등에 있어서는 큰 改善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一部 業種의 団体協約은 形式的인 更新締結을 反復하는 事
例를 엿 볼 수 있다고 指摘한 바 있다.

事實 요즘 勞使相互間에 締結하는 団体協約등 勤勞契約이 勤勞基

準法 線에서 근근히 維持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勞組는 勤勞 基準法을 最後의 保루로 삼고 있는 것같은 느낌마저 없지 않다. 이러한 狀態는 勞使間에 있어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狀態에서 法을 모른다는 것은 더욱 더 不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勤勞者도 人間이기 때문에 人間답게 勞動 하고 人間답게 살고 싶어 하는 興望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그 興望이 높으면 높을 수록 法律에 대한 올바른 知識을 갖추어 나가지 않는다면 法律上 주어진 保護나 權利를 行使하지 못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本勞組에서는 꾸준한 努力으로 組合員의 意識啓導를 위한 各種 幹部 및 組合員 教育, 座談會등을 開催하고 勞動諸法 및 判例 등의 法律知識을 높이는데 이바지 함으로써 많은 成果를 나타낼바 있으며 다음은 지난 한해에 各級支部와의 書面을 통하여 이루어진 質疑와 回示 및 示選이다.

1. 質疑回示

△期払金(賞与金) 支給日前에 辭職한 者の 期払金 請求与否 (金星社支部) △社員 새마을研修 教育中 卒倒入院中 死亡時の 業務上外 与否 (大韓重機支部) △産業災害補償에 관한 質疑(釜山支部) △終業後の 새마을教育 時間에 대한 手当支給 与否 外 3件 (새한 자동차支部) △豫備軍 休日召集에 대한 質疑(忠南支部)

△軍服務期間을 勤続年數에 算入하는지의 与否 (本勞組直轄 韓一電機 分会) △組合員資格에 관한 質疑 (前 木浦支部) △年月次 有効 期間 및 節次에 대한 質疑 (새한 자동차支部 동래分会) △食代 税金控除에 대하여, 退職金 積立利息에 대한 質疑 (慶南支部) △ 分会長 任命에 관한 質疑 (새한自動車支部) △停電으로 因한 勤 勞代替에 관한 質疑 (京畿支部) △期払金 (賞与金)의 支給期에 未達勤勞者의 期払金支給에 관한 質疑 (釜山支部)

2. 判例 및 有權解釈

△賞与金이 一時支給, 分割支給의 回数如何에 따른 退職金 算 定の 平均賃金計算 (大法院 第3部 78.2.14 判決 · 77다1321 退職金 原審 서울高法 77.5.26) △法定時間外 勤勞拒否는 怠業으로 볼 수 없다. (大法院 刑事部 78.3.13) △日傭人夫를 包含한 常傭 雜給職 職員에 대한 退職金은 支給해야 한다. (法務部)

3. 勞働厅 例規 第215号 (78.10.5)

平均賃金 算定에 包含되는 範圍例示와 確認要領
第1條 (目的) 이 要領은 勤勞基準法 第19條 및 産業災害補償 保險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平均賃金 算定에 包含되는 賃金 의 範圍例示와 그 確認을 위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用語의 定義) (1) 賃金이라 함은 勤勞基準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使用者가 勤勞의 對償으로 勤勞者에게 賃金, 俸給 기타 여하한 名稱으로 든지 支給하는 일체의 金品을 말한다. (2) 「平均賃金」이라 함은 勤勞基準法 第19條의 規程에 의한 平均賃金を 산정하여야 할 事由가 發生한 날 이전 3月間의 그 勤勞者에 대하여 支給된 賃金의 總額을 그 期間의 總日數로 除한 金額을 말한다.

第3條(賃金의 範圍) =(1) 다음에 記載된 賃金의 豫示는 賃金에 包含되는 것의 전부를 網羅한 것이 아니고 賃金에 包含되거나 또는 包含되지 않는 豫示規程이므로 實際로 支給되는 賃金의 實態를 考慮하여 그 包含여부를 決定하여야 한다. (2) 平均賃金 算定基礎인 賃金에 包含되는것 ① 基本給 ②年月次 有給休暇手当 ③延長, 夜間 休日勤務手当 ④特殊 職務手当 危險作業手当 技術手当 ⑤任員 職責手当 ⑥ 日・宿直手当 ⑦獎勵, 精勤 皆勤 生産督勵手当 ⑧ 団体協約 또는 就業規則에 勤勞條件의 하나로서 全 勤勞者에게 일률적으로 支給하도록 明示되어 있거나 慣例적으로 支給되는 다음의 것.

㉑賞與金 ㉒通勤賃(定期乘車券) ㉓社宅手当 ㉔給食代(主食代 補助金, 殘業食事代, 朝勤食事代) ㉕越冬費, 燃料手当 ㉖ 地域手当(冷, 寒 僻地手当) ㉗教育手当(定期的 一律적으로 勤勞者에게 支給되는 경우) ㉘ 別居手当 ㉙物価手当 ㉚ 調整手当 ㉛家族手当이 獨身者를 包含하여 全 勤勞者에게 一律적으로 支給되는

경우 ⑩「奉仕料」를 一括 集中管理, 配分하는 경우 配分金額

⑪現物로 支給되는 것 ⑫法令, 団体協約 또는 就業規則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되는 現物給与 (예 = 給食등) (3) 平均賃金 算定基礎인 賃金에 包含되지 아니하는 것 ① 通貨로 支給되는 것.

가. 結婚 祝賀金 나. 弔意金 다. 災害 慰問金 라. 休業 補償金 마. 実費辨償의인 것 (예 = 器具損失金 그 補修費, 飲料代, 作業用品代, 作業상 作業服 提供이나 貸与 또는 補修費, 出張旅費등)

②現物로 支給되는 것, 가. 勤勞者로 부터 代金을 徵收하는 現物給与 나. 作業상 必須的으로 支給되는 現物給与 (예 = 作業服, 作業帽, 作業靴등) 다. 福祉厚生施設로서의 現物給与 (예 = 住宅設費, 照明, 用水, 衣料등의 提供 給食, 療養食品의 提供등)

(4) 기타 賃金總額에 包含되지 않는 것 가. 退職金 (団体協約, 就業規則등에 規定함을 不問한다) 나. 賃金이지만 總額에서 控除되는 것 ㉑ 臨時로 支給되는 賃金 ㉒臨時 또는 突発的인 事由에 따라 支給되거나 支給條件이 事前에 規定되었더라도 그 事由發生日이 不確定, 無期限 또는 稀少하게 나타나는 것 (예 = 結婚手当, 帰郷手当)

第4條 (平均賃金の 確認) 地方事務所長은 保險給与의 算定基礎인 平均賃金を 正確히 算定하기 위하여 賃金調査를 다음에 의하여 實施하여야 한다. (1) 平均 賃金은 事業主 確認에 따라 算定함을 原則으로 하되 特히 調査할 必要가 있을 경우나 異例的으로

높다고 認定될 境遇에는 다음에 의하여 調査하여야 한다.

가. 調査할 必要가 있을 境遇= 勤勞契約書, 出勤簿 등에 의한 賃金台帳, 稅務資料 등에 의하여 支払된 賃金を 調査 確認하여야 한다. 異例적으로 높은 境遇= 災害者 (特히 建設工事 日傭 勤勞者) 의 平均賃金 移越등이 높은 境遇에는 「가」항의 方法은 勿論 当該 災害者의 性別, 職務, 學歷, 機能程度 등과 等級 또는 類似한 勤勞者의 平均賃金を 參酌하여야 한다.

(2) 重大 災害가 發生한 境遇의 平均賃金 確認은 (1)項의 方法에 의함은 勿論 災害者 및 遺族으로부터도 受領한 賃金を 調査하여 平均賃金 算定에 正確을 기하여야 한다.

附 則

(1) 이 要領은 1978年 10月5일부터 施行한다. (2) 이 例規 施行과 同時 相値되는 기하 指示된 例規, 通牒등은 다음과 같이 이를 廢止하거나 本 要領으로 代置한다. 가. 平均賃金 算定에 包含되는 賃金の 範圍 例示와 平均賃金 確認 要領 (보상 108, 74年 12月6日) 을 廢止한다.

나. 確定保險料 精算 業務指針 (例規 第208号 78年3月9日) 중 賃金總額の 範圍例示 (別표) 第2條 第2項 「가」号 9 는 本例規 第3條 第2項 「가」号 3으로 代置한다.

第 16, 17 回 団体協約締結 및 遵法強調期間
設定 및 實踐

団体協約은 勞使關係의 集中的인 表現 이어서 近代的 勞使關係
는 団体協約을 締結하고 지키며 키워 나감으로서 成立되며 따라
서 団体協約을 맺 勞動組合運動은 無意味하다고 해도 지나친 말
은 아닐 것이다.

우리 나라의 団体協約은 60年代에 들어와서 勞動組合의 産別化
와 더불어 団体協約締結의 政策的 支援을 받아서 協約締結率은
그 어느 때보다도 伸長했으나 内容的으로 극히 抽象的인 말하자
면 權利宣言的인 것이 많아 勞使의 具體的인 權利義務나 組合員의
勤勞條件등에 關한 規定은 보잘것 없는 것이어서 條文數도 數十條
정도의 不完全한 것이어서나 그것이 오늘에 와서 條文數도 늘어나
고 또 內容도 具體的인 것으로 되었으며 勞使의 權利義務, 勤勞
條件 등도 詳細하고 明確하게 規定되므로서 質的으로는 상당히 進
前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勤勞條件 特히 그 중에서도 가장 緊要한 賃金에
관한 規定이 不明確한 것이 많으며 더구나 한 두條文으로 그치며
가 많아 協約의 締結主体가 浮動的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高度의 發展을 한 先進諸國의 団体協約이 先覺者들의 허
다한 勞苦의 結晶으로 오늘의 發展을 이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훌륭한 団体協約을 締結한다는 것과 또 団体協約의 意義를 올바르게 認識하고 이를 活用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負荷된 使命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本 勞組는 第 16 회를 맞는 遵法強調期間의 意義를 되새기면서 団体協約 水準向上을 위한 更新締結의 積極推進과 勞動諸法の 遵法運動을 強力히 展開함으로써 組織勤勞者의 低賃金을 一掃하고 勤勞條件의 改善 및 權益向上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은 實踐契機網을 마련 各級支部에 配付했다.

다 음

◎ 實踐期間

1978 年 3 月 11 日 ~ 1978 年 4 月 30 日 (50 日間)

◎ 實踐期間의 目的

1978 年을 “ 生計給 確保의 해 ” 로 設定한 勞總은 第 16 回 団体協約締結 및 遵法運動強調期間을 맞이하여 全組織 勤勞者의 勤勞條件 改善과 生計給 確保를 實現하고자 運動方針에서 친명한 勞使共同의 運命的 共榮理念을 올바르게 理解하고 民族中興의 歷史的 使命을 다하는 勞使가 加一層의 協力体制을 強化하여 配分源泉의 増大를 위하여 前進하는 同時, 一部 沒知覺한 不當勞動行爲를 일삼는 反社会的 使用者에 대하여는 결코 이를 容納하지 않고 強力한 是正對策을 세워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諸目標 達成을 위하여 勞總傘下 全組織을 産業平和의

根幹이 되는 団体協約締結의 內実化를 期하여

(가) 賃金條項의 完全 体系化

(나) 8 時間 勞動制와 有給休日・休暇의 補強

(다) 身分保障과 先任權의 確立

(라) 産業安全 및 保健條項 強化

(마) 福祉厚生 施設과 寄宿舍의 完備등을 積極 反映하여 國家 産業路綫에 이바지 하는 組合員 同志들의 信賴를 더욱 두텁게 하여 總和體制를 鞏固히 하면서 勤勞基準法을 度外視하는 事業場에 대하여는 一罰百戒主義로 司直當局에 告發 嚴罰에 처하여 줄 것을 要求함으로써 脫法 弊習을 拔本塞源하여 明朗하고도 生産的인 勞使關係를 確立하고자 함.

◎ 団体協約 締結指導

가 団体協約 締結 및 賃金協定 締結時期에 集中化를 期하여 散發的 調整決定에 의한 時差的 不利益을 一掃한다.

나. 各 産別은 要求基準을 業種別 單位로 設定하여 群小交渉 單位組織의 脆弱點을 補強한다.

다. 事前協議方法 또는 調整申請書의 作成을 統一化 함으로써 不設組織이 使用者의 不當한 壓力에 의하여 要求基準 未達의 非正常的 合意를 못하도록 統制한다.

라. 行政指導 低賃金(月 3 万円 未滿)의 低賃金이 存在하는 事業場에 대하여는 団体協約 有効期間 滿了前이라도 1978.3 月

以前에 全組合員의 賃金을 早期調整 申請한다.

◎ 實踐事項

- 가. 業種別 団体協約 締結 対策會議 構成
- 나. 団体協約案 및 賃金要求案 作成
- 다. 業種別, 地域別 団体協約 締結計劃表의 設定
- 라. 脆弱組織 集中指導対策 樹立(未締結 事業場 및 勤勞基準違反 調査)
- 마. 団体協約 및 賃金引上 調整決定上의 問題點 調査 是正
- 바. 業種別 大單位 勞使協議制 促進(勞使懇談會 構成)
- 사. 현수막 揭揚 및 機關紙 등에 의한 弘報活動 展開
- 아. 實踐期間 推進評價 結果報告

業種別 団体協約 締結現況

(78.5.31 現在)

業種別	件數	組 合 員 數			備 考
		男	女	計	
機械金屬	33	13,061	1,159	14,220	外資企業 3 " 14
自動車	35	16,197	1,017	17,214	
電機電子	44	21,609	25,517	47,126	
鐵 鋼	26	2,329	297	2,626	
造船	21	7,321	422	7,943	外資企業 5
非鐵金屬	32	6,671	2,515	9,184	
總 計	191	67,188	31,127	98,313	

勤勞基準法 違反実態調査集計表

(78.5.31. 現在)

業種別	調査 企業体	違反 件数	該当組合員数		計	備考
			男	女		
機械金属	20	39	6,622	1,544	8,166	
自動車	30	37	5,157	53	5,210	
電機電子	27	91	27,474	42,958	70,432	
鉄 鋼	20	15	3,992	23	4,200	
造船	7	23	5,647	984	6,611	
非鉄金属	31	52	6,591	2,900	9,531	
総 計	136	257	55,483	48,667	104,150	

한편 本勞組에서는 1979年度の 団体協約締結 促進 및 遵法強調
期間을 例年과는 달리 早期에 実践키로 하여 다음과 같이 實踐
要綱의 作成 配付와 동시에 委員長의 談話文을 發表한바 있다.

다 음

◎ 實踐期間

1) 準備期間: 1979年 2月20日 ~ 3月10日

2) 實踐期間: 1979年 3月11日 ~ 4月30日

◎ 基本目標

國民經濟 成長에 相應한 勤勞者의 生活向上 要求는 勞動組合의 基本活動의 하나이고 이를 實踐하기 위한 手段으로서의 團體協約의 改善活動의 主眼點은 組合員의 實質賃金 引上과 健康을 유지하는 快適한 勤勞環境의 確保라 할 수 있다.

本 勞組는 이러한 勞動組合의 第1次的 使命을 다하기 위하여 每年 團體協約締結 促進期間을 設定하여 꾸준한 質的 改善活動을 展開하여 왔으나 最近 2年間に 걸친 標本團體協約 分析表에 나타난 実績을 살펴보면 組合員들에게 直點 適用되는 規範約 條項 (例: 賃金, 退職金, 勤勞期間, 休日, 休暇, 身分保障, 昇進, 安全, 保健, 厚生福祉) 등에 있어서는 큰 改善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一部 業種의 團體協約을 形式的인 更新締結을 反復하는 事例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團體協約 改善活動의 沈滯性은 勤勞者의 基本權이라 할 수 있는 團體交渉權과 團體行動權이 留保된 것에 影響을 받고 있는데 基因한다고 하겠으나, 한편으로는 勞動組合이 團體協約 改善

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事前對備와 努力을 傾注하였는가에 대해 自体反省도 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現實的인 要請에 따라 本勞組를 비롯한 16個 産別勞組는 第17回 단체협약 체결 촉진 및 준법운동 강조기에 즈음하여 組織勤勞者의 要求事項을 最大限 貫徹하기 위한 劃期的인 体制를 갖추고 다음 事項에 대하여 力點을 두고 이를 實踐키로 했다.

① 団体交渉權 調整業務 處理 規程에 의한 団体協約 및 賃金 協定 調整申請 時期(事前合意를 위한 交渉 包含)를 上半期中으로 集中化하는 具體的 計劃을 樹立하고 脆弱交渉 單位組織이 賃金 및 勤勞條件에 改善을 確保할 수 있는 環境을 造成한다.

② 事前合意를 위한 勞便協議 및 主勞官庁에 대한 調整申請은 本勞組와의 交渉單位 組織이 連帶責任下에 進行하며 下部組織의 個別 交渉 또는 獨斷的 事前合意에 의한 脆弱性을 規制하고 上級団体が 이를 指導補強한다.

③ 各級支部는 勞總 및 本勞組가 平常時 調査事業으로 確保한 資料와 団体協約 基準案 및 賃金指針을 最大限 確保한 資料와 団体協約 基準案 및 賃金指針을 最大限 活用할 수 있도록 各傘下組織에 最大의 便宜를 提供한다.

④ 都給賃金(成果給) 勤勞者에 대한 保護를 위하여 保障給制度(근기법 제39조)를 定着化시키며 超過勤勞時間 등 諸法定 權益을 保障받도록 要求하고 企業内の 管理職과 生産職間の 不當한 賃金格差를 解消하는 具體的 要求案을 提示한다.

⑤ 勤勞基準法，勞動關係法에 明示된 法定 勤勞基準과 安全・保健 災害補償등을 遵守하지 않는 使用者는 國民總和를 阻害하는 反社會的 惡德企業人으로 規定하고 當局에 嚴罰에 處할 것을 要求하는 同時，이를 擁護하거나 隱蔽하는 勞動組織은 勞組가 自體的으로 制裁한다.

◎ 實踐基本戰略

- 1) 要求基準 및 調整申請의 時期統一
- 2) 団体交渉 調整申請 對策機構의 設置
- 3) 勞組의 統制力 強化
- 4) 団体協約의 質的 改善을 위한 設定
- 5) 調整을 받고자 하는 事項의 具體的 記載
- 6) 調整決定 審議委員의 審議要請

◎ 具體的 實踐事項

本勞組

- 1) 団体協約締結促進期間 實踐要綱 및 団体交渉 調整對策 作成示達
- 2) 委員長 談話文 掲載(金屬勞報)
- 3) 団体交渉에 관한 세미나 開催
- 4) 団体交渉 調整申請上 問題點 是正 活動

- 5) 未締結 組織에 대한 政策支援 活動
- 6) 新聞, 放送, 機關紙를 통한 弘報活動의 展開
- 7) 行事分析 및 評價

各級支部

- 1) 団体協約의 改正案 및 賃金引上 要求基準의 目標選定을 위한 当事者 合意(支部 및 分会) 開催
- 2) 各級 支部의 団体交渉 調整申請對策 및 實踐要綱의 作成 示達
- 3) 脆弱分会에 대한 団体交渉 支援活動
- 4) 調整申請 및 決定上の 問題點 調査報告 및 是正活動
- 5) 勞動保護法の 遵法運動 展開
- 6) 未締結 事業場에 대한 支援活動計劃 樹立 및 實踐
- 7) 談話文 貼付 및 현수막 掲揚과 機關紙를 통한 弘報活動의 展開
- 8) 業種別 勞使懇談會 開催 및 業種 單位 勞使協議制 推進
- 9) 業績評價 및 結果報告

4. 不當勞動行為 救濟 및 指導

勞動組合法 第 40 條에서 行政權에 의한 救濟申請 즉 不當勞動

行為制度에 대하여 規定하고 있으며 第39條에 있어서는 第40條에 의한 救濟對策이 되는 使用者의 不當勞働行為를 列挙하고 있다. 그것은 ①勞組加入・組織 또는 活動으로 인한 不利益取扱(34條 1号 및 4号) ② 黃犬契約(39條 2号) ③ 團交 및 團協締結의 拒否(34條 3号) ④ 組織・運營의 支配・介入과 經費援助(34條, 4号)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不當勞働行為가 發生하였을 때는 즉각 第40條에 의거 勞働委員會에 救濟申請을 提出하지만 判定에 앞서 勞働委員會는 行政機關과 달리 訴訟節次에 의해서 紛爭을 調査하고 事實認定에 따라 準司法的인 處分을 한다.

그러나 處分行為에 있어서는 管理官庁인 勞働庁長이나 各市, 道知事の 指揮監督을 받거나 또는 政治的인 權力에 左右됨이 없이 法令에 따라 부여된 權限에 속하는 職務를 独立的으로 遂行하며 또 단순히 法律이나 命令등으로 執行하는 機關이 아니라 準司法的인 判定作用에 의하여 勞使關係 當事者가 준수하여야 할 規範을 設定하는 機能을 遂行하며 그 規範의 設定은 기존 權利나 義務를 전부 認定하는 方式으로 행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合目的인 고려 아래서 自由裁量에 의하여 새로운 權利關係를 설정하는 方式으로 행하고 있다는 데서 司法機關의 司法作用과는 区分되는 性格을 가지고 이를 處理하며 또 不當勞働行為에 대한 判定에 있어서는 그 行為에 대한 事實의 認定과 그에 따르는 行為의 成立如否를 判定하는데 그것은 法院의 審問, 調査등의 証拠

調査 節次도 法院의 訴訟節次와 유사하지만 處分行為에 있어서는 勞働委員會의 機能은 一定한 行政處分을 통하여 勞使關係의 미래를 向하여 구체적인 影響을 부여함에 기능의 本質이 있으며, 勞働委員會가 발하는 救濟命令은 自由裁量의 여지가 있는데 反하여 法院의 判定機能은 그 本質에 있어서 適法的 判斷作用이기 때문에 法律이 定한 構成要件에 拘束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勞働委員會의 命令은 一般行政 處分과 같이 合目的的 작용뿐만 아니라 勞使關係 當事者の 違反에 대하여는 刑罰 또는 行政罰을 加하는 規範을 設定한다는 의미에서 立法的 作用도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勞働委員會의 性格과 機能 대해서 言及한 것은 勞働委員會가 사건에 대하여 어떤 心証 및 事實認定에 의거 自由裁量에 의하여 새로운 權利關係를 設定하여 判定한다는 것을 말하고저 한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즉 不當勞働行為의 증거 立証이 重要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使用者가 不當解雇 또는 不利益取扱을 할 때 使用者는 勤勞者가 組合活動을 活潑히 추진하기 때문이라고는 절대 말하지 않으며 就業規則을 違反하고 勤勞成績이나 欠勤을 하는 따위의 口實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그래서 解雇당한 勤勞者는 使用者의 口實은 虛偽이며 組合活動을 理由로 한 것이라는 証拠를 굳이는데 成功하지 않으면 안된다. 勿論 이러한 立証責任의 問題는 例外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立証은

救済에 있어서 有利한 條件임에는 틀림 없다.

그리고 또 最近에는 係長, 組班長에 의해서 不當勞働行爲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係長 및 組班長이라고 하면 勤勞者이며 때로는 勞組의 멤버일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에 의한 不當勞働行爲에 대하여 參考로 記錄해 두기로 한다.

不當勞働行爲에 있어서의 使用者概念에 대해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不當勞働行爲에 있어서 使用者를 勤勞契約 當事者로서의 使用者 또는 指揮命令權者로서의 使用者로 限定하고 그 외의 者의 不當勞働行爲를 使用者의 不當勞働行爲에 歸責토록 하는 方法을 취하는 것이다. 不當勞働行爲 制度 發足 直後 한때 이 立場이 勞委命令上 學說上 支配的인 때의 外國의 例가 있으며 그 둘은 不當勞働行爲制度에 있어서의 使用者는 勤勞契約의 當事者가 指揮命令權者이나 아니냐는 形式的 觀點에서가 아니라 勤勞者 또는 勞組의 地位 利益에 대하여 影響을 미칠수 있느냐 아니냐는 實質的 觀點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不當勞働行爲制度의 目的에 対応한 使用者 概念의 把握이 要請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다음은 77年度 本勞組 산하 各級支部(分會)에서의 不當勞働行爲 救済申請記錄이다. 救済申請 8件中 救済된 것이 1件이며 再審에서 却下 1件, 合意 2件 그리고 棄却이 4件이다. 勿論 初審에서 合意가 되어 記錄에 나타나 있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報告가 없어 統計를 낼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 앞으로는 支部에서

初審에 申請할 때 本勞組에 報告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라며 再
審에는 本勞組와 共同名義로 申請하는 등의 格別한 努力을 바라
마지 않는다.

77 年度 本勞組 不當勞動行為 救濟申請件數

事件名： 不當勞動行為(解雇)救濟申請

申請人： 永登浦支部 롯데物産分會長 허선희

被申請人： 롯데物産(주) 代表理事 신격호

被害者： 同分會 體育部長 최병두

組合員 장길남

(서울 1977.2.23 判定： 棄却)

事件名： 不當勞動行為(配置轉換)救濟申請

申請人： 本勞組 京畿支部長 高漢星

被申請人： 한세열기工業(株) 代表理事 김정관

被害者： 副分會長 지용덕

(京畿 1977.4.7 判定： 救濟)

事件名： 不當勞動行為(解雇)救濟申請

申請人： 本勞組 高美半導體支部長 林福熙

被申請人： 高美半導體(株) 代表理事 이석우

被害者： 組織部長 변영옥

(京畿 1977.5.13 判定： 棄却)

事件名： 不当労働行為（解雇）救済申請
申請人： 本労組 高美半導体支部長 林福熙
被申請人： 高美半導体（株） 代表理事 이석우
被害者： 同支部 指導委員 이순금

（京畿 1977.6.16. 判定：棄却）

事件名： 不当労働行為（解雇）救済申請
申請人： 本労組 南서울支部長 李重錫
被申請人： 東西金屬工業（株）代表理事 서경덕
被害者： 分会長 심재설

（京畿 1977.6.17. 判定：棄却）

事件名： 不当労働行為（解雇）救済申請
申請人： 本労組 京畿支部長 高漢星
被申請人： （株）한서 代表理事 한현수
被害者： 副分会長 이규성（救済）

組合員 김덕권（棄却）

京畿 1977.10.13 判定：一部 救済
（ 再審 1977.12.29 判定：却下 ）

事件名： 不当労働行為（解雇）救済申請
申請人： 1) 本労組 委員長 金炳竜
2) 本労組 京畿支部長 高漢星

被申請人： 瑞音電子工業(株) 代表理事 엄익정

被害者： 分会長 韓玉女

司正委員 李敬愛

(京畿 1977.11.11. 判定：棄却
再審 1977.12.21. 合意解決)

事件名： 解雇豫告例外認定 再審申請

申請人： 本勞組 委員長 金炳竜

被申請人： 瑞音電子工業(株) 代表理事 엄익정

被審者： 分会 組織部長 박선희

” 爭議部長 이순자

(再審 1977.12.21. 合意解決)

5. 法規業務 參考事項 示達

各級 勞動委員會의 勤勞者側 委員에 대하여 全員會議 活動의 強化와 더불어 勤勞者側 委員의 活用對策을 各級支部에 示達하였으 며 그 內容을 다음과 같다.

1. 勤勞者의 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이 規制되어 있는 現實 与件을 惡用하여 일부 使用者들의 知能的인 不當勞動行為 事件이 增加되고 있어 勤勞者의 團結權마저 侵害되고 있는 現實에 있음니 다.

2. 本 勞組에서는 이와 같은 現實을 打開하고 組合員의 被害를 最少限으로 줄이기 위한 方案으로서 不當勞動行為 事件을 비롯한 解雇豫告例外認定 事件, 休業支払의 例外認定 事件 등 勞動委員會의 審議를 걸치는 事件에 대하여는 各級支部에서 勤勞委員을 적극 活用할 것이며 또 勤勞者委員이 굳은 確信으로 被害者를 도울 수 있도록 現況을 正確히 把握할 수 있는 各種資料 및 証拠를 提供하여 合理的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努力해 주시기 바랍니다.

3. 被害組合員이 個別的으로 勤勞者委員을 訪問할 수 있도록 勤勞者委員의 所屬, 支部, 住所, 電話番号등 全組合員에게 周知시키도록 산하 조직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各 支部에서는 管轄 地勞委會 事件申請을 할 때에는 반드시 신청서 1부를 本勞組에 報告해 주시고 再審(中央勞動委員會)請求를 할 때에는 本 勞組 委員長과 共同名義로 提出하며 事件의 有利한 判定을 받도록 有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勞動委員會 審議事項 一覽表와 各級 勞動委員會의 勤勞者側 委員 名簿를 添付하오니 業務에 活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労働委員会審議事項一覽表

關係法令	審議事項	申請人	備考
労働組合法			
第16條	規約の取消變更에 대한 議決	行政官庁	公益委員
第21條	労働組合의 決議의 取消變更에 대한 議決	"	"
第26條의3항	労働組合 臨時總會 召集權者の 指名承認	"	全員會議
第32條	労働組合의 解散 또는 任員改善에 대한 議決	"	公益委員
第38條	団体協約 適用에 대한 地域的 拘束力에 대한 議決	勞使雙方 職權	全員會議
第41條	不當労働行為 救済申請에 대한 調査와 審議	勤勞者(勞動組合)	小全員會議
第42條	救済命令의 決定 또는 棄却	"	公益委員
第43條	再審請求의 調査審議 判定(中勞委)	勤勞者(勞動組合) 또는 使用者	"
労働基準法			
第23條2項	勤勞條件 違反에 대한 損害賠償 請求事項 審議	勤勞者	全員會議
第27條의2	解雇의 豫告例外承認	使用者	"
第34條	최저임金 判定에 대한 承認	勞動官廳長	"

關係法令	審議事項	申請人	備考
第38條	休業期間中 休業支払을 不得已 못할때의 承認審議	使用者	全員會議
第81條	休業補償, 障害補償의 例外認定 審議	"	"
第89條	労働庁長の 仲裁의 結果 不服再審事件의 審議 仲裁	勤勞者	公益委員
第90條	災害補償에 대한 民事訴訟 提起에 대한 審査	勤勞者	全員會議
労働争議調整法			
第13條	爭議行為時 暴力行為라고 認定하는 事項	労働庁長, 서울市長, 釜山市長 道知事	"
第16條	労働争議의 正否判定	当事者(勞・使)	"
第17條	職場閉鎖에 대한 審議決定	使用者	"
第22條-28條	労働争議의 調整	行政官庁	調整委員會
第30條-38條	労働争議의 仲裁決定	当事者 双方 또는 職權調整	仲裁委員會 (公益委員)

第 40 條	勞 働 庁 長	緊 給 調 整	決 定 前 에	意 見 提 示		勞 働 庁 長	調 整 委 員 會 (勞 , 使 , 公 代 表 各 1 名)
第 42 條	勞 働 庁 長 의	緊 急 調 整	決 定 通 知 와	同 時	調 整 開 始	"	"
第 43 條	調 整 成 立 의	可 望 이	있 을	時	仲 裁 廻 付 決 定	"	全 員 會 議
第 44 條	緊 急 調 整	仲 裁 決 定				勞 使 双 方	公 益 委 員
						主 七 職 權	
						仲 裁 廻 付	
						決 定 時	

各級勞動委員會 勤勞 交員名簿

勞委区分	姓 名	現 職 責
中央勞動 委 員 會	정 한 주	埠頭勞組委員長
	최정섭	鉉山勞組委員長
	이춘선	勞總 副委員長
서울지방 노 동 위 원 회	윤홍직	노총상임부위원장 금융노조위원장
	김종호	전국 전력노조위원장
	이용준	전국 관광노조위원장
부산지방 노 동 위 원 회	(정부경)	금속노조 금성사지부장
	조복기	철도노조 부산지부
	김양호	화학노조 국제화학지부장
경기도지 방노동위 원 회	지용택	전국자동차노조고속지부장
	이재섭	자동차노조 수원지부장
	이효련	전력노조 경기지부장
강원도지 방 노동 위원회	강신길	화학노조 강원지부장
	이무희	섬유노조 강원지부장
	한완수	광산노조 백운지역지부장
충북지방 노 동 위 원 회	이봉근	섬유노조 충북지부장
	백용근	자동차노조 충북지부장

勞働区分	姓 名	現 職 責
충남지방 노동 위원회	이종필	노총 충북도협의회, 지부장
	송범섭	전매노조 신탄진 제조창 지부장
	김연구	자동차노조 충남지부장
	이풍우	전국 섬유노조 기획실장
전북지방 노동 위원회	김성은	운수노조 전북지부장
	고형식	채신노조 전북지부장
	이명연	부두노조 군산지부장
전남지방 노동 위원회	고이석	섬유노조 사무국장
	박종휴	채신노조 광주채신청 지부장
	최동주	부두노조 목포지부장
	하 준	금속노조 경북지부장
경북지방 노동 위원회	유해용	운수노조 경북지부장
	이상해	자동차노조 경북지부장
	박수근	부두노조 울산지부장
경남지방 노동 위원회	이상기	섬유노조 경남지부장
	김용수	자동차노조 경남지부장

労働区分	姓 名	現 職 責
제주도지 방노동 위원회	김 회 열	부두노조 제주도지부장
	장강 원	자동차노조 제주도지부장
	이 성 익	전력노조 제주도지부장

調査統計活動

内 容

概 要

I. 賃金改善活動

1. 1978年度 賃金引上 推進現況
2. 賃金対策 労使實務者 懇談會 開催
3. 1979年度 賃金引上 要求指針(要約)

II. 勤勞條件 改善活動

1. 事業場別 勤勞時間 實態調査
2. 住居環境 調査

III. 定例實態調査實施

IV. 産業安全

1. 産業安全 및 保健活動
2. 長期入院患者 慰問 및 慰勞金 傳達

調 査 統 計 活 動

概 要

現代 産業社會은 모든 分野에서 情報의 競爭으로 存廢가 決定된다.

政府는 政策의 樹立과 運營, 그리고 結果의 分析에, 企業들은 製品의 開發에서 부터 生産, 販賣에 이르기 까지에 必要한 多樣하고 効率的인 情報의 蒐集과 分析을 爲하여 莫大한 豫算과 人力을 投入하여 熾熱한 競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企業의 成敗와 密接한 關係에 있기 때문이다.

勞働組合의 活動에도 過去에는 即興의이거나 推象的인 數值나 論理가 使用 되어왔다. 이것은 長期的인 眼目에서 設得力이 매우 稀薄한것으로 判斷되어 이 方法을 一新하고 情報과 資料에 根拠하여 對外的으로도 公信力이 있는 統計를 使用 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앞으로 勞働組合이 發展할 수 있는 지름길 이기도 한것이다.

勞働組合의 日常活動에 使用되는 모든 統計資料는 政府나 社會의 公共機關에서 얻어지지만 가장 重要한 資料는 一線 組合員으로부터 얻어진다. 이는 集計分析后에 다시 一線 組合員들의 賃金改善이나 勤勞條件의 改善을 爲한 勞使交渉에 사용됨은 勿論 事業의 執行 結果를 分析하는 比較資料로도 使用하게 된다.

이와같이 매우 폭넓게 要求되는 重要性에 副應한 取扱 實務陣의 認識度가 크게 期待 되고 있는것이다.

本 組合에서는 78年 7월과 79年 2월 2차례에 걸쳐 賃金, 勤勞條件, 厚生, 福祉 等 30여 項에 對한 實態調査를 實施한바있다.

이번 調査事業을 執行함에 所期の 目的은 達成되었으나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時急히 是正되어야 하겠다.

첫째, 調査者の 認識不足 또는 忌避現象이 두드러지게 많았으며 둘째, 앞과 뒤의 一括性이 전혀없어 活用 資料로서 充分치 못하며

셋째, 卓上調査, 推定調査 等

本 組合의 調査趣旨에 벗어난 위와같은 事項 들은 早速히 是正되어 모든 分野에서 넓게 活用할 수 있는 調査統計 資料로서의 機能이 確立되어야 하겠다.

I . 賃金 改善 活動

賃金은 어떠한 形態이던 提供된 勞動力에 對한 價格의 支払이며 이는 다시 勞動力의 再生産에 必要한 不可欠한 要素이다.

좁게는 勤勞者 自身과 그家族의 生計에 直接的인 影響이 있으며 넓게는 將來에 投入 될수있는 良質의 勞動力을 再生産하는것과 密

接한 關係에 있는것이다.

이와같은 重要性에 따라 本組合에서는 賃金改善을 爲한 長期計畫을 樹立하고자 이에 必要한 基礎資料를 78년 6월과 79년 2월, 2차례에 걸쳐 調査한바있다.

一次調査는 賃金部分을 重點的으로 在籍組合員 10%에 對한 標本調査로 實施 되었으며 調査內容은 아래와같다.

1. 組合員 個人別 賃金調査表
2. 業種別, 職種別, 組合員 賃金現況 調査
3. 業種別, 職種別, 賃金階層別 現況
4. 組合員 學歷別 賃金現況
5. 組合員 種類別 賃金現況
6. 組合員 勤續年數別 賃金現況

78년 6월 30일을 基準으로 調査된 調査結果에 依하면 1日 8時間 基準內 勤勞에 依한 基本給은 全体平均 71,657원으로 77년 53,767원 대비 33.3%의 名目賃金이 上昇된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賃金引上을 爲한 繼續的인 勞使交渉의 結果로 보여지나 그중 3~4%의 賃金은 事業場마다 많은 技能工이 繼續 移職하므로 企業主들이 이에 對한 對備策으로 充員採用時에는 賃金을 다소 上向調整한 結果로 分析되며 이와같은 技能工 需給의 不均衡이 間接的인 賃金引上으로 크게 作用할것이며 이러한 狀況은 79년도에도 繼續될것으로 보인다.

1. 1978年度 賃金引上 推進現況

最低賃金を 保障하도록 하여 人間の 尊嚴과 価値를 無視하는 低賃金を 時急히 一消하는데 主力하며, 最低生計費를 確保하여 組合員으로 하여금 扶養家族과 더불어 健康한 生活를 維持, 勞動力을 再生産하므로서 持續的인 經濟發展의 礎石이 되도록하며, 生産性向上에 따른 適正 配分이 이루어지도록하여 組合員의 사기를 양양하고 創意力을 啓發시키므로서 成長을 促進하며, 賃金隔差를 解消하여 階層間의 異質感을 없애 國民總和의 굳건한 基를 다져갈수있도록 하는데 둔다. 이상과 같은 78년도 임금인상의 기본 목표아래 전 全體평균 48.9%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전국적으로 노사교섭에 들어갔다.

산하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작성된 임금인상 요구안은 20 ~ 60%까지 다양한 요구였으나 최저생제비를 확보 해야된다는 기본목표는 일치되어 있었다. 한편 7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시된 정례 실태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78년도 임금인상 요구율은 전체평균 41.1%이고 사용자측 주장은 23.4%로 노동조합 요구의 57%만 인상시키겠다는 주장이었으나 꾸준한 노사교섭으로 노동조합 요구의 73.5%를 달성 전체평균 30.2%의 임금인상을 실현 한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43.4%를 요구한 전기, 전자분과가 가장 높았으나 27.7% 인상에 그쳤고 42.3%를 요구한 철강분과는 33%를

인상하여 가장높은 비율의 임금을 인상시켰다.

기본급 평균으로는 조선분과와 자동차분과가 83,000 원 선으로 6 개 분과중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세 사업장이 많은 비철 금속 분과가 59,000 원 선으로 상위업종 기준내임금의 70 %선에 머물고 있어 임금교섭의 방안이 중점적으로 강구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업종별 임금수준의 비교

업 종 별	기준내임금 (1일8시간)			월 임금 총액		
	평 균	남	여	평 균	남	여
전업종평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계금속	105.7	97.2	78.6	116.3	105.8	98.1
자동차	116.2	103.7	112.8	108.1	95.5	119.8
전기·전자	87.0	98.4	98.1	91.4	106.9	98.5
철강	101.4	91.4	95.9	107.5	95.9	116.0
조선	116.4	106.4	91.9	88.9	80.2	80.2
비철금속	83.3	85.9	80.4	90.1	94.4	81.8
기타	82.9	80.6	93.1	84.0	81.6	95.2

78년도 임금인상 추진 결과

업 종 별	사업장수	조 사 사업장수	임금인상 요 구 율	사 용 자 주 장 율	타 결 율
기 계 금 속	59	34	43	23	30
자 동 차	37	31	41.5	21.5	30.2
전 기·전 자	69	36	43.4	23.2	27.7
철 강	34	19	42.3	26.7	33
조 선	16	11	37.5	22.3	27.1
비 철 금 속	51	31	38.9	23.9	33.4
평 균	276	162	41.1	23.4	30.2

2.賃金对策 勞使実務者 懇談会 開催

日 時 : 1977년 1월 15일 14:00시

場 所 : 에버그린 (식당)

主 題 : 賃金 実務討議, 사회-박노경

(조선일보 논설위원)

参 席 者

'79 년 도 임 금 대 책 위 원

직 위	성 명	해 당 분 과
위 원 장	김 병 용	
부 위 원 장	강 준 석	
"	정 부 경	
"	하 준	
"	한 달 수	
사 무 국 장	최 종 규	
기 획 간 사	이 현 구	
위 원	변 시 현	자 동 차
"	정 낙 균	전 기 · 전 자
"	팽 종 출	조 선
"	최 응 길	비 철 금 속
"	이 중 석	
"	이 중 복	기 제 금 속
"	정 남 수	
"	최 성 찬	철 강
계	15 명	

기업주 참석자

소 속	직 위	성 명
금 호 전 자 (주)	인 사 과 장	김 송 일
금 성 사 (주)	인 사 관 리 부 장	이 은 준
금 성 전 자 (주)	근 로 과 장	정 창 수
금 성 통 신 (주)	"	김 현 태
대 동 조 선 (주)	총 무 부 장	송 복 익
동 양 기 계 (주)	인 사 과 장	홍 종 혁
새 한 자 동 차 (주)	후 생 과 장	최 복 규
기 아 산 업 (주)	노 무 과 장	김 종 화
효 성 중 공 업 (주)	인 사 과 장	최 선 업
대 한 전 선 (주)	총 무 부 장	변 영 일
대 한 중 기 (주)	인 사 과 장	김 광 배
한 국 마 벨 (주)	노 무 과 장	설 호
계 12 명		

3. 1979 년도 임금인상 요구지침 (요약)

I. 임금인상요구의 기본목표

1978 년도 조합원 임금인상요구의 기본목표는

1. 기준내 임금으로 최저생계비 확보

2. 적정 배분의 실현으로 조합원 사기양양
3. 최저 생계비 미달부분은 정액인상
4. 임금격차의 해소로 이질화 현상 방지

II. 임금인상 요구율 산출

1. 임금인상 요구율

임금인상 요구율 (48.7 %)

= 최저 생계비 부족율 (26.8 %)

+ '78년도 하반기 물가상승예상율 (10.3 %)

+ 전산업 년평균 노동생산성 상승율 (11.8 %)

2. 임금인상요구율 산출근거

1) 최저 생계비 부족 보충율 (26.8 %) : 78년 6월 30일 현재

78년 6월 30일 현재 남자조합원 임금수준 (기준내임금 + 특별급여) 102,073 원은 같은짓집 4인가족 최저생계비 128,867 원에 대하여 26.2 %의 부족을 보이고 있으며

같은시기 여자조합원은 단신여성근로자 1인 최저 생계비 75,321 원은 임금수준 (기준내임금 + 특별급여) 58,814 원에 대하여 28 %의 부족을 보이고 있으므로 남녀 조합원 총수로 가중평균하면 26.6 %의 생계비 부족을 보이고 있다.

2) '78년도 하반기 물가상승 예상율 (10.3 %)

'78년도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율 10.3 % (비례 추정치) 만큼의 임금손실 부분을 보상요구.

3) 전산업 년평균 노동생산성 상승률 (11.8 %)

'71년 ~ '77년 까지 전산업 노동생산성 상승률은 년평균
11.8 % 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실질 임금의 상승을 요구.

3. 업종별 임금인상률 시산

78. 6.30 임금기준

< 남자 >

업종별	임금수준 기준내임금 +특별급여 (원)	4인가족 최저생계비 78.6 말 현재	최저생계비		'78년 후반 기 소비자 물가인상예 상률 (%)	전 산업 년 평균 노동생산성 상승률 (%)	임금인상 요구율 (%)
			부족액 (%)	보충 요구 (%)			
기계금속	102,275		26,592	26.0			48.1
자동차	105,285		23,582	22.4			44.5
전기·전자	104,880		23,897	22.8			44.9
철강	93,637	128,867	35,230	37.6	10.3	11.8	59.7
조선	89,163		39,704	44.2			66.3
비철금속	90,410		38,457	42.5			64.6
기타	79,965		48,902	61.1			83.2

< 여자 >

업 종 별	임금수준 기준내임금 +특별급여 (원)	4인가족 최저생계 비 78.6 말 현재	최저생제비		'78년후반 기 소비자 물가인상 상률 (%)	전산업 노동생산 성상률 (%)	임금인상 요 구 율 (%)
			부족액 (%)	보충 요구율 (%)			
기계 금속	46,702		28,619	61.2			83.3
자 농 차	73,448		1,537	2.1			24.2
전기·전자	58,317		17,002	29.1			51.2
철 강	59,679	75,321	15,642	26.2	10.3	11.8	48.3
조 선	53,815		21,506	39.9			62.0
비철 금속	49,023		26,298	53.6			75.7
기 타	53,890		21,431	39.7			61.8

< 평균 >

남 자	102,073	128,867	26,794	26.2	10.3	11.8	48.3
여 자	58,814	75,321	16,507	28.0	10.3	11.8	50.1
평 균	88,971	112,649	23,678	26.6	10.3	11.8	48.7

4. 임금인상 요구율의 적용

- 1) 산하 지부(분회)에서는 당해 기업의 임금수준 부양가족수, 생활 환경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각지부(분회)의 특수성에 맞는 합리적인 이론을 적용해야 할것이다.

2) 남자조합원의 가족구성은 4인가족을 기준 하였고 여자조합원은 평균부양가족이 0.3인으로 나타나 본인포함 1, 3인이 되므로 2인가족 최저 생계비의 80%에 해당 되는 금액을 적용하였다.

Ⅲ. 임금인상 요구의 배경

70년대 이후의 지속적인 10% 이상의 실질 경제성장에 상응하는 최저 생계의 보장을 이윤분배의 경제질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1. 주 장

〈최저 생계비는 기준내 임금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78년 6월 3일 현재 평균임금은 114,410 원

이중 본봉이 58%인 66,437 원

기준내수당이 4.5%인 5,220 원

특별급여가 15.3%인 17,314 원

초과급여가 22.2%인 25,437 원으로 복잡한 임금체제의 개선 촉구, 더욱이 본봉 : 초과근로 = 100 : 38로 월평균 50 ~ 60 시간의 초과 근로가 년중 계속되므로 피곤한 심신에서 창의력과 잠재능력의 개발이 불가능하다.

◎ 기업주 들은 원만한 노사관계를 통하여 생산성 향상을 꾀해야 할것이다.

◎ 회사일을 내일처럼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이 먼저 수행되어야 할것이다.

◎ 장래의 생활안정과 부양가족의 성장과 증가로 주택 마련을 위하여 재산형성이 필요하다.

기준내 임금에 의한 임금인상 요구율은

기계금속 : 99.5 % 자동차 : 81.6 % 전기전자 : 142.5 %

철 강 : 108.1 % 조선 : 81.2 % 기 타 : 154.7 %로
평균 111 %의 기본금이 인상 실현되어야만이 최저상제와의 균형이 이루어 진다.

79년도에는 여하한의 상황속에서도 32 %의 기준내임금이 인상 실현되어야 만이

78년 최저생제비대 임금수준인

$128,867 : 71,657 = 100 : 55.6$ 가

79년 $151,256 : 94,587 = 100 : 62.5$ 로 되어

최저생제비대 임금수준이 실질적으로 6.9 %만큼 접근되는 것이다.

2. 저임금의 일소

본 노조산하 조합원중 43.02 %의 조합원이 50,000 원 미만의 낮은임금계층.

중고등 학생의 합숙하숙비 (1실에 2 - 3명) 도 50,000 원 ~ 70,000 원 되는것으로 보아도 건강한 노동력의 제공에 대한 보상이 최소

합숙 하숙비는 되어야 하겠다.

이에 해당되는 49,000여명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피동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피동적인 노동력은 장기적 관점에서 양질의 것이 될수없다. 인간의 삶에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망마저도 확보되지 못한다면 43% (49,000여명)에 대하여는 결코 질 좋은 노동력을 기대할 수 없는것이다.

임금 계층별 조합원 분포현황 (%)

78. 6.30 현재

임금 계층	남 (%)	여 (%)	계 (%)
30,000원 미만	1.45	7.89	3.4
50,000 "	21.61	92.23	43.0
70,000 "	47.52	98.98	63.1
90,000 "	71.25	99.89	79.9
120,000 "	90.86	100	93.6
120,000 이상	4.88		3.4
	100	100	100

3. 물가 상승에 따른 생계비 확보

- 1) 78년도 정부당국의 소비자 물가 억제선은 년초계획이 12% 선이었으나 78년 전반기 (1~6월)에 10.3%가 상승되

었으므로 기업이나 정부에서 임금지표에 적용한 12%는 결과적으로 많은 차질이 있었다.

- 2) 특히 주, 부식품 가격의 폭등이 적자가계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였다.
- 3) 또한 실태 생계비는 77년 91,823원→78년 128,867원으로 40.3%가 상승되어 물가당국이 발표한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
- 4) 이와 같은 물가의 상승으로인한 실질임금 손실부분에 대한 보충을 요구한다.

4. 임금 격차의 해소

전산업 : 관리, 사무 및 기술근로자 = 100 : 185

전산업 : 생산직근로자 = 100 : 69.6

관리, 사무 및 기술근로자 : 생산직 근로자 = 100 : 37.3

이상과 같은 고질적인 임금계층이 이질적인 사회계층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 불공정 배분이 만성화된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한편 임금격차의 해소를 주장한다해서 마치 상위그룹의 임금을 하향조정하여 임금격차를 줄이려는 기업주의 잘못된 생각은 시정되어야 하겠다.

임금 계층별 조합원 분포현황

78. 6.30 현재

업 종 별		30,000 원 미 만	150,000 원 미 만	70,000 원 미 만	90,000 원 미 만	120,000 원 미 만	120,000 원 이 상
기 계 금 속	'77	8.7 %	38.0	64.9	91.1	98.1	1.9
	'78	0.2	16.4	53.9	78.0	95.6	4.4
자 동 차	'77	11.1	37.7	75.9	92.2	98.3	1.7
	'78		7.7	26.6	53.5	75.3	24.7
전기 · 전자	'77	23.5	70.9	85.4	92.1	98.5	1.5
	'78	13.4	75.2	87.9	93.8	97.9	2.1
철 강	'77	11.2	43.4	77.7	95.3	100	
	'78	1.6	25.3	44.9	81.3	99.6	0.4
조 선	'77	0.6	24.1	44.3	70.0	87.0	12.9
	'78		13.6	30.2	48.1	81.5	18.5
비 철 금 속	'77	24.9	58.3	82.6	91.9	96.2	3.8
	'78		48.0	64.1	77.8	98.8	1.1
제	'77	17.6	54.1	77.0	90.4	97.5	2.5
	'78	3.4	43.9	63.1	79.9	93.5	6.4

5. '79년 임금수준 (추산)

본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율 48.7%가 실현되는 경우 79년도에는 남자 조합원 임금수준이 151,256원이 될것으로 예상 된다.

1) 남자 조합원의 기본급수준 76,463원은 113,394원으로

$$\text{될것이며 } (76,463 \text{ 원} \times \frac{148.3}{100} = 113,394 \text{ 원})$$

2) 기준내 수당비율 7.4%를 고려한 기준내 임금은 121,785

$$\text{원이 되고 } (113,394 \text{ 원} \times \frac{107.4}{100} = 121,785 \text{ 원})$$

3) 특별급여율 24.2%를 적용하면 특별급여는 29,471원이

$$\text{되며 } (121,785 \times \frac{24.2}{100} = 29,471 \text{ 원})$$

4) 남자 조합원의 기준내 임금과 특별급여를 합한 조합원 임금수준은 151,256원이 될것이다.

$$\text{계산 : } 121,785 \text{ 원} + 29,471 \text{ 원} = 151,256 \text{ 원}$$

여자 조합원의 임금수준이 88,204원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1) 여자 조합원의 기본급수준 43,359원은 65,081원이 될것

$$\text{이며 } (43,359 \times \frac{150.1}{100} = 65,081 \text{ 원})$$

2) 기준내 수당비율 9.3%를 고려한 기준내 임금은 71,133원

$$\text{이 되고 } (65,081 \times \frac{109.3}{100} = 71,133 \text{ 원})$$

3) 특별급여율 24 %를 적용하면 특별급여는 17,071 원이 되

$$\text{어} \left(71,133 \times \frac{24}{100} = 17,071 \text{ 원} \right)$$

4) 기준내 임금과 특별급여를 합한 조합원 임금수준은

88,204 원이 된다.

$$(71,133 + 17,071 = 88,204 \text{ 원})$$

이상과 같이 79년도 남자 조합원의 경우 임금수준 151,256 원과 79년도 4인가족 최저 생계비 152,063원 (추정액) 과는 807 원의 격차로 78년 26,794 원 보다 훨씬 가깝게 접근 될 것이다.

여자 조합원의 경우 임금수준 88,204 원과 79년도 최저 생계비 88,878원 (추정액) 과는 674 원의 격차로 78년 16,507 원 보다 생계비에 가깝게 접근하게 될 것이다.

Ⅱ. 勤勞條件 改善 活動

1. 事業場別 勤勞時間 實態調査

우리나라의 勤勞者들이 어느나라에서도 보기드문 長時間 勤勞를 年中 繼續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事實이다.

勞働組合 活動中에 勤勞時間의 短縮이 繼續적으로 시도되고는 있지만 그리 쉽게 改善이 이루어지지 않는것 같다.

現在로서는 오히려 當然한것처럼, 企業의 月間, 年間 生産計劃을 樹立할 때 月 40 ~ 60時間 정도는 連長勤勞를 하는것으로 計算하여 計劃을 세우기 까지 이르렀다. 이렇듯 經營者는 月 250 ~ 260 時間이 基準內 勤勞時間인 것으로 간주하려 하고있는 것이다.

따라서 賃金策定時에도 1日 8時間 勤勞로 支給되어야 할 賃金額을 連長勤勞 時間까지 包含된 勤勞時間에 對한 賃金으로 逆算出하는 方法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것이다.

賃金實態調査 結果에서 나타난것과 같이 賃金總計가 現實적으로 基準內賃金 水準이어야 家計의 均衡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78年 7月과 79年 2月 2차례에 걸친 勤勞時間 實態調査 結果를 보면 月平均 勤勞時間數는 77年 236.0시간에서 78年 242.7시간으로 오히려 늘어 난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長時間 勤勞로 부터 組合員들을 保護하기 위하여 賃金改善과 더불어 勤勞時間 短縮을 爲한 長期對策이 마련 되어야 하겠다.

業種別・勤勞時間, 勤勞日數

業 種 別	日 平 均 勤 勞 時 間 數	月 平 均 勤 勞 日 數	月 平 均 勤 勞 時 間 數
機 械 金 屬	10.1	26.4	254.6
自 動 車	9.8	26.1	254.6
電 氣・電 子	9.5	26.5	233.4
鐵 鋼	9.7	26.2	257.6
造 船	8.0	21.3	179.5
非 鐵 金 屬	10.1	26.0	258.9
平 均	9.5	25.4	242.7

2. 住居環境 調査

勤勞者들이 日常生活을 通하여 自身の 扶養家族과 더불어 安定된 生活을 營爲할 住居地를 마련하고자 하는것은 平生을 通하여 매우큰 所望中の 하나이다.

定例 實態調査 結果에 依하면 内 집을 보유하고있는 組合員은 調査된 162개 事業場 85,229명중 26.9%인 22,950명으로 나타나 組合員 4名中 1名이 内집에 살고 있는 정도이다.

이중에서도 遺産으로 물려받은 住宅數를 감안하면 勤勞者들이 勤勞所得으로 内집을 마련하기란 極히 어려운것으로 判斷되며 組合員

平均扶養家族構成이 3~4名인것으로보아 伝貰, 月貰 도합 49.8%의 組合員은 그扶養家族과 더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住居의 不安定은 労働移職率과도 깊은 關係에 있는것이므로 勞使는 共同으로, 未婚 男女勤勞者들을 爲한 寄宿舍 施設을 確充해야 하겠고 既婚者 들에게는 長期低利의 金融支援이나 社員住宅의 마련을 爲한 計劃을 時急히 樹立 하여야 할것이다.

이와같은 福祉環境의 改善活動은 技能人力の 確保에도 크게 寄與할것이 分明한 것이다.

住 居 環 境 調 査

78.12.31 현재

業種別		自 宅	伝 貰	月 貰	下 宿	寄 宿 舍	자 취 인 척 기 타	計
機械金屬	명	3,362	3,499	1,788	1,240	833	977	11,699
	%	28.7	29.9	15.3	10.6	7.1	8.4	100.0
自 動 車	명	3,495	5,495	2,395	804	334	1,064	13,587
	%	25.7	40.4	17.6	5.9	2.5	7.9	100.0
電氣·電子	명	11,645	9,659	13,183	1,938	3,447	7,190	47,062
	%	24.7	20.5	28.0	4.1	7.3	15.4	100.0
鉄 鋼	명	1,315	1,139	847	333	72	342	4,048
	%	32.5	28.1	20.9	8.2	1.8	8.5	100.0
造 船	명	1,077	753	247	112		179	2,368
	%	45.5	31.8	10.4	4.7		7.6	100.0
非鉄金屬	명	2,056	1,855	1,584	152	399	419	6,465
	%	31.8	28.7	24.5	2.4	6.2	6.4	100.0
計	명	22,950	22,400	20,044	4,579	5,085	10,171	85,229
	%	26.9	26.3	23.5	5.4	5.9	12.0	100.0

조사자 : 85,229명

Ⅲ. 定例 実態調査 実施

本組合에서는 統計資料를 確保하여 산하조직에서 活用 할수있도록 하기위하여 78年 7月과, 79年 2月, 2 차례에 걸쳐 実態調査를 実施한바 있다.

이 調査를 効果的으로 実施하기 爲하여 一線 実務者들을 釜山과 서울에서 1, 2 차로 나누어 作成要領을 熟知토록 하였으나 実務者 全員이 参席치 못하였고, 調査의 目的을 理解하지 못하여, 전혀 잘 못 調査된 事業場이 많았다.

산하 270 여 事業場을 対象으로 全数調査를 実施하여 162 個 事業場, 59 %가 調査되었으나 이 중에는 전혀 集計가 不可能한 調査表가있어 약 50 %가 調査된 셈이다.

이러한 調査는 当該 事業場 單位로 볼 때는 별로 利用価値가 없으나 地域別 또는 業種別로는 매우 폭넓게 活用할수 있는 것이 된다.

調査內容은 아래와 같다.

- 1) 賃金引上 推進現況 (78 년도 분)
- 2) 職能別 賃金実態
- 3) 学力別 組合員 分布現況
- 4) 国卒者 賃金実態
- 5) 中卒者
- 6) 工高 卒業者 賃金実態

- 7) 人文, 其他係 高卒者
- 8) 職能別 賃金実態
- 9) 年齡別 組合員 分布現況
- 10) 勤續年数別 組合員分布 現況
- 11) 組合員 家族構成 現況
- 12) 年間 유급휴일
- 13) 기업별 勤勞時間
- 14) 教育活動 現況
- 15) 후생, 福祉施設現況
- 16) 福祉 및 住居環境調査
- 17) 健康診斷 実施結果調査
- 18) 경조휴가 및 경조금
- 19) 노사협의회 運營実態調査
- 20) 장학기금 運營現況
- 21) 신용협동조합 운영현황
- 22) 消費組合 運營現況
- 23) 医療保險 運營現況
- 24) 安全事故 發生調査
- 25) 입원환자 実態調査
- 26) 安全, 保健, 管理現況
- 27) 재해보상 지급실태

(調査結果 報告는 別途資料로 發刊할 예정임)

◎ 연령별 組合員 分布比

78.12.31 現在

	機械金屬	自動車	電氣 電子	鉄 鋼	造 船	非 鉄 金 屬	計
18才未 滿	2.0%	2.0	3.9	0.8	4.0	2.8	2.9
18 ~ 20才	17.7	11.4	32.3	11.0	10.1	20.2	22.1
20 ~ 25才	22.2	17.8	35.7	17.3	20.2	23.8	26.9
25 ~ 30才	21.9	25.3	14.5	23.8	17.9	20.8	19.3
30 ~ 35才	16.4	17.6	7.2	22.9	17.1	15.2	12.9
35 ~ 40才	9.7	17.5	4.0	13.2	12.3	10.4	9.4
40 ~ 45才	6.1	5.1	1.8	7.8	7.9	4.8	4.0
45 ~ 50才	2.5	2.3	0.4	2.5	5.7	1.5	1.6
50 ~ 55才	1.2	0.8	0.2	0.6	3.3	0.5	0.7
55才以上	0.3	0.2	-	0.1	1.5		0.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5	100.0

학 력 별 조 합 원 구 성 비

78.12.31 現在

業種別	国率 以下	中 卒	高 卒	專 門 校 卒	大 卒	計	
機 械 金 屬	21.3%	40.0%	36.6%	1.4%	0.7%	100.0%	(12,016 명)
自 動 車	17.4	38.7	38.3	4.5	1.1	100.0	(22,377 명)
電 氣 · 電 子	6.4	50.4	42.7	0.3	0.2	100.0	(42,215 명)
鐵 鋼	17.7	45.8	35.3	0.9	0.3	100.0	(6,542 명)
造 船	25.5	45.8	18.3	0.3	0.1	100.0	(3,364 명)
非 鐵 金 屬	27.8	47.0	24.6	0.4	0.2	100.0	(6,715 명)
計	14.3	45.5	38.2	1.5	0.5	100.0	(93,319 명)

(調査組合員數 93,319 명)

IV . 産 業 安 全

1. 産業安全 및 保健活動

1) 第14回 勞總 産業安全 保健 強調期間 行事實施

第14回 勞總 産業安全 保健 強調期間 行사가 78. 6. 1 ~
7. 31일까지 全 率下組織에서 實施되었다.

이 行事期間은 年例的으로 産業災害의 發生率이 가장 높은 期間

이므로 全国的인 行事를 實施하브로서 勤勞者는 勿論 使用者의 人的, 物的 損失을 事前에 防止토록 豫防意識을 鼓吹하는데 그 目的이 있었다.

主要活動은 다음과 같다.

- 1) 포스터, 標語, 談話文揭示 및 懸垂幕 揭揚을 통한 安全意識 鼓吹.
- 2) 리본 着用
- 3) 産業安全 및 保健管理規定 配付
- 3) 長期入院患者 調査 및 慰問實施

2. 長期 入院患者 慰勞金 傳達

第14回 勞總 産業安全 保健 強調期間 行事의 一環으로 調査된 長期 入院患者에 對하여 第2次 中央執行委員會議(78.7.21). 議決에 따라 病床에 있는 組合員들의 快癒를 바라며 慰勞金을 傳達하였다. (慰勞金 傳達內容은 다음과 같다)

1) 慰勞金 傳達基準

공상자(47명): 10,000 원

사상자(9명): 10,000 원

퇴원자(8명): 5,000 원

장 기 입원 환 자 위 로 금 전 달 내 용

	지 부 (분 회) 명	입 원 자 성 명	진 단 명	공 상	사 상	퇴 원
1	경북지부명화산업분회	이명규	뇌파		○	
2	"	장한조	족골절	○		
3	" 삼영공업 "	박종구	수, 족외상 (감전)	○		
4	"	노창구	팔절단	○		
5	전남지부아세아자동차 분회	안중현	제12중추압박 및 골 절, 하지마비	○		
6	" 여수조선 "	김종근	외상 (추락)	○		
7	남서울 " 영창악기 "	유명진	족지골절			○
8	"	정일무	골반부상		○	
9	" 부경상사 "	장점용	척추신경장애	○		
10	" 대한제쇄 "	한현호	요퇴부염좌	○		
11	" 동아건설 "	염규철	좌측 다리골절	○		
12	경남지부신아조선지부	최영근	찰과상 (낙반사고)	○		
13	" 충무조선 "	최금영	화상 2 ~ 3 도			○
14	부산지부한진기계 "	강희수	우측환지, 제3수지골절	○		
15	" 금강전자 "	최희자	경골급방출성골절	○		
16	" 문화금속 "	정중태	우수요골및척골골절	○		
17	" 부국제강 "	정왕양	양측절단	○		
18	"	이재현	수족대퇴부	○		
19	" 연합철강 "	김용구	두개골 파열상		○	

	지부 (분 회) 명	입 원 자 성 명	진 단 명	공 상	사 상	퇴 원
20	부산지부연합철강분회	이 강 원	두개골 파열 상			○
21	신일 금속 "	김 점 수	우측 족 개방성 골절	○		
22	충남지부중앙공업 "	정 재 하	골 절	○		
23	대우중공업지부 "	김 윤 건	뇌진탕	○		
24	"	강 우 신	"	○		
25	"	권 갑 동	화 상	○		
26	"	홍 계 표	대퇴골절	○		
27	"	이 은 표	골반골절	○		
28	"	김 응 식	뇌진탕	○		
29	"	한 성 옥	흉측골절	○		
30	새한자동차부산지부	최 영 응	하퇴부분쇄골절	○		
31	인천제철 "	이 창 복	우골반골절			○
	"	김 육 균	12 중추압박골절	○		
33	"	홍 연 준	쇄골이 상	○		
	금성전선 "	안 석 원	대퇴부골절		○	
35	"	임 경 수	턱, 안면 부상	○		
36	"	우 동 섭	허리부상	○		
37	기아산업 "	신 동 일	족지부 우측손상			○
38	"	문 준 기	요추부 근육강직			○
39	"	최 영 규	손목, 발목절단	○		

	지부 (분 회) 명	입 원 자 성 명	진 단 명	공 상	사 상	퇴 원
40	기아서진분회	김 세 민	좌손가락절단	○		
41	"	연 대 흑	모지 2 마디절단	○		
42	"	김 재 휘	복막염		○	
43	" 대서산업 "	한 규 남	성형 , 정형수술	○		
44	대동조선지부	김 종 성	좌측다리 골절	○		
45	"	윤 광 복	우측골반 골절 능골	○		
46	부산포금 "	라 득 환	팔골절	○		
47	"	김 병 삼	뇌파열	○		
48	"	김 문 갑	팔골절	○		
49	대한중기 "	김 연 수	외상 (고압감전)	○		
50	"	이 선 구	요추탈출증	○		
51	"	유 한 태	좌측경골 및 비골분쇄	○		
52	"	손 순 궁	우측모족지 개방성골절	○		
53	일신제강 "	기 노 관	화 상			○
54	"	윤 덕 중	뇌파열	○		
55	"	임 정 빈	우측팔절단	○		
56	"	김 명 석	우측다리골절		○	
57	영동특별분회	황 인 구	뇌파상		○	
58	조선공사지부	임 동 빈	골반골절, 요추압박	○		
59	"	강 신 화	양수지 찰과상	○		

	지부(분회)명	입원자 성명	진단명	공 상	사 상	퇴 원
60	조선공사지부	조인제	흉부, 안면부 화상	○		
61	"	박도갑	7, 10, 11, 12 늑골골절	○		
62	"	장길상	양쪽족부골절 및 탈골			○
63	"	김재년	요추 탈출증	○		
64	한국베아링지부	김천수	골절	○		
			이 상 64명			

國 際 活 動

內

容

概 要

I. 海外派遣

II. 外國勞組幹部 訪問

III. IMF의 活動

1. '78 IMF 中央委員會
2. 第4回 IMF亞細亞地域會議
3. OECD常設鐵鋼委員會 新設
4. 말레이시아 勞動組合權에 對한 對策
5. 튀니지아의 勞動組合權에 對한 對策
6. 多國籍企業에 對한 活動

〈資料〉第24次 IMF世界大會 決議文 要約

〈資料〉IMF加盟團體 一覽表

國 際 活 動

概 要

기업 조직이 다국적기업의 형태로 국제화된 이상 노동운동조직도 국제화된다는 것은 당연한 추세인 것이다. 국제금속노련 (IMF)은 15개 국제산별노련 (ITS)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오래된 국제 산별노동조직이다. 1983년 유럽에서 12만 5000명의 조직으로 시작되어 현재 68개국 1,350만조직에 이르고 있다. 현재 위원장은 오이겐 로더러 (독일 금속노조소속) 이고 사무총장은 허먼 램헌 (전 미국자동차노조연맹 국제부장) 이다. 규약에 따라 매 3년마다 세계대회가 개최된다. 지난 세계대회는 1977년 10월 독일 뮌헨에서 열렸고 차기 대회는 81년 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대회에서는 IMF의 활동노선을 결정하고 또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선출한다. 한편 중앙위원회와 중앙집행위원회가 열리며 기계금속,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항공 등 부서회의와 산업안전, 청부인 등 특별위원회가 열린다.

한편 아시아에 진출한 일본계 다국적기업의 활동을 취급하기 위해 1957년엔 IMF동아세아 사무소가 설립되었고 여기에는 일본, 한국, 필리핀, 자유중국이 참여하고 있다.

1967년 9월 17일 IMF에 가맹한 바 있는 본 노조는 상기 IMF회의 외에도 IMF-JC (일본협의회) 및 산하 산별조직

그리고 IMF-ROCC (중화민국 위원회), IMF 아시아지역의 회의 및 세미나, 심포지움에 참석하며 상호정보교환 및 친선교류를 하고 있다. 본 노조는 이번 회계년도중 14개 국제회의 및 토론회 그리고 정기대회에 25명의 조합원을 파견한 바 있고 117명에 이르는 외국노조간부의 방문을 받은 바 있다.

금번 회계년도중 IMF 각종회의에서 주로 취급된 문제는 ① 다국적기업의 생산합리화 정책으로 인한 대량실업 문제 ②임금감소없는 노동시간단축문제 (4교대제나 5교대제 추구, 더 많은 휴일에 의한 근로자의 효용 증대 및 고용증대) ③핵에너지 문제 ④말레이시아 및 튀니지아의 노동조합권 문제등이다. 이 중에서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다국적기업과 실업문제이다. 이는 선진국 근로자의 이익과 개발도상국 근로자의 그것이 배치될 수 있는 점이기 때문이다. 다국적 기업은 자국의 공해 규제나 조세, 고임금을 피해 그러한 규제가 강하지 못하고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는 분명히 선진국의 실업증대를 가져오는 반면에 개발도상국의 고용증대를 가져오는 것이다. 현재로는 세계근로자의 공존공영이라는 이름하에 양측 근로자의 이해를 조정하려 하지만 양측의 이해배치가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확립해 IMF 차원에서 대처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가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끼칠수 있는 범위는 사실상 한정적이다. 그럼에도 노동문제에 대한 우리의 전지성이 세계 동지들

의 가슴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친구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국제활동에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더욱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우리의 부담에 의한 해외여행기회 확대

둘째 회외여행자의 전문을 본노조의 교육자료로 활용

셋째, 동일업종 또는 다국적기업모회사에 있는 해외노조와의 자매
결연추진

넷째 자료교환체계 확립 및 해외 홍보용 책자 발간

I . 해 외 파 견

1. 미국정부초청교육 참석

- ① 일 시 : 1978.5.20 ~ 6.20 (1 개월간)
- ② 장 소 : 미 국
- ③ 참석자 : 본조 부위원장 한달수
- ④ 소득분배와 고용창출 계획 및 정책에 관한 교육

2. 제 7 회 IMF 자동차산업부회 회의 참석

- ① 일 시 : 1978.5.25 ~ 6.7 (14 일간)
- ② 장 소 : 미국 디트로이트

- ③ 참석자 : 본조 위원장 김병용
- ④ 활동사항 : 25 개국으로부터 150명이 참석, 동 회의에서는 잠재적 석유공급을 앞지르는 자동차연료 소요, 로봇에 의한 생산을 지향하는 합리화, 증대하는 자본집중 현상; 저임금지역인 개발도상국으로 진출해 중앙통제적 경제국가와 협력해 개발도상국 경제에 타격을 가하는 현상, 산업안전 문제 등에 대해서 토의했고 이들 문제해결에 있어 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3. 제 2 회 I M F 아시아조선세미나참석

- ① 일 시 : 1978.5.29 - 6.7 (10 일간)
- ② 장 소 : 일본 동경
- ③ 참석자 : 조선공사지부 지부장 팽종출
대동조선지부 부지부장 정학균
- ④ 활동사항 : 아시아 10 개국으로부터 95 명이 참석.기업의 이윤추구로 말미암아 현재의 조선산업능력은 과잉상태다. 이는 조선 산업간의 치열한 경쟁을 가져왔고 그로 말미암아 일시해고, 작업단축에 의한 시간삭감, 소득의 감소 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선산업의 국제적 조정이 필요하고 노동조합운동도 국제적 유대를 가지고 힘을 가할 필요가 있다. 차기세미나는 1981년

4. 제 2 회 IMF 아시아전기전자세미나참석

① 일 시 : 1978.6.6 ~ 6.18 (13 일간)

② 장 소 : 싱가포르

③ 참석자 : 본조 국제부장 고한성

금성통신지부 지부장 이상숙

④ 활동사항 : 아시아 10 개국으로부터 80 명의 대표가 참석. 전기 전자분야의 다국적 기업 다수가 아시아에 진출해 있다. 이들 다국적기업은 수출지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한정적인 것이다. 한편 이들 다국적 기업의 제품은 선진국 제품과 경쟁하고 있어 선진국의 고용과 마찰을 낳고 있다. 선진국의 이분야 기업들은 노동절약적 기술을 도입하거나 해외로 공장을 옮기고 있어 선진국에선 실업자가 증가되는 반면 개발도상국에선 고용이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양측의 노동조합간에는 공존공영의 모색이 필요하다.

모국의 노조들은 개발도상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에 당해 노동자의 노동 3 권을 보장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노동자의 조직화는 국제적 분세 해결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동 회의에서는 말레이시아 금속노조의 통일을 고의적으로 막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노동정책을 비난했다.

5. 제 26 회 IMF-JC 전기노련대회 참석

- ① 일 시 : 1978.7.3 ~ 7.11 (9 일간)
- ② 장 소 : 일 본
- ③ 참석자 : 인천제철지부 지부장 최성찬
- ④ IMF-JC 가맹 단위 산별조합으로 조합원수는 53 만 2 천명 , 위원장은 堅山利文 동지

6. 미국기계 공노조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세미나 참석

- ① 일 시 : 1978.7.8 ~ 16 (9 일간)
- ② 장 소 : 말레이시아 페낭
- ③ 참석자 : 본조 부위원장 하 준
새한경인지부 지부장 이성균
- ④ 미국기계 공노조 (IAM) 가 아플리 (아시아 아메리카 자유노동기구) 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주최한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세미나

7. 동남아시아 노동사정 시찰

- ① 일 시 : 1978.6.20 ~ 6.29 (10 일간)
- ② 장 소 : 대만 ,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 , 태국

③ 참석자 : 조선공사지부 조합원 한제수

④ 노동청 후원, 3.10 노동절 유공포상자들의 동남아시아 노동사정
시찰

8. 제 6 회 IMF 중화민국위원회 (IMF - ROCC) 대회

및 IMF-JC 금속산업 노조세미나 참석

① 일 시 : 1978.8.28 ~ 9.9

② 장 소 : 대만, 일본

③ 참석자 : 서울지부 지부장 김병호

전남지부 지부장 조금래

원풍산업육천지부 지부장 최규문

기아산업지부 부지부장 권수태

④ IMF-ROCC 와 본조는 상호 정기대 회시 상호교류를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참석 상호간의 유대를 확인함. 이 대회에서는
그동안 5 년동안 의장직을 맡았던 張根旺 동지를 이어 郭福壽
(高雄地区 출신) 동지가 의장으로 피임됨

9. 제 17 회 IMF - JC 정기대회 참석

① 일 시 : 1978.9.7 ~ 9.14 (8 일간)

② 장 소 : 일 본

③ 참석자 : 본조 사무국장 최종규

금성전기지부 지부장 허성원

④ 1964년에 조직되어 6개 단위산별조합과 7개 직할가맹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IMF-JC는 현재 200만여명의 조합원을 조직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宮田 義三(철강노련 소속) 동지가 의장으로 재선되었고 대회 슬로건은 다음과 같다.

- J C 200만조직의 총력을 결집해 대산업별 투쟁을 추진한다.
- 종합적 생활투쟁을 통해 실질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한다.
- 경기 회복의 촉진 산업정책의 추진을 통해 고용불안을 해소한다.
- IMF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노동운동의 발전에 공헌한다.

10. IMF 중앙위원회 참석

① 일 시 : 1978.9.23-10.6 (14일간)

② 장 소 : 핀란드 헬싱키

③ 참석자 : 본조 위원장 김병용

④ 48개국, 82개노조, 155명이 참석. 여기서는 「80년대에 있어서의 에너지 대책」, 「인권」, 「노동조합권」, 「완전고용대책」 「3자구성의 철강위원회」 등의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79년도 중앙위원회는 79년 10.18~19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 본조의 가맹인원수는 82,907명이고 지난 67년

9월 17일 가맹을 했다. 1인당 맴비는 연 0.65 스위스 프랑 (77년부터)이다.

11. 아시아 노동회의 참석

- ① 일 시 : 1978.10.2
- ② 장 소 : 핀란드 헬싱키
- ③ 참석자 : 본조 위원장 김병용
- ④ 매년 IMF·중앙위원회나 IMF 중앙집행위원회와 함께 열리며 여기서는 아시아 가맹단체들간의 토의와 대화가 수행된다. 이번 노동회의에서는 아시아의 노동조합권을 위한 IMF 헌장, 노동조합권에 관한 실태조사, 제4회 아시아지역회의의 준비사항에 대해서 논의했다.

12. IMF전기산업부회 회의참석

- ① 일 시 : 1978.10.24 ~ 11.4 (12일간)
- ② 장 소 : 스위스 제네바
- ③ 참석자 : 본조 부위원장 하 준
- ④ IMF 헬싱키 중앙위원회의 결의와 관련, 에너지 문제, 특히 핵에너지문제와 실업문제에 대해서 중점적 토의를 함. 오일 쇼크는 연료문제에 대한 논의를 불러 일으켰고 이것도 그 일환

이다. 에너지는 그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과 또 그것의 이용이 인간에게 재해를 낳는다는 두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 공급의 부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석유 의존체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석유의존의 산업구조 변경과 석유에 의존하려는 인간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 석탄개발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핵에너지와 태양열, 조류, 바람 등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핵에너지는 평화적으로 이용되더라도 인간에게 재해를 가져오고 전쟁에 이용될 경우 인간의 대량살상을 가져온다. 따라서 핵을 에너지로 이용하려할 경우 핵을 전쟁도발자들에게서 해방시켜 공공관리하에 들어오도록 해야한다.

13. 제 4 회 IMF 아시아 지역 회의

- ① 일 시 : 1978.11.12~11.25 (15 일간)
- ② 장 소 : 인도 뉴델리
- ③ 참석자 : 본조 위원장 김병용
 남서울지부 지부장 이충석
 본조 총무부장 변시현
- ④ 아시아 17개국에서 125대표가 참석. 본 회의에서는 1975년 10.18-19 (제 3 회 아시아지역회의, 일본 고텐바에서 개최됨) 이후의 아시아지역 ①실업문제 ②인플레이션 ③주요금속산업분과

의 발전상 ④단체협약 체결사항 ⑤파업, 직장폐쇄 및 여타 노사
사분규 ⑥다국적기업 ⑦조합원 및 조합재정 ⑧주요 조합활동
⑨노동조합 단결사항 ⑩주요노동입법 등이 토의 됐고 특히 아
시아의 노동조합권 문제가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 본 회의
에서는 결의문과 아시아 노동조합권에 관한 헌장이 채택되었다.

아시아 노동조합권 헌장(발췌)

아시아지역에서 쟁취되어야 할 노동조합권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
과 같다.

- ① 어떤 차별도 없이 조직을 설립하고 조직에 가맹할 노동자의
권리
- ② 스스로 선정한 조직을 설립하고 가맹할 노동자의 권리, 즉
국가의 개입에 의한 노동조합의 통일이나 단일체가 있어서는
안되고 정부는 각 노동조합을 균등히 처우할 것
- ③ 사전 승인없이 조직을 설립할 권리
- ④ 자유로히 기능하는 조직을 설립할 권리, 즉 규약이나 세칙을
기초할 권리, 정부가 규정하는 정치적 규칙에 얽매이지 않을
권리, 조합의 내부운영에 대한 당국의 의사기술이 행해지지 않
을 것,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일이 강제적이 아닐 것, 조
합세칙에 강제적 모델이 적용되지 않을 것.

- ⑤ 대표를 자유로히 선출할 권리, 즉 후보자가 동일 직업에 속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을 것, 정치적 차별을 행하지 않을 것, 당국에 의한 사전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결과에 대해 당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 재선을 금하지 않을 것.
- ⑥ 조직기구를 조직하고 활동을 수행하며 활동계획을 책정할 권리, 즉 정부의 감독을 배제할 것, 외부 전문가의 활용을 금하지 않을 것, 활동을 규제하지 않을 것.
- ⑦ 노동조합이 독립된 재정관리를 행할 권리, 즉 조합비의 액에 관한 규제를 하지 않을 것, 정부가 노동조합기금을 감독하지 않을 것, 재정남용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재정관리하는 것을 막을 것.
- ⑧ 당국의 개입없이 노동조합을 운영할 권리, 즉 예외적인 경우만 외부가 통제할 것, 정부에 의한 노동조합간부의 해임이 일어나지 않을 것, 선거결과에 간섭하지 않을 것.
- ⑨ 해산 및 정지에 대한 보호권리, 즉 법적수단 또는 행정수단에 의해 해산된다거나 기능이 정지되는 일이 없을 것, 독립된 노동조합으로부터 정부지배하에 있는 노동조합으로 노동조합자산을 이전시키지 말 것.
- ⑩ 연합체 및 총연합체를 조직할 권리, 즉 스스로의 선거에 따라 연합체나 총연합체를 설립하고 가맹할 권리, 노동조합이나 연합체의 최저수를 제한하지 않을 것, 중앙노동조합조직의 단일화를 강제하지 않을 것.

- ⑪ 국제 조직에 가맹할 권리, 즉 정부의 허가, 합의에 관계없이 가맹 및 탈퇴, 상호 간행물을 교환할 권리, 정부의 승인없이 기금을 받을 권리, 국내의 대표가 국제 회의에 참가할 권리, 객관적 기준에 따른 비자의 인가
- ⑫ 반조합적 차별에 대한 보호권리, 즉 조합활동을 이유로 강제 퇴직당하는 일이나 강등, 배치전환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
- ⑬ 노동조직의 문제에 사용자가 개입하는 것을 막을 것.
- ⑭ 교섭을 행하고 노동협약을 체결할 권리, 즉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적 조직에 의한 교섭의 권리, 정부가 특정 단체와의 교섭을 강제하지 않을 것, 법률조항에 의거해 노동협약을 정지시키지 말 것, 단체교섭의 결과에 대해 사전승인 요건을 두지 않을 것, 국가경제정책에 단체교섭이 강제적으로 종속되게 하지 말 것.
- ⑮ 직업상의 이익을 지키고 촉진할 합법적 수단으로서의 파업권.
- ⑯ 집회의 자유.
- ⑰ 노동조합의 집회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부터의 자유.
- ⑱ 사전의 인가 및 통제없이 스스로의 장소에서 집회를 가질 권리,
- ⑲ 대회를 개최하고 그 의제를 책정할 권리.
- ⑳ 대중집회를 열 권리.
- ㉑ 회의, 간행물 및 기타 노동조합운영에 있어서의 자유.
- ㉒ 인간을 보호하고 법률의 정당한 과정을 보장받을 권리.
- ㉓ 운동의 권리.
- ㉔ 직장출신 및 외부로부터의 노동조합 대표가 작업장에 출입해

조합원과 자유로히 얘기를 나누며 회합을 갖고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화하며 조합의 선전활동을 행하고 기업의 구내에서 조합비를 징수할 권리.

㉔ 총파업 및 동정파업을 할 권리.

14. 제 8 회 아시아 청부인 심포지움 참석

① 일 시 : 1979.2.6 ~ 2.15 (10일간)

② 장 소 : 타이탄 타이페이

③ 참석자 : 본조 사무국장 최종규

웨어차일드지부 지부장 김봉훈

콘트롤데이타지부 지부장 이영순

④ 본 심포지움에서는 청년 및 여성근로자의 실업문제, 기술훈련 문제, 이들에 대한 조합정책이 토의되었다. 이들의 문제는 선 후진국을 막론하고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유엔에서는 1976 ~ 1985 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선포했고 1979 년을 세계 아동의 해로 선언한 바 있지만 문맹·실업 및 잠재 실업,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 및 여성천시를 강요하는 봉건적 유습 또는 이러한 것들의 악순환이 뿌리 깊은 아시아제국에 있어서는 특히 심각한 문제성을 던져 주었고 본 심포지움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히 제기되었고 노동조합에 의한 해결이 추구되었다. 싱가포르 급속노조의 노조에 의한 탁아소 운영은

많은시사를 던져주고 있다.

Ⅱ. 외 국 노 조 간 부 방 문

1. IMF-ROCC (중화민국위원회) 대표 방 문

- ① 일 시 : 1978.5.19~5.25 (7 일간)
- ② 목 적 : 본노조 '78 대의원대회 참석 및 상호교류
- ③ 방 문 자 : IMF-ROCC 상무위원 朱啓照
대만성기계工会 감사 李達來
대만鋁業公司工会 상무이사 王平昌
臺中船井전기工会 상무이사 施吉信
- ④ 활동사항 : 본노조 정기대의원대회 참석 및 기아산업지부, 금성
통신지부, 금성전선지부 등의 노조 및 사업장 방문 (78.5.19

2. IMF-JC 대표 방 문

- ① 일 시 : 1978.5.19 - 5.21 (3 일간)
- ② 목 적 : 본노조 '78 대의원대회참석 및 친선교류
- ③ 방 문 자 : 전금동맹 집행위원장 畑 俊光
전금동맹 부조합장 木下真吉
IMF-JC 사무차장 小島正剛

- ④ 활동사항: 본노조 정기대의원대회 참석 및 기아산업지부, 금성통신지부, 금성전선지부 등의 노조 및 사업장 방문 (78.5.19)

3. IMF-JC 전금동맹 간부 방문

- ① 일 시: 1978.6.10~6.12 (3 일 간)
 ② 목 적: 전금동맹 간부 30명 내한에 따른 사전협의차
 ③ 방문자: 전금동맹 국제부차장 사이토

4. IMF-JC 간부 방한

- ① 일 시: 1978.10.26 ~ 10.27 (2 박 3 일 간)
 ② 목 적: 제 15 회 간부교육 강의차
 ③ 방문자: IMF-JC 사무국 차장 미끼고로오시
 ④ 활동사항: IMF-JC 의 임금정책 강의

5. IMF-JC 철강노련 간부방문

- ① 일 시: 1978.7.7 ~ 7.10 (4 일 간)
 ② 목 적: 친선교류차
 ③ 방문자: 小松茂 (중앙집행부위원장) 의 5명
 ④ 활동사항: 본조 일신제강지부 및 당해사업장 방문 (78.7.8)
 및 친선교류

6. 터키금속노조 간부 방문

- ① 일 시 : 1978.9.1 ~ 9.3 (3 일간)
- ② 목 적 : 친선교류
- ③ 방문자 : 카산 카플리 사무국장의 3 명

7. IMF 사무총장 일행 방문

- ① 일 시 : 1978.9.6 ~ 9.7 (2 일간)
- ② 목 적 : 친선방문
- ③ 방문자 : IMF 사무총장 허먼 렘헌
IMF-JC 사무차장 小島正剛
- ④ 활동사항 : 본조 및 기아산업지부와 당해사업장을 방문하고
(78.9.7) 노총 및 노동청 방문

8. 미국 판매원노련 (RCIU) 의 기아산업방문

- ① 일 시 : 1978.9.23
- ② 목 적 : 사업장 방문
- ③ 방문자 : 사무엘 킨소라 (RCIU) 간부 외 7 명

9. IMF-JC 전금동맹 주단조부회노동사정시찰단방문

- ① 일 시 : 1978.10.5 ~ 10.8 (4 일간)

- ② 목 적 : 노동사정시찰 및 친선교류
- ③ 방문자 : 竹村利雄 (栗木철공노조) 외 15 명
- ④ 활동사항 : 본조 및 대한중기지부와 대우중공업지부 그리고 당해
사업장 방문 (78.10.7)

10. IMF-JC 관동지방연합회 천엽지구방문단 방문

- ① 일 시 : 1978.10.19 - 10.22 (4일간)
- ② 목 적 : 친선교류
- ③ 방문자 : 平下勝 (新日鉄노련 君津노조 서기장) 외 15 명
- ④ 활동사항 : 친선교류 (서린호텔에서 '10.20)

11. 전금동맹 도표지방동남아노동사정시찰단 방문

- ① 일 시 : 1978.10.27 ~ 10.28 (2일간)
- ② 목 적 : 친선교류 및 사업장 전학
- ③ 방문자 : 烟 俊光 (전금동맹 동경지방 금속집행위원장) 외 17 명
- ④ 활동사항 : 본조 및 금성통신지부와 기아산업지부 그리고 당해
사업장 방문 및 전학 (10.28)

12. IMF-JC 지방연합대표 동남아 노동사정시찰단방문

- ① 일 시 : 1978.11.20~11.22 (3일간)

- ② 목 적 : 친선교류 및 노동사정시찰
- ③ 방문자 : 松本 功 (IMF-JC 사무차장) 외 17 명
- ④ 활동사항 : 본조 및 기아산업지부와 대한전선지부 그리고 당해
사업장 방문 및 견학 (11.21)

13. IMF-ROCC 철강부회 방문단 방문

- ① 일 시 : 1979.1.4 ~ 1.5 (2 일간)
- ② 목 적 : 친선교류
- ③ 방문자 : 劉克忠 (唐榮工会副理) 외 12 명

14. 스웨덴 금속노조 방문단 방문

- ① 일 시 : 1979.2.7 ~ 2.13 (7 일간)
- ② 목 적 : 한국노동사정 특히 수출자유지역 노동사정시찰
- ③ 방문자 : 스웨덴 금속노조 위원장 베르트룬딘
스웨덴 금속노조 부위원장 스티그 말름
스웨덴 금속노조 국제서기 잔 울손
스웨덴 금속노조 신문편집인 열데

15. IMF-ROCC 교문 방문

- ① 일 시 : 1979.3.9 ~ 3.12

② 목 적 : 부산시협의회 근로자의 날 참석

③ 방문자 : IMF-ROCC 고분 린 휴안 휴

16. IMF-ROCC 사무차장 방문

① 일 시 : 1979.2.17 ~ 2.18

② 목 적 : 일본 세미나 참석

③ 방문자 : IMF-ROCC 사무차장 치우칭 웨이

17. 미국 기계공 노조 국제담당방문

① 일 시 : 1979.3.23-3.25 (3 일 간)

② 목 적 : IAM(미국기계공노조) 주최

아시아지역 세미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 위한 회합을
갖기 위해

③ 방문자 : 미국기계공노조 국제 담당 벤 샤만

④ 활동사항 : 회합 및 사업장 방문 (웨어차일드 지부 , 대우중공업
지부)

III. IMF 활동

1. '78 IMF 중앙위원회

IMF 규약상 IMF 중앙위원회는 세계대회에서 결정된 활동방향을 추진할 책임기관이다. 78년도 중앙위원회는 9월 27일 - 9월 28일 양일 일간에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렸다. 본 회의에서는 「80년대에 있어서의 에너지 대책」, 「인권」, 「노동조합권」, 「완전고용대책」, 「3자 구성의 철강위원회」 등 6개의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에너지에 관한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의 충분한 공급은 완전고용에 있어 필요하다. 에너지의 충분한 공급없이 경제성장이 둔화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실업의 증대일 것이다.

한편 에너지의 형태, 경제성장, 고용간에는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 및 미래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고 완전고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유효성, 자원개발의 종류에 대해 직접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1. 현존 자원의 조사에 의하면 각종 화석연료가 조만간 고갈되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회의에서는 각종 사적 공적 낭비를 없애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보존 및 절감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IMF는 현재 법제화되고 있는 자동차연료효율의 향상과 같은 경우를 조사, 각국에서 시행케 한다.

1. 핵 및 그의 모든 에너지원의 생산이용 재처리에 관해 엄격한 조건을 두는 것이 그들의 이용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 조건이라는 것은 안전, 위생, 환경, 정치, 군사의 측면이다. 핵 분열성 물질의 군사적 이용은 국제협정을 통해 막아야 한다.
1. 현재의 유해에너지원을 대체하기 위해 태양열, 조류, 바람, 지열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1. 에너지원의 생산과 분배, 이용은 공적관리하에 놓여져야 한다. 다국적 석유기업이 합병해 공급 및 가격을 조작하는 경향을 정지시켜야 한다. 공중과의 광범한 합의, 노동조합과의 협력에 의해 국내 및 국제적인 정책을 입안해 실천해야 한다. 에너지 정책에 관한 각종 결정 특히 원자력발전소나 재처리공장의 건설이나 입지결정은 관계 당사자의 광범한 협의를 거쳐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1. 에너지를 개발·이용할 재정수단이 없는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사정은 그들의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에너지가격으로 그들은 곤란에 처해 있는 것이다. 개발국은 그들에게 저렴한 에너지와 에너지 개발기술을 이전할 필요가 있다.
1. 에너지 편재로 야기될 수 있는 분쟁을 막기 위해 에너지 공급과 가격결정에 관한 국제적인 상충협정이 체결될 필요가 있다.

2. 제 4 회 IMF 아시아지역회의

1978년 11월 14일 - 16일에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서 채택된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IMF가맹 아시아 국가들은 아시아 몇몇지역의 노동조합권 및 인권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며 다국적 기업의 활동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자료조사 및 정보교환을 하며 선진국이 유엔의 최저기준인 GNP의 0.7%를 개발도상국에 이전할 것을 요청하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도 요청한다.

IMF가맹 아시아 노동조합들은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 적극적 활동을 전개한다.

1. 빈곤일소

1. 농촌과 도시간의 균형을 위해 중장기계획수립

1.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한 근로조건 및 임금을 보장하며 보건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점진적인 부가급부, 유급휴가의 확대,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정책수립

1. 공공직업훈련 강화

1. 강력하고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금속 노동조합의 확립

1. 노동조합교육의 강화

1. 노동조합의 연구조사 강화

1. 아시아 노동조합권에 관한 IMF현장구현을 위한 집중적 노력

3.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상설철강위원회 신설

철강위원회의 3 자기구 구성원칙에 관한 '77 I L O 이사회 및 '78 IMF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IMF 는 OECD 상설철강위원회의 부서위원회에 근로자 대표를 참가시키는 문제에 대해 접근을 하고 있다. 동위원회에는 한국, 말레이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참여가 개방되어 있어 동위원회에 본 노조 대표가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교섭한 바 있으나 우리정부의 참여 문제가 아직 미결상태여서 본 노조대표의 참여문제의 결정도 보류되고 있다. 동 위원회의 부서위원회에 참여하는 노조대표는 정기부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철강 관련 다국적기업의 활동결정에 노조측의 요구를 반영하게 될 것이다.

4. 말레이시아 노동조합권에 대해

말레이시아의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설립은 관할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고 노동조합 및 조합의 범위가 관할당국의 해석에 의존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7 개의 금속관계 노동조합이 있는데 그 통합을 위해 노동조합측이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측은 노조의 통합이 힘의 증대에 이를 것을 두려워하여 통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78 IMF 중앙위원회, IMF 아시아지역회의, IMF 아시아청부인 심포지움에서 그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된 바 있고 말레이시아 노동장관으로 하여금 조속히 통합을 인정케 하는 결의문을 IMF 각 가맹단체들이 발송토록 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5. 튀니지아의 노동조합권에 대해

1978년 1월 26일 튀니지아에서는 가스, 전기, 수도부문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24시간동안의 총파업이 발생했다. 이 결과로 수십 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튀니지아 노동총동맹 사무총장 하비브 아코르의 100여명의 노조간부가 연금되었다. 또한 이들은 국가원수모독죄, 불법집회, 약탈죄,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다.

국제자유노련(ICFTU) 및 IMF는 튀니지아 정부의 노동조합권에 대한 정면도전을 중시해 사실조사에 나갔고 IMF는 '78 중앙위원회에서 튀니지아 노동조합권 및 연금된 노조간부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6. 다국적 기업에 대한 활동

현재의 IMF 활동노선을 정한 지난 문헌세계대회에서는 다국적기업에 관한 자료조사 및 다국적 기업에 있어서의 노동조합권 보장은 임박한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1978년 5월 30일 - 6월

1 일 데트로이트에서는 세계자동차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
서는 모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본사의 최고 경영진에 개입하는
것이 다국적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내려졌
고 제너럴 모터즈, 포드, 크라이슬러 본사의 경영자 대표와의 회합
도 열렸다.

한편 파리에서는 SKF (스웨덴의 볼베어링 생산 다국적기업)를
대상으로 하는 세계기업협의회가 열려 인도 소재 SKF 자회사인
아소웨데트 베어링 컴페니 (ABC)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결정이 내려져 스웨덴 금속노조의 지원으로 해고된 24 명의
ABC 노동자가 복직되게 됐다. 한편 싱거그룹의 생산입지 조사에
대해 78년 4월 8일 런던에서 IMF 싱거그룹의 긴급회의가 개최되
었다. 싱거그룹의 조사가 공장의 이동 즉 대량실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싱거그룹의 활동을 노조가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싱거그룹의 글라스고우 공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2~3
년내에 2,000 내지 5,000의 노동자들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자
글라스고우 회의를 조직했으나 회의는 개최되지 못했다. IMF
는 또한 인도의 지멘스와 필립스·말레이시아의 스트레이스 트레이
딩 컴페니와 타이의 스즈키, 남아프리카의 레이랜드, 폭스바겐, 벤츠,
포드, 제너럴 모터즈, 메탈 폭스, 브라질의 셉 스카니아, 포드, 폭스
바겐, 크라이슬러, 벤츠 등의 다국적기업에 개입해 활동을 전개했고
에버레디 배터리 종사 근로자들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적인
불매운동을 벌인바 있다. 에버레디 배터리는 스리랑카, 폴란드, 나

이제리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서독,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시아, 미국, 이탈리아 등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영국계 다국적 기업이다.

<자료>

제 24 회 IMF 세계 대회 결의문

<지난 1977년 10월 24 - 28일 서독뮌헨에서 열린 동세계 대회에서는 제 25 회 세계 대회까지의 IMF 활동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 결의문은 제 25 회 세계 대회까지의 IMF 활동의 원칙을 정한 것으로 IMF의 제반 활동은 이 원칙에 의거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더욱 효과적인 IMF 활동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요약 게재한다.>

1. 세계 평화에 대한 결의문

세계 정치에 있어 중요한 우선사항은 긴장완화, 비무장, 평화의

유지에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를 위해 투쟁하고 대립된이데올로기간의 이해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우리는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지적 군사행동과 레바논의 시민전쟁, 아시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희생된 자들에게 조의를 표한다. 또 키프러스, 중동, 남부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관계국의 교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당해 노조가 평화의 정착에 노력해줄 것을 권고한다.

우리는 무장경쟁, 뿌리깊은 국제적 무기무역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국제적 감축을 위한 교섭이 이루어져야 하고 위기가 존재하는 지역에 무기 수출을 금할 것을 요구한다.

핵무기의 생산, 사용, 수출은 금지되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의 공급에 관한 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그것이 군사목적에 오용되지 않도록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평화는 세계의 빈곤, 불평등, 무지 및 착취의 배제를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신념을 확인한다.

2. 인권 및 노동조합권에 대한 결의문

우리는 유엔등 각 기관의 보고에 의해 나타난 세계 많은 지역의 인권침해의 정도 및 그 성질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우리는

앰베스티의 <양심범의 해>를 지지 한다.

우리는 어디든 존재하는 과거 또는 현재 투옥되어 고문을 받고 있는 우리의 동지들을 위해 그들이 조속히 석방될 것을 요구한다.

1948년 유엔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을 거듭 지지 한다. 국제적 비판 및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인권침해를 국내문제로서만 처리하는 사태가 시정될 것을 요구한다. 일반적 인권, 사회적 권리, 노동조합권이 규정되어 있는 1966년도 유엔의 인권에 관한 국제적 협약이 조속히 조인 비준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급선무이다. I L O 조약 제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조약), 제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조약)의 비준 및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결집된 I M F의 요구를 통해 관철시킨다.

3. 남아프리카에 대한 결의문

인구 대다수에 대해 시민권을 부정하고 있는 남아프리카의 인종 분리정책을 비난한다. 흑인노동자의 노동조합권과 노동조합조직을 부정하는 사태를 단호히 배격한다. 소에트의 대학살, 물가상승, 실업증대, 특히 경기후퇴의 영향으로 고심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중의 불만증대에 대해 1976년에 채택된 I M F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재확인 한다.

4. 경제적 사회적 남녀평등의 전면적 실현에

관한 결의문

남녀간의 평등한 대우 및 기회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경기 후퇴로 악영향을 받고 있다. 여성의 높은 실업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차별의 철폐를 요구하는 여성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여성으로 하여금 가정에 머물도록 하는 갖가지 유인을 배격한다. 노동조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가내노동에 의해 여성을 착취하는 행위를 비난한다. 여성을 가정에 묶어둠으로써 해결되는 실업해소책을 비난한다. 취업을 원하는 여성에게 평등한 채용기회를 보장하고 교육 및 기술훈련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관습적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사태를 지양케 한다. 여성에 대한 평등한 권리의 보장이야말로 사회경제의 민주화에 결정적인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유지에 여성의 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여성이 가정일을 맡는 관습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정일 특히 자녀의 보호와 교육에 있어 남녀가 책임을 공정히 분배해야 한다. 우리는 남녀평등이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요하다는 것을 조합원에게 깊이 인식시키고 이 사항을 조합훈련계획에 포함시킨다. 우리는 여성보호가 사회적 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지하며 자녀교육과 보호에 필요한 사회시설의 설립을 위해 행동한다. 노동조합은 여성의 조직화를 더욱 추진하고 여성의 노동조합훈련을 강화하며 노조에의 여성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도록 한다.

5. 청소년노동자에 관한 결의문

우리는 청소년층의 대량 실업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이의 해결을 위해 각가맹노조는 실업의 정치, 경제, 사회적 원인을 해명하고 정부로 하여금 청소년층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며 청소년의 조직화 및 교육훈련을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청소년이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6.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결의

노동시간의 단축은 고용증대, 훈련기회의 증대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노동시간의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나 작업량 증대가 있어서는 안된다. 노동시간 단축은 최대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세계적 규모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실업급부금도 지급되므로 국가의 재정상으로도 노동시간 단축은 무리가 없는 것이다. 노동시간단축의 방안으로 1일당, 월당 노동시간 단축 유급휴가 증가, 교대작업 노동자 및 육체적 정신적 긴장을 수반하는 직종의 노동자에 대한 노동시간의 단축, 유급휴가 및 휴식시간의 연장, 훈련에 대한 유급휴가제공 및 유급교육휴가, 취업시간중의 유급 노동조합활동, 보통교육의 연장, 완전급부를 수반한 조기퇴직계획,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노동시간의 점진적 단축, 파트타임 취업, 자녀의 탄생 또는 질병의 경우 양친의 결근 등이 있고 공동행동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침을 설정한다. 시간외근무 규제, 노동의 시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 1 주 5 일 40 시간 노동제의 세계적인 도입, 주 35시간제를 요구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것의 신속한 관철, 연차유급휴가는 최저 4 주로하고 6 주를 향해 계속 노력, 연속조업이 기술상 불가피한 분야에서는 5 교대제 도입

7. 원자재 및 에너지에 관한 결의문

원자재 및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은 고용, 경제발전 및 사회진보를 위태롭게하고 정치적 긴장을 야기할 것이다. 강력한 다국적 기업에 의한 투기는 중지되어야 한다. 또 다국적 석유기업이 공급량과 가격을 조작하고 각국경제에 개입하는 사태를 방지해서는 안된다. 원자재 및 에너지 생산국은 더이상 그것들을 정치적 압력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원자재나 전통적인 각종 에너지는 언젠가는 고갈될 운명에 놓여있고 따라서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책임있는 건설적인 보호관리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원자재와 에너지를 각국이 평등히 확보하는 것은 완전고용을 달성하는데 있어 결여할 수 없는 조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 원자재 생산국, 개발도상국간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한편 원자재 및 에너지에 대한 정책은 경제성장이나 고용확보의

목적 이외에도 환경 보전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공공당국은 에너지의 개발, 분배, 이용이 사회전체의 이익이 될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을 위임받아야 한다. 원자재에 대한 투기이윤은 세금으로 흡수함으로써 투자를 배제해야 한다.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할 경우 그개발을 탐욕스런 다국적기업에 맡겨서는 안되고 정부의 주도·관리하에 있도록 해야한다. 우리가 앞으로 개발·이용할 에너지는 지열, 태양열, 바람 조력 유기폐기 물질등이고 공해를 유발하지 않고 경제적인 모든 에너지를 다 개발해야 한다. 핵에너지의 경우 안전, 위생 환경의 문제가 심각히 고려되지 않으면 안된다.

8. 산업민주주의에 관한 결의문

- 가. 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채널의 확립
- 나. 노동조합의 완전한 자유, 결사의 권리, 단체교섭의 자치 및 파업권의 확보는 직장, 기업 및 경제 전체에 있어서의 민주화를 달성하는 기본이다.
- 다. 끊임없는 교섭을 통해 기업정책의 전반에 대한 노조의 영향력을 발휘
- 라. 산업민주주의의 주요한 전제조건은 해고 또는 강등과 같은 사용자의 보복으로부터 노동자 및 노동조합을 보호하는데 있고 노동조합 대표가 그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확보하는데 있다.

경영자의 결정이란 노동자와 그의 가족생활에 일상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생산계획에 따라 노동자는 타의로 해고를 당하게 되고 기업의 재정상태가 악화되면 압박을 받는 것은 우선 노동자 측이다.

산업민주주의는 노사관계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에 따라 각국에 있어 그 양태가 다르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있고 특히 금속산업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진출로 각국에 공통성이 있어 어떤 정도의 지침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IMF차원에서 취급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이하의 목표를 지지한다.

가. 회사인사, 생산, 투자정책의 계획에 관한 정보수집을 신속화하는 것

나. 이들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이 참가가 단지 협의에 그치지 않도록 한다.

다. 노동자 및 경영자에 의해 제안된 심의사항을 토의하기 위한 경영자와의 정기적 회의

라. 노동조합활동에 드는 비용의 기업측 전액부담

마. 조합원을 훈련하고 원조하기 위한 시설을 조합내에 설치하도록 조치할 것.

9. 개발도상국에 관한 결의

유엔등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관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또 전후 세계경제 전체가 상당한 성장을 거두었음에도 개발도상국은 미사여구와는 달리 실업 불완전취업, 기아, 결핍으로 가득차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 경기후퇴, 실질경제성장의 감퇴로 현재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위험하에 놓여 있다.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가로 놓여 있는 충격적인 모순을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민주개혁의 실행, 사회적 진보의 가속화에 반대하고 있는 세력들을 배격해 마지 않는다.

여러가지 형태의 독재주의 통치 및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위배된 거대기업이 휘두르는 경제권력도 배제되어야 한다.

공업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교섭에 있어 구체적 진전이 없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진보에 대한 광범한 개발계획의 개시에 있어 선진국이 충분히 원조하지 않고 또 사회발전을 촉진시키기 보다는 군비를 증강시키는데 열중하게 함으로써 자본을 낭비하고 오용하게 하는 사태를 방관할 수 없다.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의 요구가 유흥생산시설이용, 국제계획의 효과적 적용, 인적개발 및 천연자원의 개발을 통해 충족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인권을 보편적으로 승인한다는 것은 사회발전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천명한다.

IMF는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민주제도 확립 및 노동조합권의 확보를 위해 노동조합 및 그것의 국제적 연대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그것들의 확보를 위해 국제적 운동 및 홍보활동을 조직하고 필요한 경우 다국적기업 기구에 노조가 개입할 여러가지 가능성을 개발한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의 국민들로부터 들려오는 다음과 같은 요구들을 지지한다.

봉건적 체제나 소수 또는 사회적으로 무책임한 상류계급 및 군사독재자의 정치적 지배 증식 및 경제 사회의 민주화, 세제 및 토지를 개혁해 공정하고 능률적인 행정을 확립, 문맹을 일소하고 직업훈련 및 교육제도 전반을 확대 개선, 국가계획을 통해 학교 및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보건서비스 및 사회보장을 발전시켜 그것들을 전국민이 향유하도록 보장, 효과적인 투자정책 및 민주적 사회적 통제에 의해 외국의 경제적 지배로부터 전국민의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 자율적인 경제적, 사회적 개발계획을 통해 그 나라의 천연자원을 스스로 개발·가공할 수 있도록 민족산업의 건설을 촉진.

우리는 공업화계획 및 다국적기업의 투자가 그대로 자동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이익이 되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단지 그나라의 종합적 계획하에서 그것들이 활용되어 필수적인 경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노동자 및 그의 가족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경우에만 그것들은 개발도상국 국민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I M F 는 새로운 세계경제체제를 요구하고 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실행될 것을 요구한다.

노동조합이 정책 및 계획의 입안 및 적용에 효과적으로 참가할 권리를 갖도록할 것. 개발도상국에 그들의 사회적 요구와 경제발전을 충족시킬 생산설비의 설립, 국내자원의 이용은 우선 개발도상국 국민을 이롭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농촌지역 및 과밀도시에 존재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기술을 이용하고 농업부문을 촉진함으로써 고용증대를 가져오는 개발도상국의 공업화, 개발도상국의 기아를 배제하기 위해 유엔식량농업기구 (F A O) 의 기관 및 기금의 활용, 원자재에 대한 투기를 종결시키고 공업국에 대한 원자재 공급을 보증하며 또 개발도상국의 제1차 산품수출 및 완성품에 대한 안정시장과 공정가격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협정체결 및 안정기금설립

10. 사회 경제문제에 관한 결의문

최근의 경제불황 및 느린 경제회복 추세가 보여주는 바와같이 국내, 국제수준에 있어서의 현재의 사회, 경제기구의 결함 및 정책의 부적절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세계적 기아와 결핍, 대량실업 등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것은 이윤추구욕구, 제멋대로 날뛰는 경제권력, 착취와 억압 및 사회적 요청에 대한 자유시장의 무능력등이다. 인플레이션, 만족할만한 세계통화제도의 부재, 전세계에 뿌리를 뻗고 있는 다국적기업,은행의 권력증대, 사회적 영향력을

무시한 투자의 유동 및 기술이전 등이 우리의 앞에서 전개되고 있다. 완전고용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한다.

정부자금의 대량투입을 통한 실업근절,이윤목적의 투자가 아닌 고용창출의 투자, 경제확대를 자극하는 세제개혁 및 재정조치, 그와 동시에 세금포탈의 기회 봉쇄 및 공정한 소득분배, 노동자의 소득을 더욱 끌어올리고 결과적으로 투자를 증대시키는 자유로운 단체교섭,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보증, 경제기구의 결합시정, 미래의 고용기회에 필요한 계속적인 노동훈련, 결과적으로 생긴 경제성장의 과실을 공정히 분배함으로써 기술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케 한다.

노동시간 단축, 고용 및 소득보증 연금, 그외 복리급부의 개선, 노동조건위 인간화 및 공장·산업수준에서의 민주화 등에 대한 단체교섭을 위해 노력한다. 기존의 경제적 및 장래의 성장분을 소득불평등의 축소, 주택, 도시복구, 교육, 건강 및 환경복구와 같은 필수영역에 더욱더 배분하도록 한다.

위험한 작업부문에 대해 특히 역점을 두며 공해를 막기 위해 싸운다. 과대한 부채,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한 과대한 과실송금 및 국내자본의 유출로 고심하고 있는 발전도상국의 신속한 발전을 위해 관심을 기울인다.

자원의 허용범위를 넘고, 생활수준 향상을 지연시키는 인구폭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지한다.

모든 정부가 무기에 대한 자살적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대신

그들 재원을 인류에게 긴급한 물품을 공급하는데 이용토록 촉구한다.

IMF는 각국 정부에 대해 이하의 목적을 위해 진밀히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종합적인 경제성장을 자극하고 세계적인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인플레이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세계경제의 전진한 발전에 필요한 질서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일반적 정책 및 경제계획의 조정.

자본집중의 제한, 독점기업통제 기관간의 협력, 다국적기업 및 주요 은행에 대한 효과적인 경제적 사회적 규제의 설정, 개발도상국이 어떠한 외국지배로부터도 독립케 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원조,

공정한 임금 및 노동조건, 원자재가격의 안정화, 이것은 개발도상국이 스스로의 국민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자원을 통제하고 보다 유리하게 사용하는 것을 가능케 하며 또 이들 각국의 수출이 스스로의 복지증진에 기여토록할 것이다.

한편 IMF는 공정한 세제무역을 주장한다. 어떤 나라가 수출 원조, 담핑, 통화조작, 역행적인 국내경제정책을 통해 실업을 다른 나라에 이전하려고 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단, 국가자본주의와 다국적기업이 손을 잡고 정치적배경을 기반으로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담핑행위나 공산주의 국가의 담핑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수출국에 있어서의 노동자는 표준이하의 임금, 노동 및 사회조건을 통한 착취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되지 않으면 안된다. 노동조합의 힘,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 및 모든 수준에

있어서의 민주화는 경제발전, 사회진보, 고용의 창출과 확보, 구매력 및 노동자생활의 양상에 있어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고 생각된다.

11. 다국적기업에 대한 결의문

다국적 기업은 생산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최고관리자에 의해 결정되고 운영된다. 본사는 투자계획, 지령, 특히 생산의 이전을 통해 노동자와 사회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

이것은 공업국과 개발도상국의 기존의 고용과 새로운 고용기회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은 그의 세계적 시설을 통해 끝없는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그 세계적인 전략은 많은 경우 특정국의 사회계획 및 경제계획에 아무런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들 기업의 이윤추구적 자본이동은 세계경제를 심각하게 혼란시키고 있다.

자기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의 힘과 국내법에 의해 구속되지 않을 수 없는 다국적기업이 독재국가에서는 가끔 전혀 다른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 독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탄압적인 정부와 협력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탄압한다. 이러한 경우 다국적기업은 표현의 자유 및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부정하고, 인종차별 및 차별대우의 관행을 실시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조합의 인정을 받기 위해 의연히 투쟁하고 있는 곳에서는 다국적기업은 가끔 전

투적인 조합활동가를 희생시키고 지배권력자와 협력하여 노동자를 착취한다. 다국적기업은 개발도상국의 저임금에 의존하여 자기나라의 고용사정을 악화시킨다.

강력한 노동조합은 다국적기업에 의한 권력의 남용에 저항할 수 있고 노동조합이 실력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나은 노동조건과 부가급부를 보장받고 있다. 이러한 다국적기업과 싸우기 위해 IMF는 다음과 같은 것을 한다.

다국적기업의 세계적인 구조에 관한 조사를 하여 국제적 노동조합의 연대를 인식시키고 다국적기업 관계의 노동조합들이 국제적 조직을 갖도록 한다. 또한 다국적기업에 관한 정보취득 및 노동조합간의 정보제공 체계를 갖춘다.

모든 다국적기업에 있어서 노동시간을 최고 1일 8시간 주 5일제를 채택토록하고 최고의 보건 안전 기준을 적용토록 한다. 기타의 노동조건에 대해 기준을 설정하고 국제적인 평균화를 가져오도록 노력한다.

IMF는 관계 가맹조합과 협력하여 필요에 따라 어느 노조의 단체교섭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해당 다국적기업의 단체협약을 수집 분석한다.

노동쟁의의 경우 IMF가맹조합은 해당조합에 대해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제공한다. 구체적 활동으로는 파업중 이동된 생산의 거부, 파업으로 손실된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시간의 근무거부, 항의, 불매운동 등이다.

다국적기업 모기업에 종사하는 노조대표자는 자회사의 노조를 대표해서 다국적기업에 개입한다.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연락 대표제를 둔다.

IMF는 다국적기업 담당부서를 통해 몇몇 다국적기업을 선별한다. 자동차, 전기전자, 일반기계의 IMF 각 세계 협의회는 IMF 다국적기업활동 계획에 따라 협의회 활동을 강화한다.

IMF와 다국적기업 경영진과의 회기가 계속 유지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회합을 통해 공장 및 국제적 수준의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

12. 건강 및 안전에 관한 결의문

작업장 내외의 설비, 원료, 환경 및 공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에서 급속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IMF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이다. 이의 관철을 위해 우리는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건강보호와 안전의 분야에 관한 노동협약 및 입법 대상범위의 확대, 협약상 및 법상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조합 안전위원회 설치, 안전, 위생에 대한 훈련의 보증, 생산속도, 분진, 소음 등에 대한 노동조합의 영향력 강화, 위험이 존재하는 작업을 거부할 권리, 새로운 작업 물질이 도입될 경우 사용자가 그 안전성 여부를 조사토록할 것, 만일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을 막을 방어 수단을 강구토록 할 것.

IMF는 이러한 안전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한다. 위험한 작업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위험을 발견하고 보호 조치를 강구하며 위험물의 허용한도치를 설정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안전조치를 도입한다. 다수의 위험작업물질은 사용금지시키며 충분히 시험된 다른 재료를 개발·이용토록 한다. 사용자는 공장에서 사용되는 물질을 완전히 공개해야 하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경고표시가 사용되어야 한다. 국제적인 조사, 조사활동에의 노동조합의 참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13. 화이트 칼라 노동자에 관한 결의문

컴퓨터 가동을 포함한 새로운 사무기술로 보다 적은 노동자가 보다 많은 노동을 부과받는다는 화이트 칼라의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화이트 칼라의 이익이 전노동자와의 연대 속에서 지켜지리라 믿는다.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의 이해가 다르다는 주장을 우리는 그릇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양자의 기본적인 단체 교섭요구가 조화될 때에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

14. 직업훈련에 관한 결의문

교육은 노동·생활조건 개선, 진정한 기회균등의 확립, 노동자

참가 및 노동의 인간화와 같은 노동조합의 목표달성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노동자는 직종전환이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하고 사회적 및 기술적 발전에 따른 생산공정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적응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의 모든 수준에 있어서의 민주적 권리 및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되지 않으면 안된다. 최초의 직업훈련에 있어서는 과도한 전문화는 피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변화하는 고용구조에 적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초의 훈련은 여러가지 직종에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야 한다.

즉 적응성이 있어야 한다. 기업측은 직업훈련을 전문적인 것으로 하려하므로 이러한 기업측과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

<자료>

IMF 가맹 단체 일람표

1978년 10월 현재

국명	단체명	조합원수
<유럽>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금속 광산노조	190,000
벨기에	벨기에 금속노조중앙조직 (CMB)	140,000
덴마크	덴마크 금속노조중앙조직	85,000
	덴마크 금속노조	115,000
서독	서독 금속산업 노조 (IGM)	2,500,000
핀란드	핀란드 금속노조	152,000
	핀란드 기술직원연맹	16,000
	핀란드 봉급제 종업원조합	12,160
프랑스	프랑스 금속총연합 (FGM-CFDT)	120,000
	프랑스 FO 금속노조총연합	50,000
영국	IMF 영국지부	1,189,485
그리스	전그리스 전기노련	5,800
	전그리스 금속노련	15,000
	그리스 기계공-농업노련	7,500
	범헤레니 노동조합연맹	15,000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조선. 기계노조 (MSI)	1,657
아일랜드	아일랜드운수. 일반노조	15,000

국 명	단 체 명	조합원수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전국노련 (L A V)	10,300 명
말 타	말타일반노련	5,790
홀 란 드	전홀란드총동맹 (N V V) 산업노련	114,449
노 르 웨 이	노르웨이 금속철강노련	104,737
스 페 인	스페인 일반노련 (U G T) 금속노련	
	스페인 노동자연대 (S T V) 금속노련	
스 웨 덴	스웨덴 금속노조	454,313
	스웨덴 사무·기술직원노련 (S I F)	126,718
	스웨덴 감독직 노조	23,166
스 위 스	스위스 금속 시제노조 (F T M H)	120,534
<북아메리카>		
아메리카 및	全美 기계 공노조 (I A M)	550,000
카 나 다	" 友愛전기공노조 (IBEW)	280,000
	" 합동산업노조 (AIW)	40,000
	" 자동차·항공우주·농업기계노조 (UAW)	1,356,670
	" 알루미늄 노조	20,000
	" 전기·라디오노조 (I U E)	232,176
	" 판금공노조 (SMW)	25,000
	" 철강노조 (USWA)	1,300,000
	" 製罐, 鍛冶工노조	50,000
	" 鑄型工노조	30,000

국 명	단 체 명	조합원수
<라틴아메리카>		
알 제 틴	알제틴자동차기계 관련노조 (SMATA)	62,500 명
	알제틴광산노조 (AOWA)	12,000
브 라 질	상파울로주야금기계전기노련	52,000
	산타카타리주야금기계전기노련	3,750
	미나스 셀라이즈주 야금기계 전기노련	15,000
	리데오자네이로주 야금기계 금속전기노련	
콜 롬 비 아	콜롬비아야금전기기계노련 (FETRAMECOL)	12,500
	콜롬비아금속광산노련 (UTRAMMICOL)	25,000
자 마 이 카	전국노조보크사이트아루미늄부회	
코 스타 리 카	코스타리카금속노련 (SITRAMET)	
큐 라 소	큐라소조선노조 (CADMU)	1,000
	큐라소노련 (CFW)	1,600
도 미 니 카	도미니카금속노조 (SINOMAPE)	2,000
멕 시 코	멕시코자동차노조	12,500
	" 전기 전자 노조	12,500
	" 금속 기계 노조	12,500
파 나 마	파나마 전국금속 기계노조	2,000
페 루	페루중부광산 야금노련	10,000
	리마 카오산업기계야금 전기노련	3,750

국 명	단 체 명	조합원수
엘살바도르	금속관련산업노조	400 명
베네주엘라	베네주엘라금속광산기계노련	31,250
브라데이웨헨데라스	민주독립노조	
혼 데 라 스	혼데라스금속노조	
<아프리카>		
가 나	가나 공업·상업노조	2,000
케냐	케냐합동금속노조	15,000
	케냐 기계노조	9,000
리베리아	리베리아 기계관련노조	2,000
모리샤스	모리샤스 전기·기계노조	1,800
	" 운수·일반노조	1,100
모로코	모로코 합동금속노조	18,000
로데시아	로데시아 라디오·TV노조	2,800
	" 기계·금속노조	2,500
	" 보석공 노조	443
	I M F 남아프리카연락협의회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항만노조	1,000
	" 자동차 금속노조	2,000
남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연방 합동기계공노조	49,950
	" 라디오·TV전자관련노조	2,700
	"	

국 명	단 체 명	조합원수
	남아프리카 기계 관련노조	5,300 명
	" 전국자동차조립고무노조	6,404
	" 노조	
	" 鋳型製造製岳 철강·조선 노조	15,000
	" 웨스턴프로빈스자동차조립노조	
	" 전기 관련노조	
	" 주석 산업노조	550
	" 합동자동차·고무관련노조	1,180
	" 기계 산업노조	6,045
	" 전기노련	
세 라 레 오 네	세라레오네 공예 관련산업	7,000
	튀니시아금속노련	10,000
	우간다 광산·금속 관련노조	3,400
	우간다 전국사무·상업·기술공무원 조합	2,372
<중 동>		
키 프 러 스	키프러스산업·호텔종업원 노련	2,000
	키프러스 터키 석유·금속·광산노조	
이 스 라 엘	이스라엘전국금속·전기·전자노조	40,000
레 바 논	레바논 기계 공 노조	3,000
	레바논 空調器 종업원 조합	900

국명	단체명	조합원수
	레바논 노트기계 공노조	800명
	" 자동차기계공 금속노조	
터키	터키 조선노조	
	" 금속노조	
<남태평양>		
호주	I M F 호주 연락위원회	
	호주 합동금속조선노조 (AMSW)	100,000
	" 기계공협회 (A S E)	22,260
	" 전기산업노조 (E T U)	40,000
	" 철강노련 (F I A)	35,000
	" 차량노련 (V B E F)	33,000
피지섬	피지공장·산업노조	1,000
뉴칼레도니아	뉴칼레도니아 현업·비현업 종업원노조	2,500
뉴질랜드	뉴질랜드 기계차량항공기 관련산업노조	42,223
파푸아뉴기니아	부겐빌 광산노조	4,000
<아시아>		
뱅글라데쉬	뱅글라데쉬 금속노련 (B M F)	20,000
	" 금속노조동맹 (B M L)	13,253
중화민국	I M F 중화민국 위원회	134,682
홍콩	홍콩금속노조연락위원회	2,750

국 명	단 체 명	조합원 수
인 도	I M F 인도위원회 인도중앙철강, 기계노조위원회 인도전국금속노련 (INMF) 필립스중업원조합 심프슨 그룹 노조	명 212,500 538,851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산업일반노조	5,000
한 국	한국금속노조	123,227
일 본	전일본금속산업노조협의회 (IMF-JC)	1,889,844
말레이시아	I M F 말레이시아협의회 (IMF-MC) 말레이시아전기산업노조 (EIWU) " 금속산업노조 (MIEU) 말레이시아전국금속광산정련산업노조 " 기계제조중업원 노조 " 수송기기노조 마라야와다 제철노조 유나이티드모타워크스중업원노조	22,200 5,500 8,000 1,000 500 6,000 1,200
파키스탄	전파키스탄 노련 파키스탄 자동차·기계·금속노련	35,200 1,510
필리핀	I M F 필리핀협의회 (IMF~PC)	27,219
싱가폴	싱가폴 신흥공업노조 (P I E U)	16,000

국 명	단 체 명	조합원 수
스 리 랑 카 타 이	싱가폴 산업노련 (SILO)	30,000 명
	" 항공운수노조 (SATU)	3,000
	" 캐펠조선노조	1,618
	" 센바운조선노조	3,000
	스리랑카 금속산업노조	4,000
	I M F 타이 협의회 (IMF-TC)	4,500

婦 女 活 動

內

容

概 要

1. 第13回 婦女 및 年少勤勞者 保護強調期間 行事
2. 第 5 回 婦女幹部教育
3. 婦女幹部 座談會 開催
 - 1) 第 1 次 座談會
 - 2) 第 2 次 座談會
 - 3) 第 3 次 座談會
4. 女性幹部役割増大세미나
5. 勞總女性幹部 野營教育
6. 婦女部長 및 婦女業務擔當者 會議
7. 家族計劃弘報活動展開
8. 第16回 全國女性大會
9. 一線將兵 慰問行事
10. 懇談會 參席
11. 維政會 國會議員 懇談會
12. 서울市 交通問題解決을 위한 座談會
13. 頽廢風潮追放 汎國民 促進大會
15. 第 1 回 全國消費者大會參席
16. 在京支部(分會)女性幹部擴大會議
17. 共和黨主催 卓球大會參加
18. 女性事業場 巡訪
19. 家族計劃 弘報資料 試寫會 參席

概 要

科学의 發達과 産業構造改革이 가해진 오늘날에도 우리의 社會속
에 伝해 내려오는 傳統的 遺物인 男性優位思想이 아직도 平準化되
지 못하고 家庭이나 職場에 女性 差別 待遇의 問題가 그대로 남
아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過去 朝鮮王朝때부터 내려온 儒敎的인 婦德의 影響 때문에 解放
前까지만해도 한 家庭의 家事를 돕는 内助者로서, 補助者로서 位置
해 있어 이러한 傳統社會의 遺物을 단시일내에 轉換시키기는 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中世 유럽의 敎會社會에도 男女差別에 對한 思想이 남아있어 上
流階級社會에도 女子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았고 財産의 所有權도
주지 않았음을 볼때 東西洋을 막론하고 女權伸張과 女性解放을 爲
한 女性의 鬭爭과 努力의 必要性을 절실히 느낄 수가 있다.

本 勞組에서도 女性勤勞者의 健康과 地位向上을 爲해 지난 1年
間 婦女 幹部 敎育과 座談會 또는 女性團體行事に 參與시켜 自我
意識開發을 通해 새로운 女性像의 定立과 勞動社會의 形成, 그리고
女性 勤勞者의 安定된 職場 雰囲気의 具現을 爲해 努力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1975年度 U N의 "女性의 해" 宣布에 힘 입어 婦女 勤勞
者의 社會 參與度를 높이고 事業場 環境改善과 健康增進을 爲해
各級 女性 團體와의 紐帶強化, 作業環境, 勤勞實態調査, 家族計劃과

純潔教育을 並行한 映画 上映等 意識構造의 變化를 爲한 努力이 있었다.

女性 自身の 問題가 他律에 依해 支配되지 않고 自律的으로 삶의 價值를 똑바로 認識하면서 協同的이고 能動的이며 開放的이고 自主的인 새로운 勤勞 女性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새로운 役割을 發見하고 보다 나은 生活의 比 前을 定立시키기 爲해 間斷없는 努力과 世界的으로 急速히 變化해가는 女性運動의 흐름을 觀察하여 그 潮流에 따라 対処해 나갈 수 있는 活力素를 불어 넣는데 注力하였다.

1.第13回 婦女및 年少 勤勞者 保護強調期間行事

○ 毎年 年例行事로 推進되어 내려오고 있는 『 婦女 및 年少 勤勞者 保護 強調期間行事 』에는 教育에 重点을 두고 行事를 마무리 하였다.

法的으로 이미 婦女者와 年少 勤勞者의 保護體制가 立法化되어 있으나 女性 勤勞者에 對한 保護의 趣旨가 欠如되었거나 事業場에 서 發生되는 女性 勤勞者 保護條項에 對한 企業主의 違反行爲로 因해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것은 地域社會의 편견과 傳統的인 男性優位의 倫理觀에서 생긴 副産物로서 하루속히 勞働社會속에 깊이 뿌리 내려진 이와같은 風潮를 우리들 自身이 改善, 整理해 나가야 할 重大한 當面性에 直

面하고 있다.

「저울한쪽에 세계를 달고 다른한쪽에 나의 어머니를 달아 본다면 세계의 무게는 훨씬 가벼울 것이다」라고 어머니, 卽 女性에 대한 尊貴함을 強調했던 랑구랄의 말처럼 이제 우리 女性은 이 나라의 歷史를 이어나갈 後世代의 産婆役의 所任을 다하기 爲해 婦女 및 年少勤勞者の 健康増進과 權益에 따르는 諸般 勤勞條件을 向上, 發展시키는 最大의 努力과 힘을 動員해야 하겠다.

1) 行事期間: 1978 . 5 . 1 ~ 5 . 31

2) 行事內容

- ① 本組 및 支部(分會)에 懸垂幕 揭揚 및 포스타 부착
- ② 本組 機關紙를 통한 啓蒙 PR展開
- ③ 第5回婦女幹部教育實施(51名)
- ④ 女性 幹部 座談會 實施(9名)

2 . 第5回 婦女幹部 教育

社会的으로 女性의 位置가 重要な 役割과 地位向上에 따른 幅 넓은 活動이 展開되므로 해서 極히 一部分이 나마 女性勤勞者の 權益問題 姿質向上問題가 勞働社会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

過去 李朝時代의 男兒尊重思想이 傳統的으로 내려오면서 女性의 社会參與 機會가 주어지지 않는 社会的 矛盾을 女性 스스로 自覺

하고 反省하면서 教育에 依한 自己發見 社會參與 意識을 북돋우는 變化를 가져 왔다.

本勞組에서도 全組合員의 34 %를 차지하고 있는 女性 勤勞者의 教育問題에 많은 關心을 集約시키고 있다. 따라서 年中 事業計劃의 一環으로 實施되고 있는 婦女幹部教育은 支部, 分會 中堅 幹部의 資質向上과 役割增大에 重點을 두고 實施되므로서 補助者가 아닌 主体者로서 被動者가 아닌 能動者로서, 生産增大 뿐만아니라 밝은 勞働社會를 展開해 나가는데 重大한 一翼을 担当하고 있다.

1) 日 時 : 1978年 6月 14 ~ 6月 17日 (3泊 4日)

2) 場 所 : 京畿道 양주군 구리읍 國際勝共聯合會 研修院

3) 受講人員 : 52 名

4) 受講對象 : 各級 支部 (分會) 婦女部長 및 婦女幹部

5) 教育課目 및 講師

- | | | |
|-------------------|-----------|-------|
| ○ 金屬勞組의 活動方針 | 事 務 局 長 | 崔 鐘 圭 |
| ○ IMF의 活動方針 | IMF-JC | 三木幸四郎 |
| ○ 金屬勞組의 어제와 오늘 | 企 劃 室 長 | 李 憲 求 |
| ○ 婦女幹部的 姿勢 | 勞總事務次長 | 이 현 기 |
| ○ 바람직한 勞働運動과 女性役割 | 電 力 勞 組 | 林 明 洙 |
| ○ 勤勞者의 團結權 | 教 宣 部 長 | 崔 雄 吉 |
| ○ 勤勞者와 家族計劃 | 婦 女 部 長 | 宣 順 福 |
| ○ 위대한 유산 | 青 十 字 | 최 규 철 |
| ○ 이스라엘의 女性運動 | 協 同 教 育 院 | 박 용 덕 |

○ 国家安保와 새마음	國際勝共研修院	설 용 수
○ 勤勞女性の 保護法	서 울 大 学 校	박 덕 배
○ 리크레이손 指導	梨 花 女 大	김 숙 자
○ 5分發言 및 親交의 時間	婦 女 部	
○ 한길의 잔치 및 한마음의 다짐	教 宣 部	
○ 分任討議 및 綜合討議	"	
○ 講 評 會	事 務 局	

6) 受講者 名單

所 属	職 位	姓 名
남서울지부서통전자분회	부 녀 부 장	최 양 숙
남서울지부 "	시 정 위 원	하 진 연
남서울지부영창악기분회	부 녀 부 장	임 연 자
남서울지부영창악기분회	부 녀 차 장	이 덕 화
남서울지부세진전자분회	부 분 회 장	맹 도 영
경기지부한영알미눔분회	부 녀 부 장	황 혜 숙
경기지부서음전자분회	조 직 부 장	양 선 욱
경기지부신한일전기분회	부 녀 부 장	안 중 란
경기지부이천전기분회	부 녀 부 장	차 경 자
경기지부우주전자분회	부 녀 부 장	이 용 분
부산지부만호제강분회	부 분 회 장	오 경 애
부산지부명성공업분회	직 장 위 원	공 회 자
충남지부쌍신전기분회	분 회 장	박 현 순

소 속	직 위	성 명
금성사지부창원공장분회	부 녀 차 장	최 동 숙
금성사지부구미공장분회	운 영 위 원	박 복 회
금성사지부 부산공장	대 의 원	김 윤 자
금성통신지부	부 녀 부 장	고 봉 회
금성통신지부	부 녀 차 장	조 순 덕
금성전선지부	부 녀 부 장	정 숙 자
금성전선지부	부 녀 차 장	박 승 회
대한전선지부	부 녀 부 장	최 경 숙
대한전선지부 제당분회	부 녀 부 장	김 인 순
대한전선지부 마루콘분회	부 녀 부 장	이 미 애
대한전선지부 인천전기분회	부 녀 부 장	여 명 자
대한전선지부 대한전선분회	부 녀 차 장	김 명 자
대한전선지부 대한전기분회	부 녀 차 장	박 영 순
대한전선지부 전선분회	부 녀 부 장	유 옥 회
대한전선지부 음향분회	생활지도부장	이 영 숙
콘트롤데이타지부	조사통계부장	채 용 자
콘트롤데이타지부	운 영 위 원	송 금 자
콘트롤데이타지부	운 영 위 원	이 기 봉
시그네틱스지부	대 의 원	이 양 경
시그네틱스지부	대 의 원	김 회 자
시그네틱스지부	대 의 원	이 경 자
시그네틱스지부	대 의 원	김 순 회

소 속	직 위	성 명
시그벤틱스지부	대 의 원	주 말 녀
시그벤틱스지부	대 의 원	김 해 순
금성알프스지부	사 징 위 원	손 분 랑
금성알프스지부	운 영 위 원	손 갑 연
금성알프스지부	운 영 위 원	김 성 순
동양강철지부	부 녀 부 장	박 영 암
호남전기지부	운 영 위 원	김 복 례
호남전기지부	부 녀 부 장	김 성 애
금성전기지부	부 녀 차 장	김 금 순
금성전기지부	대 의 원	손 경 애
세신실업지부	부 녀 위 원	박 옥 회
원풍산업옥천지부	부 녀 부 장	이 은 예
동남전기지부	부 녀 부 장	봉 영 이
남 성 지 부	부 지 부 장	이 승 욱
한일전기분회	교 선 부 장	한 영 회
고미반도체지부	후 생 부 장	강 춘 란
고미반도체지부	대 의 원	박 복 춘

3. 婦 女 幹 部 座 談 會 開 催

女性 勤勞者의 生産増大役割이 増大됨에 따라 女性 事業場의 勤勞環境改善과 健康을 爲한 諸般 勤勞條件들이 問題點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問題點들을 各 事業場別로 婦女幹部들의 討論會를 通하여 意見을 交換하고 是正을 促求하고 또한 情緒的 側面에서 새로운 方向의 女權伸張을 爲한 指導力을 啓發하는데 主眼點을 취야 한다는 結論을 얻게 되었다.

특히 女性의 健康問題는, 이 나라를 이어나갈 어머니로써 成長해야 한다는 當爲性이 內包된, 重要한 問題로써 身體의 健康은 勿論이고 精神的 健康까지 包含하여 成熟, 發展해야 하는 義務를 女性 自身이 実感하게 되었다.

이것은 비단 勤勞女性에게만 局限된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여자 어린이에게 까지도 指導 育成해야 하는 國家的 次元에서 다루어져야 할 問題라 생각되어 本組에서는 地域別로 擴大 運營하여 새로운 問題點을 發掘, 事業場 또는 組合員에게 啓導하는데 注力하였다.

<第 1 次 座談會>

1) 日 時 : 1978 年 10 月 18 日 14:00

2) 場 所 : 本組 會議室

3) 案 件 :

- ① 歐美先進國의 女性保護問題와 韓國女性保護問題와의 比較
- ② 女性 勤勞者의 社會的 資質向上을 爲한 意識構造的 改革
方案
- ③ 새로운 性倫理의 家族制度 模索

4) 招請演士

- ① 勞働庁 婦女課長
- ② 勞總福祉婦女局長 김 영 희

5) 參席範圍：京仁地區 女性支部長, 分會長, 婦女部長

6) 參席者 名單

시그네틱스支部	支 部 長	김 점 옥
"	婦 女 部 長	박 창 옥
콘트롤메이타支部	支 部 長	이 영 순
"	婦 女 部 長	이 태 희
大韓電線支部	婦 女 部 長	강 금 자
東洋鋼鐵支部	"	박 영 암
金星電線支部	"	정 숙 자
한국아르오오모支部	支 部 長	이 은 자
"	事 務 長	서 영 순
仁川製鐵支部	婦 女 部 長	전 삼 녀
南 서 울 支 部	"	설 난 영
京 畿 支 部	分 會 長	최 예 순
"	"	임 병 임

京 畿 支 部	婦 女 部 長	최 영 자
曉星重工業支部	〃	김 효 경
高美半導體支部	支 部 長	임 복 희
서 울 支 部	婦 女 部 長	김 청 자
한국배아킹支部	〃	김 현 숙
남 성 支 部	副 支 部 長	이 승 옥
케어차일드支部	婦 女 部 長	함 영 희
本 組	〃	선 순 복

<第 2 次 座談會>

1) 日 時 : 1978 年 12 月 13 日 14 : 00

2) 場 所 : 本組 會議室

3) 案 件 :

- ① 女性 勤勞者의 作業環境과 疾病 對策
- ② 生理休暇件, 休務, 手當으로 支給 兩者 折一
- ③ 第 34 回 勤勞者의 날 展示會에 關한 討議
- ④ 其他 事項

4) 參席範圍 : 京仁地區 支部長, 分會長, 婦女部長

5) 參席者 名單

시그네텍스支部	支 部 長	김 점 옥
〃	婦 女 部 長	박 청 옥
콘트롤메이타支部	教 宣 部 長	안 종 념

高美半導體支部	事 務 長	이 정 희
웨어차일드支部		정 금 자
大韓電線支部		신 현 명
金星電線支部		정 국 자
南서울支部	婦 女 部 長	설 난 영
한국배아링支部	"	김 현 국
京 畿 支 部	分 会 長	최 혜 순
"	"	인 난 영
"	"	임 병 임
暁星重工業支部		최 경 희
本 組	婦 女 部 長	선 순 복

<第 3 次 座談會>

1) 日 時 : 1979 年 1 月 17 日 11:00

2) 場 所 : 勞總釜山市協議會 會議室

3) 案 件 : 第 2 次座談會 案件과 同一

4) 參席範圍 · 慶南北 地域 女性 幹部

5) 參席者 名單

釜山支部	삼화물산分会	婦 女 部 長	박 회 진
釜山支部	일월상공分会	運 營 委 員	한 영 희
釜山支部	금강전자分会	分 会 長	박 분 란
釜山支部	신풍금속分会	副 分 会 長	김 순 이

世信實業支部	婦 女 部 長	박 회 복
金星알 프스支部	運 營 委 員	채 영 순
〃	〃	박 재 경
金星社支部	婦 女 次 長	정 진 현
〃	代 議 員	박 순 남
金星社 구미공장分会	婦 女 部 長	공 윤 임
〃 창원공장分会	婦 女 次 長	최 동 국
金星알 프스支部	運 營 委 員	김 성 순
〃	代 議 員	손 봉 순
〃	婦 女 部 長	진 명 순
本 組	〃	선 순 복

<建議事項>

1) 女性勤勞者の 作業環境과 疾病 対策

- 作業場에서의 소음, 통풍장치等の 問題, 疾病, 眼患者, 視力減退, 또한 企業主로 부터의 生産向上에 對한 압박감에 위장병 患者가 늘고 있고 장시간 앉아 있으므로 치질
- 도금실화학 약품으로 因해 코와 頭痛患者가 많고 남연기로 인해 호흡기 계통에 병을 초래하기 쉽다.

2) 生理休暇는 女性の 健康을 爲해서라도 全國的으로 統一性 있게 쉬는 것을 原則으로 處理되어야 하겠다. 生理休暇 問題로 勞使間 紛爭 要因이 될수도 있다.

3) 其他事項

- 女性教育의 機會를 많이 할애하여 分會에까지 教育을 시켜 주시고 性倫理가 문란해 지고 있어 未婚母가 늘고 있으니 性教育도 實施해 주기 바란다.
- 婦女幹部 討論會의 擴大 實施와 健全歌謠도 普及 바란다.

4 . 女性幹部 役割 增大 세미나

勞總 福祉婦女局 主管으로 女性幹部의 資質向上과 社會參與意識의 鼓吹 指導力을 啓發하므로서 日常業務의 能率을 向上하기 爲해 傳統的으로 내려오는 男兒尊重 思想으로 因한 女性의 制約된 社會參與問題 法定勤勞基準 確保를 爲한 組合活動의 問題, 組合에서의 日常活動과 幹部의 役割, 女性幹部의 地位와 役割, 其他 事例研究, 對話를 통한 團結力과 權益保護의 諸般問題等 女性 幹部의 役割增大를 爲한 多角的인 教育을 3泊4日에 걸쳐 實施하였다.

1) 日 時 : 1979年 2月 14日 ~ 2月 17日

2) 場 所 : 勞總中央教育院

3) 對 象 者 : 差別婦女部長, 女性支部長 및 婦女部長

4) 參席者 名單

所 屬	職 位	姓 名
高美半導體支部		송 금 순

所 属	職 位	姓 名
高美半導體支部		양 재 순
釜山支部금강전자分会	分 会 長	박 분 란
南서울支部세진전자分会	//	설 난 영
한국아르오오르支部	支 部 長	이 은 자
大韓電線支部安養工場	婦 女 部 長	한 영 임
高美半導體支部		장 경 옥
大韓電線支部구미공장分会		김 공 산
콘트롤메이타支部	婦 女 部 長	이 태 희
金星알프스支部		채 영 순
시그네틱스支部		이 장 희

5 . 勞 總 女 性 幹 部 野 營 教 育

3) 勞總 福祉 婦女局에서는 女性幹部의 體力을 增進하고 幹部로서의 組合意識을 鼓吹시키는 同時 合宿 野營 生活을 通한 團結力을 培養하는데 目的을 두고 忠北 영동군 영동면 송호리 錦江遊園地에서 野營教育을 實施한바 있다.

1) 日 時 : 1978 年 7 月 14 日 ~ 7 月 24 日 (5 回)

2) 場 所 : 錦江遊園地

3) 參席人員 : 5 回 總 30 名

4) 參席者 名單

<第1回> (7 . 14 ~ 16)

웨어차일드支部	婦 女 部 長	유 영 자
"	教 宣 部 長	정 옥 경
金星電線支部	婦 女 次 長	박 승 회
金星電機支部	婦 女 部 長	김 인 숙
金星計電支部	婦 女 次 長	김 상 득
京 畿 支 部	"	김 순 덕

<第2回> (7 . 16 ~ 18)

本 組	經 理 担 当	박 봉 자
"	打 字 担 当	전 금 국
大韓電線支部		김 혜 경
남 서 울 支部		윤 영 국
"		김 태 연
曉星重工業支部		김 순 회

<第3回> (7 . 18 ~ 20)

高美半導體支部	支 部 長	임 복 회
"	教 宣 部 長	송 공 남
金 星 社 支 部	婦 女 部 長	김 순 출
"	婦 女 次 長	정 진 현
金星알프스支部	運 營 委 員	박 재 경
	"	채 영 순

<第 4 回> (7 . 20 ~ 22)

시그벤틱스支部	組 織 部 長	이 송 자
〃	婦 女 部 長	박 청 옥
〃	教 宣 部 長	이 영 옥
콘트롤메이타지부	体 育 部 長	이 재 녀
〃	代 議 員	김 영 순
〃	〃	이 완 자

<第 5 回> (7 . 22 ~ 24)

콘트롤메이타支部	副 支 部 長	한 명 희
高美半導體支部	組 織 部 長	이 영 이
湖南電氣支部	選 營 委 員	최 순 이
남서울支部서울차체分会	婦 女 部 長	이 순 오
〃 세진전자分会	分 会 長	설 난 영
京畿支部서울전자分会	〃	최 예 순

6 . 婦 女 部 長 및 婦 女 業 務 担 當 者 会 議

- 1) 日 時 : 1978 年 8 月 31 日 10:00
- 2) 場 所 : 勞 總 3 層 會 議 室
- 3) 參 席 範 圍 : 婦 女 部 長 및 婦 女 業 務 担 當 者

4) 案 件

- ① 79年度 勞總婦女事業計劃 協議
- ② 人口問題 啓蒙要員 活用 問題
- ③ 其 他

7. 家族計劃 弘報活動展開

人口抑制政策은 政府의 重要事業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地球上에
는 約40億이 넘는 人口가 살고 있으며 人口의 継続的 增加는
失業과 貧困, 疾病과 社會惡의 要因으로 結果되는 問題點으로 나타
나 天然資源이 없는 우리나라의 現實에 비추어 볼때 이것은 政府
次元에서 뿐만이 아닌 各 個人의 産兒制限에 對한 깊은 認識이
要請되고 있다. 하겠다. 英國의 맬서스에 依한 人口論을 새삼 論
議하지 않더라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人口에 비해 식료는 산
술급수적으로 增加하여 人間은 차츰 貧困과 기아에 허덕이게 된다는
그의 理論을 우리는 絶실히 絶감하고 있다.

특히 資本의 增殖力과 勞動力과의 對比에서 그 均衡을 잃으므로
해서 人口의 継続的 增加를 抑制하기가 어려움을 勘案할때 勤勞者
에 對한 家族計劃 啓蒙事業은 絶실히 要請된다 하겠다.

따라서 本勞組에서는 女性事業場을 中心으로 純潔教育을 겸하여
家族計劃 啓蒙映面上映과 勞總에서 發刊되는 家族計劃 弘報版(新聞)

을傘下各級支部(分會)에配付하였다.

1) 家族計劃 啓蒙教育

○ 大韓電線支部 製糖分會

日 時：1978年6月2日

場 所：大韓電線支部 労働會館

對 象：常執委員 司正委員 64名 參席

映 画：生命의 神秘, 딸이 더 좋아

○ 大韓電線支部

日 時：1978年6月5日

場 所：大韓電線支部 労働會館

對 象：支部 常執委員 運営委員 24名 參席

映 画：生命의 神秘 딸이 더 좋아

○ 大韓電線支部 電機分會

日 時：1978年6月7日

場 所：大韓電線支部 労働會館

對 象：分會 代議員 40名 參席

映 画：生命의 神秘 딸이 더 좋아

○ 本 組

日 時：1978年6月28日

場 所：勝共聯合會 研修院

對 象：金屬勞組傘下 婦女幹部 54名 參席

映 画 : 生命의 神秘 딸이 더 좋아

○ 휘어차일드支部

日 時 : 1978年 10月 13日

場 所 : 会社内 食堂

參 席 者 : 全組合員 (3,000名)

映 画 : 生命의 神秘 賢명한 選択

○ 南서울支部 세진전자分会

日 時 : 1978年 11月 16日

場 所 : 会社 食堂

參 席 者 : 全組合員

映 画 : 生命의 神秘 賢명한 選択 딸이 더 좋아

○ 同和電子支部 (天安工場)

日 時 : 1978年 12月 10日

場 所 : 会社 食堂

參 席 者 : 全組合員

映 画 : 사람, 사람, 사람, 生命의 神秘, 賢명한 選択

○ 同和電子支部 (鴻성工場)

日 時 : 1978年 12月 16日

場 所 : 会社 食堂

參 席 者 : 全組合員

映 画 : 生命의 神秘, 딸이 더 좋아, 賢明한 選拔

○ 남서울支部 한일공업 分會

日 時 : 1979年 3月 30日

場 所 : 会社 教育室

參 席 者 : 組合員 (500 名)

映 画 : 내일을 爲한 設計, 사람 사람 사람

○ 한국아르오오브支部

日 時 : 1979年 4月 1日

場 所 : 本組 會議室

參 席 者 : 常執 幹部

映 画 : 내일을 爲한 設計 사람 사람 사람

딸이 더 좋아

8 . 第 16 回 全 國 女 性 大 會

1) 日 時 : 1978年 9月 23日 10:30

2) 場 所 : 梨花女子大學校 大講堂

3) 主 催 : 韓國女性團體協議會

4) 參 席 者 : 在京支部 婦女幹部 15名

5) 主 題 : 女性 10年 第 3 次年度의 「 市民社會와 女性 」

5) 各界各層의 女性 代表 3,000 余名이 參席한 가운데 열린 이날 大會에서 「市民社會과 女性」을 主題로 暹洲工科大学 學長 이한빈 博士의 講演이 있었다. 講演을 通해 이한빈 博士는 다가올 市民 社會에서 女性이 健全하게 役割을 遂行하도록 하기 爲해서는 지금부터 두가지 行動方案이 當面課題라고 提示하였다.

첫째, 行政機關이나 企業체에서 人事, 會計 文書統計 전산도서, 설의, 弘報, 稅務監査, 市場調查, 凶案設計, 都市計劃, 環境整理 食品檢査와 같이 女性으로서 손쉽게 充員할 수 있는 分野의 事務職과 管理職을 早速히 女性에게 공개할것.

둘째, 女性들이 大學卒業後 3年~5年 實務 經驗을 쌓은 女性을 中級 管理層으로 進出할 意慾과 能力을 기를것.

또한 80年代를 내다볼때 우리 社會는 繼統的인 工業化의 推進으로 非農業人口가 全人口의 80% 이상될 것이며 이미 國民總生産의 3分の1을 輸出하므로써 世界속의 韓國人으로서의 思考方式과 市民精神이 要求되고 있다.

6) 建議事項

政府와 關係요로에 80年代 高度 産業社會에 必然的으로 따르는 人力不足을 解消시키기 爲해 女性 資源 活用에의 政策의 支援, 2.3 百萬 女性勤勞者의 昇進 昇級 및 同一勞動에 對한 同一賃金의 制度의 保障策 要求

7) 決議文

1) 夫婦 協力体制의 家庭運營을 指向하며 社會 變化를 爲한

制度 改善에 힘쓴다.

2) 教育에서의 男女差別, 是正을 促求하며 올바른 教育風土 調整에 힘쓴다.

3) 女性問題 解決을 爲해 女性の 政界 進出을 支援하며 參政權을 바르게 行事하기 爲해 当面問題로서 家族法 改正案을 反對하거나 消費者 基本法制定에 協助치 않는 国会議員 立候補者에게 投票하지 않는다.

4) 政府에 女性 問題를 전달할 機構가 設置되도록 注力할것.

9 . 一線 將兵 慰問行事 參加

1) 日 時 : 1978 年 12 月 7 日

2) 慰 問 處 : 陸軍 第 21 師團

3) 主 管 : 韓國勞動組合 總聯盟

4) 參 席 者 : 婦女部長 宣順福

5) 慰問品 內訳

所 属	慰 問 便 紙	慰 問 包 裝	図 書
本 組	-	5	-
남 서 울 支 部	136	1	20
全 南 "	44	1	45
釜 山 "	148	14	56

所 属	慰問便紙	慰問包袋	図 書
서 울 支 部	20	3	23
起亜産業 //	60	10	-
国際綜合機械 //	110	-	-
韓国배아령 //	-	1	5
金星計電 //	30	1	5
金星알프스 //	338	4	90
同和電子 //	108	3	30
金 星 社 //	275	2	-
웨어차일드 //	40	2	17
金星電機 //	25	3	10
高美半導体 //	37	1	3
金星電線 //	-	1	5
콘트롤레이타 //	-	2	4
大韓電線 //	132	5	10
東洋鋼鉄 //	-	-	10
仁川製鉄 //	-	1	-
大韓重機 //		2	-
한일전기 分会	21	-	-
計	1,524	62	333

10 . 懇 談 會 參 席

○ 共和党 婦女局 招請으로 勞總 17 個 産別 勞組 婦女部長들과 사사록에서 午餐을 겸한 懇談會를 가졌다. 이날 懇談會에는 윤여훈 国会議員(維政會) 김명자 保社部 婦女局長 및 김현숙 共和党 婦女局長等 政府 与党圈 女性代表들과 김영희 勞總婦女 局長等 婦女 勤勞者 代表들이 한자리에 모여 5 만원 以下の 低賃金 解消策, 市内버스의 계수기 부활에 따른 問題等 女性 勤勞者들이 当面하고 있는 諸般 問題에 對해 鉉範圍하게 意見을 나눈바 있다

1) 日 時 : 1978 年 9 月 1 日

2) 場 所 : 사사록

3) 參 席 者 : 本組 婦女部長 宣順福

11 . 維 政 會 國 會 議 員 懇 談 會

○ 80 年代의 女性人力과 經濟活動 參與을 主題로 維政會 女性 国会議員과 勞總 및 産別 勞組 婦女 部長 懇談會를 가졌다.

1) 日 時 : 1978 年 9 月 15 日 10:00

2) 場 所 : 維政會館

3) 對 象 : 勞總 및 産別 勞組 婦女部長

4) 司 會 : 이승복 議員

5) 発 表 : 윤여훈 議員

討論參席者

淑明女子高等学校長	정	충	량
仁荷工大 教授	배	경	수
K.D.I 研究室長	주	학	중
淑明女子大學長	김	옥	열

12 . 서울市 交通問題 解決을 爲한 座談會

- 1) 日 時 : 1978 年 9 月 20 日 10:30
- 2) 場 所 : 女性団体協議會 會議室
- 3) 主 題 : 市民의 발은 마비되고 있다.
- 4) 參 席 者 : 婦女部長 宣順福

13 . 總 力 安 保 결 기 大 會

- 1) 日 時 : 1978 年 7 月 12 日 10:00
- 2) 場 所 : 世宗文化會館 別館
- 3) 主 題 : 社會의 創造와 女性의 責任
- 4) 主 催 : 女性団体協議會
- 5) 參 席 者 : 婦女部長 宣 順 福

14 . 頽 廢 風 潮 追 放 汎 國 民 促 進 大 會

- 1) 日 時 : 1978 年 10 月 19 日 11:00
- 2) 場 所 : 世宗文化會館 別館
- 3) 主 催 : 總力安保 中央協議會
- 4) 參 席 者 : 婦女部長 宣順福 外 10 名

15 . 第 1 回全國消費者 大會 參席

- 1) 日 時 : 1978 年 11 月 6 日
- 2) 場 所 : 世宗文化會館 別館
- 3) 主 管 : 消費者 保護團體 協議會
- 4) 參 席 者 : 婦女部長 宣順福 外 7 名 參席
- 5) 講演題目

① 消費者 運動과 企業倫理

 高大經營大學院長 조 익 순

② 政府의 消費者 保護對策

 工業振興庁長 최 중 완

③ 韓國消費者運動의 方向

 經濟人聯合會 常務理事 윤 능 선

16 .在京支部 (分會) 女性幹部 擴大會議

1) 日 時 : 1978 年 12 月 28 日 14:00

2) 場 所 : 勞總 3 層 會議室

3) 參 席 對 象 : 女性 支部長 (分會長)

家族計劃 弘報要員

4) 案 件 :

① 第 2 次 女性 勤勞者 實態調查報告

② 勞總報 讀者輿論 調查報告

③ 産業青少年을 爲한 家族計劃 뉴스
레타 發刊 協助件

④ 其他事項

17 . 共和黨 主催 卓球大會參加

1) 日 時 : 1979 年 2 月 23 日 ~ 26 日 (3 日間)

2) 場 所 :

3) 參 加 者 :

시그네틱스支部 : 김 인 월, 남 춘 기

웨어차일드支部 : 김 진 수, 윤 경 원

18 . 女 性 事 業 場 巡 訪

女性 勤勞者의 作業環境 및 勤勞條件 調査 女性幹部의 親善을
圖謀하기 爲해 勞總 婦女局에서 事業場을 訪問하고 女性保護法의
遵守与否, 勤勞와 健康實態等에 對해서 座談會를 가졌다.

< 調 查 團 >

勞總福祉婦女局長	김 영 희
勞總福祉婦女部長	김 근 화
國會文公事業課 事務官	신 용 자
本 組 婦女部長	선 순 복

< 事 業 場 >

1 月 25 日 : 콘트롤메이 타支部

한국아르오오르 //

高美半導體 //

1 月 26 日 : 시그네틱스 //

19 . 家 族 計 劃 弘 報 資 料 試 寫 會 參 席

日 時 : 1979 年 3 月 23 日 14:00

場 所 : 勞總 3 層 會議室

參 席 者 : 婦女部長 宣 順 福

※ 家族計劃用 視聽覺資料 및 슬라이드試寫, 카세트와 冊字配付

資 料 編

内

容

1. 會員 組合別 組合員 現況
2. 會員組合 組合員 賃金現況
3. 年度別 組合員 賃金變動表
4. 業種別 組合員 賃金現況
5. 業種別 賃金階層別 組合員 分布現況
6. '78年度 賃金引上 推進現況

회 원 조 합 별
조 합 원 현 황

1. 회원조합별 조합원 현황

조 합 명		78. 2.28 현 재			78.
		남	여	계	남
철	도	32,117	1,245	33,362	32,290
섬	유	28,135	131,343	159,478	31,614
광	산	51,661	1,826	53,487	49,641
전	력	12,864	427	13,291	13,126
외	기	19,853	2,632	22,485	17,984
채	신	22,288	19,077	41,365	23,392
운	수	16,811	90	16,901	16,950
해	원	89,881		89,881	98,941
금	용	28,088	13,110	41,198	36,798
전	매	10,915	3,746	14,661	10,272
화	학	72,546	58,443	130,989	96,537
금	속	72,363	29,792	102,155	88,068
부	두	18,573	2,316	20,889	18,886
출	판	5,046	2,909	7,955	5,710
자	동 차	110,259	24,170	134,429	117,757
연	합	48,113	27,790	75,903	49,548
관	광	5,300	2,582	7,882	6,175
지 분	계	644,813	321,498	966,311	713,689
	%			539	
	부 수			4,040	

79. 3.31 현재

2.28 현 재		연 간 증 감 수			연 간 증가율
여	계	남	여	계	
1,424	33,714	173	179	352	1.05
137,315	168,929	3,479	5,972	9,451	9.92
1,682	51,323	-2,020	-144	-2,164	-4.04
551	13,677	262	124	386	2.90
2,304	20,288	-1,869	-328	-2,197	-9.77
19,883	43,275	1,104	806	1,910	4.61
102	17,052	139	12	151	0.89
311	99,252	9,060	311	9,371	10.42
21,389	58,187	8,710	8,279	16,989	41.23
3,847	14,119	-639	101	-542	-3.69
68,202	164,739	23,991	9,759	33,750	25.76
42,296	130,364	15,075	12,504	28,209	27.61
1,988	20,874	313	-328	-15	-0.07
3,414	9,124	664	505	1,169	14.69
25,531	143,288	7,498	1,361	8,859	6.59
29,660	79,208	1,435	1,870	3,305	4.35
3,198	9,373	875	616	1,491	18.91
363,097	1,076,786	68,876	41,599	110,475	15.48
	553			14	2.6
	4,333			293	7.2

2. 회원조합 조합원 임금현황

노동조합명	조 합 원 수			월 임		
	성 별	조합원수	비 율 (%)	기 준 내 임 금		
				본 봉	제수당	계
철 도 노 조	남	31,568	96.2	24,316	84,433	108,749
	여	1,254	3.8	26,939	46,339	73,278
	계	32,822	100.0	24,431	82,759	107,190
섬 유 노 조	남	28,876	17.9	67,758	1,710	69,468
	여	132,878	82.1	37,188	201	37,384
	계	161,754	100.0	42,611	470	43,111
광 산 노 조	남	50,228	97.0	60,718	27,161	87,879
	여	1,576	30.0	38,566	14,442	53,009
	계	51,804	100.0	60,006	26,752	86,758
전 력 노 조	남	12,681	96.7	85,966	2,620	88,586
	여	431	3.3	82,866		82,866
	계	13,112	100.0	85,799	2,534	88,333
외 기 노 조	남	18,358	92.6	108,014	16,000	124,014
	여	1,460	7.3	98,806	16,000	114,806
	계	19,818	100.0	107,336	16,000	123,336
채 신 노 조	남	22,745	54.0	18,921	71,385	90,306
	여	19,377	46.0	18,500	66,606	85,106
	계	42,122	100.0	18,727	69,187	87,914

1978년 6월 30일 현재

금 현 황				주법정 기준근 로시간	일평균 실근로 시간	월평균 근로일 수
기 준 외 임 금			임 금 총 계			
초과급여	특별급여	계				
13,686	30,732	44,418	153,167		8.5	28.6
11,496	20,031	31,527	104,805		8.1	29.0
13,590	30,261	43,851	151,041		8.5	28.7
22,748	11,616	34,364	103,833		9.2	28.3
12,518	6,238	18,756	55,764		8.6	28.0
14,344	7,198	21,542	64,653		8.7	28.1
35,768	16,180	51,948	139,827	34		
20,181	11,226	31,407	84,416			
35,267	16,020	51,287	138,045			
24,070	35,819	59,889	148,475	50	9	26.3
23,203	34,527	57,730	140,596	48	9	26
24,042	35,777	59,819	148,152	49	9	26.2
	40,505	40,505	164,519		8	20
	37,053	37,053	151,859		8	20
	40,251	40,251	163,587		8	20
7,162	25,863	33,025	123,331		9.3	27.7
8,288	24,168	32,456	117,562		9	27
7,680	25,083	32,763	120,677		9.2	27.4

노동조합명	조 합 원 수			월 임		
	성 별	조 합 원 수	비 율(%)	기 준 내 임 금		
				본 봉	제 수 당	계
운 수 노 조	남	17,289	99.4	82,127	5,789	87,917
	여	102	0.6	42,776	27,000	69,776
	계	17,391	100.0	81,896	5,913	87,810
해 원 노 조	남	78,261	100.0	105,152	14,716	119,868
	여					
	계	78,261	100.0	105,152	14,716	119,868
금 용 노 조	남	22,337	69.0	79,854	36,495	116,349
	여	10,055	31.0	42,798	20,611	63,604
	계	32,392	100.0	68,358	31,568	99,926
전 매 노 조	남	10,649	73.6	20,500	81,500	102,000
	여	3,812	26.4	18,500	77,100	95,600
	계	14,461	100.0	19,973	80,340	100,313
화 학 노 조	남	71,729	51.0	58,800	14,850	73,650
	여	68,929	49.0	34,976	8,261	43,237
	계	140,658	100.0	47,124	11,621	58,745
금 속 노 조	남	79,905	69.7	76,468	5,723	82,186
	여	34,714	30.3	43,359	4,062	47,421
	계	114,619	100.0	66,437	5,220	71,657

금 현 황				주법정 기준근 로시간	일평균 실근로 시간	월평균 근로일 수
기 준 외 임 금			임금총계			
초과급여	특별급여	계				
13,976	5,219	19,196	107,113			
27,022	23,205	50,228	120,004			
14,053	6,549	19,378	107,188			
27,149	10,151	37,300	157,168	48	11.0	30
27,149	10,151	37,300	157,168	48	11.0	30
47,230	29,087	76,317	192,666	44	9	25
25,361	15,901	41,262	104,866	44	9	25
40,446	24,981	65,427	165,353	44	9	25
3,624	29,667	33,291	135,291	44	9	25
3,025	27,667	30,692	126,292	44	9	25
3,466	29,071	32,537	132,850	44	9	25
22,160	21,247	43,407	117,057		8.2	27
8,090	8,812	16,902	60,139		8.2	27
15,265	15,153	30,418	89,163		8.2	27
29,755	19,887	49,642	131,828	48	9.27	26
15,506	11,393	26,899	74,320	48	9.27	26
25,439	17,314	42,753	114,410	48	9.27	26

노동조합명	조 합 원 수			월 임 금		
	성 별	조합원수	비율(%)	기 준 내 임 금		
				본 봉	제수당	계
부 두 노 조	남	18,616	90.18	78,150	26,050	104,200
	여	(2,028)	(9.82)			
	계	18,616	100.0	78,150	26,050	104,200
출 관 노 조	남	4,889	55.3	65,681		65,681
	여	3,953	44.7	41,889		41,889
	계	8,842	100.0	55,044		55,044
자 동 차 노 조	남	113,660	81.8	62,857	15,045	77,902
	여	25,243	18.2	31,065	13,145	44,210
	계	138,904	100.0	57,079	14,699	71,779
연 합 노 조	남	46,194	61.2	59,932	7,736	67,668
	여	29,255	38.8	37,513	4,042	41,615
	계	75,449	100.0	51,262	6,290	57,552
관 광 노 조	남	5,088	69.13	75,708	23,507	99,215
	여	2,271	30.86	62,052	10,357	72,409
	계	7,359	100.0	71,493	19,448	90,941
계	남	633,073	65.4	68,444	20,785	89,229
	여	335,310	34.0	36,333	9,273	45,000
	계	968,383	100.0	57,326	16,799	74,125

금 현 황				주법정 기준근 로시간	일평균 실근로 시간	월평균 근로일 수
기 준 외 임 금			임 금총계			
초과급여	특별급여	계				
			104,200		10.9	21
			104,200		10.9	21
39,132	587	39,719	105,400		11.5	24
13,451	170	13,621	55,510		10	25
27,650	400	28,050	83,094		1,075	26
28,347	5,992	34,339	112,241	48	12.6	22
23,149	3,019	26,168	70,378	48	14.2	19
27,402	5,452	32,854	104,633	48	12.9	21
17,806	12,041	29,847	97,515	48	9	26
13,665	3,674	17,339	58,954	48	9	26
16,197	8,532	24,729	82,281	48	9	26
10,339	21,398	31,737	130,952		8.86	
9,516	16,781	26,297	98,706		8.67	
10,085	19,973	30,058	120,999		8.86	
23,802	16,138	39,940	129,100		9.61	26
12,837	8,654	21,491	67,097		9.30	25
20,005	13,547	33,552	107,677		9.54	26

3. 연도별 화원조합원 임금변동표

		기 준 내 임 금					기
		76	77	전년도증 가율 (%)	78	전년도증 가율 (%)	
철	도	61,500	81,559	32.7	107,190	31.4	22,452
섬	유	24,271	34,042	40.3	43,111	26.6	18,391
광	산	58,401	76,414	30.9	86,758	13.5	17,968
전	력	64,177	71,958	12.2	88,333	22.8	29,520
외	기	81,690	88,593	8.5	123,336	71.8	24,213
체	신	50,869	67,959	33.6	87,914	29.4	15,644
운	수	48,766	52,012	6.8	87,810	68.7	12,636
해	원	-	89,628		119,868	33.7	-
금	용	67,121	82,581	23.1	99,926	21.0	33,528
전	매	53,020	77,741	46.7	100,313	29.0	15,590
화	학	36,178	47,127	30.3	58,745	24.7	22,540
금	속	42,185	53,767	27.5	71,657	33.3	23,104
부	두	45,105	79,229	75.7	104,200	31.5	15,035
출	관	34,124	42,031	23.2	55,044	31.0	15,460
자	동 차	48,713	57,188	17.4	71,779	25.5	11,478
연	합	45,172	44,900	△0.6	57,552	28.2	9,441
관	광	47,926	65,583	36.9	90,941	38.7	10,596
평	균	41,350	59,052	42.8	74,125	25.5	16,492

1978년 6월 30일 현재

준 외 입 금				입 금 총 액				
77	전년도증 가율 (%)	78	전년도증 가율 (%)	76	77	전년도증 가율 (%)	78	전년도증 가율 (%)
31,437	40.1	43,851	39.5	83,952	112,996	34.6	151,041	33.7
12,225	△33.1	21,542	76.2	42,662	46,297	8.6	64,653	39.7
14,676	△18.3	51,287	249.5	76,369	91,090	19.3	138,045	51.6
48,394	64.0	57,730	19.3	93,697	120,352	28.5	140,596	16.8
27,431	13.3	40,251	46.7	105,903	116,024	9.6	163,587	41.0
24,911	59.3	32,763	31.5	66,513	92,870	39.7	120,677	29.9
18,427	45.9	19,378	5.2	61,402	70,469	14.8	107,188	52.1
29,171		37,300	27.9		118,799		157,168	32.3
45,786	36.6	65,427	42.9	100,649	128,367	27.6	165,353	28.8
26,772	71.8	32,537	21.5	68,610	104,513	52.4	132,850	27.1
18,648	△17.2	30,418	63.1	58,718	65,775	12.1	89,163	35.6
31,455	36.2	42,753	35.9	65,289	85,222	30.6	114,410	34.2
-		-		61,140	79,229	31.8	104,200	31.5
27,311	77.7	28,050	2.7	49,548	69,342	39.9	83,094	19.8
29,053	153.2	32,854	13.1	60,191	86,241	43.3	104,633	21.3
19,284	104.3	24,729	28.2	54,613	64,184	17.6	82,281	28.2
19,479	83.9	30,058	54.3	58,522	85,062	45.4	120,999	42.3
23,722	43.8	33,552	41.4	57,834	82,774	43.1	107,677	30.1

4. 업종별 조합원 임금현황

업종명	종업원수			월임		
	성별	조합원수	비율(%)	기준내임금		
				본봉	제수당	계
기계, 금속	남	14,705	12.83	71,880	8,006	79,886
	여	1,561	1.36	34,447	2,816	37,263
	계	16,266	14.19	68,288	7,508	75,796
	(평균)					
자동차	남	16,289	14.82	85,001	190	85,191
	여	1,092	0.95	53,481		53,481
	계	18,081	14.77	83,097	179	83,276
	(평균)					
전기, 전자	남	22,894	19.97	75,832	4,866	80,698
	여	26,487	23.11	42,304	4,199	46,503
	계	49,381	43.08	57,848	4,508	62,356
	(평균)					
철강	남	10,310	9.00	57,188	15,939	75,127
	여	931	0.81	41,728	3,748	45,476
	계	11,241	9.81	57,742	14,929	72,671
	(평균)					

1978. 6.30 현재

금 현 황				주법정 기준근 로시간	일평균 실근로 시간	월평균 근로 일수	월평균 근로 시간	평 균 년 령
기 준 외 임 금			임 금 총 계					
초과급여	특별급여	제						
37,218	22,389	59,607	139,439					
26,185	9,439	35,624	72,887					
36,159	21,146	57,305	133,101	48	10	26.07	260.9	31.8
20,637	20,094	40,731	125,922					
15,324	20,267	35,591	89,072					
20,316	20,104	40,420	123,696	48	9.48	26.20	248.5	28.9
36,097	24,181	60,278	140,976					
14,864	11,814	26,678	73,181					
24,707	17,547	42,254	104,610	48	8.70	27.0	234.9	24.7
32,747	18,510	51,257	126,384					
26,536	14,203	40,739	86,215					
32,233	18,153	50,386	123,057	48	9.42	27.4	258.3	32.4

업종명	조합원수			월임		
	성별	조합원수	비율(%)	기준내임금		
				본봉	제수당	계
조선	남	6,999	6.11	80,708	6,528	87,236
	여	665	0.58	41,068	2,480	43,548
	계 (평균)	7,664	6.69	77,268	6,176	83,444
비철금속	남	6,908	6.03	66,021	4,652	70,673
	여	3,481	3.04	35,888	2,237	38,125
	계 (평균)	10,389	9.07	55,924	3,756	59,680
기타	남	1,100	0.96	60,792	5,466	66,258
	여	497	0.43	43,063	1,093	44,155
	계 (평균)	1,597	1.39	55,275	4,015	59,380
평균	남	79,905	69.71	76,463	5,723	82,186
	여	34,714	30.29	43,359	4,062	47,421
	계 (평균)	114,619	100	66,437	5,220	71,657

금 현 황				주법정 기준근 로시간	일평균 실근로 시 간	월평균 근 로 일 수	월평균 근 로 시 간	평 균 년 평
기 준 외 임 금			임금총계					
초과급여	특별급여	계						
16,582	1,927	18,509	105,745					
6,147	10,267	16,414	59,962					
15,676	2,650	18,326	101,770	48	8.70	25.58	223.7	32.4
34,001	19,737	53,738	124,411					
12,057	10,898	22,955	60,820					
26,648	16,775	43,423	103,103	48	10.70	26.8	287.8	29.4
27,634	13,707	41,341	107,599					
16,827	9,734	26,561	70,717					
24,271	12,471	36,742	96,122	48		26.07		
29,755	19,887	49,642	131,828					
15,506	11,393	26,899	74,320					
25,439	17,314	42,753	114,410	48	9.27	26.19	235.5	28.1

5. 업종별 임금계층별 조합원분포현황

업종및직종 구분	성별	20,000 원	20,000	25,000	30,000	40,000	50,000
		미만	~ 24,999	~ 29,999	~ 39,999	~ 49,999	~ 59,999
기 계 금 속	남	명	2	24	344	1,027	2,946
		%	0.91	0.16	2.34	6.98	20.02
	여	명		13	582	668	159
		%		0.82	37.28	42.79	10.18
	계	명	2	37	926	1,695	3,105
		%		0.22	5.69	10.42	19.08
전 자	남			13	213	364	635
				0.37	6.15	10.51	18.34
	여			1,994	6,424	2,402	4,080
				17.33	55.84	20.88	3.34
	계			2,007	6,637	2,766	1,043
				13.41	44.35	18.48	0.97
전 기	남			1,065	568	8,051	3,116
				5.48	2.92	41.42	16.03
	여	14	14	526	6,414	7,640	348
		0.09	0.09	3.51	4.28	50.97	2.32
	계	14	14	1,591	6,982	15,691	3,464
		0.04	0.09	4.62	20.28	45.58	10.06

60,000 ~ 69,999	70,000 ~ 79,999	80,000 ~ 89,999	90,000 ~ 99,999	100,000 ~ 119,999	120,000 ~ 149,999	150,000 이 상	계
2,860	1,890	2,035	1,465	1,394	493	228	14,708명
19.45	12.85	13.83	9.96	9.47	3.35	1.55	100.0 %
139							1,561명
8.90							100.0 %
2,999	1,890	2,035	1,465	1,394	493	228	16,269명
18.43	11.61	12.51	9.00	8.56	3.03	1.40	100.0 %
475	395	448	324	280	213	102	3,462
13.72	11.41	12.94	9.35	8.08	6.15	2.94	100
226	22	15	9	3			11,503
1.96	0.19	0.13	0.07	0.02			100
701	417	463	333	283	213	102	14,965
4.68	2.78	3.09	2.22	1.89	1.42	0.68	100
2,791	1,452	1,013	817	439	119	4	19,435
14.36	7.47	5.21	4.20	2.25	0.61	0.02	100
31							14,987
0.2							100
2,822	1,452	1,013	817	439	119	4	34,422
8.19	4.22	2.94	2.37	1.27	0.34	0.01	100

업종 및 직종 구분	성별	20,000 원 미만	20,000 ~ 24,999	25,000 ~ 29,999	30,000 39,999	40,000 ~ 49,999	50,000 ~ 59,999
자동차	남				336	693	1,386
					1.57	4.08	8.16
	여				139	216	251
					12.77	19.85	23.06
	계				475	909	1,637
					2.62	5.02	9.05
철강	남			41	1,002	1,211	913
				0.39	9.71	11.74	8.85
	여			140	428	28	19
				15.02	45.92	3.00	2.04
	계			181	1,430	1,239	932
				1.60	12.72	11.02	8.28
비철	남				876	789	617
					12.68	11.42	8.93
	여				2,935	387	114
					84.29	11.11	3.27
	계				3,811	1,176	731
					36.68	11.32	7.03
	남				204	211	815
					2.91	3.01	11.64

60,000 ~ 69,999	70,000 ~ 79,999	80,000 ~ 89,999	90,000 ~ 99,999	100,000 ~ 119,999	120,000 ~ 149,999	150,000 이 ~ 상	계
1,564	2,667	1,964	1,606	2,310	1,869	2,590	16,985
9.20	15.70	11.56	9.45	13.60	11.00	15.24	100
2,214	127	116	25				1,088
19.67	11.67	10.66	2.30				100
1,778	2,794	2,080	1,631	2,310	1,869	2,590	18,073
9.83	15.45	11.50	9.02	12.78	10.34	14.33	100
954	2,016	2,069	1,895	165	45		10,311
9.25	19.55	20.06	18.38	1.60	0.43		100
317							932
34.01							100
1,271	2,016	2,069	1,895	165	45		11,243
11.30	17.93	18.40	16.85	1.46	0.40		100
920	829	557	2,009	194	97	19	6,907
13.31	12.00	8.06	29.08	2.80	1.40	0.27	100
23	11	12					3,482
0.66	0.31	0.34					100
943	840	569	2,009	194	97	19	10,389
9.07	8.08	5.47	19.33	1.87	1.93	0.18	100
423	596	770	581	1,978	521	898	6,997
6.04	8.51	11.00	8.30	28.26	7.44	12.83	100

업종 및 직종 구분	성별	20,000 원 미만	20,000 ~ 24,999	25,000 ~ 29,999	30,000 ~ 39,999	40,000 ~ 49,999	50,000 ~ 59,999
조선	여 제				106 15.96 310 4.04	523 78.76 734 9.58	20 3.01 835 10.89
기타	남 여 제						
제 (총분포수)	남		2	1,143	3,543	12,346	10,428
				1.45	4.49	15.67	13.23
	여	14	14	2,673	17,028	11,864	1,319
		0.04	0.04	7.81	49.78	34.67	3.85
	제	14	16	3,816	20,571	24,210	11,747
		0.01	0.01	3.38	18.20	21.42	10.40
	남		2	1,145	4,688	17,034	27,462
				1.45	5.92	21.61	34.84
누적 분포수	여	14	28	2,701	19,729	31,593	32,912
		0.04	0.08	7.89	57.65	92.23	96.18
	제	14	30	3,846	24,417	48,627	60,374
		0.01	0.02	3.40	21.60	43.02	53.42

60,000 ~ 69,999	70,000 ~ 79,999	80,000 ~ 89,999	90,000 ~ 99,999	100,000 ~ 119,999	120,000 ~ 149,999	150,000 ~ 이 상	계	
8	7						604	
1.20	1.05						100	
431	603	770	581	1,978	521	898	7,661	
5.62	7.87	10.05	7.58	25.82	6.80	11.72	100	
							1,100	
							497	
							1,597	미 조사 1,597명
9,987	9,845	8,856	8,697	6,760	3,357	3,841	78,805	
12.67	12.50	11.24	11.04	8.58	4.26	4.87	100	
958	167	143	34	3			34,217	
2.80	0.49	0.42	0.10					
10,945	10,012	8,999	8,731	6,763	3,357	3,841	113,022	
9.68	8.86	7.96	7.73	5.98	2.97	3.40	100	
37,449	47,294	56,150	64,847	71,607	74,964	78,805	78,805	+ 1,100
47.52	60.01	71.25	82.28	90.86	95.12	100	100	=79,905
33,870	34,037	34,180	34,214	34,217			34,217	+ 497
98.98	99.47	99.89	99.99	100				=34,714
71,319	81,331	90,330	99,061	105,824	109,181	113,022	113,022	+ 1,597
63.10	71.96	79.92	87.65	93.63	96.60	100		=114619

6. '78년도 임금인상 추진현황

지 부 명	분 회 명	적용 조합 원 수	인상전 기본급	인상 요구율	인상 요구액	인상요구 년 월 일
< 기계 금속 분과 >						
대우중공업지부		4,506	63,600	30	19,080	78. 1. 1
한국베어링 "		874	1,628	42.2	687	78. 2.
"	창원공장 분회	150	1,200	42.2	536	78. 2.
국제종합기계 옥천공장 "		683	40,813	139.5	56,934	78. 3.20
부산포금 "		635	76,000	40	30,400	78. 4. 1
남서울 "	한전기계 분회	153	62,500	35	21,875	78. 1. 1
"	금영실업 "	90	2,798	40	1,119	78. 1. 4
경북 "	승리기계 "	312	56,257	30	16,877	78. 3.
	신생 "	147	39,975	50	19,987	78.10.
	해구공사 "	24	49,980	40	19,992	78.10.
	김천지역 "	572	52,104	40	20,841	78. 4.
	형제금속 "	67	52,140	35	18,249	78. 3.
	동산강철 "	38	41,024	50	20,512	78. 4.
	삼일공업 "	15	55,308	30	16,592	78. 2.
	삼도기계 "	39	60,193	30	18,057	78.10.
부산지부 "	한진기계 "	349	1,588	56	889	78. 2.25
	대창크랭크 "	156	2,346	42	985	78. 1.26
	신풍금속 "	131	1,199	60	719	78. 2.17

(1978. 1. 1 ~ 1978.12.31 까지)

사용자 주장율	타결율 (%)	인상 차액	타결 년월일	인상후 기본급	인상 적용시기	합 의 방 법		
						노사 합의	조정 합의	직권 조정
22	26	16,536	78. 2. 1	80,136	78. 2. 1	0		
25	30	488	78. 3. 1	2,116	78. 3. 1	0		
25	30	360	78. 3. 10	1,560	78. 3. 1	0		
18	26	10,611	78. 4. 1	51,424	78. 4. 1	0		
30	30	22,800	78. 3. 31	98,800	78. 4. 1	0		
20.9	25	15,625	78. 3. 20	78,125	78. 3. 1	0		
15	18	526	78. 1. 1	3,324	78. 1. 1	0		
30	30	16,877	78. 3.	78,134	78. 3.	0		
40	59	23,585	78. 10.	63,560	78. 10.	0		
20	30	14,994	78. 10.	64,974	78. 10.	0		
20	35	18,236	78. 4.	70,340	78. 4.	0		
30	35	15,642	78. 3.	70,389	78. 3.	0		
40	50	20,512	78. 4.	61,536	78. 4.	0		
25	33	18,252	78. 2.	73,560	78. 2.	0		
20	30	18,057	78. 10.	78,250	78. 10.	0		
25	30	595	78. 4. 2	2,183	78. 4. 1	0		
25	32	750		3,096	78. 2. 15	0		
30	33	395		1,594	78. 3. 1	0		

지 부 명	분 회 명	적용 조합 원 수	인상전 기본급	인상 요구율	인상 요구액	인상요구 년 월 일
경 남 지 부	제일 기계 분회	204	1,998	53	1,058	78. 2. 15
	신행 공작 "	100	2,118	45	953	78. 1. 4
	성 장 사 "	181	1,117	53	592	78. 4. 24
	부산 경 구 "	70	1,900	40	760	78. 10. 15
	양지 금속 "	119	1,510	25	377	78. 9. 1
	진 일 "	306	2,500	25	625	78. 2. 1
	북성 기계 "	144	97,060	15	14,559	78. 7. 6
	화천 기 공 "	1,004	66,000	30	19,500	78. 12. 15
	신진경 금속 "	20	1,000	50	500	78. 4. 1
	동신강전사 "	50	1,728	40	6,912	78. 3. 1
	금성 기계 "	21	1,960	30	588	78. 6. 1
	남선선반 "	96	55,594	30	16,678	78. 9. 1
충 남 지 부	특수 금속 "	200	1,260	40	504	78. 1. 5
	중앙 공업 "	83	1,800	52.7	948	78. 1. 20
새한자동차지부		3,711	70,022	3.5%	25,179	78. 3. 1
기아 산업 "		(4,714)	1,991	39.5	786	78. 4. 1
	소 하 리 "	2,280	2,000	40	800	78. 4. 1
	동우정기 "	428	1,814	40	725	78. 4. 1
	대서산업 "	258	1,990	40	796	78. 4. 1

사용자 주장율	타결율 (%)	인상 차액	타결 년월일	인상후 기본급	인상 적용시기	합의방법		
						노사 합의	조정 합의	직권 조정
25	30	599		2,597	78. 3. 1	0		
20	25	530		2,648	78. 3. 1	0		
32	33.18	370		1,487	78. 6. 1	0		
30	30	570	78. 10. 20	2,470	78. 10 .	0		
	25	377	79. 9. 1	1,887	78. 9. 1	0		
20	8	200	-	2,700	78. 9. 1	0		
10	10	9,706	78. 8. 1	106,766		0		
20	25	16,250	78. 2. 1	81,250	78. 2. 1	0		
20	40	400	78. 4. 1	1,400	78. 4. 1	0		
20	25	432	78. 3. 1	2,160	78. 3. 1	0		
20	20	392	78. 8. 1	2,352	78. 11	0		
15	20	11,118	78. 9. 20	66,712	78. 10	0		
20	30	378	78. 1. 20	1,800		0		
27	35	630	78. 1. 20	2,430	78. 10	0		
18	22	15,404	78. 5. 6	85,426	78. 5. 1	0		
18	25	497	78. 4. 1	2,488	78. 4. 1	0		
18	25	500	"	2,500	"	0		
18	25	460	"	2,274	"	0		
18	25	497	"	2,487	"	0		

지 부 명	분 회 명	적 용 조 합 원 수	인 상 전 기 본 급	인 상 요 구 율	인 상 요 구 액	인 상 요 구 년 월 일
	기 아 기 공 분 회	532	1,830	40	732	78. 4. 1
	기 아 기 연 "	497	1,938	35	678	78. 5. 3
	시 흥 직 장 "	401	2,192	40	876	78. 4. 1
	서 진 산 업 "	318	2,270	40	908	"
전 남 지 부	아세아자동차 "	1,112	49,766	48.9	24,335	78. 3. 1
강 원 정 비		660	38,400	85	32,640	78. 2. 25
경 기 정 비		1,104	56,566	48	27,151	78. 2. 14
전 남 지 부	정비분회 "	575	36,700	35	12,845	78. 3. 1
남서울 "	서울차제 "	751	58,532	40	23,412	77. 12. 20
	동양기계 "	725	1,960	30	588	78. 2. 24
	중앙기계 "	115	42,555			78. 2. 10 8. 20
	신진벨브 "	145	1,772	49.1 25		77. 12. 14 78. 10. 10
경 북 지 부	평화기계 "	815	44,730	35	15,655	78. 3. 10
	대철기계 "	191	50,126	45	22,556	78. 10.
	오대금속 "	100	45,867	40	18,346	78. 3.
	유창산업 "	121	39,871	40	15,948	78. 3.
	세명기업 "	134	34,979	40	13,991	78. 9.
	평화크레치 "	435	44,735	40	17,894	78. 9.
	삼경산업 "	29	34,508	50	17,254	78. 10.

사용자 주장을	타결율 (%)	인상 차액	타결 년월일	인상후 기본급	인상 적용시기	합의방법		
						노사 합의	조정 합의	직권 조정
18	25	556	78. 4. 1	2,386	78. 4. 1	0		
25	32	630	78. 5. 3	2,568	78. 5. 3	0		
18	25	520	78. 4. 1	2,712	78. 4. 1	0		
18	25	567	"	2,837	"	0		
19.3	29.6	14,730	78. 3. 1	64,496	78. 3. 1	0		
20	30	11,520	78. 4. 25	49,920	78. 4. 1	0		
20	33	18,666	78. 3. 27	75,232	78. 3. 1	0		
25	32	11,744	78. 3. 20	48,444	78. 3. 1	0		
15	32	18,730	78. 3. 20	77,262	78. 1. 1 ^{소급}	0		
20	25	490	78. 3. 24	2,450		0		
	23.7	10,111	78. 3. 2 9. 1	52,666		0		
	52.2	476 450	78. 4. 3 11.	2,698	78. 3. 10	0		
30	35	15,655	78. 3. 10	60,385	78. 3. 10	0		
30	43.7	21,905	78. 10.	72,031	78. 10.	0		
20	35	16,053	78. 3.	61,920	78. 3.	0		
20	35	13,954	78. 3.	53,825	78. 3.	0		
25	37	12,942	78. 9.	47,921	78. 9.	0		
25	39	17,447	78. 9	62,182	78. 9.	0		
30	40	13,803	78. 10	48,311	78. 10	0		

지 부 명	분 회 명	적 용 조 합 원 수	인 상 전 기 본 급	인 상 요 구 율	인 상 요 구 액	인 상 요 구 년 월 일
	대 원 공업 분 회	25	35,400	40	14,160	78. 4.
	삼 영 공업 "	75	45,352	50	22,676	78.10.
	동 진 산업 "	88	49,528	40	19,811	78.10.
	평 화 오 일 셸 "	122	58,955	20	11,791	78. 10.
부 산 지 부	부 산 기 업 "	86	54,840	47.27	25,922	78. 1.31
	대 성 사 "	66	1,799	42.35	762	78. 4.24
남 서울 지 부	진 아 산 업 "	185	70,342	47	33,060	78. 4. 1
< 전 기 전 자 분 과 >						
금 성 사 지 부		9,256	40,297	55.4	22,324	78. 3.29
웨 어 차 일 드 지 부		2,295	53,156	42.2	22,431	78. 4.20
금 성 통 신 지 부		2,513	49,109	49	24,063	78. 3. 1
금 성 전 선 지 부		2,010	63,235	30	90,426	78. 3. 1
시 그 베 텍 스 "		2,756	39,937	37.5	14,976	78. 5.10
대 한 전 선 "	인 천 전 기 "	1,876	1,246	56	697	78. 5.17
금 성 알 프 스 "		2,184	33,670	54.5	18,350	78. 4.
금 성 전 기 "		1,892	39,000	35	20,670	78. 5. 1
호 남 전 기 "		1,839	31,500	55	17,325	78.12.26
고 미 반 도 체 "		816	848	62	539	78. 4.

사용자 주 장 율	타 결 율 (%)	인 상 차 액	타 결 년 월 일	인상 후 기본급	인 상 적 용 시 기	합 의 방 법		
						노 사 합 의	조 정 합 의	직 권 조 정
20	30	10,620	78. 4.	46,020	78. 4.	0		
30	49	22,223	78. 10.	67,575	78. 10.	0		
30	40	19,811	78. 10.	69,339	78. 10.	0		
10	20	11,791	78. 10.	70,746	78. 10.	0		
20	23	12,838	78. 9. 1	67,638	78. 9. 1	0		
25	30	540		2,339	78. 5. 1	0		
25	32	22,509	78. 3. 15	92,851	78. 1. 1	0		
33	35	14,103	78. 5. 9	54,400	78. 5.	0		
18	26	13,820	78. 5. 8	66,976	78. 5. 1	0		
30	33	16,205	78. 4.	65,314	78. 5. 1	0		
30	33.3	21,057	78. 4.	84,292	78. 5. 1	0		
20	25	9,984	78. 7. 6	49,921		0		
26	34	423	78. 6. 24	1,669	78. 6. 1	0		
29	35	11,784	78. 5.	45,454	78. 5. 1	0		
30	33	12,870	78. 4. 20	51,870	78. 5. 1	0		
24.9	24.9	7,843	78. 2. 28	39,343	78. 1. 1	0		
12.8	25	217	78. 5.	1,130	78. 6.	0		

지 부 명	분 회 명	적 용 조 합 원 수	인 상 전 기 본 급	인 상 요 구 율	인 상 요 구 액	인 상 요 구 년 월 일
콘트롤메이타 지부		876	2,026	45	578	78.11.
남 성 "		430	960	25	240	79. 2. 1
금성 계 전 "		962	1,300	49.7	646	78. 5. 1
동남 전 기 "		473	897	81	726	78. 3. 1
효성중공업 "		1,439	53,000	33	17,490	78. 1. 1
직 할	한일 전기 분회	254	870	15	130	78. 8. 11
남 서 울 지 부	서 통 전 자 "	621	1,300	30	390	78. 6. 28
	한 국 마 벨 "	800	1,930	35	675	78. 2. 10
	금 강 전 선 "	117	1,377	59.5	819	78. 4. 1
	세 진 전 자 "	400	1,127	48.6	548	78. 4. 10
경 기 지 부	이 천 전 기 "	1,100	57,985	25	14,496	78. 9.
	화 신 전 기 "	904	1,712	20	342	78.10.11
	한 세 열 기 "	74	76,000	25	19,000	78. 8. 28
	서 음 전 자 "	280	30,000	47.49	14,247	78. 6.
	국 제 전 선 "	425	1,557	47.8	744	78. 3. 15
	대 성 전 선 "	120	53,800	30	16,140	79. 1.
경 북 지 부	우 주 열 기 "	154	39,168	40	15,667	78. 9.
부 산 지 부	문 화 통 신 "	82	1,078	49.3	531	78. 1. 31
	제 일 유 기 "	567	41,931	40	16,772	78. 5. 10

사용자 주장율	타결율 (%)	인상 차액	타결 년월일	인상후 기본급	인상 적용시기	합 의 방 법		
						노사 합의	조정 합의	직권 조정
20	26	334	79. 1. 19	2,553	78. 12. 21	0		
	25	240		1,200	79. 2. 1	0		
30	32	416	78. 5. 12	1,716	78. 3. 1	0		
48.4	53.14	476	78. 5. 23 7. 18	1,373	78. 4. 1 8. 1	0		
25	29	15,370	78. 1. 15	68,370	78. 1. 1	0		
10	12	104	78. 9. 2	974	78. 9. 5	0		
	10	130	78. 7. 15	1,430	78. 7.	0		
17	27.8	536	78. 3. 15	2,466	78. 3.	0		
25	32	440	78. 5. 1	1,817	78. 4.	0		
23	23	259	78. 4. 26	1,386	78. 5.	0		
12	17	9,857	78. 9.	67,842	78. 10.	0		
10	15	256	78. 10. 10	1,968	78. 11. 1	0		
17	20	15,200	78. 9. 20	91,200	78. 10. 1	0		
	25.56	7,668	78. 12.	37,668	78. 12.	0		
25	38	591	78. 4. 25	2,143	78. 4.	0		
20	25	13,450	79. 1. 20	67,250	79. 2. 5	0		
30	37	14,492	78. 9.	53,660	78. 9.	0		
30	35.32	380		1,458	78. 3. 1	0		
30	16	6,708	78. 5. 20	48,639	78. 5. 12	0		

지 부 명	분 회 명	적용 조합 원수	인상전 기본급	인상 요구율	인상 요구액	인상요구 년 월 일
	동아전기분회	233	1,229	51	626	78. 2.29
경 남 지 부	진해전자 "	215	1,160	30	348	78.12. 1
충 남 지 부	쌍신전기 "	230	800	50	400	78. 4. 1
전 남 지 부	남미전기 "	40	1,000	50	500	78. 2.
충 남 지 부	한국마벨 "	192	800	50	400	78.10.20
< 철 광 분 파 >						
인천제철지부		1,568	49,200	47	23,124	78. 1. 1
일신제강 "		1,372	1,600	40	640	78. 2.17
남 서 울 "	세일엔지니어 "	175	1,100	48.8	536	78. 3. 1 9. 1
경 기 "	신한주철 "	592	2,990	30	897	78. 9. 1
	고려강철 "	93	46,420			
경 북 "	영남주물 "	235	52,800	50	26,400	78.10.
	동아공업 "	190	42,142			78.10.
	대광보일러 "	20	77,400	25	19,350	78. 3.
	동원산업 "	190	54,620	45	24,579	78. 3.
부 산 지 부	부국제강 "	635	1,475	25	368	78. 7.10.
	성광밴드 "	110	1,998	40	799	78. 2.20
	신일금속 "	586	1,686	52.6	886	78. 2.20

사용자 주장율	타결율 (%)	인상 차액	타결 년월일	인상후 기본급	인상 적용시기	합의방법		
						노사 합의	조정 합의	직권 조정
30	33.05	406		1,635	78. 3. 1	0		
10	17	197	78.12. 1	1,357	78.12. 1	0		
23	29	232	78. 5. 1	1,032	78. 5.	0		
30	50		78. 2.20	1,500	78. 3.	0		
22	27.3		78.12. 1	1,018				
	40	19,680	78. 1. 1 8. 1	68,880	78. 1. 1 8. 1	0		
25	27.6	441	78. 3.20	2,041	78. 4. 1	0		
	48	528	78. 4. 1 9. 1	1,628	78. 4. 1 9. 1	0		
10	29	867	78.10.	3,857	78. 9.	0		
	23	10,676	78. 9	57,096	78. 3. 9			0
30	50	26,400	78.10.	79,200	78.10.	0		
45	46.7	19,680	78.10.	61,822	78.10.	0		
10	20	15,480	78. 3.	92,880	78. 3.	0		
40	45	24,579	78. 3.	79,199	78. 3.	0		
20	21	309	78. 8.28	1,784	78. 8. 1	0		
25	30	599		2,597	78. 4. 1	0		
30	31.94	538		2,224	78. 4.26	0		

지 부 명	분 회 명	적 용 조 합 원 수	인 상 전 기본급	인 상 요 구 율	인 상 요 구 액	인 상 요 구 년 월 일
	태 광 밴 드 분 회	74	1,859	49	910	78. 2. 20
	대 동 금 속 "	78	1,556	47.58	745	78. 1. 31
경 남 지 부	신 흥 공 업 "	121	1,380			
전 남 지 부	대 흥 주 물 "	30	2,200	40	880	78. 8. 1
	창 신 주 물 "	30	2,150	40	867	78. 2. 1
충 남 지 부	성 남 주 물 "	103	1,600	55	880	78. 3. 5
< 조선 분과 >						
조선 공 사 지 부			60,905	38	23,143	
대 선 조선		875	62,218	37.2	23,145	78. 2. 1
대 동 조선		818	64,355	38.9	25,034	78. 3. 1
직 할	영 농 특 별 분 회	140	6,000	35	2,100	78. 4. 5
부 산 지 부	조 기 "	751	2,184	34.6	755	78. 2. 18
경 남 지 부	충 무 조 선 "	280	6,000 1,700		1,700 1,850	78. 6. 5
	신 아 조 선 "	143	2,350	30	705	78. 3. 10
	삼 천 포 조 선 "	121	6,000	30	1,800	78. 7. 20
	남 해 "	80	6,000	40	2,400	78. 8. 6
전 남 지 부	여 수 통 합 "	126	55,948	38.8	21,707	78. 2. 1
	여 수 조 선 "	160	5,000	43	2,150	78. 1. 10

사용자 주장율	타결율 (%)	인상 차액	타결 년월일	인상후 기본급	인상 적용시기	합의방법		
						노사 합의	조정 합의	직권 조정
25	30	557		2,416	78. 4. 1	0		
30	32	501		2,067	78. 4. 1	0		
38	20	276		1,656	79. 1. 31	0		
20	30	660	78. 9. 1	2,860	78. 10. 1	0		
20	30	645	78. 2. 21	2,795	78. 3. 1	0		
33	40	640	78. 3. 30	2,240	-	0		
	30	18,271		79,176	78. 2. 1	0		
23.8	23.8	14,807		77,025		0		
15	27.5	17,725	78. 4. 22	82,080	78. 4. 1	0		
33	33.3	2,000	78. 4. 10	8,000	78. 4. 30	0		
23	25	546	78. 2. 28	2,730	78. 1. 1	0		
25 17.7	30 17.7	1,800 300	78. 7. 10	7,800 2,000	78. 7. 10			
20	25	587	78. 5. 12	2,937	78. 4.	0		
25	30	1,800	78. 7. 31	7,800	78. 8. 16	0		
20	30	1,800	78. 8. 16	7,800	78. 9. 1	0		
25	30	16,784	78. 3. 24	72,732	78. 3. 1			
20	30	1,500	78. 3. 20	6,500	78. 4. 1	0		

지 부 명	분 회 명	적 용 조 합 원 수	인 상 전 기 본 급	인 상 요 구 율	인 상 요 구 액	인 상 요 구 년 월 일
< 비 철 금 속 >						
동 양 강 철 지 부		527	52,320	60.4	31,601	78. 3. 15
세 신 실 업 "		1,020	63,640	20	12,728	78. 12. 23
경 기 "	한 영 알 미 농 분 회	498	32,640	42	13,708	78. 3. 25
	새 한 요 업 "	59	2,040	20	408	78. 6.
	대 창 공 업 "	45	2,200	30	660	78. 9.
	백 양 스 테 레 스 "	162	24,000	40	9,600	78. 10.
경 북 지 부	조 광 "	301	44,328	40	17,728	78. 7.
	삼 립 "	409	31,513	60	18,907	78. 3.
	협 립 "	266	33,246	45	14,960	78. 6.
	남 선 "	1,006	39,732	40	15,892	78. 4.
	선 광 "	58	45,714	40	18,287	78. 10.
	선 학 "	252	42,373	40	16,949	78. 10.
	경 창 "	261	39,797	40	15,918	78. 3.
	신 광 "	270	42,806	35	14,982	78. 10.
	풍 광 "	128	40,865	40	22,884	78. 3.
	삼 광 "	115	45,898	40	18,359	78. 10.
	대 양 "	61	35,914	35	12,569	78. 10.
	삼 성 제 첩 "	320	40,872	40	16,348	78. 1.

사 용 자 주 장 을	타결율 (%)	인 상 차 액	타 결 년 월 일	인 상 후 기 본 급	인 상 적용 시기	합 의 방 법		
						노사 합의	조정 합의	직권 조정
30	35	18,312	78. 4. 6	70,632	78. 4.	0		
15	15	9,546		73,186	78. 1. 1 7. 1	0		
25	32	10,444	78. 4. 18	43,084	78. 3.	0		
10	10.65	217	78. 5.	2,257	78. 10.	0		
15	20	440	78. 10.	2,640	78. 11.	0		
35	37.5	9,000	78. 10.	33,000	78. 10.	0		
20	36 20.2	28,135		72,463	78. 7. 79. 1.	0		
40	60	18,907	78. 3.	50,420	78. 3.	0		
30	40	13,298	78. 6.	46,544	78. 6.	0		
20	34	13,508	78. 4.	53,240	78. 4.	0		
25	30	13,715	78. 10.	59,433	78. 10.	0		
20	35	14,830	78. 10	57,203	78. 10.	0		
20	33	13,133	78. 3.	52,930	78. 3.	0		
30	35	14,982	78. 11.	57,788	78. 10.	0		
30	40	16,346	78. 3.	57,211	78. 3.	0		
20	40	18,359	78. 10.	64,257	78. 10.	0		
20	34	12,210	78. 10.	48,124	78. 10.	0		
25	35	14,305	78. 1.	55,177	78. 3.	0		

사용자 주장율	타결율 (%)	인상 차액	타결 년월일	인상후 기본급	인상 적용시기	합의방법		
						노사 합의	조정 합의	직권 조정
30	44	23,383	78.10	76,528	78.10.	0		
20	30	15,351	78.10	66,524	78.10.	0		
30	40	14,857	78.10	52,000	78.10.	0		
25	30	397		1,728	78.1.1	0		
20	25	231		1,158	78.3.1	0		
30	33.6	322	78.1	1,282	78.3.1	0		
33	35	1,015	79.1.19	3,915	78.12.31	0		
5	10	125	78.12.30	1,375		0		
20	32.6	447	78.3.28	1,818	78.4.	0		
5	8	147	78.9.30	1,963	78.9.	0		
18	30	18,300	78.4.17	79,300	78.3.1	0		
25	27	211	78.3.25	993	78.3.1	0		
20	35	19,076	78.5	73,579	78.5.	0		
30	37	467		1,730	78.3.1	0		